

軍

Military History

史

2022. 12. 제125호

- 6·25전쟁 낙동강 방어 시 킨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Kean)의 역습 작전에 관한 고찰
-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찰
- 한국광복군 출신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와 역할
-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진포대첩
- 동맹 결속의 공고함과 느슨함 사이
 - ‘파이프 아이즈(Five Eyes)’ 정보동맹의 역사가 갖는 함의 –
- ‘선승이후구전’을 통한 미드웨이·알류산 전역계획 재조명
 - 『손자병법』 군형(軍形)편의 ‘전장의 선택’과 ‘병법의 다섯 단계’를 중심으로 –

[서 평]

- 6분법에 의한 이순신의 군사사상 고찰
 - 김유석 지음, 『군사사상 총론』 (황금알, 2022) –
- 6·25전쟁기 군수 분야 연구의 전환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상호 지음),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 –

[교육소개]

- 군사(軍史)업무 실무자 대상 직무교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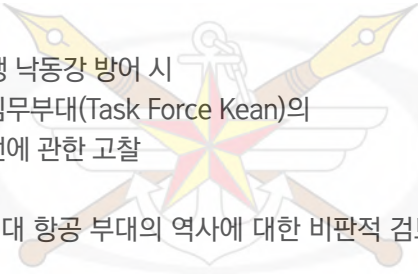
軍史

第125號
2022. 12.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Contents | 2022. 12. 제125호

- 
- 1 ▶ 6·25전쟁 낙동강 방어 시
킨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Kean)의
역습 작전에 관한 고찰 강지현
- 47 ▶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찰 이지원
- 81 ▶ 한국광복군 출신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와 역할 김민호
- 131 ▶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진포대첩 임형수
- 169 ▶ 동맹 결속의 공고함과 느슨함 사이 송민선,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동맹의 역사가 석영달
갖는 함의 -
- 223 ▶ ‘선승이후구전’을 통한 미드웨이·알류산 김동은
전역계획 재조명
- 『손자병법』 군형(軍形)편의 ‘전장의 선택’과
‘병법의 다섯 단계’를 중심으로 -



軍史



Contents | 2022. 12. 제125호

[서 평]

- 283 ▶ 6분법에 의한 이순신의 군사사상 고찰 배일수
- 김유석 지음, 『군사사상 총론』 (황금알, 2022) -
- 295 ▶ 6·25전쟁기 군수 분야 연구의 전환점 박성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상호 지음),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 -

[교육소개]

- 311 ▶ 군사(軍史)업무 실무자 대상 직무교육 이미숙,
김드보라,
홍석조

[부 록]

- 319 ▶ 연구소 동정
- 323 ▶ 신간 도서 소개
- 324 ▶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안내
- 326 ▶ 『軍史』誌 投稿案内
- 329 ▶ 연구윤리예규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1-46
<https://doi.org/10.29212/mh.2022..12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낙동강 방어 시 킨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Kean)의 역습 작전에 관한 고찰

강지현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 
- 목 차
1. 서론
 2.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배경과 전개 과정
 3. 계획수립과 작전준비 과정 분석
 4. 작전실시 과정 분석
 5.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1950년 낙동강 방어작전 기간 중, 8월 5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되었던 킨 특수임무부대(Task Force Kean)의 역습 작전을 분석한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은 6·25전쟁 초기 계속된 지연 작전에서 최초의 사단급 역습 작전이라는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23,000여 명에 이르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었음에도

약 7,500명의 북한군을 상대로 한 역습 작전에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작전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다루고 있으며, 작전의 결과로 얻은 일부의 성과에만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의 교훈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 작전 수행과정을 중심으로 계획수립, 작전준비, 그리고 작전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6·25전쟁 당시 미 제25보병사단의 정기 작전 보고서와 전투 일지, 그리고 지휘보고서를 중점적으로 활용한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었으나 치열한 전선 상황으로 인해 상대할 적과 주어진 임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로 각 부대를 편성했으며, 예행연습과 사전 정찰 등 작전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다. 작전을 진행할 때에는 후방지역에 침투한 북한군의 위협을 제거하지 못해서 후방지역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격 부대의 진출이 지연되어 공격 기세가 유지되지 않았고, 일부 지휘관의 지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대응들로 인해 결국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주제어 : 킨 특수임무부대, 역습 작전, 미 제25보병사단,
미 제1해병여단, 미 제5연대전투단

(원고투고일 : 2022. 7. 6, 심사수정일 : 2022. 11. 8, 게재확정일 : 2022. 11. 25.)

1. 서 론

6·25전쟁 초기 낙동강 방어선 형성 시기에 북한군은 광복절인 1950년 8월 15일까지 부산 점령을 목표로 하여 8월 공세를 구상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이중 양의 포위를 하여 대구를 점령한 후, 대구에서의 정면 공격과 마산과 포항 방향으로 진행되는 양의 포위를 계획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은 낙동강 전 전선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며, 특히 마산 지역은 북한군 제105전차사단 83기계화연대를 배속받아 증강된 북한군 6사단이 공격을 담당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Walton Walker) 중장은 북한군의 진출을 막기 위한 반격을 실시하기 위해 1950년 8월 1일 미 제25보병사단을 마산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미 8군 사령관은 북한군 예비대가 마산 지역으로 전환되도록 하여 대구 지역에 집중되는 북한군의 위협을 경감시키기 위해 진주를 목표로 한 반격 작전을 결심했다.¹⁾ 이를 위해 미 제25사단에 미 제5연대전투단, 미 제1임시해병여단, 미 제87전차중대, 미 제89중전차(M4A3)대대, 미 제1해병전차(M26 Pershing)대대, 한국군(민부대²⁾, 해병대³⁾,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제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 275-278.

2) 당시 전신폭격검열관 보좌관이었던 민기식(閔機植) 대령의 부대이다. 1950년 8월 20일 민부대와 독립유격 제 1·2대대를 기간으로 제7사단이 재창설된 것으로 보아 민부대는 대대급 규모로 추정된다. 민기식 대령은 1950년 9월 10일 대구방위사령관에 임명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 59-61.

3) 국군 해병대 김성은(金聖恩) 중령의 부대이다. 1950년 8월 1일 서남지구 전투사령관 이응준(李應俊) 소장의 명령에 따라 봉암리 일대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8월 6일 진동리의 미 제27연대에 배속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경찰 중대⁴⁾ 등을 배속하여 미 제25보병사단장 킨(William B. Kean) 소장의 이름을 딴 킨 특수임무부대⁵⁾(Task Force Kean)를 편성하였다.⁶⁾ 1950년 8월 7일 반격을 개시한 킨 특수임무부대는 미 8군 사령관 명에 따라 역습 작전⁷⁾을 중지한 1950년 8월 13일까지 북한군 제6사단과 7일 동안 전투를 전개했다.

작전 결과 북한군 제6사단은 병력 4,000~5,000명, 전차 13대의 손실을 입어 부대를 재편성하게 되었다.⁸⁾ 아군은 사천과 진주 점령에 실패하고, 북한군의 예비대를 마산 지역으로 전환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작전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하지

pp. 287-288.

4) 2명의 장교와 123명의 사병으로 구성된 한국군 제3임시보안경찰중대이다. 미 제8군의 명령에 따라 사단에 배속되었고 미 제25사단 헌병 중대로 배속되었다. 이들은 필수 시설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고, 주 보급로를 순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War Diary,'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0, p. 18.

5) 특수임무부대(Task Force)는 특정 임무 또는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단일 지휘관 하에 잠정적으로 구성된 부대이다. 합동군사대학교,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서울: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리처, 2021), p. 356.

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7)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을 파쇄 공격(Spoiling Attack), 역공격(Counterblow), 반격(Counter-Offensive) 혹은 공격(Attack)이라고 하는 등 작전을 정의하는 데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는 작전의 목표를 명확하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목표는 상실한 아군 영토인 진주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미 제25사단 정기 작전 보고서(Periodic Operation Reports)에서도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을 공격(attack)과 역습(counter-attack)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군 교범 중 미 작전 용어집(operational terms)과 합동참모본부에서 발간한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나온 역습의 정의를 살펴보면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은 역습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역습 작전은 공격 작전의 한 형태이므로 공격 작전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을 역습 작전이라고 명시한다.

8) Ibid., p. 299.

만 이 작전을 통해 마산 지역의 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미군은 공격 작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즉, 킨 특수임무부대의 반격 작전은 6·25전쟁 초기 계속된 지연 작전에서 최초의 사단급 역습 작전이라는 큰 의의가 있었다.⁹⁾

하지만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킨 특수임무부대가 북한군 제6사단 병력 약 4,000명을 격멸하고, 작전의 결과 미군이 공격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지만, 최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강력한 화력지원을 받는 20,000여 명의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었음에도 작전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따라서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의 교훈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공간사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에 대한 배경, 편성과 기동계획, 전투 경과를 다루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없다. 예를 들어 부대 편성에 대해서도 미 제25사단에 미 제5연대전투단, 미 제1해병여단, 미 제89중전차(M4A3)대대, 미 해병 제1전차대대를 배속하여 편성했다고 기본적인 편성만 기록되어 있으며 부대별로 어떤 부대를 배속받았는지, 지휘 및 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¹⁰⁾ 온창일의 『한민족 전쟁사』는 국방부 공간사와 동일하게 기본적인 편성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일자별 작전 경과 및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히 다루고 있고, 부대별 구체적인 실시사항과 예하 부대에 하달한 명령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¹¹⁾ 맥엘빈(Kyle D. McElveen)의 “1950년 6월

9)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2013), p. 73.

1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제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11)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 (파주: 지문당, 2014), p. 679.

부터 10월까지의 미 제25사단의 계획적인 성공(Blueprinting Success: The Tropic Lightning in Korea, June to October) 1950”에서는 킨 특수임무부대가 역습 작전을 통해 북한군 관측에 쉬운 진주 동쪽의 고지를 점령하여 미 제8군에게 유리한 작전 환경을 조성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역습 작전의 결과가 미 제8군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작전을 실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다.¹²⁾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역습 작전을 위해 편성된 부대는 어떤 부대인지만 제시되었을 뿐, 부대를 편성할 때 어떤 요소가 고려되었고 이러한 부대 편성이 작전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단순한 작전 경과와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작전을 실시하는 동안 부대가 조치한 사항들이 작전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은 작전의 결과로 얻은 일부의 성과에만 주목하고 있고, 작전 목적 달성에 실패한 작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문헌 분석을 사용한다. 문헌은 ‘미 제25보병사단 정기 작전 보고서(Periodic Operation Reports)’, ‘미 제25보병사단 전쟁 일지(War Diary)’, ‘미 제25보병사단 지휘보고서(Command Report)’, 『미 보병연대 교범(FM 7-40: Infantry Regiment)』, 『미 보병사단 교범(FM 7-100: Infantry Division)』 등이다. 미 25사단 지휘보고서를 통해 킨 특수임무부대의 부대 편성에 대해 이해한다. 미 25사단 정기 작전 보고서와 예하 부대별 전투 일지를 통해 작전 준비와 작전 실시 과정

12) MAJ Kyle D. McElveen, “Blueprinting Success: The Tropic Lightning in Korea, June to October 1950”,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May 2019), pp. 37-38.

이 작전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당시 미 보병연대, 보병사단 교범을 통해 부대 편성 시 고려 요소들과 작전 수행이 교리적으로 타당했는지도 검토해본다. 본 연구의 범위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이 시작된 1950년 8월 7일부터 미 8군 명령에 따라 역습 작전이 종료된 13일까지이다.

본 연구는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의 교훈에 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킨 특수임무부대가 실시한 역습 작전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먼저 살펴본다. 다음으로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의 교훈에 대해 계획 수립 과정, 작전 준비 과정, 그리고 작전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특수임무부대가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배경과 전개 과정

가. 작전 배경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중장은 북한의 공세를 저지하고 미군 증원부대의 관문이자 전략적 거점인 부산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을 따라 연결된 지역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결정하였다.¹³⁾ 그중에서도 낙동강 서부 및 남부 지역은 미 제8군의 직접 통제를 받는 미 제24사단과 미 제25사단이 각각 창녕-영산, 마산 지역을 담당했다. 미 제25사단의 작전 책임 지역인 마산은 육로·철로·해로 등 교통이 편리하였다. 철도는 진주와 삼랑진을 연결하는 진주선과 창원과 진해를 연결하는 지선(支線)이 있었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3.

다. 육로로는 진주에서 마산에 이르는 철도 주변의 도로와 사천(泗川)-고성(固城)-진동(鎭東)을 거쳐 마산에 이르는 우회도로가 있었다. 또 마산에서 부산에 이르는 도로는 창원-부산을 연결하는 도로와 진해-부산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남해안의 교통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부산 서쪽의 관문으로서 피아(彼我)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¹⁴⁾

북한 지도부는 8월 15일까지 낙동강 방어선을 돌파하여 부산을 점령한 뒤 서울에서 8·15광복 제5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남반부 무력 해방’의 축하 행사를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군은 8월 공세를 통해 대구를 점령하여 부산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했다. 북한은 8월 공세 때 13개 사단 가운데 11개 사단을 투입하였으며, 주공을 왜관 일대-대구-부산 축선에 두고 전 전선에서 한미 연합군의 방어 진지를 강력하게 압박했다.¹⁵⁾ 미 제25사단과 대치한 북한군 제6사단은 7월 31일 18:10분에 진주를 점령하였다. 이후 미 제8군의 남측방을 돌파하여 부산을 신속히 점령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마산에 대한 공격을 집중하였다. 8월 초 북한군 제6사단의 병력은 5,000명이었으나, 부산 점령을 위하여 제83모터사이클연대와 T-34전차 25대, 포 36문으로 증강되고, 병력도 7,500명으로 충원되었다.¹⁶⁾

워커 장군은 낙동강선 방어작전에 임하면서 ‘역습만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리라 생각했다. 그는 미 제8군이 낙동강선으로 철수할 때에도 “역습이야말로 방어를 성공시키는 결정적인 요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북한군이 돌파한 곳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습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전투방식을 구사하였다.¹⁷⁾ 이

14) Ibid., pp. 238-239.

15) Ibid., pp. 37-43.

16) Ibid., p. 274.

러한 상황에서 미 제8군은 7월 31일 포로 심문과 무전 감청을 통해 북한군 제6사단이 마산을 거쳐 부산을 점령하기 위해 낙동강 서남 방면으로 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북한군의 8월 공세로 인해 대구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제8군은 상주 남쪽에서 방어 중인 미 제25사단을 마산 방면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명령을 8월 1일 14시에 하달하였다.¹⁸⁾ 또한, 미 제25사단은 8월 2일 미 제5연대전투단을 배속받았고, 8월 3일에는 미 제8군 예비인 미 제1해병여단도 미 제25사단에 합류했다. 미 제25사단은 140km에 달하는 먼 거리를 도보, 자동차, 철도를 이용하여 이동했고 8월 3일 야간에 마산에 도착했다. 미 제8군사령관이 강력한 1개 연대전투단과 군 예비인 해병여단을 마산 지역에 투입한 것은 그만큼 마산 일대의 상황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역습을 통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하고자 했던 미 8군 사령관은 북한군의 주력이 집중되는 대구 정면의 일부 북한군을 남쪽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여 대구 정면의 북한군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을 결심했다. 이에 미 제8군 작전참모부는 2가지 방책을 수립하였고, 그중에 병력과 군수 지원 능력을 고려하여 8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 킨 특수임무부대가 공격을 개시하여 진주까지 진출하는 방책이 선정되었다.¹⁹⁾

킨 특수임무부대 편성은 8월 초 미 제8군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 8월 6일부로 미 제25사단에 미 제5연대전투단과 미 제1해병여단²⁰⁾, 미 제89중전차(M4A3)대대가 배속되었다.²¹⁾ 기존

17) Ibid., pp. 76-79.

18) Ibid., p. 275.

19)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pp. 266-267.

에 마산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미 제29보병연대 1대대는 미 제35연대로, 미 제29보병연대 3대대는 미 제27연대로 배속되어²²⁾ 미 제35연대와 미 제27연대는 3개 대대를 갖추게 되었다. 8월 7일 미 제27연대는 미 제8군의 예비대로 전환되었다. 결론적으로 킨 특수임무부대는 3개의 대대로 완편된 4개의 연대로 구성되었으며, 병력수는 약 23,080명이었다. 이 중에 킨 특수임무부대 구성을 위해 배속된 병력수는 무려 11,026명에 달했다.²³⁾



-
- 20)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War Diary,',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0, p. 19.
- 21)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Bk. 9, Aug. 1950 : War Diaries-Unit Rpts. Aug. 1950, Annex #17, 725th Ord. Co.; Annex #18, 25th Div. Band; Annex #19, 89th Tk. Bn.',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5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82, p. 88.
- 22)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Historical Report; Narrative Report,',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49, p. 16.
- 23) Roy E. Appleman (1992), p. 267.

나. 작전 전개 과정

〈그림 1〉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8월 7일~8월 13일)



* 출처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3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계획은 현 배치선에서 3개 도로로 진주를 탈환하는 것이었다. 북쪽에서는 미 제35연대가 가장 양호한 남해안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중암리에서 무촌리로, 미 제27연대와 교대한 미 제5연대가 진동리-봉암리-무촌리로 진출한 후 협동으로 진주 고개를 공격하며, 미 제1해병여단²⁴⁾이 고성-

사천 간 도로를 따라 진주 남동쪽을 공격하고, 미 제24연대가 서북산 일대로 침투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는 적을 소탕하고 함안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였다.²⁵⁾

8월 7일 6시 30분에 킨 특수임무부대는 공격을 개시했다. 북쪽으로 공격을 진행한 미 제35연대는 8월 8일 최초 목표였던 무촌리 일대를 확보했고, 8월 11일에는 미 제5연대전투단 3대대와 함께 진주 고개를 공격하여 해당 지역을 확보하였다. 중앙으로 공격을 진행한 미 제5연대전투단은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 진동리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을 받아 진출이 지연되었지만, 8월 10일에 봉암리에 도착하였다. 봉암리에 도착한 미 제5연대전투단은 10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보았고, 미 제5연대장의 잘못된 지휘로 인해 봉암리 탈출이 지연되다가 8월 12일 아침이 되어서야 항공기의 지원을 받아 겨우 봉암리를 탈출할 수 있었다. 미 제1해병여단은 미 제5연대전투단과 같이 진동리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격에 진출이 지연되었으나 이를 격퇴하고 8월 9일 고성 일대로 공격을 진행했다. 8월 11일 미 제1해병여단은 고성 일대에 도착했고, 강력한 함재기의 지원을 바탕으로 8월 12일에는 사천 동남쪽 신촌리 일대에 도달하였다.²⁶⁾

8월 11일 미 제8군은 대구 일대에 북한군의 공격이 강화되고, 국군 제3사단이 동해안에서 포위되는 등 전 전선에 걸쳐 상황이 악화되자 예비대를 확보하여 전선을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래서 미 제8군사령관은 킨 특수임무부대의 공격 작전을 중지하고, 예

24) 작전명령 제8호에는 미 제1해병여단에게 명령을 하달하였으나, 고성-사천 일대로 기동한 병력은 미 제1해병여단 예하의 미 제5해병연대이기 때문에 <그림 1>에서는 미 제5해병연대로 부대 명칭을 표기하였다. 미 제1해병여단은 미 제5해병연대 외에도 다른 전투, 지원 부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26) Ibid., pp. 291-299.

비대 확보를 위해 미 제25사단장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했다. “진주 고개와 사천선에 신속히 진출해 이곳을 확보하라. 그리고 민 부대와 김성은 부대는 배속 해제하여 한국군에 복귀시키고, 미 제1해병여단과 미 제5연대전투단도 배속을 해제한다.”²⁷⁾

8월 13일 자정 킨 특수임무부대의 철수 명령에 따라 예하 연대는 서북산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배속 해제된 미 제5연대전투단은 마산으로 철수하였고, 미 해병여단은 낙동강 돌출부 지역으로 이동했다. 킨 특수임무부대는 미 제1해병여단이 이동을 완료하자 8월 16일 미 제8군 명령에 따라 해체되었다.²⁸⁾ 킨 특수임무부대는 7일간의 역습 작전으로 진주를 탈환하고 대구 정면의 적을 유인한다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였으나, 마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큰 기여를 하였다.²⁹⁾

3. 계획수립과 작전준비 과정 분석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군이 차후에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고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준다. 따라서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을 당시 미 교범에 명시된 특수임무부대의 목적과 작전수행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전수행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특수임무부대는 특정한 작전이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단

27) Ibid., p. 296.

28) Ibid., p. 298.

29) Ibid., pp. 298-299.

일 지휘관의 지휘하에 일시적으로 편성된 부대를 의미한다.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성공은 어떤 부대가 편성되는지, 그 부대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³⁰⁾ 그리고 특수임무부대는 작전 실시 과정에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향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기동해야 하고, 지휘관은 항상 목표 달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고 불필요한 교전은 회피하며 부대를 지휘를 해야 한다.³¹⁾ 다음으로 작전수행과정은 작전을 수행하는 일련의 순서적인 과정으로서 계획수립, 작전준비, 작전실시,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작전수행과정은 작전요소들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이다.³²⁾ 그러므로 각 작전수행과정별로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을 분석하는 것은 킨 특수임무부대가 왜 작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고, 그것이 주는 교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데에 도움을 준다.

가. 임무와 피·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했던 부대 편성

계획수립은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작전계획을 만들어서 노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임무분석부터 시작하여 방책을 수립, 분석,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계획완성 단계로 진행된다.³³⁾ 계획수립 단계를 거치면서 많은 고려요소를 반영한 작전 계획에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30) Department of the Army, FM 7-40 1950: Infantry Regimen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50) pp. 219-220.

31) Ibid., p. 228.

32) 육군본부, 『야전교범 기준-3-1 전술』(계룡: 육군본부, 2017), p. 58.

33) Ibid., pp. 58-59.

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 수행의 주체인 부대를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부대 편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부대 편성은 미 8군에서 역습 작전을 위해 하달한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³⁴⁾에 나와 있다. 작전명령 제8호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임무, 예하 부대 과업, 북한군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록을 통해 화력지원 관계 등을 명시하였다.

특수임무부대의 구성은 임무, 지형, 아군 상황, 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 보병사단 교범에 나와 있다.³⁵⁾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요소들 중 지형을 제외한 임무, 아군 상황, 적 상황을 중점으로 부대 편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당시 킨 특수임무부대가 작전을 수행한 지형은 부대별로 크게 상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형이라는 요소는 부대 편성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대별 편성을 정리할 때에는 전차, 포병, 항공 부대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는 위 부대들은 강력한 화력지원수단으로서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병과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들을 구분 지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34)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p. 96.

35) Department of the Army, FM 7-100 1958: Infantry Divis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58) p. 43.

〈표 1〉 미 제25보병사단 사령부 편성

구분	소속 부대	비 고
직할부대	제25사단 본부 · 수색 · 보충 · 통신 · 헌병 · 보수 중대, 의무대대(-), 제65전투공병대대(-)	-
포병부대	제25사단 제90야전포병대대(-) (155mm 곡사포)	사단 일반 지원, 제555야전포병대대 화력증원
전차부대	제89중전차대대	사단 일반지원
항공부대	-	-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96.

임무 측면에서 각 연대는 모두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진행했기 때문에 미 제25사단 포병여단에서 가지고 있었던 4개의 포병대대 중 3개 포병대대를 예하 연대에 배속해준 것은 적절했다. 정확한 포 사격을 위한 포병의 측지(artillery survey)³⁶⁾ 정보를 제공해주는 본 부가 진동리 일대에만 설치되고 진동리 일대에 있는 부대에만 측지 정보가 제공되었다.³⁷⁾ 따라서 각 연대의 포병대대는 자체적으로 측지를 통한 포 사격을 했고, 이로 인해 포병대대들의 협조된 사격이 필요할 때에 오차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제89중전차대대를 사단 일반지원으로 활용한 것은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 실패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 작전에서 제89중전차대대의 임무는 전방에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후방지역에서 침투한 북한군을 격퇴하여 보급로를 지키는 것이었다. 당시

36) 포병의 측지란 사격 요도 상에 기표하고 각 포에 대한 정확한 제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포와 표적을 상대적 수평 및 수직 위치를 충분한 정확도로써 판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군사용어사전, “포병의 측지,” <https://terms.naver.com> (검색일: 2022. 6. 14).

37)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p. 107.

미군 전차들은 T-34 전차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과 신속한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전방 지역에서 전차들이 활용되었다면 작전 성공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차들은 후방지역에서 통상 소대 단위로 보병을 지원했으며, 종종 화력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기도 했다. 제89중전차대대 A중대는 주로 미 제35연대를 지원하였으며, B중대는 미 제24연대를 지원하여 2일간 함안에서 임무를 수행했고 이후 D중대와 교대되었다. C중대는 주로 마산을 보호하며 주보급로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³⁸⁾

방호 측면에서 사단 사령부와 포병대대를 방어해줄 부대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는 전방에 병력을 집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고, 이로 인해 사단 사령부 일대는 작전이 진행될 때 지속해서 북한군의 침투 위협을 받았다. 추후에 민부대가 마산 일대에서 사단 사령부 방어 임무를 맡게 되었지만, 지속적인 북한군의 위협은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표 2〉 미 제24보병연대 편성

구분	소속 부대	비 고
직할부대	제1·2·3 대대, 한국군 충대위·홍 소령 대대 ³⁹⁾ ·김성은 부대 ⁴⁰⁾ , 제77전투공병 중대, 제25사단 제25의무대대 파견대, 제25통신중대 파견대	-
포병부대	제25사단 제159야전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직접 지원
전차부대	-	-
항공부대	-	-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96.

38) 육군기계화학교, 『6·25전쟁 시 기갑부대운용』(계룡: 육군본부, 2009), p. 46.

39) 작전명령 제8호에는 한국군 충대위 대대(Capt CHUNG's Bn, KA), 한국군 홍소령 대대(Maj HONG's Bn, KA)로 명시되어있다. 이들은 8월 7일에 부여된 중암라-함안-진동리 일대 도로 확보 임무를 마치고 마산에 있는 민부대로 합류하여 마산 방어를 담당했다.

40) 8월 6일 하달된 작전명령 제8호에는 미 제5연대전투단에 배속되어 있었으나, 8월 7일에 미 제24연대로 배속되어 마산 일대에서 미 제24연대와 같이 작전을 했기 때문에 미 제24연대 예하 부대로 명시했다.

미 제24연대는 8월 7일에 하달된 작전 지시⁴¹⁾에 의해 마산 서쪽에서 함안, 진동리에 이르는 도로를 확보한 뒤 중암리-진동면에 이르는 도로를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다. 이는 미 제35연대와 미 제5연대전투단 사이에 있는 서북산 일대를 확보하고, 침투하는 적으로부터 후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작전에는 한국군 충대위 대대가 지원한 미 제24연대 3대대와 홍소령 대대가 지원한 미 제24연대 1, 2대대가 같이 임무를 수행했으며, 마산 지역에서는 김성은 부대와 민부대도 함께 임무에 참여했다. 미 제25사단 헌병 중대가 통제하는 한국군 경찰 중대도 후보급로와 주요 시설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았는데⁴²⁾, 후방 지역 작전에는 주로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임무를 수행했다.

중국군의 기록에는 북한군 제6사단이 미 제25사단을 궤멸시키고, 8월 7일에는 마산에 진입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등⁴³⁾ 마산 지역까지 침투한 북한군의 위협은 상당했다. 미 제24연대는 위에서 살펴본 대로 많은 한국군 부대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후방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실패에 큰 영향을 끼쳤다. 불안정한 후방지역의 상황으로 인해 공격을 진행하려고 이동하던 부대들이 침투한 북한군에 의해 지속해서 피해를 보았고, 이는 공격 부대들의 진출을 지연

41)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7, 8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2, p. 33.

42)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War Diary,',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0, p. 18.

43)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抗美援朝戰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서울: 국방부, 2002), p. 125.

시켰다. 진동리의 남쪽과 북쪽으로 각각 공격을 진행하기로 계획한 미 제1해병여단과 미 제5연대전투단은 진동리 교차로 일대의 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의 공격으로 인해 8월 7일 공격 개시 후 8월 9일까지 진동리 일대에서 진출하지 못했다. 또한, 공격을 진행하는 부대의 일부 병력을 후방으로 전환할 계획을 고려했어야 할 정도로 불안정한 후방지역은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에 지속해서 악영향을 끼쳤다.

미 제24연대는 8월 6일 밤 주요 지역에서 보급로를 차단하고 진동리 주변의 감제 고지를 장악하여 이 지역을 소탕해야 했지만, 북한군의 공격 때문에 함안까지 철수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미 제24연대장이 화이트(Horton V. White) 대령에서 참페니(Arthur S. Champeny) 대령으로 교체되었다.⁴⁴⁾ 이처럼 미 제24연대는 후방지역에 침투한 다수의 북한군과 그들의 강한 전투력, 그리고 서북산을 포함한 험준한 고지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후방지역의 안정은 확보되지 않았다.⁴⁵⁾

44) 온창일 (2014), p. 675.

45) Ibid., p. 677.

〈표 3〉 미 제35보병연대 편성

구분	소속 부대	비고
직할부대	제 1 · 2 · 3 대대, 한국군 독립중대, 제25사단 제25의무대대, 제65전투공병대대, 제25통신중대 파견대	-
포병부대	제25사단 제64야전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제90야전포병대대 C포대(155mm 곡사포)	직접 지원
전차부대	제25사단 제79전차대대 A중대 ⁴⁶⁾	-
항공부대	-	-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96.

미 제35연대가 부여받은 임무는 작전지역 내 북쪽에 있는 남해안 도로 일대를 확보하며 진주 방향으로 공격을 진행하고, 무촌리에서 미 제5연대와 합류하여 협동으로 진주 고개를 공격하는 것이었다.⁴⁷⁾ 진주 일대는 북한군 제6사단이 전개되어 있었고, 북한군 제6사단 북쪽에는 북한군 제4사단이 있었다. 작전명령 8호의 정보 부록에서는 미 제25사단이 작전을 진행하는 동안 북한군 제4사단이 빠르게 미 제25사단 방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나 정해진 계획대로 작전을 진행하면 북한군 제4사단은 아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⁴⁸⁾

그래서 미 제25사단은 북한군 제4사단과 가장 근접해있는 미

46) 원래 일본에 주둔하던 미 제25사단은 전차대대가 편제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감소 편성되어 M-24 경전차 1개 중대(14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경전차 1개 중대는 전투 중 대부분이 격파되어 후에 제89중전차대대로 배속되었다. 육군기계화학교 (2009), pp. 43-45.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48)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군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p. 102.

제35보병연대에 혹시 모를 교전 가능성을 대비하고, 신속하게 작전을 진행하기 위하여 미 제35보병연대에 강력한 전투력과 화력을 집중했다. 이를 위해 사단에 편성된 1개 전차 중대, 155mm 곡사포 1개 포대, 방공포병 1개 소대를 지원해주고, 사단을 일반지원하는 미 제89중전차대대 A중대도 35연대를 주로 지원하였다.⁴⁹⁾ 하지만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이 진행될 때 북한군 제4사단은 북한군 제6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산 방면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또한, 미 제35연대가 상대한 적의 저항은 예상보다 미비했고, 그로 인해 미 제35연대는 공격을 계획한 연대 중 유일하게 계획대로 최초 목표에 도달했다.

미 제35연대가 상대해야할 적에 비해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전투력은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실패에 영향을 끼쳤다. 한쪽 부대에 집중된 전투력은 다른 부대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미 제35연대에 전투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격을 진행했던 미 제5연대 전투단은 포병대대(-) 규모의 155밀리 화력 증원 외에는 추가적인 부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로 인해 8월 10일 미 제5연대전투단이 봉암리 계곡에서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큰 피해를 보았다. 북한군 전차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미 제5연대전투단의 보병대대와 포병대대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특히 105밀리 곡사포와 155밀리 곡사포도 많은 수가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미 제5연대전투단의 무촌리 진출은 지연되었다. 결국,

49)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 Fif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Book 9, Aug. 1950 : Annex #13, QM Co.; Annex #14, 25th Repl. Co.; Annex #15, 25th MP Co.; Annex #16, Co. A 79th TK Bn.; Annex 17, 725th Ord. Co.; Annex 18, 25th Div. Band; Annex 19, 89th TK Bn.",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5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정리번호 No. 040132186, p. 90.

무촌리 일대에서 계획했던 미 제5연대전투단과 미 제35연대의 협동공격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킨 특수임무 부대는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표 4〉 미 제5보병연대전투단 편성

구분	소속 부대	비고
직할부대	제 1 · 2 · 3 대대, 제72전투공병중대, 제5연대 의무중대	
포병부대	제555야전포병대대 (105mm 곡사포)	직접 지원 제90야전포병대대(-) (155mm 곡사포) 화력 증원
전차부대	제5연대 전차중대 ⁵⁰⁾ (M-26 퍼싱)	-
항공부대	-	-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96.

미 제5연대전투단이 부여받은 임무는 작전지역 내 중앙에 있는 진동리-봉암리-무촌리 도로를 따라 공격을 진행하고, 무촌리에서 미 제35연대와 협동으로 진주 고개를 공격하여 진주에서 남강에 이르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⁵¹⁾ 미 제5연대전투단은 1개 전차 중대와 1개 포병대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단 제 90야전포병대대(-)로부터 화력 증원을 받았다. 무촌리에서 미 제5연대전투단과 합류한 후에 진주 고개를 협동으로 공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충분히 단독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50) 5연대전투단은 8072전차중대 M-26 퍼싱 전차 14대와 작전을 수행했다.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간 미군은 제89중전차대대, 해병 제1차전차대대, 5연대전투단 전차중대를 포함하여 총 전차 101대를 투입하였다. 육군기체화학교 (2009), pp. 49-53.

5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 제5연대 전투단은 봉암리 일대에서 예상하지 못한 적의 강력한 공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았고, 그로 인해 무촌리 진출이 지연되었다. 또한, 미 제5연대 전투단은 봉암리로 이동하기 전인 진동리에서도 후방지역에 침투한 북한군과의 전투로 인해 최초 계획했던 일정대로 공격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미 제5연대전투단의 공격이 적의 저항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킨 특수임무부대가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데에 영향을 끼쳤다.

〈표 5〉 미 제1해병여단 편성⁵²⁾

구분	소속 부대	비고
직할부대	제 1 · 2 · 3 대대,	대대별 2개의 소총중대
포병부대	제1해병사단 제11해병포병 1대대 (155mm 곡사포)	직접 지원
전차부대	제1해병사단 제1전차대대 (M-26 퍼싱)	-
항공부대	제33해병항공단(MAG-33)	근접항공지원 실시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96.

미 제1해병여단이 부여받은 임무는 작전지역 내 남쪽에 있는 진동리-고성-사천 도로를 따라 공격을 진행하여 사천과 사천에서 진주에 이르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⁵³⁾ 미 제1해병여단은 미 제8군의 예비로서 자체적으로 강력한 전투력과 작전지속 지원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미 제1해병여단은 상륙궤도차량중

52) 해병대사령부, 『한국전쟁에서의 미 해병대(US Marines in the Korean War)』, (계룡:해군본부, 2019), p. 9.

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대, 상륙차량소대, 수색중대, 헌병중대가 편성되어 있었고, 미 제1해병사단 통신대대, 차량수송대대, 의무대대, 해안대대, 공병대대, 병기대대에서 파견된 중대급 전투지원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작전을 실시하는 동안 적극적인 작전지속지원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를 통해 미 제1해병여단은 작전 기간 내내 원활한 작전지속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미 제1해병여단은 미 제33해병항공단(Marine Aviation Training Support Group 33)의 지원을 받았다.⁵⁴⁾ 미 제33해병항공단은 미 제323해병전투공격비행대(VMFA-323)와 미 제214해병전투공격비행대(VMFA-214)의 커세어 전투기(F4U Corsair), 미 제502해병전투공격훈련비행대(VMFAT-502)의 야간 공격용 커세어 전투기와 그루먼 F7F 타이거캣 전투기(Grumman F7F Tigercat), 그리고 미 제6해병관측대대의 OY-2 관측기(OY-2 observation aircraft) 8대, 시코르스키 H-5 헬기(HO3S1 helicopter) 4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항공모함 USS 바동 해협호(USS Badoeng Strait, CVE-116)와 부산 서부 K-1 항공 기지(Pusan West (K-1) Air Base)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은 강력한 근접항공지원과 근접정찰을 통해 미 제1해병여단의 원활한 작전 수행에 기여했다. 특히, 시코르스키 H-5 헬리콥터는 미 제1해병여단장 크레이그(Edward A. Craig) 준장이 전방 정찰 및 명령 하달, 각종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자주 활용했으며, 헬리콥터의 기동성 덕분에 지형에 구애받지 않고 부대를 통제할 수 있었다.⁵⁵⁾ 미 제1해병여단은 강력한 항공화력 외에도 M-26 퍼싱 전차로 구성된 전차대대와 155mm 곡사포로 구성된 포병대대를

54) Ibid., p. 686.

55) 해병대사령부 (2019), p. 34.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지원 하에 작전 수행이 가능했다.

나.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부족했던 임무수행준비 및 예행연습 시간

작전준비는 지휘관 및 지휘자, 지휘통제본부가 수립된 작전계획을 기초로 작전이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활동으로서, 이는 부대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 준다.⁵⁶⁾ 작전준비 단계에서는 임무수행준비 지도 및 감독, 예행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킨 특수임무부대는 당시 낙동강 방어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급조된 작전이었고,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예하 부대에게 충분한 작전준비 시간을 보장해줄 수 없었다.

우선 8월 6일 6시부터 하달된 작전명령 8호는 예하 부대가 작전을 준비할 충분한 여건을 보장해주지 못했다. 1950년에 발간된 미 보병연대 교범에 따르면 공격 작전에 있어서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예하 부대가 정찰하거나 작전을 준비할 시간을 최대한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명령이나 단편 명령 등을 하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⁵⁷⁾ 하지만 미 제25사단은 공격 개시 하루 전에야 작전명령 8호를 예하 연대에 하달했고, 따라서 연대들은 대대에 명령을 하달하고 공격 작전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미 제29연대 1대대는 8월 6일에 명령이 하달된 후에 미 제35연대에 합류하여 작전을 준비할 시간이 더욱 부족했다.⁵⁸⁾

56) 육군본부 (2017), p. 59.

57) Department of the Army (1950), p. 119.

58)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또한, 상급부대는 예하 부대의 작전 준비 여건을 보장해주기 위해 사전 이동 계획을 충분한 고려를 통해 정확하게 하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하 부대는 상급부대에서 하달한 계획을 토대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 제8군은 공격 개시 전 부대 전개에 혼란을 방지하고 사전에 준비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 6>과 같이 시간대별 지시사항을 정리하여 명령을 하달하였으며, 미 제5연대와 미 제1해병여단에 도로 사용의 우선권을 부여했다.⁵⁹⁾

<표 6> 시간대별 지시사항

날짜	시간	지시사항
50년 8월 6일	0900-1200	· 미 제1해병여단은 차량을 이용해서 진동리로 이동하라. · 미 제27연대 1대대를 배속 해제하라. · 미 제555야전포병대대는 해병여단 대열을 따라서 진동리까지 이동하라.
	1700-1900	· 미 제27연대 1대대는 해병여단의 트럭을 이용하여 마산으로 이동하고, 도착한 뒤에는 트럭을 다시 해병여단으로 반납하라.
	2000-2200	· 미 제5연대 3대대는 진동리로 이동하고, 미 제27연대 2대대를 배속 해제하라.
	2000-2400	· 미 제5연대 전투단 잔류 부대들은 진동리로 이동하라.
	2400-0400	· 미 제27연대 잔류 부대들은 기동화된 미 제5연대 전투단의 잔류 병력들이 가지고 있는 트럭을 이용하여 마산으로 이동하라.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Historical Report; Narrative Report.',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49, p. 16.

- 59)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p. 95.

날짜	시간	지시사항
50년 8월 7일	03:00	· 미 제1해병여단 잔류 부대들은 진동리로 이동하라.
	07:00	· 미 제5연대전투단, 미 제24연대전투단, 그리고 미 제35연대 전투단은 공격을 개시하라.
50년 8월 7일	추가사항 1	· 미 제1해병여단 미 제5연대전투단이 진동리 일대를 확보한 뒤에 공격을 개시하라.
	추가사항 2	· 미 제1해병여단의 공격 개시 시간은 미 제1해병여단장이 결정하라.

* 출처 : '작전명령 제8호(Operation Order No. 8)', "5, 6 Aug 1950 Command Report", p. 109.

하지만 실제 진행은 위 <표 6>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 제1해병여단은 8월 6일 12시까지 진동리로 이동한 후 미 제5연대전투단이 진동리 일대를 확보한 뒤 공격을 개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진동리 일대 고지에 사전에 침투한 북한군으로 인해 미 제5연대전투단의 진동리 확보가 늦어지자 결국 하달된 계획과 달리 미 제1해병여단 1개 대대가 8월 7일 오전 진동리 일대에서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결국, 기존 계획과 달리 미 제1해병여단은 8월 7일 3시 전까지 진동리 일대로 이동할 수 없었고, 북한군의 공격으로 진동리 일대에서 작전 진행이 지연되었다. 어쩔 수 없이 미 제1해병여단은 진동리에서 차후 작전을 준비할 시간 없이 진동리를 확보한 이후 바로 고성 일대로 진출하게 되었다.

4. 작전실시 과정 분석

가. 잘못된 상황판단으로 인한 공격 기세 유지 실패

작전실시는 수립된 작전계획과 작전준비를 기초로 작전을 시

행하는 활동으로 일반적으로 상황판단, 결심, 대응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상황판단은 현행작전을 평가하여 어떠한 작전계획을 적용할 것인가와 같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결심은 지휘관이 작전을 실시할 때 상황판단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고, 대응은 지휘관이 결심한 대응 방안을 지휘통제본부가 시행하는 것이다.⁶⁰⁾ 킨 특수임무부대는 작전 실시 단계에서 잘못된 상황판단과 결심으로 인해 공격 기세를 유지하지 못했고, 후방 지역의 안정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지휘관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대응은 킨 특수임무부대가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8월 8일 미 제35연대는 최초 계획대로 무촌리 일대에 도착했고, 8월 9일 밤에 진주 방향으로 미 제5연대전투단과 협동공격을 개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⁶¹⁾ 하지만 미 제5연대전투단이 계획대로 무촌리까지 진출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진주 고개에 대한 협동공격은 불가능했다. 미 제35연대는 미 제5연대전투단의 진출이 늦어졌지만, 미 제5연대전투단을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단독으로 진주 고개를 향해 진출하지 않고 대기했다. 결국, 진주 고개의 확보가 계획보다 늦어짐으로써 북한군은 방어 태세를 강화했고 킨 특수임무부대 작전의 목표였던 진주 점령은 더욱 어려워졌다.

미 제35연대가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하여 무촌리에서 미 제5연대전투단을 기다리는 동안 미 제25사단장은 미 제35연대 1개 대대를 함안 북쪽의 교차로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⁶²⁾

60) 육군본부 (2017), pp. 60-61.

61)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9, 10, 11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3, p. 28.

이는 함안 일대에서 주보급로를 방어하던 미 제24연대 병력들이 진동리 일대의 북한군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진동리로 전환됨에 따라 함안 일대의 방어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당시에 북한군이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미 제35연대가 신속하게 공격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미군의 빠른 공격 속도로 인해 북한군은 포병 진지를 점령할 시간이 부족했고, 미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병력 배치 또한 제한되었다.⁶³⁾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35연대가 단독으로 진주 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할 수도 있었겠지만, 미 제35연대는 북한군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 판단이 제한되었다. 또한 당시 후방 지역의 상황이 침투한 북한군으로 인해 더욱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미 제25사단장은 미 제35연대를 무촌리 일대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

정기 작전 보고서 78호에 따르면 미 제35연대가 진주 고개를 점령할 때 적의 저항은 경미했다.⁶⁴⁾ 정기 정보 보고서 27호에 따르면 항공 정찰을 통해 진주 일대로 많은 북한군 병력과 차량의 이동이 식별되고 있었기 때문에⁶⁵⁾ 미 제35연대는 진주 고개

62)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7, 8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2, p. 87.

63) 25th Infantry Division Associat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Tropic Lightning, Korea, 1950-1954* (TN: Turner Publishing Company, 2002), p. 28.

64)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9, 10, 11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3, p. 147.

65) Ibid., p. 140.

일대의 적의 저항이 약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후방지역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고⁶⁶⁾, 종종 북한군의 기습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방의 북한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실제 북한군 배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 제35연대는 미 제5연대전투단이 합류하지 않아도 진주 고개 점령이 가능했었고, 결국 미 제35연대는 북한군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상황 판단이 미흡했기 때문에 무촌리에서 3일간 대기를 하면서 전투력을 낭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투력의 낭비는 킨 특수임무부대가 작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 불안정한 후방지역 상황으로 인한 잘못된 결심

공격 개시 이전부터 후방지역에 침투한 북한군으로 인해 후방 지역은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다. 그로 인해 물자 보급 및 병력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 진행을 지연시켰다. 또한 킨 특수임무부대가 기존의 계획대로 진출하지 못하면서 북한군은 방어를 더욱 강화했다. 미 제25사단장은 후방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방에서 활용되어야 할 병력을 후방으로 전환하는 등의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킨 특수임무부대의 공격 진행을 지연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실패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미 제8군은 6일에 하달한 작전명령 8호를 통해 킨 특수임무부대의 모든 부대는 아군 지역에 침투한 게릴라 부대를 식별하고

66) 정기 작전 보고서 79호에 따르면 미 제79전차대대 A중대는 미 제24연대 1개 소대와 같이 미 제35연대의 후방 주보급로를 사수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Ibid., p. 149.

격멸하기 위해 지속해서 공격적인 순찰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⁶⁷⁾ 공격 개시 이전에 이미 작전지역 내에 다수의 북한군이 침투해 있는 상황이었고, 이들을 격퇴하고 공격을 개시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부대는 자체적으로 공격적인 순찰을 통해 게릴라 부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미 제25사단장은 주보급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 제24연대와 한국군 부대를 후방지역작전에 활용했으나, 북한군의 위협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8월 6일에 해결되지 않은 북한군의 후방 위협은 이후 작전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지속되었으며, 주 보급로와 마산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미 제89중전차대대의 전차 중대들이 공격을 진행하는 전방이 아닌 후방지원 위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⁶⁸⁾

공격을 개시한 뒤에도 후방지역은 지속해서 불안정했다. 8월 7일 미 제5연대전투단 2대대는 진동리 교차로 북서쪽의 여우 고지(Fox Hill)를 미 제1해병여단 2대대에 인계하고 서쪽으로 진격하려고 했으나 8월 7일 아침부터 고지 주변에 침투해 있던 북한군의 포위 공격을 받았다.⁶⁹⁾ 또한, 진동리 북서쪽의 고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미군 보급소와 포병 진지에 박격포 사격을 하면서 진동리-마산 간 도로도 차단하였다.⁷⁰⁾ 이 문제를 해결하기 미 제25사단장은 미 제1해병여단장에게 진동리 지역 작전 통제권을 부여하였고,⁷¹⁾ 이로 인해 미 제1해병여단의 공격 진행은

67)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p. 94.

68) 육군기계화학교 (2009), p. 54.

69) Appleman (1992), p. 272.

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1.

71) Appleman (1992), p. 272.

더욱 지연되었다.

미 제25사단장은 전방에서 정보 수집 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할 사단 수색 중대와 강력한 화력 자산인 전차 1개 중대를 후방지역에서 활용하였다. 미 제25사단장은 사단 수색 중대를 파견하여 미 제5연대전투단과 미 제1해병여단이 마산에서 진동리에 이르는 도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통제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부여했다.⁷²⁾ 또한 진동리 일대의 혼선으로 인해 중앙과 남부 축선의 공격이 지연되자 북쪽 축선에서의 공격 또한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마산에서 중암리에 이르는 도로 일대에 제79전차대대 A중대를 파견하여 도로상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⁷³⁾ 미 제25사단장은 주보급로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던 미 제24연대 1대대에게 봉암리 일대에서 북한군에게 포위당한 미 제5연대전투단 2대대를 구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⁷⁴⁾ 하지만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미 제24연대 1대대는 미 제5연대전투단 2대대가 있는 곳에 도착하지도 못했으며, 주보급로를 방어하던 병력이 이동함으로써 후방지역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후방지역에 침투한 북한군을 공격하기 위해 공군 화력지원을 요청했으나, 잘못된 화력 유도로 인해 오히려 아군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다. 8일 19시 30분 미 제24연대 3대대는 후방에 침투한 북한군에게 F-51의 기총소사 화력지원을 요청했으나, 화력 유도가 잘못되어 아군 진지에 F-51이 기총소사를 퍼부어 아군

72)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7, 8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2, p. 31.

73) Ibid., p. 32.

74) Ibid., p. 28.

병력이 진지에서 후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⁷⁵⁾ 이는 적군과 아군이 혼재된 후방지역에서의 화력 지원 요청은 항상 효과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 지휘관의 지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대응

미 제24연대는 연대장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지휘책임을 지고 연대장이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 개시 초기에 미 제24연대는 서북산 일대로 침투하여 아군의 보급로를 위협하는 북한군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북한군의 공격에 큰 피해를 보았다. 함안 서쪽에 있던 미 제24연대 L중대가 북한군의 매복 공격에 당했고, 미 제24연대 I중대는 와해되었다.⁷⁶⁾ 그 결과 2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미 제24연대 3대대는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함안 일대로 후퇴했다. 결국, 공격 개시 하루 전일 6일에도 서북산 일대는 북한군 제6사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았다. 이 일로 인해 미 제24연대장이 챔페니(Arthur S. Champney) 대령으로 교체되었다. 공격 개시 전일 연대장의 교체는 연대 예하 병력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⁷⁷⁾

8월 7일 미 제5연대전투단 1대대는 미 제1해병여단의 진출을 엄호하기 위해 진동리 일대를 관측하기에 쉬운 교차로 북서쪽의 언덕을 점령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미 제5연대전투단 1대대는 갈림길에서 방향을 잘못 들어 미 제1해병여단이 진출하기로 한 고성 방향으로 약 3.6km 정도 이동했다.⁷⁸⁾ 미 제5연대

75) Ibid., p. 86.

76) Appleman (1992), p. 270.

7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0.

78) 온창일 (2014), p. 675.

전투단 1대대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기존에 1대대가 점령하고자 했던 고지는 북한군이 점령하였다. 진동리 일대를 관측하기에 용이한 고지를 점령한 북한군 때문에 아군의 주 보급로와 보급소는 북한군의 화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

8월 12일 킨 특수임무부대 예하 포병부대는 미 제25사단장과 제5연대장의 잘못된 지시와 대응으로 인해 봉암리 계곡에서 많은 손해를 입었다. 당시 포병부대원들은 봉암리 계곡을 '피의 계곡 또는 포병의 무덤'이라고 부를만큼 봉암리 계곡에서 많은 사상자와 장비 피해를 입었다. 미 제555포병대대는 사상자 180명과 105mm포 8문, 미 제90포병대대는 사상자 190명과 155mm포 6문, 차량 26대의 피해를 보았다.⁷⁹⁾

위와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8월 10일 미 제5연대전투단이 봉암리 계곡에서 북한군의 기습공격 때문에 진출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 제5연대장이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것이 원인이었다. 미 제5연대장은 봉암리 계곡을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1일 야간에 이동하는 것을 11일 오후에 사단에 건의했고 미 제25사단장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미 제25사단장은 미 제8군의 명령을 고려했을 때 신속하게 미 제5연대전투단이 진출하기를 원했고, 11일 21시에 “제2대대와 1개 포대를 즉시 고갯길을 따라 이동시키고, 나머지 부대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자리를 사수하라”고 명령했다. 미 제5연대장은 이 명령을 이행하게 되면 봉암리에서 북한군의 포위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단 본부에 연락하려 했으나 통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제5연대장은 사단장의 명령이 상급 지

7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 297-298.

휘관들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고, 결국 미 제5연대장은 미 제25사단장의 명령을 이행했다.⁸⁰⁾ 그 결과 봉암리 북서쪽의 발산고개에 미 제1대대, 봉암리 일대에는 미 제5연대본부, 미 제555포병대대, 미 제90포병대대, 미 제159포병대대, 미 중박격포, 미 근무중대와 의무중대만 남게 되었다.⁸¹⁾ 즉, 자체 방어 능력이 부족한 3개 포대와 1개 보병대대만이 봉암리 계곡에 남게된 것이다.

미 제25사단장이 미 제5연대전투단에게 1개 대대와 1개 포대만 이동하고 나머지 병력은 봉암리 일대에서 자리를 지키라는 잘못된 명령을 하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미 제25사단장은 봉암리 일대에 적이 많다는 미 제5연대장의 말을 믿지 않았고,⁸²⁾ 진주 고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1개 대대와 1개 포대 정도만 미 제35연대에게 지원해주면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봉암리에 남은 병력들은 미 제8군 명령에 따라 새롭게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전방으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괜찮고, 미 제24연대 3대대를 미 제5연대전투단의 우측을 방어하도록 보냈기 때문에⁸³⁾ 봉암리 일대의 안전은 충분히 보장될 것으로 판단했다.

미 제5연대장은 현장 지휘관이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단장에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또한 미 제5연대장은 변화하는 상

80) Appleman (1992), p. 279.

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96.

82) Appleman (1992), p. 279.

83)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9, 10, 11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군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3, p. 147.

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을 통해 부대를 지휘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봉암리 일대의 적 상황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찰을 통해 주변 고지를 확인하거나, 다수의 포병대대에 대한 방호 제공이 제한되기 때문에 선부르게 봉암리 일대로 진입하는 것을 미리 통제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미 제5연대장은 적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적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상급 지휘관의 “큰 그림”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우선시했다. 그로 인해 미 제5연대전투단 잔류 병력들은 봉암리 일대에서 위협에 노출된 채로 대기하게 된 것이다.

상급 지휘관들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예하 지휘자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그 피해가 가중되었다. 미 제5연대전투단이 봉암리에서 북한군에게 포위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보았지만, 그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든 것은 봉암리 북쪽에서 출현한 북한군 전차였다. 이는 봉암리의 북쪽 도로를 봉쇄하고 있던 미 제5연대전투단 1대대 A중대 1개 소대와 전차반이 임의로 철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군 전차는 아군에게 탐지되지 않고 아군의 포병부대 근거리로 접근할 수 있었고, 결국 포병대대에 큰 피해를 줬다.⁸⁴⁾ 이들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철수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잘못된 소대장의 대응이 아군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켰다.

84) Appleman (1992), p. 282.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1950년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킨 특수임무부대 역습 작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작전은 지금까지 작전의 간략한 경과와 작전의 결과 때문에 얻은 작은 성과에 대해서만 다뤄져 왔다. 작전의 성과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기록을 통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한 사례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이 주는 교훈을 작전수행과정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작전 준비, 그리고 작전 실시 단계에서 나타난 모습들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특수임무부대가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킨 특수임무부대의 역습 작전은 단순히 많은 전투력을 할당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었다. 하나의 작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3개의 연대가 잠정적으로 한 부대에 편성되어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부대 편성부터 치밀한 고려가 필요했다. 하지만 킨 특수임무부대가 편성된 시기에는 낙동강 방어선의 전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북한의 공세 또한 그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킨 특수임무부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대를 편성할 수 없었다. 또한,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적에 대한 정보 수집과 새롭게 편성된 부대 사이의 예행연습 등 작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작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방지역의 안정

이 확보되지 않아서 침투한 북한군에 의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공격 부대의 진출을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킨 특수임무부대는 공격 기세를 유지하지 못했고, 일부 지휘관의 지휘 능력 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대응들로 인해 결국 킨 특수임무부대의 작전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실패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부대가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도 항상 작전에 성공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목적 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특수임무부대가 상대할 적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수집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대할 적의 전투력이나 배치 등이 미리 파악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균형 잡힌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에 수집된 적 정보를 바탕으로 특수임무부대의 지휘관은 예하 부대에 각각 어느 정도의 병력과 화력 자산 등을 분배할지를 결정한다. 상대할 적에 비해 과도하게 전투력이 집중된 부대는 전투력이 낭비될 위험이 있고, 타 부대의 전투력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상대할 적에 비해 전투력이 부족한 부대는 특수임무부대가 계획한 작전 템포⁸⁵⁾에 맞춰 작전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작전 목적 달성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부대를 편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특수임무부대로 새롭게 편성된 부대가 작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작전 준비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특수임무부대로 편성된 부대들은 평상시에 같이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활한 지휘 통제가 어렵고 따라서 당연히 협조된 작전을 진행하는 것도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수임무부

85) 템포(Tempo)는 적에 대한 상대적인 작전의 속도이며 리듬이다. 템포는 주도권 장악의 필수 요소로 상대성, 적시성, 지속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합동군사대학교 (2021), p. 348.

대는 기존에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와 계획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잠정적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작전을 준비할 때 더욱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 킨 특수임무부대와 같이 급조된 특수임무부대는 당연히 작전 준비 시간이 부족했겠지만, 상급부대는 사전 준비 명령 하달, 충분한 이동 자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예하 부대의 작전 준비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셋째, 특수임무부대는 작전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격 기세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목표를 향해 이동해야 한다. 임무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교전을 회피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특수임무부대와 강화된 공격 부대의 차이점이기 때문이다.⁸⁶⁾ 따라서 특수임무부대는 작전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공격 기세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하고,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적과의 교전이나 다른 행위들을 지양해야 한다.

넷째, 특수임무부대는 후방지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후방지역의 안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후방지역에 침투한 적에 의해 전방 부대에 대한 보급과 지휘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특수임무부대의 신속한 작전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후방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에 있는 부대가 후방지역으로 전환되는 등 공격 기세 유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특수임무부대는 기존에 해당 작전지역에 있던 부대에 후방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 안정을 확보하도록 하거나, 작전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부대를 후방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후방지역의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수임무부대의 지휘관은 임무 달성을 최우선시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수임무부대의 지휘관은 적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습의 기회를

86) Department of the Army (1950), p. 228.

언제 되더라도 그것이 임무 달성과 관련이 없다면 적을 기습하지 말고 신속하게 임무를 향해 이동해야 한다.⁸⁷⁾ 따라서 지휘관은 임무 달성을 위해 상황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하고, 상급 부대와와의 교신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도 주어진 임무를 고려하여 부대를 적절하게 지휘해야 한다.

우리 군은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여 실제로 작전을 수행해본 경험이 많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차후에 한반도나 다른 전장에서 편성될 수 있는 특수임무부대의 작전 성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87) Department of the Army (1950), p. 228.

〈참고문헌〉

1. 1차 사료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War Diary.',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0.

_____,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Historical Report; Narrative Report.',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49.

_____,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1-6 Aug. 1950, 5, 6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6.

_____,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7, 8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2.

U. S. 25th Infantry Divis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History w/Supporting Doc. Bk. 1-3, Aug. 1950 : Activities Repts.-Gen. & Spec. Staff Secs., 7-11 Aug. 1950, 9, 10, 11 Aug.’,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48,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53.

_____, ‘Twenty Fif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Book 9, Aug. 1950 : Annex #13, QM Co.; Annex #14, 25th Repl. Co.; Annex #15, 25th MP Co.; Annex #16, Co. A 79th TK Bn.; Annex 17, 725th Ord. Co.; Annex 18, 25th Div. Band; Annex 19, 89th TK Bn.’,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5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86.

_____,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Supporting Doc. Bk. 9, Aug. 1950 : War Diaries-Unit Rpts. Aug. 1950, Annex #17, 725th Ord. Co.; Annex #18, 25th Div. Band; Annex #19, 89th Tk. Bn.’, “Army-AG Command Reports 1949-54”, RG 407, Entry No. NM3 429, Box 3751,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국사편찬위원회 수집정리번호 No. 040132182.

Department of the Army, FM 7-40 1950: Infantry Regiment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50).

_____, FM 7-100 1958: Infantry Division (Washington D.C.: Department of the Army, 1958)

2. 공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제5권) 낙동강선 방어작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3. 단행본

합동군사대학교,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교리처, 2021.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아틀라스』, 서울: 육군사관학교, 2013.

온창일, 『한민족 전쟁사』, 경기: 지문당, 2011.

<http://uci.or.kr/G701:B-00114472288@N2M>

육군기계화학교, 『6·25전쟁 시 기갑부대운용』, 계룡: 육군본부, 2009.

육군본부, 『야전교범 기준-3-1 전술』, 계룡: 육군본부, 2017.

해병대사령부, 『한국전쟁에서의 미 해병대(U.S. Marines in the Korean War)』, 계룡: 해군본부, 2019.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抗美援朝戰爭史)』,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역), 서울: 국방부, 2002.
<http://uci.or.kr/G901:A-0006044432@N2M>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92).

25th Infantry Division Association, Twenty-fifth Infantry Division Tropic Lightning, Korea, 1950-1954 (TN: Turner Publishing Company, 2002).

4. 논 문

MAJ Kyle D. McElveen, “Blueprinting Success: The Tropic Lightning in Korea, June to October 1950”,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May 2019).

5. 기 타

군사용어사전, “포병의 측지,” <https://terms.naver.com> (접속날짜: 2022년 6월 14일).



(Abstract)

A Study on the Counterattack Operation of Task Force Kean, which defended the Nakdong River during the Korean War

Kang, Ji-hyeon

This study analyzes the counterattack operation of the Task Force Kean, which was conducted from August 5 to August 13 during the Nakdong River defense operation in 1950. The operation of the Task Force Kean is of great significance as the first division-level counterattack operation in the delayed operation that continu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Korean War. However, despite its strong combat capability of up to 23,000 people, it failed to achieve its goal in counterattack operations against about 7,500 North Korean troops.

Existing studies briefly deal with the progress of the operation, and focus only on some of the achievements obtained as a result of the operation.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ppearance of the unit formation, operation preparation process, and operation implementation process to analyze the lessons of the Task Force Kean operation. To this end, regular operational reports, war journals, and command reports of the 25th U.S. Infantry Division during the Korean War will be used intensively.

Task Force Kean had strong combat capabilities, but due to the fierce front situation, each unit was formed without sufficient consideration of enemies and operational terrain, and lacked time to prepare for operations such as rehearsal and preliminary reconnaissance. The stability of the rear area was not guaranteed because the North Korean military's threat that penetrated during the operation was not removed, and as a result, the advance of the offensive unit was delayed and the offensive momentum was not maintained. In addition, due to the lack of command capabilities of some commanders during the operation process, the operation of Task Force Kean

eventually failed to achieve its purpose.

Keywords : Task Force Kean, Counterattack Operations,
U.S. 25th Infantry Division, U.S. 1st Marine Brigade,
U.S. 5th Regiment Combat Team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47-80
<https://doi.org/10.29212/mh.2022..125.4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고찰

이지원 |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목 차

1. 서 론
2.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 그리고 『공군사』
3.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 역사의 쟁점들
4.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5. 결 론

초 록

공군의 모체(母體)였던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史實)이 정립되지 못했다. 6·25전쟁 중 주요 자료들이 소실되어 각 군(軍)에서 불충분한 자료에 대한 회고와 추정을 바탕으로 그 역사를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는 조금씩 상이한 역사 서술이 공존하고 있다. 육군은 1952년에 『육군전사』에서, 공군은 1954년에 『공군발전약사』와 1962년에 『공군사』

제1집에서 그 역사를 서술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역사 서술을 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문서 자료와 비교하여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그 부대는 우선 개칭을 한 후 새로운 이름에 부합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성장하였다. 다만 공군을 창군할 때까지 항공기는 단 한 대도 확충하지 못했고, 전술적 역량도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공군은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목표에 따라 창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그러한 과정의 출발점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주제어 : 국방경비대, 조선경비대, 항공력, 한국 공군, 항공 부대, 창군, 역사 서술

(원고투고일 : 2021. 10. 3, 심사수정일 : 2022. 11. 6, 게재확정일 : 2022. 11. 25.)

1. 서 론

한국 공군은 육군이나 해군과 달리 창군되는 과정에서 ‘독립’의 단계를 거쳤다. 1949년 10월 1일부로 대통령령에 따라 국방부분부에서 독립한 국방부 항공국과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육군 항공사령부가 결합하여 한국 공군이 창군된 것이다.¹⁾ 이승만 정부가 공군을 창군한 국제정치적 배경과 그 창군의 과정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었으나 공군의 모체(母體)였던 조선경비대 예하의 항공 부대는 그동안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²⁾ 공군에서 발간한 역사서에서는 창군 이전의 역사로, 육군에서 발간한 역사서에서는 소수 병과의 역사로 치부되었다. 그 결과 광복 이후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전환되었던 1948년 12월까지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는 그 기초적인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다.³⁾ 조선경비대 최초의 항공 부대

1) 한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에 대통령령 제254호에 의해 공군본부 직제가 창설되면서 창군되었다.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직제(空軍本部職制)」(1949년 10월 1일).

2) 이명환, 「공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第68號 (2008); 김경록, 「6 · 25 전쟁 이전 공군의 창군과 전력증강」, 『軍史』, 第73號 (2009); 강창부, 김기동, 이지원, 「공군의 창설에서 최용덕의 역할」, 『민족문화논총』, 제64권 (2016); 이지원,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노력(1948~1950)」, 『軍史』, 第121號 (2021). 한편, 이 기간의 전반적인 항공력 건설 노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김기동, 「1945~1948년 항공력 건설 노력과 그 의의」, 『軍史』, 第99號 (2016).

3) 법률 제9호,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 (1948년 11월 30일). 1946년 1월 15일에 창설된 남조선국방경비대(Korean National Constabulary)는 1947년 12월 17일부로 ‘조선경비대’로 개칭하였고, 항공 부대는 그렇게 개칭한 이후에 창설되었다. 김승기, 최정준,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pp. 60~64.

가 언제 창설되었으며, 최초의 지휘관이 누구였고, 그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부대의 명칭과 성격이 어떻게 변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역사서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가 정립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료의 부족에 기인한다.⁴⁾ 각 군(軍)이 창군된 직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당시 문서들이 대부분 소실되었고, 각종 역사일지와 일부 명령 정도만 남아있어 창군 시기의 사건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가 곤란하다.⁵⁾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와 공군도 마찬가지로이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서울이 위협받자 서울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는 모든 인사 관계 서류를 소각하고 장교와 사병(士兵)의 군번 일람표만을 지참하고 퇴각하였다. 그리고 서울을 수복한 후 서울 이남 지역에 남아있던 특명 자료를 모아 특명철을 다시 만들었다.⁶⁾ 현재는 이때 만들어진 특명철과 『공군 장교자력기록부』, 『장교임관순대장(공군)』, 『공군일지』 등이 남아있다.⁷⁾ 하지만 이 자료들도 공군이 창군된 이후 재작성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창설되었던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와 관련된 사실(史實)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대단히 드물다.

각 군에서 역사서를 편찬할 때,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회고에 의존하여 서술하다 보니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서로 다른 역사 서술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를 검토해 보면, 그

4) 이 논문에서는 ‘항공부대’가 부대 명칭에 고유명사로 사용된 경우와 구분하기 위하여, ‘항공 분야를 전담하는 부대’라는 의미의 보통명사를 ‘항공 부대’로 표기한다.

5) 노영기, 「군 자료를 통해 본 한국군의 창설과 변화: 국방경비대·육군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26권, 제2호 (2022), pp. 381-386.

6) 당시 인사담당자 변찬홍의 회고, 공군역사기록단, 『한국전쟁 면담록 (1982)』, “창군 당시 인사제도”, 변찬홍이 말하는 “군번 일람표”는 『임관순대장(공군)』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서 사병(士兵)은 오늘날 계급 제도를 기준으로 부사관과 병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창군기 ‘항공병’은 사병의 개념이었다.

7) 공군본부, 『空軍日誌 (1948-1953)』; 국방부, 『장교임관순대장(공군)』; 공군본부, 『공군 장교자력기록부』.

출발점에는 두 권의 책이 있다. 1952년에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육이오 육군전사(六. 二五 陸軍戰史) 제1권』(이하 『육군전사』)과 1954년에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군발전약사(空軍發展略史) 제1권』(이하 『공군발전약사』)이다. 이 두 책에서 제시하는 조선 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관한 서술은 서로 상이하다. 그리고 1962년에 공군본부에서 정기적인 부대사로서 최초 발간한 『공군사(空軍史) 제1집(1949.10.1.~1953. 7. 27.)』(이하 『공군사』)에서는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의 역사 서술이 혼합된 새로운 역사 서술이 등장한다.⁸⁾ 그 이후에 출판된 역사서들은 모두 이 세 권의 해석을 선택적으로 따르고 있을 뿐, 그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 그리고 『공군사』에서 전개되는 역사 서술을 문서 자료를 토대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는 군(軍)의 공식 문서 자료이다. 여기에는 우선 통위부와 육군본부에서 발령한 일반명령의 모음집인 『통위부특명첩(統衛部特命綴)』과 『육일명첩(陸一命綴)』이 있다. 앞서 언급한 『장교임관순대장(공군)』, 『공군장교자력기록부』, 『공군일지』 등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미국 공군에서 발간한 정보보고서를 교차 검증한다. 이 정보보고서들은 발간 시기가 당시와 가장 가깝고, 기존의 역사서에서 검토된 적이 없는 자료여서 중요하다.⁹⁾ 이 자료들을 토대로 기존 역사서들을 분석하였고, 그렇게 해서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회고

8) 공군본부정훈감실, 『空軍史 第1輯(1949.10.1.~1953. 7. 27.)』(공군본부, 1962); 육군본부, 『六. 二五 陸軍戰史 第1券』(육군본부, 1952); 공군본부, 『空軍發展略史 第1券』(공군본부, 1954).

9) 국방부, 『統衛部特命綴(1947. 5. 5.~1949. 9. 24.)』; 육군 군사연구실, 『육일명첩』(1949); 『공군장교자력기록부』;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8, 29);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Korean Air Force(Personnel Strength)” (1951, 7. 31.).

록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 그리고 『공군사』에서 나타나는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역사 서술을 비교하여 쟁점을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도출된 쟁점들을 군(軍)의 문서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하고, 제4장에서는 역사 서술의 오류가 누적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대안적 역사서술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논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후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가 갖는 의의를 평가한다.

2.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 그리고 『공군사』

‘조선경비대’는 육군의 모체(母體)이다. 1945년 11월 13일에 미 군정이 법령 제28호를 공포하여 국방사령부를 설치하고 국방사령관으로 미 제24군단 쉬크(Lawrence E. Schick) 준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1946년 1월 15일에 국방사령부 군무국 관할하에 ‘남조선국방경비대(국방경비대)’를 창설하였다. 국방경비대는 병력과 조직을 확대한 후 1947년 12월 17일부로 ‘조선경비대’로 개칭하였고, 1948년 9월 5일부로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육군’은 11월 30일에 제정된 『국군조직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¹⁰⁾

조선경비대의 성장은 주로 보병 부대의 증강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 부대도 창설되고 성장했다. 조선경비대의 항공 부대는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 그 시점까지 조선경비대 예하

10) 노영기(2022), pp. 387-400; 김승기, 최정준(2020), pp. 60-68.

의 항공 부대가 창설되고 변천하는 과정에 대해 1950년대에 발간된 역사서에서는 다소 상이한 두 가지 역사 서술이 병존한다. 우선 1952년에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육군전사』에 따르면 1948년 4월 1일에 ‘육군항공부대’가 “발족”하고 김정렬(金貞烈)을 비롯한 7명의 간부가 창설 요원으로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대하였다. 5월 5일에는 경기도 수색(水色)의 조선경비대 제1여단 사령부 내에 ‘육군항공부대’가 통위부 예하에 정식으로 “창설”되었으며, 백인엽(白仁燁)이 초대 부대장으로 보임되었다. 이 부대는 7월 27일에 ‘육군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하고 부대 병력을 강화하면서 김포군(金浦郡) 양서면(楊西面) 송정리(松亭里)로 이동하였고, 9월 13일에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하면서 예하에 비행부대와 기지부대를 창설하였다.¹¹⁾

한편, 1954년에 공군본부에서 발간한 『공군발전약사』에 따르면, 1948년 4월 1일은 최용덕(崔用德)을 비롯한 7명의 ‘창설간부요원’이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한 날짜였고, 5월 5일은 ‘항공기지부대’가 통위부 예하에 “편성”된 날짜였다. 이 부대는 6월 23일에 조선경비대 예하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7월 9일에는 최용덕이 부대장으로 보직되었다. 그리고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는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하면서 수색에서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양서면(楊西面) 송정리(松亭里)로 이동하였다. 9월 13일에는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하고 예하에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를 설치했고, 『국군조직법』 제정에 따라 12월 15일부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육군항공군사령부’로 개칭하였다.¹²⁾ 대체로 『공군발전약사』

11) 육군본부(1952). 이 역사 서술은 1954년에 발간된 『國防部史』에서도 발견된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國防史1(1945.8.-1950.6.)』, pp. 29-30.

12) 공군본부(1954).

의 설명은 『육군전사』보다 더 구체적이다.¹³⁾

한편, 『공군사』에 따르면 1948년 4월 1일에 김정렬을 비롯한 7명의 간부가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대하고 ‘항공부대’가 통위부 예하에 “창설”되었다. 이 부대는 6월 23일에 조선경비대 예하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7월 9일에 최용덕이 부대장으로 보임되었다.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부대’는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했다가 9월 13일에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로 다시 개칭했다. 그리고 『국군조직법』이 제정됨에 따라 12월 1일부로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¹⁴⁾ 이 책은 대체로 『육군전사』의 틀을 따르면서도 초대 지휘관이나 육군항공사령부로의 개칭 시기 등은 『공군발전약사』의 내용을 따르는 등 앞서 발간된 두 책의 역사 서술을 혼합하고 있다. 2010년에 발간된 이 책의 개정판에서도 그 역사 서술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¹⁵⁾

13) 이와 관련하여 『공군일지』는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는 『육군전사』를 인용하면서도 대체로는 『공군발전약사』의 역사 서술을 뒷받침한다. 5월 5일에 ‘항공기지부대’가 편성되었으며, 이 부대의 초대부대장이 백인엽 소령이었다는 등의 내용은 『육군전사』를 인용하고 있지만, 7월 27일에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한 후 김포로 이동했고, 9월 13일에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도입하여 예하에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 등을 신설했다는 내용은 『공군발전약사』와 유사하다.

14)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p. 63, 196-197.

15) 공군역사기록단, 『空軍史 第1輯 改訂版(공군 창군과 625전쟁)』(계룡: 공군본부, 2010), pp. 25-29. 한편 이 책은 뒷부분에서는 『육군전사』와 거의 동일한 역사 서술이 등장하는 등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Ibid.*, pp. 196-197.

〈표 1〉 『육군전사』, 『공군발전약사』, 『공군사』 비교

대상 일자	『육군전사』 (1952)	『공군발전약사』 (1954)	『공군사』 (1962)
1948. 4. 1	“ 육군항공부대 (陸軍航空部隊)라는 명칭으로 발족(發足)하게 되었으니 창립요원으로 김정렬, 최용덕... 7명이 한 국공군창설의 중책을”(p.81.)	“최용덕... 김정렬... 等 7명이... 조선경비대 항공부대 (航空部隊) 창설 간부요원(創設幹部要員)으로”(p.2)	“김정렬, 최용덕... 등 7명이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교하고... 항공부대 (航空部隊) 간부로서 활약.” (p.63)
1948. 5. 5.	“제1 여단사령부 내에 항공부대 (航空部隊)를 창설하여... 초대 부대장에는 육군소령 백인엽이 보임(補任)” (p.82.)	“제1여단사령부 내에서 항공기지부대 (航空基地部隊)를 편성(編成)하여(p.2.)	
1948. 7. 9.	“육군항공대위 최용덕이 제2대 부대장으로 보임 ”(p.82.)	“ 부대장에 중위 최용덕이 보직(補職) 되어 이로부터 항공기지부대 (航空基地部隊)는 항공계(航空界) 출신자에 의하여 움직이게.” (p.3)	“‘ 항공부대 (航空部隊)’라는 명칭하에 발족(發足)을 본동(同) 부대는 동년 7월 9일부로 부대장에 대위 최용덕이 보직(補職) 되었고”(p.63.)
1948. 7. 27.	“ 육군항공부대 (陸軍航空部隊)는 육군항공기지부대 (陸軍航空基地部隊)로 개칭(改稱)하고...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p.82.)	“ 항공기지부대 (航空基地部隊)는 항공기지사령부 (航空基地司令部)로 개칭(改稱)되고...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p.3.)	“ 항공부대 (航空部隊)를 ‘ 항공기지부대 (航空基地部隊)’로 개칭(改稱)하는 동시에...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로 이동”(p.63.)
1948. 9. 13.	“ 항공기지부대 (航空基地部隊)는 새로이 육군항공사령부 (陸軍航空司令部)로 개편(改編)되어”(p.82.)	“최초로 연습기(L-4) 10대를 이양받게 되어 항공기지사령부 (航空基地司令部) 예하에 비행부대(飛行部隊)를 여의도에서, 또 항공기지부대 (航空基地部隊)를 김포에서 각각 창설(創設)”(p.3.)	“ 항공기지부대 (航空基地部隊)를 항공기지사령부 (航空基地司令部)로 개칭(改稱)하고... 항공기지사령부 (航空基地司令部) 예속(隸屬)하에 ‘비행부대(飛行部隊)’와 ‘ 항공기지부대 (航空基地部隊)’를 김포에서 각각 창설(創設)하고”(p.63.)

대상 일자	『육군전사』 (1952)	『공군발전약사』 (1954)	『공군사』 (1962)
1948. 12. 1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 제1장 제2조의 규정(規定)에 의거 동년 12월 15일에 통위부(統衛部)가 국방부(國防部)로,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가 대한민국 육군으로 정식개편(改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 (航空基地司令部)는 동일부로 대한민국 육군항공군사령부 (陸軍航空軍司令部)로 정식 개편(改編) 하게 된 것”(p.4.)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에 의거하여 조선경비대(朝鮮警備隊)가 대한민국 육군으로 정식 개칭(改稱)되면서,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 항공사령부 (航空司令部)를 동일부로 대한민국 육군항공사령부 (陸軍航空司令部)로 정식 개편(改編) 하게 되었다.”(p.64.)

이후에 발간된 역사서들에는 이 세 가지 역사 서술이 혼재되어 있다. 가령, 1984년에서 발간된 『국방사(國防史)1』에서는 『공군발전약사』의 역사 서술이 차용되었다.¹⁶⁾ 그리고 2002년에 발간된 『건군사(建軍史)』에서는 대체로 『공군사』의 역사 서술을 따르되, ‘(통위부) 항공부대’는 6월 23일에 조선경비대로 예속 변경되면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로 개칭되었고,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되었다고 서술한다.¹⁷⁾ 이후에 국방부 산하기관에서 발간된 역사서들은 대체로 『건군사』의 틀을 따르고 있다.¹⁸⁾

1948년 4월부터 12월까지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이 역사 서술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첫째, 최초의 항공 부

16) 다만 이 책에서는 ‘항공기지사령부’로 개칭한 날짜가 7월 17일로 기록되어 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84), p. 202.

17) 백기인, 『건군사』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222-228.

18) 가령, 백기인, 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pp. 208-209.

대는 언제 창설되었고, 그 명칭은 무엇이었는가? 『육군전사』에서는 1948년 4월 1일에 ‘육군항공부대’라는 명칭으로 발족되고 5월 5일에 통위부 예하로 “편성”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공군발전약사』에서는 이날 “편성”된 것은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군사』에서는 4월 1일에 ‘(통위부)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⁹⁾

둘째, 최초 항공 부대의 초대 지휘관을 누구라고 보아야 하는가? 『육군전사』에서는 백인엽이 5월 5일에 초대 부대장으로 보직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공군발전약사』와 『공군사』에서는 백인엽에 대한 설명은 누락하고 7월 9일에 최용덕(崔用德)이 부대장으로 보직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군일지』에서는 『육군전사』를 인용하여 백인엽을 초대 부대장으로, 최용덕을 제2대 부대장으로 지칭하고 있다.

셋째,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와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공군발전약사』에서는 7월 27일에 김포로 이전하면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지만 『공군사』에서는 예하에 ‘항공부대’와 ‘기지부대’를 설치하면서 9월 13일에 처음으로 그 명칭이 사용되었다고 기술한다. 그리고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은 『육군전사』에서는 9월 13일부터, 『공군발전약사』에서는 12월 15일부터, 『공군일지』와 『공군사』에서는 12월 1일부터 사용하였다고 서술한다.

19) 공군본부(1954), pp. 2-3; 육군본부(1952), pp. 81-82;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p. 62-63.

3.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 역사의 쟁점들

가. 최초 항공 부대의 창설일과 명칭

1948년 4월 1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선 ‘육군항공부대’가 “발족”하거나 “창설”되었다는 명령은 찾기 어렵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그날 “조선경비대 항공부대”를 “창설”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국방본부역사일지』가 거의 유일하다.²⁰⁾ 다만 7명의 ‘창설간부요원’이 조선경비대 보병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자료에서 확인된다.²¹⁾

5월 5일에 ‘항공부대’ 혹은 ‘항공기지부대’가 통위부 예하에 창설되었다는 설명은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육군전사』와 『공군사』, 그리고 『국방부사』에서는 모두 이날 ‘(통위부)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공군발전약사』와 『국방사』 그리고 『공군일지』와 『공군전사자료』에서는 같은 날 ‘(통위부) 항공기지부대’가 창설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²²⁾ 전쟁 이후 재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공군장교자력기록부』에서도 ‘항공기지부대’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항공부대’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다.²³⁾

20) 국방부, 『國防本部歷史日誌』(1948-1953).

21) 『空軍日誌』; 공군본부, 『空軍前史資料(檀紀 4281-4282)』(1956. 5. 28.).

22) 『空軍日誌』; 『國防本部歷史日誌』; 『空軍前史資料』;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1984), p. 202;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 196; 공군본부(1954); 육군본부(1952), p. 81.

23) 가령 자력기록부에 이근석은 1948년 5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육군항공기지부대’에 근무한 것으로, 장성환은 같은 해 6월 15일에 ‘육군항공기지부대’에 입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군 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 명칭은 1948년 5월 14일자 『통위부특명철』에 표기된 ‘통위부 비행장 부대’이다.²⁴⁾ 또한 1949년 8월 29일에 미 극동공군 정보장교 니콜스(Donald Nichols)가 작성한 정보보고서에서는 이 부대에 대해 “Korean Air Base Detachment”라는 명칭을 사용했다.²⁵⁾ 이 영문 명칭과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당시 통위부에서는 이 부대에 대해 ‘비행장부대’, 혹은 ‘항공기지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²⁶⁾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5월 5일은 미 군사고문 앨러먼(William R. Allerman) 중위가 배치되면서 ‘Korean Air Base Detachment’가 “구성(formed)”된 날이었다. 그 이후로 이 부대는 총 105명(장교 19명과 항공병 86명)으로 구성된 부대편성표(T/O)를 갖추고 병력을 충원한 후 7월에 할당받은 지역(김포비행장 외곽)으로 이동하였다.²⁷⁾

이렇게 보면 5월 5일에 편성된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는 정규 부대라기보다는 미군사고문단과 함께 한국군 항공 부대의 창설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조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항공 부대가 언제 정식으로 창설되었는지를 판단하려면 실제로 그 부대가 창설되었던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 최

24) 5월 14일자 통위부특명철에는 백인엽이 ‘통위부 비행장부대’로 전속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統衛部特命綴』. 이와 관련하여 일본제국 육군항공대에서는 ‘비행장대대(飛行場大隊)’라는 부대 명칭이 사용된 적이 있었다. 木俣滋郎, 『陸軍航空隊全史：その誕生から終焉まで』, (東京: 潮書房光人社, 2013), p. 51.

25)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1949. 9. 12.) 이 자료는 작성 시기로 볼 때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성이 높다.

26) 이 단어는 ‘항공기지분견대’로 직역할 수 있다.

27)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1949. 9. 12.). 이 자료에서는 ‘항공기지부대’가 수색에서 김포로 이동한 날짜를 7월 16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다른 대부분의 역사서에서는 7월 27일로 기록하고 있다.

초의 명령은 최용덕을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관’으로 임명한다는 통위부 특명이다.²⁸⁾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 그리고 『공군사』에서는 모두 최용덕이 항공 부대의 부대장으로 보임한 날짜를 7월 9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 특명에 따르면 실제 임명일은 7월 15일이었다. 즉,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는 7월 12일에 항공병 제1기 78명을 충원하고 7월 15일에 지휘관을 임명한 후, 7월 27일에 김포로 이동했다.²⁹⁾ 항공병 제1기였던 김병택의 회고에 따르면, 수색에 있었던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에 집결한 날짜가 7월 12일 경이었고, 전 병력이 김포로 이동한 후 입대식을 하였다.³⁰⁾ 요컨대 이 부대는 부대 창설에 필수적인 조치를 완료한 후 7월 27일에 비로소 정규 부대로서 정식 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나. 최초 항공 부대의 초대 지휘관

다음으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 혹은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의 초대 지휘관은 누구였는가? 『육군전사』와 『공군일지』에서는 백인엽을, 『공군발전약사』에서는 최용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당시에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7월 1일자 『평화일보』에서 조선경비대가 “항공사령관 백인엽 소령을 중심으로” 공군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가자, 이를 후 『대한일보』에서는 “공군건설(空軍建設)의 테마 시정(是正)”이라는

28) 『統衛部特命綴』.

29) 공군본부(1954); 『空軍日誌』.

30) 『한국전쟁 면담록』, “항공병 모집 및 계급 부여”, 다만 그의 회고에 따르면, ‘항공기지부대’의 병력이 김포로 이동하여 입대 선서를 한 날짜는 7월 22일이다. 『공군장교자력기록부』에 기록된 이들의 입대일도 대부분 7월 22일이다. 이를 통해 판단할 때 7월 27일은 이동을 완료하고 일종의 부대 창설식을 거행했던 날짜로 추정된다.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경비대(警備隊)에 공군설치(空軍設置)에는 이미 주야불구(晝夜不拘)하고 □동중(□動中)인 최용덕장군(崔用德將軍) 이하(以下) 항공최고지도층(航空最高指導層) 7명(七名)이 있어 거이 이를 완성(完成)시키고 있는데 과거(過去)에 특간이(特幹二) 출신밖에 안되는 백인엽(白仁燁) 소령이 우리나라 공군사령관(空軍司令官)이란 도저히 상상(想像)치도 못할 오보(誤報)라고 믿는다. 만약 이러한 것이 사실(事實)이라면 고도국방국가건설(高度國防國家建設)의 선(先)봉이 될 우리나라 공군(空軍)을 생각(生覺)할제 우리 공군출신(空軍出身) 일동(一同)은 비(悲)분 굴(屈)욕감(感)에 나머지 결사반대투쟁(決死反對鬪爭)하 우리 이상적(理想的) 공군설치(空軍設置)에 만전(萬全)을 기(期)할 것이다. 대한민국삼년七月二日(大韓民國三年七月二日) 대한공군출신동지회 일동(大韓空軍出身同志會一同)”³¹⁾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8년 5월 5일은 항공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통위부 항공기지부대가 “구성(formed)”된 날짜이다.³²⁾ 그리고 『통위부특명철』에서 조선 경비대 제1연대 제2대대 백인엽 소령이 이곳에 전속 명령을 받은 날짜는 5월 14일이다. 이 특명은 단순 전속 명령으로서 지휘관 등 보직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날 최용덕을 비롯한 7명의 ‘창설간부요원’들이 항공소위로 임관하여 7명의 사병과 함께 ‘항공총감부’로 배속되었다. ‘창설간부요

31) 『평화일보』 (1948. 7. 1.), “警備隊에 空軍設置: 白航空司令官中心으로 訓練實施”; 『대한일보』 (1948. 7. 3.), “空軍建設의 테마是正”.

32)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9. 12.).

원'의 일원이었던 김정렬(金貞烈)의 회고에 따르면, 이들은 약 3주 후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로 합류했다.³³⁾ 따라서 1948년 5월 14일은 백인엽과 최용덕을 비롯한 7명의 항공소위들이 인사 명령상 통위부 예하의 항공 관련 부서에 함께 배속된 날이었다. 계급은 백인엽이 가장 높았지만, 그가 초대 부대장이라는 명령 근거는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 요컨대 그는 한국군 대표로서 부대편성표가 확정되기 전 앨러먼과 함께 정규 항공 부대의 창설을 준비하는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으로 지휘관계가 드러나는 명령은 6월 26일부로 최용덕을 '조선경비대 항공처장 겸 통위부 항공총감'으로, 7월 15일부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관'으로 겸직 임명한다는 내용의 통위부 특명이다.³⁴⁾ 이 중 6월 26일의 명령은 항공기지부대의 예속 관계 변경에 기인했다. 통위부 수석고문관으로 부임한 로버츠(William L. Roberts) 장군은 한국군의 작전통제 계통이 조선경비대와 통위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자 정책 수립 기능은 통위부에, 작전통제 기능은 조선경비대에 집중시키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6월 25일부로 통위부는 작전통제 기능이 중지되었다.³⁵⁾ 항공기지부대 역시 6월 23일부로 통위부 예하에서 조선경비대 예하로 예속 변경되었다.³⁶⁾ 이 과정에서 최용덕

33) 『統衛部特命綴』, 1948년 5월 14일자; 『空軍前史資料(檀紀 4281-4282)』 (1956). 김정렬은 자신들이 이 부대에 합류하기 전 약 3주일 동안 백인엽이 “항공사령관 노릇을” 했으며, 약 1개월 후 부대편성표(T/O&E)가 확정된 후 최용덕이 “항공 부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한국전쟁 면담록』, 김정렬, “여수·순천 사건” 다만 그는 ‘창설간부요원’ 7명의 임관일이 5월 14일이 아니라 6월 16일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서에서 ‘창설간부요원’ 7명의 임관일은 5월 14일로 기록되어 있어 6월 16일은 임관일보다는 보임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4) 『統衛部特命綴』.

35) Robert K. Sawyer, 이상호 등 역, 『주한미군사고문단사』 (서울: 선인, 2018), p. 49.

36) 『空軍日誌』, 1948년 6월 23일 자.

은 조선경비대와 통위부 양쪽의 항공 관련 부서를 총괄하게 되었고, 7월 15일에는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관으로 겸직 임명되었다. 같은 날 백인엽은 제4여단으로 다시 전출되었다. 처음으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의 지휘관계가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이날의 명령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 최초 항공 부대의 개칭사(改稱史)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와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기존의 역사서를 살펴보면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공군발전약사』에서는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가 7월 27일에 김포로 이전하면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창설 준비 조직이었던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로부터 정식 부대로 전환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공군사』에서는 9월 13일에 처음으로 항공기를 도입하면서 그 명칭을 사용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항공부대’와 ‘항공기지부대’를 예하에 창설하게 되면서 ‘항공기지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개칭하였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니콜스도 5월 5일부터 ‘Korean Air Base Detachment’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9월에 개칭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³⁷⁾ 그러나 애초에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항공기지’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항공기 도입을 계기로 개칭을 하면서 ‘항공사령부’가 아니라 굳이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³⁸⁾ 또한 8월의 통위부 편성표에서

37)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9. 12.) 그러나 그 영문 명칭은 ‘항공기지부대’로도 ‘항공기지사령부’로도 번역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선경비대총사령부 예하에 ‘항공기지사령부’가 편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7월 27일부터 그 명칭을 사용했다는 설명이 더 타당하다.³⁹⁾

다음으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다시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육군전사』에서는 항공기를 최초로 도입했던 9월 13일부터, 『공군일지』와 『공군사』에서는 『국군조직법』이 공포된 직후인 12월 1일부터 사용하였다고 본다. 그리고 『공군발전약사』에서는 『국군조직법』의 공포일을 명시한 후 12월 15일에 ‘정식 개칭’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⁴⁰⁾ 『전군사』에서 이 문제를 검토한 백기인은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가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된 날로서는 9월 13일보다 12월 1일이 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⁴¹⁾

다른 문서들을 검토해 보면, 우선 니콜스는 정보보고서에서 ‘Korean Air Base Detachment’가 9월에 규모를 확대하면서 ‘the Army Air Force’로 개칭되었다고 기술했고, 11월에 한국이 미국에 보낸 군사원조 요청 문서들에서도 항공기 원조 요구 목록을 작성한 부대의 명칭은 ‘Korean Air Command’나

38) ‘the Army Air Base Detachment’라는 명칭은 ‘the Army Air Detachment’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1949년 3월 22일에 승인된 미국가안정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8/2 보고서에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에 원조할 항공력은 육군에 속한 ‘항공분견대’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연락기 12대로 원조의 범위를 한정했다. 따라서 ‘the Army Air Base Detachment’는 ‘the Army Air Detachment’가 창설되기 전 아직 항공기가 도입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잠정적 명칭으로 추정된다.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1949, 1943, 1922.),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ume VII, Part 2, The Far East and Australi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pp. 969–978.

39) 신영진, 「미 군정기의 군비」, 『軍史』第16號, 1 (1988), p. 237.

40) 공군본부(1954), p. 4; 육군본부(1952), p. 84;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 64.

41) 백기인(2002), p. 234, 각주 377번.

‘Headquarters of Korean Air Force’ 등으로 기록되어 있었다.⁴²⁾ 이러한 기록은 9월 13일부터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육군전사』의 서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9월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를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했다는 설명은 ‘조선경비대’가 9월 5일부로 ‘육군’으로 개칭되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⁴³⁾, 12월 15일부로 개칭했다는 설명은 『국군조직법』 제정에 따라 ‘조선경비대’가 제도상 ‘육군’으로 정식 전환되었던 날짜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⁴⁴⁾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가장 명확한 문서 근거는 「육본 일반명령」 제10호이다. 이 명령에는 1948년 12월 10일부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의 명칭을 육군항공사령부로 변경함”으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⁴⁵⁾ 9월 13일이나 12월 15일은 오히려 연관된 상황을 토대로 개칭일을 추정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1948년 5월 5일에 통위부 예하에 편성된 ‘항공기지부대’는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라는 이름으로 개칭되며 정식으로 창설되었고, 이 부대는 12월 10일에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전환될 때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다는 설명이 가장 적확할 것으로 판단된다.⁴⁶⁾

42)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9. 12.); J.C.S. 1483/60 (1949. 2. 1.), “A Proposed Plan to Form An Air Forces of Fighting Strenth By Korean Air Command”.

43) 1948년 8월 24일에 대한민국의 통치권과 국방군의 지휘 책임을 인수하는 데 대한 한미 간 행정협정이 체결되어 9월 1일부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각각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으로 잠정 편입되었다가 9월 5일부로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되었다.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p. 400; 이은봉, 조복현, 『建軍 50年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p. 45; 김승기, 최정준(2020), p. 40;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48년 8월 24일).

44) 1948년 12월 15일에는 「국군조직법」 제정에 따라 통위부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전환되었다. 육군본부(1952), p. 73; 김승기, 최정준(2020), p. 68.

45) 「육본 일반명령 제10호」(1948. 12. 6.), 육군 군사연구실, 『육일명철』 (1949).

4.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한 오해와 이해

가.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역사 서술의 오류사(誤謬史)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공군 창군 이전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역사 서술의 변화는 발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 서술이 최신화되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존의 오류가 해소되기보다는 누적되는 경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선, 『육군전사』는 전쟁 중이었던 1952년 1월에 육군본부에서 작성하였다. 여기에서는 1948년 4월 1일부터 1949년 10월 1일까지를 “육군항공 부대시기”로, 1949년 10월 1일 이후를 “공군 창설시기”로 구분하여 기술함으로써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여 공군이 창설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48년 4월 1일에 ‘육군항공부대’가 발족하여 5월 5일에 창설되었으며, 7월 27일에 ‘육군항공기지부대’로 개칭하였다는 등,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개칭하기 이전의 항공 부대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육군’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개칭의 과정을 중심으로 그 역사를 서술한 최초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개칭의 이유와 근거를 거의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육군전사』가 발간된 지 2년 후에 출판된 『공군발전약사』에서는 『육군전사』의 오류를 다수 바로잡고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나 보다 공군 중심적 시각이 반영되었다. 우선 육군전사에

46) 『공군발전약사』와 『공군사』에서는 12월 1일부로 ‘항공사령부’에서 ‘육군항공군사령부’로 개칭했다고 설명한다. 여러 문헌에서 이 표현이 등장하지만, 이것이 공식 명칭이었던지는 불분명하다. 공군본부(1954), p. 4; 공군본부정훈감실(1962), p. 197.

서 부정확하게 사용된 ‘육군’이라는 용어 대신 ‘통위부’나 ‘조선경비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편제상 개념을 명확하게 수정했다. 그리고 처음 편성되었던 항공 부대의 명칭을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로 정확하게 수정하고 7월 27일부터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명칭을 사용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통위부 항공기지부대에서 백인엽의 역할을 누락하고, 그 부대가 창설되기 이전 ‘한국항공건설협회’와 최용덕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공군 창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드러내려는 경향을 보였다.⁴⁷⁾

그런데 이전의 서술보다 전반적으로 정확성과 구체성이 높아졌던 『공군발전약사』와 달리, 그 책이 출판된 지 8년 후 공군본부가 발간한 『공군사』는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5월 5일에 편성된 항공 부대에 대하여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라는 명확한 명칭을 사용했던 『공군발전약사』와 달리 ‘(통위부) 항공부대’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했던 『육군전사』의 전례를 따랐고, ‘항공기지부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육군전사』와 『공군발전약사』의 설명을 단순 조합하여 7월 27일에 ‘항공부대’가 ‘항공기지부대’로 개칭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책은 공군 창군 이후부터 6·25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공군의 역사에 대해서는 가장 상세하고 중요한 자료지만, 그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실증적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간된 시기를 통해 추론하면, 1952년 발간된 『육군전사』의 오류를 1954년에 공군본부에서 『공군발전약사』를 발간하면서 상당수 바로잡았으나, 1962년에 공군본부는 다시 『공군사』를 발간하면서 앞선 두 책의 역사 서술을 단순 조합하여 오히려 혼동을 가중했다. 그 이후로 『공군사』 제1집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이러한 오류는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47) 공군본부(1954), pp. 1-3.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하여 현재까지 가장 신뢰할 만한 자료는 『공군발전약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대안적 역사 서술

『공군발전약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자료를 바탕으로 공군 창군 이전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에 대한 기존의 역사 서술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군정은 조선경비대 최초의 항공 부대 창설을 준비하기 위하여, 1948년 5월 5일에 경기도 수색에 있던 조선경비대 제1여단 사령부 내에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를 편성하고 미군사고문 앨러먼 소위를 보임시켰다. 그리고 5월 14일에 조선경비대 제1연대 제2대대 백인엽 소령이 보임되었다. 이날 항공소위로 임관한 최용덕을 비롯한 7명의 ‘창설간부요원’들은 통위부 항공총감부로 배속되었다가 약 3주 후 이 부대에 합류했다. 그리고 6월 23일부로 통위부 항공기지부대는 조선경비대 예하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조선경비대 항공기지부대의 장교단은 105명으로 구성된 부대 편제를 구성하고, 7월 12일에 항공경력자들을 대상으로 항공병을 모집하여 총 78명을 충원했다. 마침내 7월 15일에 최용덕이 초대 항공기지사령관으로 임명되고, 7월 27일에 인가된 기지로 병력이 이동을 완료하면서 최초의 정규 항공 부대인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가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9월 13일에 미군으로부터 항공기를 인수한 후 예하에 ‘비행부대’와 ‘항공기지부대’를 창설하고 편제병력을 증강했다. 그리고 9월 15일에는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은 L-4 연락기 10대로 최초의 공식 비행을 시행했다. 『국군조직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부대는 12월 10일부로 ‘육군항공사

령부’로 개칭하였고, 12월 15일부로 육군의 항공병과를 총괄하는 기능 사령부로 제도화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 1일부로 대통령령에 따라 이 부대는 육군으로부터 독립하고, 국방부분부로부터 독립한 항공국과 결합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되었다.

다. 개칭(改稱)의 실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약 5개월 만에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고, 약 10개월 후 다시 육군으로부터 독립하여 공군의 기간(基幹)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반복된 개칭의 실체는 어떠한지?

『공군발전약사』에 따르면 1948년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가 창설되었을 때 그 부대의 병력은 장교 8명에 사병 62명에 불과했고, 항공기는 단 1대도 없었다.⁴⁸⁾ “사령부”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았다.

그해 9월부터 이 부대는 내실을 갖추기 시작했다. 우선 9월 1일에는 김포비행장 밖에서 안으로 부대를 이전하여 처음으로 ‘항공기지’사령부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물리적 터전을 갖게 되었다.⁴⁹⁾ 그리고 10월까지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와 L-5 연락기를 각 10대씩 인수하여 마침내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항공기를 인수하면서 예하에 항공부대와 기지부대를 창설하여 ‘사령부’로서의 최소한의 조직 구조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11월 2일에는 미군으로부터 여의도 비행장을 인수하여 처음으로 한국군이

48) 공군본부(1954), p. 3.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7월 12일에 입대한 항공병 78명 중 16명이 약 2주 만에 이탈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교의 경우, 『장교임관순대장(공군)』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추산하면 7월 27일에 실제로는 ‘창설간부’ 7명과 박원석, 장지량 등 총 9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49) 『空軍日誌』, 1948년 9월 1일 자.

관할하는 비행장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비행부대를 여의도 비행장으로 이전하였다.⁵⁰⁾

병력 규모도 확대되었다. 항공병들 가운데 선별하여 장교로 특별임관시키는 방식으로 장교단을 확충했고, 항공병도 항공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398명을 충원했다.⁵¹⁾ 그래서 이 부대가 육군항공사령부로 개칭되었을 때, 장교는 50여 명, 사병은 450여 명 정도를 보유하게 되었다.⁵²⁾

항공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10월 23일에 최초로 실전에서 항공작전을 수행했다. 여수-순천에서 조선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된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 작전에 참여했다. 10월 21일에 출동 명령이 내려오자, 비행부대장 김정렬 대위를 비롯한 18명은 10월 23일에 연락기 10여 대로 첫 항공작전을 개시했다. 이들의 임무는 작전 명령 등 각종 문서 전달과 지상군에 대한 정찰 지원, 전단 살포 등이었다.⁵³⁾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는 「육본 일반명령」 제10호에 의해 1948년 12월 10일부로 육군항공사령부로 개편된 이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병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했다.

육군항공사령부는 우선 항공경력자에 국한되어 있었던 인력

50) 『空軍日誌』, 1948년 11월 2일 자.

51) 『空軍日誌』, 1948년 9월 18일 자.

52) 『장교임관순대장(공군)』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저자가 추산.

53) 『空軍日誌』, 1948년 10월 21일 자; 『空軍前史資料』; 국방부, 『國防本部歷史日誌』, (1946-1966), 1948년 10월 21일 자. 『공군전사자료』에는 “L-4 10대”와 “L-5 수대”가 출동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국방본부역사일지』에는 “9대의 비행기로 출동”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한편, 최초의 항공작전을 수행했던 10월 23일에는 비행부대 소속 항공병 백흥룡(白欽龍)이 L-4 연락기 1대를 타고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항공기지사령부에 대한 대규모 숙군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空軍日誌』, 1948년 10월 23일 자; 이강화, 『대한민국 공군의 이름으로: 6·25전쟁 출격 조종사이자 기록사진가 이강화 장군의 6·25전쟁 이야기』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4), p. 86.

충원 대상을 비경력자로 확대했다.⁵⁴⁾ 이를 위해 1949년 1월 14 일부로 육군항공사관학교를 창설했다.⁵⁵⁾ 이미 육군사관학교에서 장교를 양성하고 있었음에도 항공장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별도의 사관학교를 창설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비경력자를 대상으로 항공병을 모집하여, 1949년 2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총 1,162명을 충원했다.⁵⁶⁾ 그래서 10월 1일에 창군되었을 때 공군은 장교단 150여 명을 포함하여 총 1,600여 명의 병력을 갖추고, 공군본부 예하에 비행단과 항공기지사령부, 공군사관학교와 보급창, 공군병원, 그리고 여자항공대 등을 갖추게 되었다.⁵⁷⁾

문제는 항공기를 확충하지 못하여 전술적 능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점이었다. 1949년 3월 8일에 채병덕(蔡秉德) 국방참모총장은 L-5 연락기의 경우 현재 작동 가능한 항공기가 7대에 불과하다며 미군사고문단에 T-6 훈련기 원조를 요청했다.⁵⁸⁾ 또한 5월 3일에 무초(John J. Muccio) 주한미국대

54) 이지원(2021), pp. 13-14.

55) 육군항공사관학교는 3월 15일에 항공병 45명을 '제1차 소집학생'으로 입교시켜 교육을 개시했고, 이와 동시에 중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제1기 사관후보생을 모집하여 6월 10일에 제1기 사관후보생(사관생도)의 입교식을 거행했다. 공군사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공군사관학교 70년사』, (계룡: 국군인쇄창, 2019), pp. 83-84.

56) 2월 15일에는 항공병 제3기 326명과 여자항공병 제1기 15명을, 6월 13일에는 항공병 제4기 340명을, 8월 9일에는 항공병 제5기 252명을, 8월 19일에는 항공병 제6기 229명을 충원했다. 『空軍日誌』, 1949년 2월 15일, 6월 13일, 8월 9일, 8월 19일 자.

57) 백기인(2002), p. 240; 『空軍日誌』, 1949년 10월 1일 자.

58) 그는 당시 제주도에서는 4대, 광주에서는 2대의 L-5 연락기를 운용하고 있으나 작동 가능한 항공기는 7대에 불과하며, 비행장 대부분에는 격납고도 없어서 날개가 천 재질로 되어 있는 L-5 연락기는 쉽게 손상되므로, 철제 날개를 가진 항공기가 꼭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Memorandum from Chae Byong Dock to Roberts: Recommendation for supply of Air planes", RG 338, Box 6,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사가 미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전문에 따르면, 당시 한국군이 운용하고 있던 항공기는 L-4 연락기와 L-5 연락기 총 16대에 불과했다.⁵⁹⁾ 미국이 한국에 대하여 ‘Air Detachment’의 규모라는 항공력원조의 기준을 6·25전쟁 발발 전까지 일관되게 고수하여 항공기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⁶⁰⁾ 그 명칭의 변경과 조직 규모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점에서 한국군의 항공 부대는 여전히 연락기 20여 대를 운용하는 ‘Air Detachment’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항공 부대가 마치 갑각류가 껍질을 벗듯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도 정작 항공기는 그 이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6·25전쟁이 발발할 무렵 공군은 “양병조직 및 지휘참모조직의 과대(過大)함과 용병조직 및 전술제대의 과소(過小)함”이 특징인 기이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⁶¹⁾

5. 결 론

공군의 모체(母體)였던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史實)이 정립되지 못했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주요 자료들이 소실된 상황에서 육군과 공군은 각각 보유하고

59) 그는 당시 한국군이 이 항공기들을 제주도과 지리산에서 반군에 대한 정찰용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Telegram from the Ambassador in Korea (Muccio)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9. 5. 3.)”, RG 338, Box 6,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60) 이지원(2021), p. 12.

61) 이지원, 「6·25전쟁 전반기 미국의 항공기 원조와 한국의 전투조종사 양성정책: 제1전투비행단 창설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35권, 제2호 (2020), p. 38.

있는 소수의 자료를 토대로 그 역사를 재구성했고, 그 결과 상이한 역사 서술이 공존하게 되었다. 육군은 1952년에 『육군전사』에서, 공군은 1954년에 『공군발전약사』와 1962년에 『공군사』 제1집에서 그 역사를 기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역사서를 비교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문서 자료를 기반으로 조선경비대 예하의 항공 부대에 대한 역사 서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검증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실에 대한 누락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공군발전약사』의 역사 서술이 가장 사실에 가까웠다. 또한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조선경비대의 정규 항공 부대는 1948년 7월 27일에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정식 창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대는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전환되면서 12월 10일부로 육군 항공사령부로 개칭하였다가 이듬해 10월 1일부로 육군으로부터 독립하고, 국방부분부로부터 독립한 항공국과 결합하여 공군이 되었다.

그 개칭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는 우선 개칭한 후 그 이름에 부합하도록 병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방식의 성장을 반복하여 마침내 공군을 창군하는 데 이르렀다. 그래서 이 부대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름이란 새로운 목표와 같았고, 잦은 개칭은 외형적으로는 신속한 성장을 의미했다.

다만 신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선경비대 항공 부대의 전술적 역량은 공군을 창군할 때까지도 계속 답보상태였다. 병력과 조직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항공기는 단 한 대도 확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은 영국이나 미국의 공군과 달리 능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목표에 따라 창군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조선경비대 항공기지사령부의 역사적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 부대는 편제와 지휘관계, 그리고 독립된 기지를 갖춘 최초의 정규 항공 부대였으며, 공군을 창군하겠다는 목표의 출발점이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적 기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 료

가. 미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미 국무부 외교사료집(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FRUS), 미 합동참모본부(U.S. Joint Chiefs of Staff, JCS)

RG 338, Box 6, 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1948-49 and Korean Military Advisory Group, 1949-53.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9, Volume VII, Part 2. The Far East and Australi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J.C.S. 1483/60 (1949. 2. 1.).

나. 미 공군 역사연구소(U.S.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AFHRA)

Far East Air Force,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8. 29.).

Far East Air Force,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South Korean Army Air Forces" (1949. 9. 12.).

Far East Air Force, *Air Intelligence Information Report*, "Korean Air Force (Personnel Strength)" (1951. 7. 31.).

다. 군 역사 자료

공군본부, 『空軍前史資料(檀紀4281-4282)』 (1956. 5. 28.).

_____, 『空軍日誌(1948-1953)』.

공군본부, 『공군장교자력기록부』.

공군역사기록단, 『한국전쟁 면담록』 (1982).

육군 군사연구실, 『육일명철』 (1949).

국방부, 『國防本部歷史日誌』, (1946-1966).

_____, 『장교임관순대장(공군)』.

_____, 『統衛部特命綴』. (1947. 5. 5. - 1949. 9. 24.).

라. 법령 및 협정

법률 제9호, 「國軍組織에 關한 法令」, 1948년 11월 30일 제정.

대통령령 제254호, 「空軍本部職制」, 1949년 10월 1일 제정.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 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48년 8월 24일 발령.

마. 신문

『평화일보』 (1948. 7. 1.), “警備隊에 空軍設置: 白航空司令官中心으로 訓練實施”.

『대한일보』 (1948. 7. 3.), “空軍建設의 테마是正”.

2. 군 역사서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國防史1(1945. 8.~1950. 6.)』, 서울: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4.

공군본부, 『空軍發展略史 第1券』, 공군본부, 1954.

공군본부정훈감실, 『空軍史 第1輯(1949.10.1.~1953. 7. 27.)』, 서울: 공군교재창, 1962.

공군사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 『공군사관학교 70년사』,

계룡: 국군인쇄창, 2019.

공군역사기록단, 『空軍史 第1輯 改訂版(공군 창군과 6·25전쟁)』,

계룡: 공군본부, 2010.

김승기, 최정준, 『국방 100년의 역사 1919-2018』,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0.

백기인, 『建軍史』,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2,

<http://uci.or.kr/G500:1310377-02012016864087>.

백기인, 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육군본부, 『六. 二五 陸軍戰史 第1券』, 육군본부, 1952.

이은봉, 조복현, 『建軍50年史』,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8.

3. 기타 논문 및 저서

Sawyer, Robert K. 이상호, 윤시원, 이동원, 박영실 역, 『주한
미군사고문단사』, 서울: 선인, 2018.

木俣滋郎, 『陸軍航空隊全史 : その誕生から終焉まで』, 東京:
潮書房光人社, 2013.

강창부, 김기둥, 이지원, 「공군의 창설에서 최용덕의 역할」,
『민족문화논총』 64, 2016,

<http://doi.org/10.15186/ikc.2016.12.64.219>.

김경록, 「6·25 전쟁 이전 공군의 창군과 전력증강」, 『軍史』
第73號, 2009,

<http://doi.org/10.29212/mh.2009..73.65>.

김기둥, 「1945~1948년 항공력 건설 노력과 그 의의」, 『軍史』,
第99號, 2016,

<http://doi.org/10.29212/mh.2016..99.189>

김정렬, 『金貞烈 回顧錄』, 서울: 乙酉文化社, 1993,

<http://doi.org/G901:A-0008368112>.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 2009.

_____, 「군 자료를 통해 본 한국군의 창설과 변화: 국방경비대·육군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26권, 제2호, 2022, <http://doi.org/10.36432/CSMKH.48.202207.9>

신영진, 「미 군정기의 군비」, 『軍史』, 第16號, 1, 1988.

이명환, 「공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第68號, 2008,

<http://doi.org/10.29212/mh.2008..68.251>

이강화, 『대한민국 공군의 이름으로: 6·25전쟁 출격 조종사이자 기록사진가 이강화 장군의 6·25전쟁 이야기』,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4.

이지원, 「6·25전쟁 전반기 미국의 항공기 원조와 한국의 전투조종사 양성정책: 제1전투비행단 창설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35, 2020,

<http://doi.org/10.18013/jnar.2020.35.2.002>

_____,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노력(1948~1950)」, 『軍史』, 第121號, 2021,

<http://doi.org/10.29212/mh.2021..121.1>

(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National Constabulary's Aviation Unit

Lee, Ji-won

In December 1948, the aviation unit of Korean National Constabulary (KNC) was converted the ROK Army Air Command. And in October 1949,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was founded based on the Army Air Command. However, historical facts of the aviation unit of KNC have not settled yet. Since the most historical documents about the air unit were lost during the Korean War, the Army and the Air Force reconstructed the historical narrative of the unit based on a few remaining materials. As a result, three different historical narratives of the unit coexist now. These historical narratives can be found in the Yug-gun-jeon-sa (History of the Korean War of the ROK Army), published by the Army in 1952, the Gong-gun-bal-jeon-yag-sa (Brief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ROK Air force), published in 1954, and the Gong-gun-sa (History of the ROK Air Force), published in 1962. This study analyzes these three historical narratives to derives critical issues, and empirically verifies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the aviation unit of KNC by comparing them with historical docum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viation unit first changed its name and then grew in a way that expanded its manpower and organization to a size that matched the new name. However, not a single aircraft could be introduced until the Air Force was established, and the development of tactical capabilities of the aviation unit was stalled. In this sense, it can be evaluated that the Air Force was founded by goals rather than capabilities, and based on vision rather than lessons. And the "(KNC) Air Base Command" has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starting

point for such a process.

keywords : the Korean National Constabulary, air power, the ROK Air Force, aviation unit, establishment of a military branch, historical narrativ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81-130
<https://doi.org/10.29212/mh.2022..125.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광복군 출신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와 역할

김민호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목 차

1. 머리말
2. 국군의 창설
3. 한국광복군 출신의 국군 참여
4. 국군에서의 활동과 역할
5. 맺음말

초 록

이 논문은 한국광복군 출신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과 역할을 규명하고 정리한 것이다. 국군의 창설 과정에서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 참여인원과 참여자들의 특징, 국군에서의 활동과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광복군과 국군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우선 한국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에 참여한 자들을 전수 조사하였

다. 대상은 광복군 활동으로 서훈을 받은 자들로 삼았고, 운동계열은 다르지만 광복군 활동이 확인되는 자들을 추가하였다. 조사에는 각종 신문자료·회고록·증언집·자료집·현충원 전사자 기록·안장자 정보 등 가능한 많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또한 공훈록을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도 활용하였다. 가능한 한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의 대략적인 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의 창설과 성장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을 조사·발굴하고, 연구·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것이 곧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증명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군은 그 뿌리가 광복군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한국광복군,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 국군, 창군, 국군의 정통성

(원고투고일 : 2022. 10. 5, 심사수정일 : 2022. 11. 8, 게재확정일 : 2022. 11. 25.)

1. 머리말

1948년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었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조직법에 의해 국방부가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과 군사권을 이양받았다. 그리고 다음날인 8월 16일 국방부 훈령 제1호를 발표하여 대한민국 국군이 편성되었음을 공포하였다.

국군 창설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했다. 대체로 한국광복군(이하 광복군)·중국군·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군사경력을 중심으로 국군 창설에 참여하였고, 국군의 근간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국군을 창설하는데 있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 바로 광복군을 중심으로 국군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에서 창설된 광복군은 한말의병과 만주지역 독립군으로 이어져 온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을 잇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군이었다. 그만큼 광복군 출신들의 대한민국 국군 참여는 국군의 인적·정신적·역사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광복군과 국군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군의 원류와 정통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¹⁾ 이를 통해 국군의 원류는 항일독립운동사에서

1) 조동걸, 「韓國軍史의 源流意識」, 『軍史』 5, 1982 ; 삼군학회, 『民族獨立運動과 國軍의 脈絡』, 1989 ; 한용원, 「國軍의 光復軍 正統성 계승론」, 『平和』, 1989 ; 조항래, 「抗日獨立運動의 맥락에서 본 韓國軍의 正統性: 創軍의 배경과 正統性 계승을

찾아야 하고, 국군은 의병·독립군·광복군의 정통성을 이은 것이라는 점에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군의 근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²⁾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광복군과 국군의 관계에 대해 폭넓은 이해의 기반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은 광복군을 ‘국군의 뿌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국군 창설 과정에서 광복군 출신들의 역량과 자질을 평가절하 하고 있으며³⁾, 국군의 날 기념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⁴⁾ 뿐만 아니라,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 인사들의 명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범석·김홍일·최용덕 등 국군에서도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군이 창설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광복군 출신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 창설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통위부장과 조선경비대사령관을 비롯해 초대 국방부장관과 차관을 광복군 출신들이 맡았다. 또 각 연대·여단·사단·군단의 지휘관을 역임하며 국군을 성장시켰다. 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 1992 ; 김행복, 「光復軍이 國軍創設에 미친 影響」, 『군사논단』 20·21, 1999 ; 박성수, 「韓國光復軍의 正統性 問題」, 『三均主義研究論集』 21, 2000 ; 한시준, 「韓國光復軍 正統性的 國軍 계승 문제」, 『軍史』 43, 2001 ; 이강수, 「해방 직후 대한민국 國軍의 創軍과 그 역사성」, 『軍史』 88, 2013 ; 한용원, 『대한민국 국군 100년사』, 오름, 2014.

2)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한시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 ; 심현용·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한시준, 『반만년 역사의 제1대사건』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울, 2021.

3) 군사편찬위원회편,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 군사영어학교 출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 군사편찬위원회, 2012, 16~18쪽.

4) 한시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 353쪽.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장을 맡아 군사간부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6·25전쟁 때에는 직접 전투에 참전하여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한국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여 수행한 활동과 역할을 살펴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을 조사·분석할 것이다. 이들의 국군 참여 계기를 살펴보고, 참여자들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군의 창설과 성장 과정에서 광복군 출신들의 활동과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광복군과 국군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해 보고자 한다.

2. 국군의 창설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이 되자, 국군을 창설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것은 국내외에서 군사 활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광복군·중국군·일본군·만주군으로 활동했던 경험이 있는 군사경력자들이었다.

해방 직후 국내로 귀국한 군사경력자들은 자신들의 군사경력과 연고관계를 중심으로 사설군사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11월 미 군정청에 등록된 군사단체의 수는 무려 30여 개에 달했다.⁵⁾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계가 중심이 된 대한국군준비위원회, 일본군 출신들이 중심이 된 조선임시군

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 1967, 254쪽.

사위원회, 학병 출신들이 주축이 된 조선국군준비대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⁶⁾

이들이 군사단체를 조직한 것에는 목적이 있었다. 국내의 혼란한 질서와 치안을 확보하고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군대창설을 준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뚜렷한 주도세력이 없는 현실에서 군대창설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남한에 주둔한 미군정은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정만이 38선 이남의 유일한 정부임을 내세우며, 한국인들의 활동을 제약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정책은 사설군사단체에도 영향을 끼쳤다. 사설군사단체들이 미군정에 의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군정은 사설군사단체들의 활동을 면밀히 관찰했고, 이들의 활동이 치안의 혼란을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사설군사단체들을 해체·해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법령을 제정·공포하고 탄압에 나섰다.⁷⁾ 광복군 국내지대를 비롯한 국군준비대·학병동맹 등이 강제해산 되었다. 그러면서 이들을 대신할 방안으로 군대창설을 계획하였다.

미군정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군대창설 운동을 부정하고 자신들 주도로 군대창설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10월 31일, 미군정 치안국장겸 헌병사령관 쉬크(Lawrence E. Schick)의 ‘국방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건의는 그 첫 걸음이었다. 이 건의는 군정장관 아놀드(Archibald V. Arnold)를 거쳐 맥아더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다.⁸⁾ 그리고 자세한 검토과정을 거쳐

6)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26~29쪽.

7) 노영기, 「주한미군의 對韓 政세인식과 창군계획-사설군사단체에 대한 대응과 ‘뱀부 계획’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170~171쪽.

8)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84쪽.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를 통해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국방사령부는 미군정의 국방부라 할 수 있는 것으로, 군대창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하는 기구였다.⁹⁾

미군정의 군대창설 계획은 ‘뱀부계획(Bamboo Plan)’으로 구체화되었다. 뱀부계획은 국방사령부가 수립한 창군계획으로, 쉬크가 작성한 ‘국방군창설안’을 후임인 참페니(Arthur S. Champeny)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구축한 것이다.¹⁰⁾ 그 핵심은 남한 각 도에서 일정한 주둔지를 기준으로 일반 경찰과 같은 경찰예비대(Korean Constabulary Reserve)를 2만 5천 명 규모로 편성하여 경찰을 지원하고 국가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것에 있었다.¹¹⁾

이에 따라 1946년 1월 15일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었다. 태릉에 있는 옛 일본군 지원병 훈련소에서 제1연대가 창설된 것을 시작으로, 4월 1일까지 충남(대전)·전북(이리)·전남(광주)·경남(부산)·경북(대구)·충북(청주)·강원(춘천) 등에 경비대 창설이 이루어졌다.¹²⁾ 미군정에서는 이를 조선경찰예비대라고 하였지만, 한국 측에서는 남조선국방경비대라고 불렀다.¹³⁾

남조선국방경비대라는 명칭은 미소공동위원회를 계기로 다시 개칭되었다. 소련 측 대표가 명칭 사용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문제였다. 1946년 5월 서울 덕수궁에서 열린 미소공동위원회에

9) 한시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 355쪽.

10) 노영기, 「주한미군의 對韓 정세인식과 창군계획-사설군사단체에 대한 대응과 ‘뱀부계획’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179쪽.

11)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90쪽.

12)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71쪽.

13) 김증기, 『한국군사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206쪽.

참가한 소련 측 대표는 “미소 양국이 현재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무슨 의도로 설치했는지”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이에 미군정은 ‘국방’을 ‘국내치안’으로 변경하고, 국방사령부라는 명칭을 ‘국내경비부’로,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명칭을 바꾸었다.¹⁴⁾

미군정에서 국내경비부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 측에서 사용한 명칭은 ‘통위부(統衛府)’였다. 통위부라는 명칭은 한말의 군제인 통위영(統衛營)·장위영(壯衛營)·통어영(統禦營) 가운데 중영(中營)이었던 통위영에서 따온 것이었다.¹⁵⁾ 한국의 독자적인 ‘국방’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시도였다.

1946년 6월 광복군 출신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취임하였지만, 실질적인 군대창설 작업은 미군정이 주도해 나갔다. 지속적인 병력모집을 통해 각 지역별 연대 편성을 완료하였고, 6개 연대를 추가로 창설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경비대는 5개 여단, 15개 연대로 증편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¹⁶⁾ 군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 지휘체계에도 변화를 주어 기존의 총사령관 대리체제에서 총사령관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광복군 출신의 송호성이 조선경비대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¹⁷⁾

이러한 미군정의 군대창설 작업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미군정은 대한민국 정부로 행정권을 이양하였다. 8월

14)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86~187쪽.

15) 김증기, 『한국군사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212쪽.

16)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96~200쪽.

17)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197쪽.

24일에는 한미군사협정을 통해 군의 통수권 이양이 이루어졌다.¹⁸⁾ 이에 따라 8월 31일 통위부장 유동열은 국방부 장관 이범석과 ‘통위부 사무이양식’을 갖고, 모든 사무와 군의 지휘명령권을 이양하였다.¹⁹⁾ 이로써 통위부의 모든 업무와 기능이 국방부로 이관되었고, 국방부는 정부 조직으로서 군정을 장리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²⁰⁾

행정권과 군사권이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면서 군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1948년 9월 5일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육군·해군으로 개칭되었고, 조선경비대가 육군으로 개칭되면서 군사간부 양성기관이었던 조선경비사관학교도 육군사관학교로 명칭을 바꾸었다.²¹⁾ 이후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과 같은 해 12월 7일 「국방부직제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948년 12월 15일 통위부는 국방부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육군·해군으로 정식 편입되었다.²²⁾ 이로써 대한민국의 군대창설 작업은 완료되었고, 대한민국 군대는 ‘국군’이라는 명칭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8) 『서울신문』, 1948년 8월 26일, 「한미군사협정 조인」.

19) 『경향신문』, 1948년 9월 2일, 「통위부, 국방부로 사무인계 완료」; 『자유신문』, 1948년 9월 2일, 「국방부 사무 이양」; 『조선일보』, 1948년 9월 2일, 「유동열 통위부장 이임사」; 『관보』 제3호, 1948년 9월 13일, 「행정이양(대통령령 제3호, 南朝鮮過渡政府 機構引受에 관한 건)」.

20) 「정부조직법」 제17조, 1948년 7월 17일.

21) 국방군사연구소, 『建軍 50年史』, 1998, 45쪽.

22) 김증기, 『한국군사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219쪽.

3. 한국광복군 출신의 국군 참여

1946년 6월 광복군 대원들이 인천항을 통해 한국하였다. 한국한 광복군 대원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국군 창설의 주력이 되고자 하였다. 미군정이 추진한 군대창설에 참여를 거부하였고, 광복군 중심의 국군이 조직되기를 바랐다.

광복군 출신들은 광복군이 국군 창설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군대창설 초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미군정 주도의 국방경비대와 군사영어학교 입학도 거부하였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해 온 광복군 출신들은 미군정이 주도하는 군대창설이나 군사기관에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²³⁾ 뿐만 아니라, 일본군·만주군 출신 등 친일경력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상황도 광복군 출신들이 군대창설에 적극 나서지 않은 이유였다. 이들은 전선에서 서로 총을 맞대고 생사를 겨루던 사이였다. 때문에 광복군 출신들은 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 주도하는 군대창설에 동참하지 않았다.²⁴⁾

이러한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 그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광복군 출신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취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이범석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것이다.²⁵⁾ 이때부터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23) 고정훈, 『(祕錄) 軍』(上), 東方書苑, 1967, 197쪽 ; 강영훈, 『철기이범석평전』, 삼육출판사, 1992, 116쪽.

24) 최덕신, 『남한 땅에 30년 : 민족분단의 비극 속에서』, 統一評論社, 1985, 19~27쪽.

25)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71쪽.

하지만 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에 참여한 자들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2022년 10월 현재까지 광복군 출신으로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수는 579명이다. 이 가운데 국군에 참여하여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97명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운동 분류는 다르나 광복군 활동 경력이 있는 인물을 포함하면 102명에 이른다.²⁶⁾ 이는 전체의 17.6%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적 많은 수의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출신학교 · 기수 · 성명 · 계급 · 주요경력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⁷⁾

〈표 1〉 국군에 참여한 한국광복군 출신자 명단²⁸⁾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1	정부 요인	-	-	유동열 (1879~ 1950)	-	- 대한제국군 참령 -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총장	- 통위부장

26) 명단에 추가 포함된 인원과 운동계열은 다음과 같다. 권준(중국방면), 김신(임시정부), 송면수(임시정부), 오광선(만주방면), 장흥(중국방면).

27) 한국광복군 출신 국군 참여자를 파악하기 위해 ‘공훈전자자료관 · 독립유공자공적조서’를 참고하였다. 운동계열 가운데 ‘광복군’으로 명시된 인물들과 운동계열은 다르지만 광복군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28) <표 1>은 필자가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에 공개된 2022년 10월까지 ‘광복군’ 활동으로 서훈 받은 579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이다. 정밀하고 높은 신뢰도 구축을 위해 가능한 많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다. 각종 신문자료 · 회고록 · 증언집 · 자료집 · 현충원 전사자 기록 · 안장자 정보 등을 망라하였다. 공훈록을 비롯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도 활용하였다. 그러나 접근 가능한 자료의 열람제한과 정보의 부족으로 더 많은 인원을 찾아내지 못함에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 광복군과 국군의 명확한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 차원에서 협조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인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2	정부 요인	-	-	이범석 (1900~ 1972)	-	- 중국 운남강무당 - 신흥무관학교 교관 - 북로군정서 연성대장 - 낙양군관학교 교관 - 한국광복군 참모장 - 한국광복군 제2지대장	- 초대 국방부장관
3	정부 요인	문관 신분 (임시 정부)	-	송면수 (1910~ 1950)	-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정훈조장 - OSS훈련	- 초대 정훈국장
4	육군	군사 영어학교	-	유해준 (1917~ 1986)	소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5기 졸업 -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전속 부관	- 육군보병학교장 - 육군대학총장 - 육군 제1군 사령부 부사령관
5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2기	고시복 (1911~ 1953)	중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0기 - 중국군 - 군사특파단원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서울지구 병사구사령관 - 6·25전쟁 중 전사
6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2기	박영일 (1924~ 2011)	-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1948년 8월 예편
7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2기	송호성 (1889~ 1959)	소장	- 중국 비(碑)군사강습소 - 중국군 - 한국광복군 편려처장 및 제2지대장	- 제1여단장 - 제5사단장 - 조선경비대 사령관
8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2기	이무중 (1925~ 1950)	소령	- 1944년 중국군 제5전구 소속 전시간부훈련단 정공간부훈련반 제2기 입교 - 한국광복군 제1지대	- 제1사단 제11연대 제3대대장 - 6·25전쟁 중 전사
9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3기	박기성 (1905~ 1991)	준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1기 - 중일전쟁 참전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정보참모부장	- 6·25전쟁 참전 - 제2사단 제5연대장 - 제101사단장 - 병사구사령관
10	육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제3기	박승헌 (1923~ 1982)	대령 26	- 학병 입대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처 부관	- 육군헌병학교장 군헌병부장 - 육군헌병차감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11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박시창 (1903~1986)	소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제1지대 - 한국광복군 참모부 고급참모	- 제16연대장 - 제102여단장 - 제3군단 부군단장
12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전이호 (1922~2013)	대령	- 학병 징집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3지대 정보교육 담당	- 6·25전쟁 참전 - 제6사단 헌병부장 - 육군헌병학교장 - 군헌병부장 - 국방부 제3대 조사본부장
13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채원개 (1895~1974)	준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고급장교 복무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제3연대 작전참모 - 제7연대장 - 제3여단장 - 제2사단장
14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최덕신 (1914~1977)	중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제3사단장 - 제11사단장 - 제6대 육군사관학교장 - 외무부장관
15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최봉진 (1917~2003)	대령	- 한국광복군 제5지대 - 한국청년훈련반 - 인면전공공작대원	- 병참기지창장
16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3기	한성도 (1909~1950)	중령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토교대대장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대장	- 제3여단 연대장 - 제103여단 연대장 - 육군 중령 예편 - 복직 준비 중 - 6·25전쟁으로 실종
17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4기	강홍모 ²⁹⁾ (1922~2000)	-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1구대	- 6.25전쟁 참전 - 화살머리고지 전투 참전 - 제2사단 제32연대장

29) 현충원 안장자 정보에 의하면 강홍모는 2000년 6월 25일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18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4기	이건국 ³⁰⁾ (미상~1951)	대령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사관학교 교관 - 육군사관학교 정보참모 - 6·25전쟁 참전 - 제2사단 부연대장 - 강원도 황성전투에서 전사
19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김 소 (1917~2008)	대령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제1사단 제11연대 제1대대장
20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김용관 (1926~1971)	소장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OSS훈련	- 6·25전쟁 당시 대대장, 부연대장 참전 - 전라남도지사 취임 -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제38사단장 역임
21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문응국 (1921~1996)	대령	- 중국 중앙간부훈련단 제3기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 부대장	- 육군대학 제12기 졸업 - 육군 제2사령부 작전참모부 차장, 제12연대장, 제1사단 부사단장 - 제2대 문화재관리국장
22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박영준 (1915~2000)	소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7기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제3지대 제1구대장	- 초대 정훈감 - 국방대학원 졸업 - 육군소장, 한중문화협회 회장
23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박용운 ³¹⁾ (1917~1960)	-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충무·화랑무공훈장 수훈

30)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출생연도는 미상, 사망연도는 1950년으로 되어 있다. 국립현충원의 안장자 정보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이건국은 경북 대구 출신으로 6·25전쟁 중인 1951년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김병형 원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24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박재곤 (1916~1997)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국방부 총무과장
25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박종길 (1924~2008)	중령	- 한국광복군 토교대	- 제3·4·5대 민의원
26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유영중 (1921~1951)	대령	- 학병 입대 - 한국광복군 제9전구 지역공작대	- 1949년 웅진군 국사봉 전투 참전
27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장철부 (1921~1950)	중령	- 학병 입대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제1지대	- 육군사관학교 교관 - 독립기갑연대 기병대대장 - 6·25전쟁 중 전사
28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차약도 (1927~1950)	-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서울지구 헌병대장 - 6·25전쟁 중 전사
29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최규련 (1915~1999)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30	육군	조선경비사관학교	제5기	최세득 (1921~1998)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이명 : 왕세일
31	육군	육군사관학교	제7기	김국주 (1924~2021)	소장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육군소장 예편
32	육군	육군사관학교	제7기	김관오 (1901~1965)	준장	- 윤남강무당 - 중국군 복무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제21연대장
33	육군	육군사관학교	제7기	김명천 (1916~1999)	중령	- 중국 포병장교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 6·25전쟁 참전 - 화랑무궁훈장 - 육군 중령 예편 - 대한중석·광복회·재향군인회 활동
34	육군	육군사관학교	제7기	박영섭 (1922~1962)	준장	- 한국청년훈련반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2구대 - OSS훈련	- 제21연대 제2대대장

저·김홍준 편저, 『끝없이 가는 길』, 문운당, 2020, 186~190쪽).

31)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미상으로 되어 있다.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35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박영진 (1921~ 1950)	대위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인면전구공작대	- 6·25전쟁 중 전사
36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윤태현 (1919~ 1970)	소령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 - OSS훈련	- 제21연대 제1대대장 - 6·25전쟁 중 즉결 처분
37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이신성 (1922~ 2016)	중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OSS훈련	- 대한독립투쟁사 편찬위원
38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장철 (1922~ 2008)	대령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 한국청년훈련반	- 육군 제39사단 참모장 - 육군 조달차감 - 제15대 광복회장
39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태윤기 (1918~ 2012)	대령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 OSS훈련	- 육군 법무대령 - 변호사
40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황영식 (1913~ 1969)	중령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육군 중령 예편
41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7기	황의선 (1924~ 2018)	대령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 경리주임	- 6·25전쟁 참전 - 육군보병학교 교관 - 육군 제1·2훈련소 연대장 - 육군 제3사단 제22연대장 - 육군 제35사단 참모장 - 국군 군수검열단장
42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구자민 (1924~ 2001)	중령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 OSS훈련	- 군수기지사령부 시설대장
43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김병학 (1922~ 1983)	중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정보장교 - 육군 중령 예편
44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김영오 (1920~ 1993)	중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육군 중령 예편 - 한국전력 상무 - 한국석유공업 고문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45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김영일 (1925~ 2011)	소장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OSS훈련	- 6·25전쟁 참전 - 십자성부대 사령관 - 육군대학 총장
46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노복선 (1912~ 1997)	-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0기 졸업 - 군사특파단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총무조장	- 육군 연대장
47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승영호 ³²⁾ (1920~ 1988)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육군 대령 예편 - 제9대 제주지방병무청장
48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안춘생 (1912~ 2011)	중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0기 졸업 - 한국광복군 제2지대 구대장 - 한국광복군 주남경 지대장	- 제9대 육군사관학교장 - 육군 제8사단장, 국방부 차관보
49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이금렬 (1926~ 2003)	대령	- 한국광복군 초모활동	- 제3사단 부사단장 - 육군 대령 예편
50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이준식 (1900~ 1966)	중장	- 1921년 운남강무당 졸업 - 정의부 군사위원장 - 1930년 중국군 고급장교 - 한국광복군 군사특파단 주임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제8대 육군사관학교장 - 제7여단장 - 제7사단장
51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이흥근 (1928~ 2009)	준장	- 한국광복군 제3지대 제3분대	- 6·25전쟁 참전 - 제17연대 제2대대 소대장 - 제28사단 제81연대장 - 제32사단 부사단장
52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장호강 (1916~ 2009)	준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 중국 제24집단군 사령부 및 제29군 사령부 정보장교 - 한국광복군 제3지대 부관주임	- 제3사단장 전속 부관 - 제3사단 정보처 보좌관 - 육군본부 사제과장

32)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사망연도가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자료에 의하면 1988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경향신문』, 1988년 5월 4일, 「독립유공자 承永祐씨」).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53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전재덕 (1924~ 2016)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서울시부시장 - 중앙정보부 제2차장 - 駐핀란드대사
54	육군	육군 사관학교	제8기	함세만 (1922~ 2012)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육군 대대장 - 병기 기지장
55	육군	육군 사관학교 (중국방면)	특임	권준 (1895~ 1959)	소장	- 신흥무관학교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한국광복군 漢口잠면지대장	- 초대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 제103사단장 - 초대 제50사단장
56	육군	육군 사관학교	특임	김동수 (1916~ 1982)	준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0기 졸업 - 중국군 제25사단 복무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부대장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제8사단 제16연대장 - 제1기갑연대장 - 제27사단장
57	육군	육군 사관학교	특임	김홍일 (1898~ 1980)	중장	- 귀주강무당 졸업 - 중국군 19집단군 참모처장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장	- 제7대 육군사관학교장 - 시흥지구전투사령관 - 초대 제1군단장
58	육군	육군 사관학교 (민주방면)	특임	오광선 (1896~ 1967)	준장	- 중국 보정군관학교 - 신흥무관학교 - 한국독립군 - 낙양군관학교 교관 - 한국광복군 국내지대장	- 兵事區司令官 - 전주지구위수사령관
59	육군	육군 사관학교 (중국방면)	특임	장흥 (1903~ 1983)	소장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헌병사령부 - 한국광복군 漢口잠면지대부지대장	- 초대 헌병사령관 - 제6사단장
60	육군	육군 종합학교	-	김영관 (1924~ 생존)	대위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강남분대	- 6·25전쟁 중 입대·참전 - 공병장교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61	육군	미상	-	김명탁 ³³⁾ (1916~ 1950)	중령	- 한국청년훈련반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2구대	- 6·25전쟁 참전 - 제6사단 - 6·25전쟁 중 전사
62	육군	미상	-	김승조 (1919~ 2013)	대위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대위 예편
63	육군	미상	-	김영남 (1922~ 1950)	소령	- 학병 징집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육군헌병학교 졸업 - 6·25전쟁 참전 - 안동전투에서 전사
64	육군	미상	-	김은석 (1919~ 2011)	-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중국군 장교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6·25전쟁 참전 - 낙동강 방어전투 참전
65	육군	미상	-	김일환 ³⁴⁾ (1923~ 1950)	소령	- 중국 철도경호대 졸업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6·25전쟁 참전 - 평남 덕천전투에서 전사
66	육군	미상	-	김중섭 (1916~ 1985)	중령	- 한국광복군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육군 중령 예편
67	육군	미상	-	김현 (1914~ 1950)	대위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제8사단 - 6·25전쟁 참전 - 6·25전쟁에서 전사
68	육군	미상	-	나태섭 (1901~ 1989)	대령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제10기 졸업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주계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6·25전쟁 참전
69	육군	미상	-	문상명 (1922~ 1992)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중 입대·참전 - 육군 제2보병연대장 - 육군대학 참모장

33) 현충원 안장자 정보와 전쟁기념관 전사자 정보에는 1926년 7월 21일 출생, 1950년 10월 20일 전사로 기록되어 있다.

34) 국가보훈처 공훈록·현충원 안장자 정보·전쟁기념관 전사자 정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공훈전자사료관에는 생몰년월일이 1923~1950년 11월 31일로 되어 있고, 평남 덕천전투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충원 안장자 정보와 전쟁기념관 전사자 정보에는 1950년 11월 22일 전사한 제8사단 제16연대 소속의 소령 김일환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계 기관에 문의한 결과 동일인물로 판단된다.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70	육군	미상	-	박금룡 (1925~ 2019)	-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6·25전쟁 참전 - 육군 헌병
71	육군	미상	-	박동환 (미상~ 1948)	-	- 한국광복군 제3지대	
72	육군	미상	-	박석권 (1925~ 1990)	중령	- 한국광복군 제1지대	- 6·25전쟁 참전 - 제8사단 제10연대 제1대대 중대장 - 6·25전쟁 중 강릉전투에서 부상 - 육군 중령 예편 - 제13대 평창군수, 횡성군수, 화천군수 역임
73	육군	미상	-	박재화 (1921~ 1950)	대위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 제1분대장 - OSS훈련	- 제1사단 제13연대 중대장 - 6·25전쟁 중 전사
74	육군	미상	-	박효근 (1923~ 2009)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경북대 학생군사교육단장(19 69) - 대한석탄공사(1975)
75	육군	미상	-	백창섭 (1916~ 2004)	-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국내특파원	- 육군 제1사단 입대(1950년 11월) - 6·25전쟁 참전 - 평양전투 참전
76	육군	미상	-	선우기 (1921~ 1949)	중위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 OSS훈련	- 지라산 토벌 작전 중 전사(1949)
77	육군	미상	-	오성행 (1921~ 2000)	대령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부관	- 6·25전쟁 참전
78	육군	미상	-	이득우 (1925~ 2014)	-	- 한국광복군 제3지대 제3분대	- 6·25전쟁 참전 - 육군 헌병 - 미국 이민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79	육군	미상	-	이명 (1917~ 1950)	-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 OSS훈련	- 6·25전쟁 중 전사
80	육군	미상	-	이영길 (1912~ 1973)	대령	- 학병 징집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경위대	- 6·25전쟁 참전 - 제26사단 제73연대장 - 육군 대령 예편
81	육군	미상	-	이종렬 (1924~ 2019)	-	- 한국광복군 제9전구공작대	- 6·25전쟁 중 입대 - 제주도 포로수용소와 미군에서 군생활
82	육군	미상	-	이진영 (1907~ 1951)	-	-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졸업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6·25전쟁 중 전사(화순지구)
83	육군	미상	-	이찬영 (1924~ 1983)	대령	-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	- 육군 헌병장교 임관 - 6·25전쟁 참전 - 국방부 제7대 조사본부장
84	육군	미상	-	이창도 (1926~ 2010)	대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6·25전쟁 참전 - 육군 제2훈련소 수용연대장
85	육군	미상	-	장덕기 (1921~ 1996)	대령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2구대 - OSS훈련	- 6·25전쟁 참전 - 육군포병장교 - 아르헨티나 이민
86	육군	미상	-	정희섭 (1920~ 1987)	준장	- 개봉 하남의원 근무 - 한국광복군 징모 제3분처 활동 협조	- 제2대 국군의무사령관 - 보건사회부장관
87	육군	미상	-	차성훈 (1926~ 1951)	소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OSS훈련	- 6·25전쟁 중 전사
88	육군	미상	-	최덕휴 (1922~ 1998)	소령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중 입대 - 육군본부 및 국방부 복무 - 화가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89	육군	미상	-	최장학 ³⁵⁾ (1909~1987)	대위	- 한국광복군 제1지대	- 육군 장교 임관 - 육군 대위 예편
90	육군	미상	-	한필동 (1921~1993)	대령	- 한국광복군 토교대	- 육군 제1연대 현병대장
91	육군	미상	-	허영일 (1921~1950)	-	- 한국청년전지공작대 - 한국청년훈련반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제2분대장 - OSS훈련	- 6·25전쟁 중 전사
92	육군	미상	-	홍구표 (1923~2000)	대령	- 학병 입대 - 한국광복군 제2지대	- 6·25전쟁 참전 - 6·25전쟁 당시 한국은행 금괴 수송열차 호송책임(육군 소령)
93	육군	미상	-	홍재원 (1917~2015)	중령	- 한국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 - OSS훈련	- 6·25전쟁 참전 - 육군 중령 예편
94	육군	미상	-	황하규 (1921~1950)	대위	- 한국광복군 제1지대 제1구대	- 육군 장교 임관 - 6·25전쟁 참전 - 제3사단 - 경북 영덕전투에서 전사
95	육군	미상	-	최시화 ³⁶⁾ (1921~미상)	-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중 전사
96	육군	부사관	-	박찬규 (1928~2019)	하사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6·25전쟁 참전 - 백마고지전투 공훈
97	육군	부사관	-	장세국 (1928~2012)	상사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육군 이등병 입대 - 육군 상사 전역(1951)

35) 이명은 陳嘉明이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운동사』 6, 1975, 371쪽).

36) 최시화의 아들 최광삼과의 통화를 통해 최시화가 해방 이후 국군에 참여하였고, 6·25전쟁 중 전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만, 당시 사망연도·계급·참여기관·활동 등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상’으로 표시해둬를 밝혀둔다.

번호	구분	출신 학교	기수	성명 (생몰연도)	최종 계급	주요경력	
						해방 이전	해방 이후
98	육군	병	-	이영수 (1924~ 2022)	대위	- 한국광복군 제3지대	- 이등병 입대(1952) - 6·25전쟁 참전 (제9사단 제29연대) - 대위 전역
99	해군	미상	-	민영구 (1909~ 1976)	소장	- 한국광복군진청년공작대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해군본부 함정국장 - 해군본부 작전참모부장 - 제9대 해군사관학교장
100	공군	미상	-	이윤철 (1925~ 2017)	소령	- 한국광복군진청년공작대	- 6·25전쟁 참전
101	공군	조선경비 사관학교	-	최용덕 (1898~ 1969)	중장	- 중국 보정항공학교 - 중국 남창공군기지사령관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초대 국방부차관 - 제3대 공군사관학교장 - 제2대 공군참모총장
102	공군	(임시정부)	-	김신 (1922~ 2016)	중장	- 중국 공군사관학교 - 미국 텍사스 랜돌프 비행학교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부원	- 6·25전쟁 참전 - 제6대 공군참모총장

※ 육군사관학교, 『陸軍士官學校 第五期 卒業記念 寫眞帖』, 육군사관학교, 1948(독립기념관 소장); 고정훈, 『(祕錄) 軍』(上), 東方書苑, 1967; 김홍일, 『대륙의 분노』, 文潮社, 1972;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6, 1975;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海軍士官學校, 1981; 이응준, 『回顧90年: 1890~1981(이응준 자서전)』, 산문기념사업회, 1982;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최덕신, 『남한땅에 30년: 민족분단의 비극 속에서』, 統一評論社, 1985; 이현희, 『韓國獨立運動證言資料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陸士第8期史編纂委員會, 『老兵들의 證言 - 陸士八期史』, 陸軍士官學校 第八期生會, 1992;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II, 2002; 육군사관학교 제3기사 편찬위원회, 『화랑의 꿈 선구의 길 - 陸軍士官學校 第3期史』, 육군사관학교 제3기동기회, 2005; 박영준, 『한강물 다시 흐르고』,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05; 황의선, 『황의선 회고록: 돌아보는 激變의 80년 歲月』, 신생커뮤니케이션, 2008; 국사편찬위원회편, 『한국군 초기 역사를 듣다: 군사영어학교 출

신 예비역 장성의 구술』, 국사편찬위원회, 2012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편, 『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돌베개, 2013 ;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구술자료집』(우리는 광복군, 조국의 영원한 용사), 2015 ; 백기인·심헌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 한명해, 『한국광복군경위대대장 한성도』, 2018 ; 심헌용·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 김병형 원저, 김홍준 편저, 『끝없이 가는 길 : 마지막 기병대장 장철부 중령의 생애』, 문운당, 2020 ; 『경향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한겨레신문』·『연합뉴스』·『오마이뉴스』·『주간경향』·『뉴시스』·『고양신문』, 가족 증언.

※※ 기존에 광복군 출신으로 알려진 김응조·조개옥·전성호·이성가·소재현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김응조·이성가·소재현은 독립운동 활동으로 서훈을 받지 않았으며 광복군 활동도 확인되지 않는다. 조개옥(중국방면)과 전성호(만주방면)는 독립유공자로 서훈은 받았으나 해방 이전 광복군 활동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에 입대한 인물들은 모두 102명이다. 이들을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광복군 출신들은 육·해·공군에 모두 참여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방이전 각자의 군사경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곳은 육군이다. 전체 102명 가운데 95명이 육군에 입대하였다. 육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은 대부분 조선경비사관학교와 그 후신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특히 제2기부터 제8기 사이에 집중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광복군 출신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임명된 것과 이범석이 국방부 장관에 부임한 것에 연유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는 1946년 6월,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취임하면서 부터이다. 유동열은 당시 군 경력자 가운데 가장 연장자로, 각종 군사경력자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190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04년부터 대한제국군의 장교로 활동하였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군

으로 항일무장투쟁을 펼쳤고, 1940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자, 통수부의 막료 겸 참모총장에 임명되어 최고 통수권을 행사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³⁷⁾ 대한제국군·독립군·광복군으로 활동하며 한국군의 정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유동열은 국군 창설에 친일경력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광복군 출신과 같은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자들이 국군 창설에 참여하여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야만 국군 내부의 친일세력화를 저지할 수 있고, 그들의 독단과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³⁸⁾

유동열의 이러한 의중은 조선경비대사령관 인사에 관철되었다.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오르게 되면서 조선경비대사령관에 광복군 출신의 송호성이 임명된 것이다. 송호성은 중국 한단(邯鄲) 군사강습소를 졸업하고 중국군으로 활동하다가 광복군 제2지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³⁹⁾ 그가 전국 8개 도에 1개 연대씩 편성된 군대인 조선경비대의 총지휘를 맡게 되었다.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과 송호성이 통위부장과 조선경비대사령관에 부임하자, 광복군 출신들이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였다. 1946년 9월 23일에 선발한 제2기에 고시복·박영일·이무중이 입교한 것을 시작으로, 1947년 1월 13일에 선발한 제3기에 박기성·박승헌·박시창·전이호·채원개·최덕신·최봉진·한성도가 입교한 것이다. 제4기에는 강홍모·이건국이 입학하였고, 1947년 10월 1일 입학한 제5기에는 김소·문응국·박영준·박용운·박재곤·박종길·유영중·장철부·차약도·최규

37) 박종연, 「春郊 柳東說(1879-1950)의 생애와 독립운동」,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4~24쪽.

38) 최덕신, 『남한 땅에 30년 : 민족분단의 비극 속에서』, 統一評論社, 1985, 28쪽.

39)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243쪽.

련·최세득 등이 참여하였다.

이 중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의 자제 또는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고시복·박시창·최덕신·박영준 등이 그들이다. 고시복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김봉준의 사위이자, 광복군으로 활동했던 김정숙의 남편이었다. 박시창은 민족언론인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역임한 박은식의 자제이고, 최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에서 활동한 최동오의 아들이자, 광복군 참모총장과 해방 후 통위부장을 지낸 유동열의 사위였다. 마지막으로 박영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중국 외교활동을 전담한 박찬익의 아들로, 부인은 광복군에서 함께 활동했던 신순호이며, 장인 신건식과 장모 오건해 역시 독립운동가였다. 고시복·박시창·최덕신·박영준은 모두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군과 광복군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졌다.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범석과 최용덕이 국방부장관과 차관에 임명되면서 광복군 출신의 국군 참여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7기에 김관오·김국주·김명천·박영섭·박영진·윤택현·이신성·태윤기·황영식·황의선 등이 입학하였고, 제8기에는 구자민·김병학·김영오·김영일·노복선·승영호·안춘생·이금렬·이준식·이흥근·장호강·전재덕·함세만 등이 입교하였다.

제8기 가운데는 정규모집과 별도로 특별임관 방식으로 국군에 참여한 자들도 있었다. 권준·김홍일·장홍·오광선·김동수 등이 그런 경우이다. 이들은 해방 이전 군사경력을 인정받아 특별임관 형식으로 국군에 참여하였다.⁴⁰⁾ 권준·김홍일·장홍은 중

40)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60~61쪽.

국군 고급장교 출신으로, 중국군에 복무하면서 한국독립운동을 지원하고 항일전을 수행한 인물들이다. 특히 김홍일은 중일전쟁 당시 직접 지휘관으로 참전하여 상고회전(上高會戰)·장사회전(長沙會戰)과 같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중국군 소장에 진급하기도 했다.⁴¹⁾ 그리고 오광선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한국독립군과 낙양군관학교 교관으로 활약하였고⁴²⁾, 김동수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와 광복군 경위대 대장을 지냈다.⁴³⁾

광복군 출신들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과 공군에도 참여하였다. 해군의 민영구, 공군의 최용덕·김신·이윤철이 그 예이다. 민영구는 독립운동가 민제호(閔濟鎬)의 장남으로, 부인 이국영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⁴⁴⁾ 1929년 상해 만국항해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상선의 항해사로 근무하다가 광복군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특히 중일전쟁 당시 한구(漢口)와 남경(南京) 간 항로를 취항하면서 중국 국민당군의 군수품과 장병 수송에 참가하였으며, 1937년 12월에는 제2차 양자강 봉쇄작전에 직접 선단을 이끌고 참전하여 일본 군함의 통과를 저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⁴⁵⁾ 공군의 최용덕은 단기서(段祺瑞) 군벌이 설립한 남원(南苑)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보정(保定)항공학교에 들어가 중국 공군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남창(南昌)공군기지사령관을 지냈다.⁴⁶⁾ 김신은

41) 김종문, 「김홍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8, 한국근현대사학회, 2014, 185~186쪽.

42) 김명섭, 「吳光鮮의 생애와 만주 독립군 활동」, 『군사』 1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 46~62쪽.

43)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36·68~71쪽.

44)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구술자료집』(우리는 광복군, 조국의 영원한 용사), 2015, 346~347쪽.

45) 김재승, 「愛國志士 閔泳玖 船長の 中國商船에서의 活躍」, 『해양평론』, 2006, 186~187쪽.

46) 김기동·강창부·이지원, 「최용덕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군사』 95,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 김구의 둘째 아들로, 1944년 곤명(昆明)의 공군군관학교와 미국 랜돌프(Randolph)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 공군으로 활동한 인물이다.⁴⁷⁾ 이윤철은 독립운동가 이광(李光)의 아들로, 민영구의 처남이다. 1945년 중국공군통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천성 신진 B-29기지에서 지원 업무를 맡다가 1950년 4월 국내로 들어와 공군에 입대하였다.⁴⁸⁾

둘째, 장교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사관과 사병은 2명, 1명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군사 활동에 정통한 정식 군관학교 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연유한다. 광복군 출신 국군 참여자 가운데 정식 군관학교를 졸업한 경력이 있거나 한광반·한청반 수료 후 광복군 장교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인물은 50명에 달한다.⁴⁹⁾ 참여자 중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과거에 장교로서 경험을 가진 자들로, 해방 이후 국군에서도 그 경력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방 직후 국군의 근간을 이룰 장교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광복군 출신들의 국군 참여는 군사간부 수급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주는 분명한 요소였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433~434쪽.

47)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 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돌베개, 2013, 77~102쪽.

48)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구술자료집』(우리는 광복군, 조국의 영원한 용사), 2015, 381~467쪽.

49) 한국과 중국의 군관학교 졸업자 35명과 한청반·한광반 수료자 19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중에는 중국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한청반·한광반을 수료한 김명탁·김일환·박영섭·박재화·이명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군 제5전구 소속 전시간 부훈련단 정공간부훈련반 출신의 이무중을 포함시키면 총 인원은 50명이 된다.

〈표 2〉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의 계급별 분류

구분	계급	인원	비고
육군	장교	91	95
	부사관	2	
	병	1	
	미상	1	
해군	장교	1	1
	부사관	0	
	병	0	
공군	장교	3	3
	부사관	0	
	병	0	
총원			99

※ '정부요인'으로 분류한 유동열·이범석·송면수 제외

셋째, 다양한 나이대의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였다. 국군에 참여할 당시 나이를 살펴보면, 20대 56명, 30대 27명, 40대 11명, 50대 5명, 60대 2명, 미상 1명이다. 이 가운데 20~30대가 83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해방 당시 20~30대의 젊은 광복군들이 자신들의 광복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군에 적극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40~60대는 고급군사경력자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김홍일·송호성·오광선·이준식·채원개 등 독립군과 광복군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인물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국군의 중견간부로 임명되어 초급 간부들을 이끌고, 국군의 지휘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맡았다.

넷째,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 중에는 독립군·중국군·광복군으로 대일전쟁에 참전한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실전 전투경험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이준식과 오

광선은 1930년대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였고⁵⁰⁾, 고시복 · 김홍일 · 박시창 · 안춘생 · 최덕신 · 최용덕 등은 중국군으로서 중일전쟁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던 경력을 가졌다.⁵¹⁾ 문응국 · 박영진 · 최봉진은 인면전구공작대원으로 파견되어 임팔 전투에서 광복군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하였다.⁵²⁾ 이들의 실전 경험은 국군의 전투역량 발전에 기대되는 부분이었다.

다섯째, 광복군 창설을 함께했던 인물들이 국군 태동과 함께 하였다. 나태섭 · 이준식 · 노복선 · 안춘생 · 유해준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사특파단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군사특파단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군사거점을 확보하고, 한인교포들을 대상으로 선전 · 초모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이들은 광복군 창설의 실질적인 준비 작업을 했고, 광복군의 활동기반을 개척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⁵³⁾ 이러한 이들의 경험과 역량은 초창기 국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였다.

50) 정호영, 「영덕지구전투에서 벼랑 끝 조국을 구하다 : 독립군과 광복군 출신의 국군지휘관 이준식 장군」, 『국방저널』 통권 제572호, 국방홍보원, 2021, 14쪽 ; 김명섭, 「吳光鮮의 생애와 만주 독립군 활동」, 『軍史』 121, 20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6-64쪽.

51) 김홍일, 『대륙의 분노』, 文潮社, 1972, 306~346쪽 ; 오효진, 「영원한 光復軍 安椿生」, 『月刊朝鮮』 7·8, 조선일보사, 1986, 233~235쪽 ;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185쪽 ; 김기동 · 강창부 · 이지원, 「최용덕의 항공독립운동과 광복군 내 역할」, 『군사』 95, 2015, 442~443쪽.

52) 박민영, 「한국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53쪽.

53)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74~76쪽.

4. 국군에서의 활동과 역할

가. 초대 국방부 장·차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되자,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에 적극 참여하였다.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국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한 것이다. 이들은 육군·해군·공군에 참여하여 국군이 뿌리를 내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차관을 비롯한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장, 주요 부대 지휘관에 임명되어 국군의 주요 인적자원으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복군 출신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과 차관으로 활동하였다. 이범석과 최용덕이 그들이다. 국방부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직책이다.⁵⁴⁾ 또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⁵⁵⁾ 즉, 국방과 군사에 정통하고 역량을 갖춘 인물이 임명되는 자리인 것이다. 이러한 핵심 요직에 광복군 출신을 임명했다는 것은 초대 대한민국 정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만큼 광복군 출신들의 경력과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것이며, 해방 이후 혼란한 군 출신자들을 통합하고 이끌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과 차관에 임명된 이범석과 최용덕은 초창기 국군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국방부장관 이범석은

54) 정부조직법 제33조 및 국군조직법 제8조.

55) 정부조직법 제7조.

1948년 8월 31일 통위부장 유동열로부터 군사권을 이양 받아 '대한민국 국군'의 출발을 알렸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국군이 법적인 지위와 체제를 갖추 수 있도록 국방체계를 정비해 나갔다. 1948년 11월 30일 법률 제9호로서 국군조직법을 공포하여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하였고⁵⁶⁾, 1948년 12월 7일에는 국방부 직제령을 공포하여 국방부 본부와 육·해군 본부의 직제와 지휘체계를 마련하였다.⁵⁷⁾ 체제가 정비되자, 군사력 강화에도 힘썼다. 육군수색학교·호림부대·유격대대 등을 창설하여 병력을 확보하였고, 전투력 향상을 위해 미국 측에 각종 무기와 장비의 지원을 요청하였다.⁵⁸⁾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 정훈국을 설치하여 국군의 군인정신 함양에도 노력을 기울였다.⁵⁹⁾

국방부차관 최용덕은 장관 이범석을 보좌하며 국군의 통합과 조직 체계 마련에 힘썼다. 특히 국군 조직에 있어 공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데 공헌한 점이 주목된다. 국군 창설 당시 공군은 육군과 해군에 비해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공군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작았고 인적·물적 자원 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⁶⁰⁾ 따라서 독립 조직이 아닌, 육군 항공부대 소속으로 편제되었다.⁶¹⁾

56)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48쪽.

57) 백기인, 「한국 국방체제의 형성과 조정, 1945-1970」, 『군사』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60쪽.

58) 백기인, 「건국 직후(1948~1950) 국방정책의 형성과 그 성격」, 『군사』 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74쪽 ; 황민호, 『철기 이범석 평전』, 선인, 2021, 174~175쪽.

59) 김지훈, 「창군기 한국군 政訓의 도입과 성격」,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16쪽.

60) 고정훈, 『(秘錄) 軍』(上), 東方書苑, 1967, 52쪽 ; 김정렬, 『김정렬 회고록』, 을지문화사, 1993, 81~87·92·97쪽 ; 강창부·김기동·이지원, 「공군의 창설에서 최용덕의 역할」, 『민족문화논총』 64, 2016, 240쪽.

61) 김경록, 「6.25전쟁 이전 공군의 창군과 전력증강」, 『군사』 7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75~78쪽.

최용덕은 항공전력 강화와 공군의 독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1948년 11월 10일 열린 국회 제100차 회의에서 공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⁶²⁾, 그 결과 1948년 11월 30일 제정된 「국군조직법」에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부칙이 반영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⁶³⁾ 또한 1949년 1월 14일에는 육군 항공사관학교를 창설하여 항공부대가 독자적인 공군으로 발전하기 위한 인재양성의 토대를 닦았다.⁶⁴⁾

나.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장

광복군 출신들은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되어 군사간부 육성의 책임을 담당하였다. 육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한 송호성·최덕신·김홍일·이준식·안춘생을 비롯해서 해군사관학교 교장의 민영구, 공군사관학교 교장의 최용덕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초창기 각 군 사관학교의 교장을 맡아 국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사관학교가 국군의 요람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광복군 출신들은 육군사관학교의 교장을 맡아 군사간부 양성에 힘썼다. 특히 제6대부터 제9대까지 최덕신·김홍일·이준식·안춘생이 교장을 역임한 것이 주목된다. 광복군 출신 가운데 처음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된 인물은 송호성이다. 송호성은 조선경비사관학교 시절인 1947년 5월 1일부터 1947년 10월 11일까지 제4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당시 고급군사경력자였던 송호성

62)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제1회 속기록』(제100호, 1948년 11월 10일), 국회사무처, 860~861쪽.

63) 「國軍組織에 關한 法令」(법률 제9호, 1948년 11월 30일).

64)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43~44쪽.

은 통위부장 유동열의 배려로 조선경비사관학교 제2기로 특별입교 하였고, 교육을 수료한 후 다른 교육생들보다 먼저 특별임관 형식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⁶⁵⁾ 이후 1946년 12월 23일 제2대 조선경비대총사령관에 임명되었고, 1947년 5월 1일부터는 조선경비사관학교 교장을 겸임하게 되었다.⁶⁶⁾

송호성은 교장으로서 직접 생도의 선발과 임관을 책임졌다. 1947년 5월 5일 통위부 특명에 의하여 중령 정일권·박동균, 소령 김종갑·최홍희, 대위 김현수·김완용·김형일·오일균 등과 함께 제4기생 입학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임명되어 입학시험을 주관하였다. 최종면접에도 참여하여 우수한 인재 선발에 힘썼다. 재임기간 중에는 생도들에게 「조선혼」을 강조하며 민족정신 함양에 노력을 기울였다.⁶⁷⁾

광복군 출신으로 두 번째로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된 인물은 최덕신이다. 최덕신은 1948년 7월 29일 조선경비사관학교 제6대 교장에 취임하였다. 최덕신의 사관학교 교장 임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광복군 출신을 교장에 임명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최덕신 이후 광복군 출신의 김홍일·이준식·안춘생이 연이어 교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국군의 정통성은 광복군에 있다는 것 그리고 국군이 광복군의 후예라는 긍지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⁶⁸⁾ 최덕신은 취임하여 ‘창조성·적극성·자율성’을 교육의 3대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생도들의 교육을 위

65)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90쪽.

66)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66쪽.

67)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66~67쪽.

68) 한시준, 『반만년 역사의 제1대사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울, 2021, 274~275쪽.

해 힘썼다.⁶⁹⁾ 그는 생도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깨끗한 군인’이 될 것을 역설하였다.⁷⁰⁾ 또한 1948년 9월 5일 조선경비사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로 개칭되면서 ‘육군사관학교’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첫 교장이 되었다.

1949년 1월 15일에는 김홍일이 제7대 육군사관학교 교장에 취임하였다. 교장 김홍일은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생도들의 자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육군사관학교에는 교훈이 없었다. 교장 김홍일은 ‘충국애민(忠國愛民)’을 교육목표로 정하고, ‘국방훈련으로 국토통일’, ‘군기확립으로 사상통일’, ‘청렴결백으로 사병(士兵)제일’이라는 3대 교육방침을 제정하여 생도 교육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충(忠)·용(勇)’을 교훈으로 제정하였다.⁷¹⁾ 또한 다양한 교육과목을 신설하여 역량 있는 장교 육성에 힘썼다. 국사·영어·일반학·지휘법·행정학을 비롯하여 축구·농구·권투 등 체육과목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강인한 체력과 교양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고자 한 교장 김홍일의 의중이 담긴 조치였다.⁷²⁾ 특히 일본 군대식 교육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민족정신을 지향하고자 매주 월요일 첫 시간마다 교장 김홍일이 직접 실시한 정신훈화교육은 생도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⁷³⁾

69)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79~80쪽.

70) 권태룡, 「北으로 간 反共투사」, 『월간중앙』 298, 2000, 118쪽.

71)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88~89쪽.

72) 김홍일은 육군사관학교의 2년제 교육과정을 강력히 주장하였다고 한다. 중국군과 광복군에서 활동하며 폭넓은 경륜을 가진 김홍일은 기존의 45일~6개월의 단기 과정으로는 역량 있는 군사간부 양성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기간을 연장하고, 다양한 과목을 심도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다(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134쪽).

73)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231쪽 ; 陸士第8期史編纂委員會, 『老兵

1950년 6월 10일 제7대 교장 김홍일이 육군참모학교장으로 가게 되면서 제8대 교장으로 광복군 출신의 이준식이 취임하였다. 이준식의 육군사관학교 교장 재임 기간은 길지 않다. 부임한 지 15일 만에 6·25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비록 28일의 짧은 재임기간이었지만 이준식은 생도들을 이끌고 직접 참전하여 교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생도 부대를 편성하여 불암산과 육군사관학교 부근에서 방어 작전을 전개하였고, 수원 일대의 방어선 구축에 힘을 보탰다.⁷⁴⁾ 이후 1950년 7월 8일 육군사관학교가 임시휴교될 때까지 생도들을 이끌며 교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1950년 7월 8일 임시휴교 된 육군사관학교는 1951년 10월 30일 경남 진해에서 재개교되었다. 전쟁에서 후퇴를 거듭하던 국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면서 정예 장교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⁷⁵⁾ 1951년 가을경부터 정부와 육군의 관계자들은 4년제 육군사관학교 재건에 논의를 지속하였고, 마침내 1951년 10월 30일 ‘국본 일반명령(육) 제 163호’에 의해 진해에서 4년제 육군사관학교로 재개교하게 되었다.⁷⁶⁾

육군사관학교가 4년제로 재개교하게 되면서 제9대 교장에 안춘생이 부임하였다. 교장 안춘생은 6·25전쟁이라는 혼란 속에서도 육군사관학교의 제도 정비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힘썼

들의 證言 - 陸士八期史』, 陸軍士官學校 第八期生會, 1992, 37~40쪽 ;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104쪽.

74)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118~121쪽.

75)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135쪽.

76)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육군사관학교, 1996, 138쪽.

다.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 USMA)의 제도와 내규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체계적인 제도 마련에 노력했고, 교훈·교가·학교의 사명 등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특히 교훈 ‘지(智)·인(仁)·용(勇)’의 제정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독립운동을 통해 얻은 신념과 염원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었다.⁷⁷⁾

광복군 출신들은 육군사관학교뿐만 아니라,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의 교장으로서 군사간부 육성을 책임졌다. 민영구가 해군사관학교 교장을, 최용덕이 공군사관학교 교장을 역임한 것이다. 민영구는 1959년 4월 1일부터 1960년 7월 17일까지 해군사관학교의 제9대 교장을 역임하였다.⁷⁸⁾ 그는 교육제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사관학교를 운영해 나갔다. 현실에 맞게 기본학기 제도를 변경·시행하였으며, 생리학·이공학 등의 과목을 신설하여 생도들의 역량 발전에 노력을 기울였다.⁷⁹⁾

초대 국방부차관을 역임했던 최용덕은 1950년 5월 1일 제3대 공군사관학교 교장에 부임하였다. 교장 최용덕은 부임 후 발발한 6·25전쟁에 참전하여 공군사관학교를 끝까지 지켜냈다. 생도들과 함께 공군사관학교를 방어하고, 김포지구 경비사령부를 편성하여 김포지역 경계 작전에 앞장섰다.⁸⁰⁾ 전쟁 양상에 따라 공군사관학교가 수원-진해-서울-제주도 등으로 이동할 때에도 생도들을 이끌며 사관학교 수성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군사관학교의 체제 정비와 확장에 주력한 점이 주목된다. 학교기구를 확장·개편하여 사관학교로서의 면모를

77)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140~141쪽.

78)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海軍士官學校, 1981, 578쪽.

79)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海軍士官學校, 1981, 215쪽.

80)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52~54쪽.

갖추고, 생도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적 충실을 도모하였다.⁸¹⁾ 또한 공군사관학교 교가를 비롯하여 ‘공군가’, ‘비행행진곡’ 등 여러 편의 공군 군가를 작사했으며,⁸²⁾ ‘전문용어제정위원회’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당시 무질서하게 사용되던 군대용어와 항공용어의 통일작업에도 힘썼다.⁸³⁾

다. 주요 부대의 지휘관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 창설 이후 주요 부대의 지휘관에 중용되었다. 국군은 1947년 후반부터 꾸준한 증편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연대가 증설되고, 여단과 사단이 창설되었다. 6·25전쟁 중에는 새롭게 군단이 편성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군의 부대 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광복군 출신들은 주요 부대의 지휘관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각 부대의 체제를 정비하고 헌신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육군은 1947년 12월부터 1949년 6월까지 외적 성장을 거듭해 나갔다. 조선경비대 시절 4개 여단이었던 부대 규모가 6개 여단으로 확대·편성된 것이다.⁸⁴⁾ 여단이 창설되면서 여단장들도 새롭게 임명되었다. 그 중에는 광복군 출신들도 있었다. 제1여단장에 송호성, 제2여단장에 채원개, 제3여단장에 최덕신, 제7여단장에 이준식이 지휘관에 임명된 것이다.⁸⁵⁾

이러한 경향은 사단 창설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육군은 총 6개 여단과 20개 연대의 편제를 갖추자, 국군조직법에 의거하여

81)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54~109쪽.

82)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108쪽.

83)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96쪽.

84) 심현용·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268~269쪽.

85) 한시준, 『반만년 역사의 제1대사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울, 2021, 277쪽.

1949년 5월 각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하고, 제8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하였다.⁸⁶⁾ 이에 따라 제3사단장에 최덕신, 제5사단장에 송호성, 제7사단장에 이준식, 수도경비사령관에 권준이 임명되었다.⁸⁷⁾ 특히 신설된 수도경비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에 임명된 권준은 1949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1주년 기념식에서 육·해·공군 사열식의 총 지휘를 맡아 5,700여 명의 장병을 이끌기도 하였다.⁸⁸⁾ 이와 함께 8개 사단 산하 10개 연대 가운데 2개 연대의 연대장에 광복군 출신 박시창(제16연대)과 유해준(제25연대)이 임명되었고⁸⁹⁾, 6·25전쟁 중인 1950년 3개 군단 창설 당시 제1군단장에 김홍일을 임명하여 광복군 출신을 핵심 지휘관으로 삼았다.⁹⁰⁾

광복군 출신들은 공군을 대표하는 지휘관으로도 활약하였다. 최용덕과 김신이 제2대·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것이다. 이들은 공군의 총 책임자로서 초창기 대한민국 공군의 토대 구축과 항공력 발전에 기여하였다. 1952년 12월 제2대 공군참모총장에 부임한 최용덕은 6·25전쟁에서 351고지 전투지원작전을 비롯해 공군의 항공작전을 총 지휘하며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⁹¹⁾ 1960년 8월 제6대 공군참모총장에 오른 김신은 당시 군 내부에 만연했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공군의 조직 체

86)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107쪽 ;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224쪽.

87) 『경향신문』, 1949년 7월 13일, 「수도경비사령부 초대사령관에 權駿 임명」;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288쪽. 권준(權駿, 1895~1959)은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의열단과 중국군으로 활동한 인물로, 1944년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광복군 한구(漢口) 잠편지대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6, 1975, 545쪽).

88) 『경향신문』, 1949년 8월 16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1주년 기념식 거행」.

89)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111쪽.

90) 심현용·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289~290쪽.

91) 『국방일보』, 2022년 3월 3일, 「평생 조국 하늘 지키 공군의 아버지, 최용덕 장군」.

계 확립에 노력을 기울였다.⁹²⁾ 이를 통해 공군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군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이처럼 광복군 출신들은 초창기 국군의 주요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지속적인 편제 변화 속에서도 연대장·여단장·사단장·군단장·참모총장 등 핵심 직책에 중용되었다. 지휘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하며 부대 체계를 구축하고, 전투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초창기 국군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라. 6·25전쟁 참전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다. 광복군 출신으로 국군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 6·25전쟁에 참여한 자는 모두 92명으로 파악된다. 계급별로 살펴보면 장교 88명, 부사관 2명, 병사 1명, 미상 1명이다. 군별로 분류해보면 육군 88명, 해군 1명, 공군 3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조국 수호에 앞장섰다. 이 중 17명은 전쟁 중에 전사하기도 하였다.

광복군 출신들은 6·25전쟁 당시 주요 작전을 수행하며 수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들은 소대장에서부터 군단장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홍일은 6·25전쟁 초기 시흥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되어 한강방어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국군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강 이남에 방어선을 구축하여 북한군의 공세를 6일간 막아냈다.⁹³⁾ 이는 전쟁 초기 북한군의 작전에 막대한 차질을 주었으며, 이후 국군과 UN군이 연합

92) 김신, 『조국의 하얀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돌베개, 2013, 218~219쪽.

93) 김홍일, 「나의 六·二五緒戰回顧：漢江防禦作戰에서 平壤國軍再編成까지」, 『사상계』 12, 사상계사, 1964, 229~231쪽.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1950년 7월 5일에는 시흥지구사령부가 제1군단으로 개편되자, 군단장에 올라 낙동강 방어작전을 승리로 이끄는 등 반격작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다.⁹⁴⁾ 이는 중일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지휘했던 김홍일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박영준은 선무·선전활동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였다. 그는 정훈국 차장과 제3대 정훈감을 역임하며 전쟁 중에도 정훈교육 강화를 위해 힘썼다. 정훈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정훈대대를 창설하여 주요전선에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심리전 활동에 중점을 두어 북한군의 귀순 종용·대북한 주민 선무 등 대북전단을 대량 살포하였고, UN군과 국군의 분투상·각종 호소문·표어·포스터 등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국군의 사기진작에 활용하였다.⁹⁵⁾

공군으로 참전한 김신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김신은 6·25전쟁 중 수많은 작전에 나서 전투를 수행하였다. 부대장으로서 직접 전투에 참전하여 귀감이 되었고, UN군들도 수행하기 힘든 작전을 실행하면서 한국 공군의 위상을 드높였다. 1952년 1월 15일 수행한 ‘승호리 철교 폭파 작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작전에서 김신은 F-51기를 이끌고 철교는 물론 주변 대공포진지와 병커·건물까지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다.⁹⁶⁾ 그 밖에 박시창은 제1군단 예민참모로서 흥남 철수작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⁹⁷⁾, 김소는 제1사단 제11연대 제1대대장으로 참전하여 북진의 선봉부대로 활약하였다.⁹⁸⁾

94) 이동원,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군사』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246~249쪽.

95) 박영준, 『한강물 다시 흐르고』, 한국독립유공자협회, 2005, 159~170쪽.

96)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돌베개, 2013, 197~199쪽.

97) 김신, 『조국의 하늘을 날다(백범의 아들 김신 회고록)』, 돌베개, 2013, 185쪽.

98) 『동아일보』, 1985년 7월 18일, 「北進 당시 각 師團 指揮官」.

광복군 출신들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광복군 출신 가운데 국군으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 또는 실종된 자의 수는 모두 18명이다. 이 중 전사자는 김명탁·김영남·김일환·김현·고시복·박영진·박재화·이건국·이명·이무중·이진영·장철부·차성훈·차약도·최시화·허영일·황하규 등 17명이고⁹⁹⁾, 실종은 한성도 1명이다. 이무중은 제1사단 제11연대 제3대대장으로 임무수행 중 전사했으며¹⁰⁰⁾, 이진영은 1951년 4월 13일 전남 화순지구에서 전사하였다.¹⁰¹⁾ 차성훈은 육군 제8사단 소속으로 전쟁에 참전하여 1951년 12월 20일 영월 전투에서 산화했고¹⁰²⁾, 차약도는 서울지구 헌병대장으로 복무 중 6월 28일 동화백화점(현 신세계 백화점 본점) 부근에서 북한군과 교전 중 목숨을 잃었다.¹⁰³⁾ 이밖에 고시복은 1953년 4월 21일 서울지구병사구사령관에 취임하여 강원도지구 시찰 중 1953년 5월 7일 사망했으며¹⁰⁴⁾, 장철부는 8월 4일 경북 청송지구에서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

99) 전사자 가운데 윤태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태현은 6·25전쟁 당시 연대장의 작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즉결처형 당했다. 이 과정에서 군법회의 회부 등 적법한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태현은 1950년 7월 17일 즉결처분되어 같은 해 8월 20일자로 제적·파면되었다. 그러나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윤태현의 즉결처분이 부당함을 밝혀냈다. 위원회는 당시 훈령에 따르더라도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노컷뉴스』, 2008년 11월 27일, 「고(故) 윤태현 육군소령 58년 만에 “죽음의 진실” 밝혀」).

100) 『중앙일보』, 1971년 5월 10일, 「민족의 증언(173)」; 『동아일보』, 1985년 7월 18일, 「北進 당시 각 師團 指揮官」; 『독립유공자 공훈록』 5, 국가보훈처, 1988, 1015쪽.

101) 『독립유공자 공훈록』 5, 국가보훈처, 1988, 1041~1042쪽; 『경북동부신문』, 2015년 8월 27일, 「광복 70주년 특집, 이진영 열사, 독립운동 위해 중국 망명, 의열단 일원으로 남경·상해 등지에서 비밀첩보활동」.

102) 『독립유공자 공훈록』 5, 국가보훈처, 1988, 1087쪽;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정보.

103) 장창국, 『육사출업생』, 중앙일보사, 1984, 150쪽.

104) 『경향신문』, 1953년 5월 10일, 「高兵事司令官死去」.

던 중 중상을 입고 자결하였다.¹⁰⁵⁾ 한성도는 1950년 3월 30일 육군 중령으로 예편 후, 다시 복직이 결정되어 준비하던 중 실종되었다.¹⁰⁶⁾

이처럼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의 일원이 되어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헌신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활약하며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였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한국광복군 출신들이 대한민국 국군에 참여한 계기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국군 창설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참여했다. 대체로 광복군·중국군·일본군·만주군 출신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군사경력을 중심으로 국군 창설에 참여하였고, 국군의 근간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군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부류가 있다. 바로 광복군 출신들이었다.

1946년 6월 국내로 환국한 광복군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국군 창설의 주력이 되고자 하였다. 이들은 광복군이 국군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미군정이 주도하는 군대창설이나 군사기관에 참여하지 않았다.

105) 김선덕, 『마지막 기병대장 장철부』, 다물아사달, 2017, 176~178쪽.

106) 한명해, 『한국광복군경위대대장 한성도』, 2018, 101~103쪽.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는 두 가지이다. 광복군 출신의 유동열과 이범석이 각각 통위부장과 국방부장관에 취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2022년 10월까지 광복군 출신 중 국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자들의 수는 102명이다. 이는 전체의 17.6%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광복군 출신들은 육·해·공군에 모두 참여하였다. 여기에는 해방 이전 각자의 군사경력이 영향을 끼쳤다. 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곳은 육군으로, 특히 유동열과 이범석이 통위부장과 국방부장관에 부임했을 때 집중적으로 참여하였다. 둘째, 장교의 비율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참여자 중 과반수에 가까운 인원이 과거에 장교로서 복무한 경험을 가진 자들로, 해방 이후 국군에서도 그 경력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나이의 광복군 출신들이 국군에 참여하였다. 해방 당시 20~30대의 젊은 광복군들은 자신들의 광복군 경험을 살려 국군에 적극 참여했고, 김홍일·채원개·오광선 등의 고급군사경력자들은 중견간부로 임명되어 국군의 지휘체계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넷째,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 중에는 독립군·중국군·광복군으로 대일전쟁에 참전한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국군의 전투역량 발전에 앞장섰다. 다섯째, 광복군 창설을 함께했던 인물들이 국군 태동과 함께하였다. 광복군 창설의 실질적인 준비 작업과 활동기반 개척에 힘썼던 이들의 경험과 역량은 초창기 국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광복군 출신들은 국군에 참여하여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과 차관을 맡아 국방체

제를 정비하고, 국군의 통합과 조직 체계 마련에 힘썼다. 또한 초창기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의 교장을 맡아 국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고, 사관학교가 국군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군의 주요 부대 지휘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뛰어난 역량과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6·25전쟁에도 참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희생하였다.

이처럼 국군의 창설과 성장의 중심에는 광복군 출신들의 참여와 활동이 있었다. 광복군 출신들은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국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군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육군·해군·공군에 참여하여 두각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차관을 비롯한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장, 주요 부대 지휘관에 임명되어 국군의 핵심 인적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광복군과 대한민국 국군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군에 참여한 광복군 출신들을 조사·발굴하고, 연구·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것이 곧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증명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군은 그 뿌리가 광복군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르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국방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자유신문』·『조선일보』·
『중앙일보』·『대한민국국회 제1회 속기록』·『관보』(제3호)·
『독립유공자 공훈록』

2. 단행본

공군사관학교, 『空軍士官學校二十年史』, 空軍士官學校, 1974.

<http://uci.or.kr/G901:A-0005979103@N2M>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증언자료집』 II, 2002.

<http://uci.or.kr/G500:1310377-02012012368706@N2M>

_____, 『독립유공자 구술자료집』(우리는 광복군, 조국의 영원한
용사), 2015.

<http://uci.or.kr/G500:1310377-02012037693126@N2M>

국방군사연구소, 『建軍 50年史』, 1998.

<http://uci.or.kr/G901:A-0008479265@N2M>

김증기, 『한국군사사』, 경남대학교 출판부, 2011.

<http://uci.or.kr/G901:A-0006353067@N2M>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6, 1975.

백기인·심현용,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7.

심현용·백기인, 『근현대 한국군의 역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9.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1351413@N2M>

육군사관학교오십년사편찬위원회, 『육군사관학교 50년사』, 육군사관학교, 1996.

<http://uci.or.kr//G901:A-0008441218@N2M>

육군사관학교 제3기사 편찬위원회, 『화랑의 꿈 선구의 길 - 陸軍士官學校 第3期史』, 육군사관학교 제3기동기회, 2005.

<http://uci.or.kr//G901:A-0006100229@N2M>

陸士第8期史編纂委員會, 『老兵들의 證言 - 陸士八期史』, 陸軍士官學校 第八期生會, 1992.

<http://uci.or.kr//G901:A-0008378949@N2M>

이현희, 『韓國獨立運動證言資料集』,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http://uci.or.kr//G901:A-0008354591@N2M>

장창국, 『육사졸업생』, 중앙일보사, 1984.

<http://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47829251@N2M>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편, 『독립운동가의 삶과 회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2.

<http://uci.or.kr//G901:A-0008602957@N2M>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http://uci.or.kr//G706+HISN31-N.legacyInfo.NAHF.yn_004_1669@N2M

_____, 『(반만년 역사의 제1대사건) 대한민국임시정부』, 한울, 2021.

한용원, 『創軍』, 박영사, 1984.

<http://uci.or.kr//G701:B-00047829649@N2M>

해군사관학교, 『(大韓民國)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海軍士官學校, 1981.

3. 논문

강창부·김기동·이지원, 「공군의 창설에서 최용덕의 역할」, 『민족 문화논총』 64, 2016.

<http://doi.org/10.15186/ikc.2016.12.64.219>

김종문, 「김홍일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68, 한국 근현대사학회, 2014.

<http://uci.or.kr//G701:A-00086682290@N2M>

김재승, 「愛國志士 閔泳玖 船長の 中國商船에서의 活躍」, 『해양평론』, 2006.

<http://uci.or.kr//G901:A-0002351392@N2M>

노영기, 「주한미군의 對韓 정세인식과 창군계획-사설군사단체에 대한 대응과 ‘뱀부계획’의 입안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5.

UCI : G704-000827.2005.45..009

박민영, 「한국광복군 印緬戰區工作隊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http://doi.org/10.15799/kimos.2009..33.005>

백기인, 「건국 직후(1948~1950) 국방정책의 형성과 그 성격」, 『군사』 4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UCI : G704-001528.2002..46.006

_____, 「한국 국방체제의 형성과 조정, 1945-1970」, 『군사』 6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http://doi.org/10.29212/mh.2008..68.51>

이동원, 「6·25전쟁 초기 김홍일의 활동과 예편」, 『군사』 9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http://doi.org/10.29212/mh.2016..99.223>

한시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어디서 찾아야 하나」, 『한국근현대사연구』 84, 2018.

<http://doi.org/10.29004/jkmch.2018.03.84.353>

(Abstract)

Activities and Roles of Those Who from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in the Korean Armed Forces

Kim, Min-ho

This paper puts an in-depth study on the activities and roles of soldiers in the national army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heir activities and contribution were investigated to determine how they had been involved in the Korean Armed forces with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from establishing the Korean Armed Forces. This study tried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ce Army and Korean Armed Forces.

First, all those from Independence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Armed Forces were investigated. The objects of this study were those who were trained while serving in the Independence Army and others who were identified with their liberal activities even though they were from different protesting groups. For this purpose, as much data as possible were investigated, like various types of newspapers, testament collections, memoirs, references, records of fallen soldiers of the National Cemetery, and status of burial. In addition, database information of reliable public institutions, including meritorious records, was reviewed to build as high reliability as possible. Those efforts have led to figuring out the approximate number of soldiers from the Independence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Armed Forces.

Those from the Independence Army played a crucial role and mission in the establishment and growth of the Korean Armed Forces. It is clear wh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discover, and analyze those from the Independence Army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Armed Forces. This proves the identity and legitimacy of the Korean Armed Forces, which

identifies its roots as the Independence Army. This study suggests that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to support a national consensus and to establish the solid identity and legitimacy of the Korean Armed Forces.

Keywords : Korean Independence Army,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Armed Forces, Foundation of Army, Legitimacy of Korean Armed Force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131-167
<https://doi.org/10.29212/mh.2022..125.1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진포대첩

임형수 | 충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목 차

1. 머리말
2. 진포의 위치에 대한 사료 검토
3. 왜구의 금강 유역 침구 양상
4. 진포대첩 이후 왜구의 동향
5. 맺음말

초 록

고려 말기 왜구의 침략에 관한 연구는 근래 지역사와 전쟁사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는 흐름과 맞물려 道나 郡縣 등 하나의 지역 단위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당시 왜구가 약탈을 목적으로 행정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각지를 휩쓸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그러한 분석 방법은 특정 지역의 전황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전반적인 침략 양

상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에 본고는 금강 줄기를 따라 중부 내륙지역으로 들어오는 경로에 주목하였으며 금강 유역이라는 광역 단위를 바탕으로 왜구의 침입 양상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왜구는 1376년부터 금강 유역을 본격적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목적은 鎭城倉의 수세 구역인 만경평야, 그리고 논산평야를 거쳐서 경상 지역으로 연결되는 수운을 이용해 내륙 각지를 침탈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1380년 진포대첩 이후에는 침략 활동이 누그러지기는 하였으나 기회를 엿보다가 요동 정벌처럼 방비가 소홀해지는 틈이 발생하면 재차 금강 하구를 공략하려고 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진포대첩과 관련하여 종래 서천과 군산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전장이 비정되었던 진포의 위치 문제를 다시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沈德符 行狀에 실려 있는 龍安鎭浦의 전투 기록은 조상의 현장을 위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 왜구, 금강 유역, 금강 하구, 진포, 진포대첩, 용안진포

(원고투고일 : 2022. 10. 11, 심사수정일 : 2022. 11. 9, 게재확정일 : 2022. 11. 25.)

1. 머리말

14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 속에서 고려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고 거듭되는 외침에 시달렸다. 특히 일본의 남북조 내란으로 파생된 倭寇는 1350년(忠定王 2)을 기점으로 거의 매년 고려를 침입하였다. 고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전국 곳곳의 해안과 강가에 상륙하여 횡행하는 왜구를 막아내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시에 “연해 주군이 황량하고 텅 비었다.”¹⁾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왕조교체를 앞당기는 부분적 요인이 되었다.²⁾

지금까지 왜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침입 양상과 피해 상황을 정리한 초기 연구를 비롯하여 왜구의 발생 원인이나 주체 문제, 금압을 위한 고려의 외교 노력 및 군사 대책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근래에는 전쟁사와 지역사 분야 연구가 활성화되는 추세와 맞물려 왜구와의 싸움에서 대첩이라 부를 만한 사례를 조명하거나³⁾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왜구의 동향을 분석한 논저가 다수 발표되었는데, 이런 경우 한 개의 道⁴⁾ 내지

1) 『高麗史』 권107, 列傳30 鄭夢周.

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8·391쪽.

3) 金鍾洙, 「鎭浦大捷의 歷史的 意義」, 『全羅文化研究』 12, 2000 ; 李鎭, 「홍산·진포·황산 대첩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日本歷史研究』 15, 2002 ; 이재범, 「변안열과 황산대첩」, 『대은 변안열의 생애와 업적』, 지식산업사, 2013 ; 임형수, 「1376년 鴻山 전투의 意義와 戰場에 대한 재고찰」, 『軍史』 98, 2016 ; 이영, 「진포구(鎭浦口)·남해 관음포(觀音浦) 해전과 고려 말 왜구 침구 양상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64, 2021.

4) 구산우,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2,

는 특정 郡縣⁵⁾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약탈자인 왜구의 입장에서 충청과 호남 같은 행정 구역이나 지역 경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구애받을 이유도 없다. 당시 왜구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은 채 주변으로 퍼져나가 노략질하고 때로는 수백 리 넘는 지역을 휩쓸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본다면, 행정 구역별로 침략 행위를 자세히 정리하는 작업과 함께 광역 단위로 묶어서 전체 침략 양상을 조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구는 선박을 이동 수단으로 삼아 고려의 해안에 접근한 뒤 강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육지를 가로질러 내륙 깊숙이 진입하는 침탈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안에 있는 포구, 하구, 곳, 섬 등이 바로 왜구 침입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필자는 금강 하구에 해당하는 鎭浦와 그 뒤로 드넓게 펼쳐지는 금강 유역에 주목하였다.

진포는 예나 지금이나 전라와 충청의 경계이고 서해에서 중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다름이 없으므로 그 방어 여부에 따라 금강을 끼고 있는 여러 군현의 안위가 좌우될 만큼 중요한 곳이었다. 사서에 “왜구가 진포로부터 양광, 경상, 전라 지역을 횡행하면서 군읍을 분탕질하고 사람들을 죽이거나 잡아가니 3도가 소란스러웠다.”⁶⁾라는 기록은 바로 그와 같은 정황을 보여준

2007 ; 손승철, 「고려시대 강원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탈과 대응」, 『江原史學』 24·25, 2010 ; 이정란, 「왜구의 충청 지역 침구의 시기별 추이와 고려의 대응」, 『史林』 52, 2015 ; 허인욱, 「고려 말 왜구의 전북지역 침입 연구—全州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6, 2015 ; 정영현, 「경남 지역의 왜구와 낙동강」, 『역사와 경계』 122, 2022.

5) 李領,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 李在範,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와 사천」, 『軍史』 58, 2006 ; 윤용혁, 「고려 말 보령지역의 왜구와 金成雨」, 『역사와 담론』 66, 2013 ; 윤용혁, 「고려 말의 왜구와 서산 분석사」, 『역사와 담론』 69, 2014 ; 정영현, 「여말선조의 濟州와 倭寇」, 『한국민족문화』 75, 2020.

6) 『고려사』 권137, 열전50 신창 원년 9월 경신.

다. 또한 왜구가 진포에 정박해 있으면서 인근 주군을 노략질하자 禰王이 사람을 보내어 전라와 양광의 2도에 방비 조치를 지시한 일⁷⁾, 그리고 양광도 林州(부여군 임천면)에 침입한 왜구를 全羅道兵馬使와 知益州事가 함께 싸워 물리친 일⁸⁾ 등은 적어도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만을 놓고 봤을 때 금강 이북과 이남 지역이 별개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진포를 주요 침투 경로로 파악하고 금강 유역이라는 광역 단위를 무대로 왜구의 침입 양상을 조망할 것이다. 아울러 금강 유역에서 벌어진 왜구와의 전투 중 가장 특기할만한 사건으로 鎭浦大捷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전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으므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2. 진포의 위치에 대한 사료 검토

진포는 1380년(禰王 6)에 고려 수군이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해 왜구를 크게 격파한 진포대첩의 무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간 진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출되었는데 忠南 舒川과 全北 群山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는 진포대첩의 전장으로 사료에 기록된 ‘鎭浦口’를 “서천~금강 어구”(또는 “서천, 금강 어구”) ⁹⁾라고 간략히 언급해오다가 근래 들어 사료 비교, 지형 조건, 현장 답사 등을 통해 舒川郡 長項邑 일대¹⁰⁾로 비정하고

7) 『고려사』 권137, 열전50 신우 14년 5월.

8) 『高麗史節要』 권30, 신우 2년 6월.

9) 李鉉淙, 「왜구」, 『한국사』 8, 국사편찬위원회, 1981, 223쪽 ; 金庠基, 『(新編)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636쪽 ; 朴龍雲,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7, 628쪽.

있다. 후자는 진포를 금강 하구 혹은 금강에 인접한 옛 沃溝 지역¹¹⁾이나 群山市 聖山面¹²⁾,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12漕倉의 하나인 鎭城倉의 위치를 기반으로 聖山面 倉梧里¹³⁾ 및 羅浦面 羅浦里¹⁴⁾ 등을 가리킨다고 파악하였다.

선행 연구는 대개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위시한 조선시대 문헌자료에 실려 있는 지명과 거리 등 각종 지리 정보를 저마다 근거로 삼고 있다. 아울러 진포라는 지명의 기원을 밝히고 있는 『高麗史』 食貨志 成宗 11년(992) 朝宗浦 기사¹⁵⁾와 진포대첩의 전장이 서천임을 밝힌 18세기 英·正祖代의 『東史綱目』에 실려 있는 주해¹⁶⁾ 등이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기록은 진포대첩이 일어난 해로부터 앞뒤로 무려 4백 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어서, 14세기 후반의 지리 인식과 괴리가 있을 수 있고 중간에 모종의 요인이 작용하여 의미상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당대의 지리 인식을 최우선으로 하여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 간행된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진포의 위치에 대해 재검토를 시도하려고 한다.

가장 먼저 진포대첩이 일어난 시기와 다소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진포의 위치를 정의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0) 李領, 『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에피스테메, 2007, 157쪽.

11) 金宗수, 『군산의 역사와 인물』, 국학자료원, 2021, 70·72쪽.

12) 羅鐘宇,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94, 410쪽.

13) 金중규, 「군산~강경의 수운(水運)과 나루터·포구의 유형」, 『금강 하구의 나루터·포구와 군산·강경지역 근대 상업의 변용—강(江)과 수운(水運)의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 선인, 2006, 47쪽.

14) 박영철, 「鎭浦와 鎭城倉」, 『전북사학』 44, 2014, 39쪽.

15) 『고려사』 권79, 志33 食貨2 漕運 成宗 11년, “朝宗浦, 前號鎭浦, 臨陂郡鎭城倉在焉”

16) 『東史綱目』 제16상, 우왕 6년 8월, “時賊五百餘艘, 入鎭浦口【浦在今舒川郡南二十六里】登岸”

가-1) 진포: (서천)군 남쪽 26리에 있는 海浦이다. 林川 古多津(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부터 舒川浦까지 진포라 통칭하는데, 그 사이 여러 津과 浦는 모두 진포를 건너는 곳이다(권19, 忠淸道 舒川郡 山川條).¹⁷⁾

가-2) (仇郎浦, 古多津, 江景津, 菁浦津, 南堂津, 上之浦津) 이상 6津은 모두 公州 熊津의 하류이며 韓山郡으로 들어가 진포가 된다(권17, 忠淸道 林川郡 山川條).¹⁸⁾

가-3) 진포: (임피)현 북쪽 17리에 있다. 공주의 웅진이 부여에 이르러 꺾어져 남쪽으로 흘러가 龍安縣(익산시 용안면)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나가며 바다로 들어가는데, 진포는 곧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다(권34, 全羅道 臨陂縣 山川條).¹⁹⁾

위의 사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가-1)은 진포가 고다진부터 서천포까지의 금강 줄기(아래 <지도 1> 참조)를 가리키는 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가-2)는 진포가 한산군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며, 가-3)은 금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하는 등 가1)과 비교하면 다소 길이가 줄어들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진포는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략 금강 하류 또는 금강 하구를 의미한다고 파악된다. 그러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전라와 충청을 가리지 않고 금강 하류에 접한 한산군과 옥구현, 하천물줄기가 금강 하류로 들어가는 礪山郡(익산시 여산면)²⁰⁾ 등에서도

17) 鎭浦, 在郡南二十六里海浦也. 自林川古多津至舒川浦, 通謂之鎭浦, 其間諸津浦皆鎭浦之渡涉處.

18) 已上六津皆公州熊津下流, 入韓山郡爲鎭浦.

19) 鎭浦, 在縣北十七里. 公州熊津至扶餘折而南, 至龍安縣東匯而西, 以入于海. 鎭浦乃入海處.

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4, 全羅道 礪山郡 山川條.

진포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 연구에서도 동일한 분석 방식을 통해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다만 진포가 금강 하류를 가리키는 말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진포대첩의 전장은 서천 장항과 군산 옥구 중 어느 한 편임을 제시함으로써²¹⁾, 결국 진포의 해석에 여러 개의 의미를 부여한 채 오히려 혼란을 더하고 있다. 진포를 금강 하류라는 구역이 아닌 특정 지점으로 보는 경우 부득이 전라와 충청의 어느 한 군현을 비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곧바로 사료 해석에 난항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진포를 서천 장항으로 본다면 1395년(太祖 4) 崔茂宣의 卒記에 실려 있는 ‘全羅道鎭浦’²²⁾라는 문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반면에 군산 옥구로 본다면 ‘鎭浦之龍安’²³⁾ 같이 진포와 용안현이 함께 등장하는 사례를 설명하기 어렵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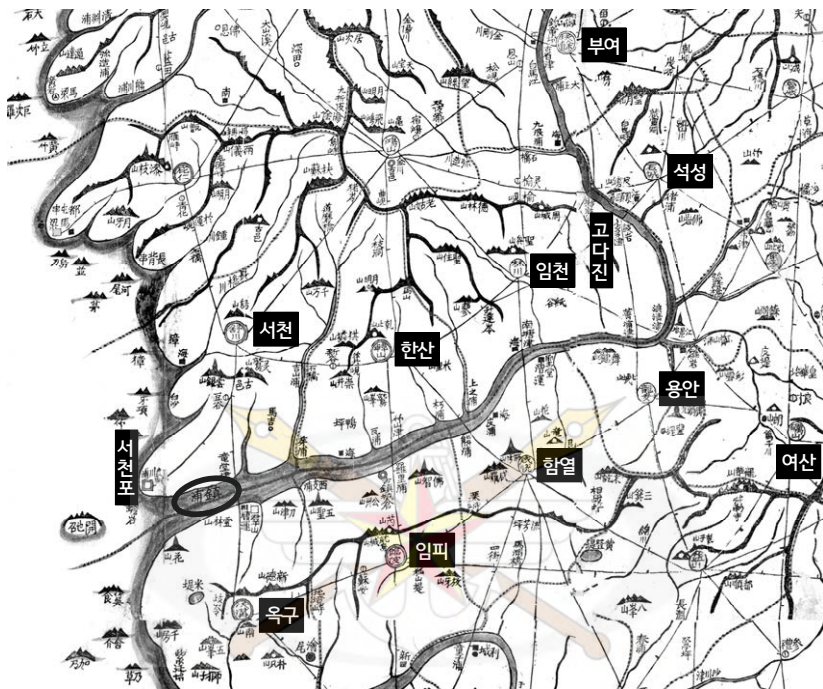
21) 즉 진포를 금강 하류라고 보면서도 ‘전라도 진포’는 금강 하류의 전라도 연안, ‘진포구’는 서천군 장항읍 일대라고 비정하였다(이영, 앞의 책, 149·153·157쪽). 이와 달리 진포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여 고려 초기에는 임피군 진성창, 고려 말기에는 전라도 영역,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금강 하구나 군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옥구의 특정 지역이나 금강 하구 유역 전체, 조선 후기에는 서천 방면을 지칭하는 의미로 정착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중수, 앞의 책, 61~70쪽).

22) 『太祖實錄』 권7, 4년 4월 19일 임오.

23) 『陽村先生文集』 권11, 龍安城曹轉記.

24) 기존 연구는 ‘全羅道鎭浦’와 ‘鎭浦之龍安’의 문구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진포를 서천 장항으로 보는 연구에 의하면 최무선 출기가 작성되는 시기보다 한 해 앞서(1394) 양광도를 충청도로 개칭하여 당시 조정 관료들에게 충청도라는 지명이 익숙하지 않았고, 조선 왕실의 고향인 全州府가 중시되면서 금강의 남안이 북안보다 더 주목받게 되었으므로 ‘전라도’라는 관형어를 붙였다고 이해하였다(이영, 앞의 책, 153~154쪽). 한편 진포를 군산 옥구로 보는 연구에 의하면 「용안성조전기」의 ‘於全之界, 則得鎭浦之龍安, ……」을 ‘전주의 경계에는 용안에 있는 진포에, ……(조창을 세웠다)’라고 해석하면서 진포가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전라북도 영역 안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김중수, 앞의 책, 62~63쪽).

〈지도 1〉 「大東輿地圖」(奎10333)의 금강 하류와 인접 군현 부분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세기에 활동한 인물이자 진포로 비정되는 지역과 비교적 가까운 韓山郡 출신의 李穀(1298~1351) — 李穡(1328~1396) — 李鍾學(1361~1392) 3代の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각각 시를 지어 누차 고향의 정취를 노래한 바 있는데 간혹 진포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이색은 “진포에 은퇴할 기약 저버린 지 이미 오래라”²⁵⁾, “나 또한 돌아가서 진포의 배를 타 볼까나”²⁶⁾라고 하였으며 아들인 이종학 역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데가 어디인가, 진포에

25) 『牧隱詩藁』 권10, 蒙賜田有感, “鎮浦鵬盟久已寒”

26) 『목은시고』 권5, 次金月塘所寄詩韻, “我亦歸乘鎮浦船”

있는 낚시터라네”²⁷⁾라며 시를 읊었다. 여기에서 언급된 진포는 대첩의 장소로 비정되었던 서천 장항이나 군산 옥구 등이라기보다 저들의 고향인 한산 일원²⁸⁾이라고 보는 쪽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된다. 이는 이색이 고향 한산의 훌륭한 경치를 알리기 위해 지었다고 밝힌 八詠詩 가운데 「鎮浦歸帆」²⁹⁾이 있다는 사실과도 부합된다.

또한 이색은 자기 고향을 말할 때 진포 외에 鎮江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내 집이 진강 가에 있고 성흥산과 거리가 겨우 30리이다”³⁰⁾, “우리 집은 진강의 어귀에 자리 잡고 있어”³¹⁾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강에 또 圓山이 있으니, 봄조수 따라³²⁾ 나의 배 띄우기 좋으리라”³³⁾라고 하여 금강에 나갈 일이 있으면 원산에서 자기 소유의 배를 탔음을 알 수 있다. 부친 이곡도 진강 원산에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부여 낙화암까지 갔다는 기록³⁴⁾이 확인된다. 그런데 이색의 詩題를 보면

27) 『麟齋遺稿』關東錄 十九日曉吟二首, “思歸何處是, 鎮浦有漁臺”

28) 이곡의 집은 한산군 北古村(한산면 죽촌리)이었다(韓永愚, 「稼亭 李穀의 生涯와 思想」, 『韓國史論』 4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8, 3쪽). 이색은 어린 시절을 한산에서 보냈고 崇井山(기산면 황사리)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으며(『목은시고』 권17, 讀書處歌 并序) 금강으로 나갈 때는 圓山(화양면 옥포리)에서 배를 탔다(본문에 후술). 따라서 이들 3대가 한산에 머물 때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권역은 한산면, 기산면, 화양면 일원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본고에 인용된 이색의 작시 연대는 대략 1354~1379년(이익주, 「부록: 『牧隱詩集』 작품연보」,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으로 진포대첩 이전에 해당한다.

29) 『목은시고』 권3, 吾家韓山雖小邑 以予父子登科中國 天下皆知東國之有韓山也 則其勝覽不可不播之歌章 故作八詠云.

30) 『牧隱文集』 권1, 此君樓記, “予家鎮江上, 距聖興山僅一舍”

31) 『목은시고』 권4, 扶桑吟, “吾家住在鎮江口”

32) 금강하굿둑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조수 간만의 차가 窺巖津(부여군 규암면 규암리)까지 영향을 주었고 여기에 풍향까지 가세할 경우 선박의 주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다고 한다(김민영, 「금강 수운과 군산·강경지역 근대 상업의 변용」, 『금강 하구의 나루터·포구와 군산·강경지역 근대 상업의 변용—강(江)과 수운(水運)의 사회경제사(社會經濟史)—」, 선인, 2006, 136쪽).

33) 『목은시고』 권2, 通州, “鎮江有箇圓山在, 好逐春潮動我舟”

“옛날에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진포로부터 배를 타고 올라오다가 灌足寺 법회에 참여……”³⁵⁾라고 하여 배를 탄 곳을 진강 원산이 아닌 진포로 서술한 사례가 있다. 혹시 14세기에 한산이씨 3대가 말한 진포는 원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의심할 여지도 있지만, 위의 사료를 종합한다면 문맥상 한산에 포구로서 또 다른 진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포와 진강은 동일한 의미, 즉 한산군 남쪽에 있는 금강 하류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 말기 한산이씨 3대의 진포에 대한 인식은 조선 전기 편찬된 지리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³⁶⁾ 『世宗實錄』 地理志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금강이라는 명칭을 일률적으로 쓰기 보다는 지역에 따라 赤登津(利山)→化仁津(沃川)→利遠津(懷德)→熊津(燕岐)→錦江(公州)→古省津(扶餘)→古多津(林川)→鎮浦³⁷⁾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앞의 가) 사례와 같이 하류 지역에서는 진포로 지칭하였다. 유사한 사례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廣灘(榮山江)의 하류를 당시 錦江津, 錦川, 木浦, 南浦 등으로 불렀다는 기록³⁸⁾이 확인된다. 특히 權適(1094~1147)의 墓

34) 『稼亨集』 권5, 舟行記己丑之歲仲夏既望 自鎮江圓山夜半登舟 泝流至龍淵 天猶未明 已有松亭田居士與林州潘使君候于岸上 與之俱行 折旋而北 晚泊古城 明日至扶餘城落花岩下.

35) 『목은시고』 권24, 僧有辨來壬戌歲灌足寺彌勒石像龍華會者 求緣化文 既筆以與之 因記舊日陪慈堂自鎮浦浮舟而上 獲與是寺法會 癸卯冬 降香作法 皆如夢中 作短歌以記之.

36) 진포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서천군 남쪽 14리, 한산군 남쪽 9리에 있다고 기록되었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서천군 남쪽 26리, 한산군 서쪽 21리에 있다고 기록되었다. 이처럼 양자 간에 거리와 방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진포에 대한 지리적 인식의 변화에서 찾는 견해가 있다(각주 21) 참고). 그러나 필자는 세종대부터 세조대까지 왜구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에 읍성을 축조하여 치소를 옮긴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 이해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적지 않은 분량이 요구되므로 여기서는 간략한 언급만 남겨 놓는다.

37) 『세종실록』 권149, 地理志 忠淸道 大川條.

38)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5, 全羅道 羅州牧 山川條, “錦江津, 一名錦川, 一名木浦,

誌銘을 보면 “錦城(나주) 남쪽에 木浦가 있는데 맑아서 밑바닥이 보일 정도였으나 (권적이) 임기를 다하여 대궐에 이르자 그 浦가 다시 탁해졌다.”³⁹⁾라는 내용이 주목된다. 이는 고려 중기에도 마찬가지로 목포가 영산강 하류를 의미했음을 보여준다. 보통 ‘浦’는 지명과 관련 있는 글자가 앞에 붙는 경우 배가 정박하는 포구로 간주하기 쉽지만, 위의 여러 기록을 통해 당시에는 조수가 드나드는 강의 하류 내지는 하구의 의미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全羅道鎮浦’와 ‘鎮浦之龍安’ 등 기록도 역시 금강 하류로 이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와 관련된 사료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1) 경신년(1380) 가을에 왜선 3백여 척이 전라도 진포(全羅道鎮浦)에 침입했을 때 조정은 최공(최무선)의 화약을 당장 시험할 수 있는지 의논하였다. 이에 명하여 (최공을) 副元帥로 임명하고 都元帥 沈德符, 上元帥 羅世와 함께 배를 타고 火具를 싣고 바로 진포에 이르도록 하였다.⁴⁰⁾

나-2) 都觀察使 盧嵩이 이곳을 맡아 내려온 이래로 민생의 이득과 병폐를 빠짐없이 따져서 계획을 세우는데 漕轉에 더욱 뜻을 두었다. 장구한 계책을 세워 백성을 이롭게 하고자 바다를 따라 보면서 그 땅의 이로운을 살폈다. 전주의 경계에서는 곧 진포의 용안(鎮浦

或云南浦。卽廣灘下流。在州南十一里”

39) 「權適墓誌銘」(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신수 5875), “城南有木浦, 澄澈徹底, 及調滿赴闕, 其浦還濁”

40) 『태조실록』 권7, 4년 4월 19일 임오, “及庚申秋, 倭寇三百餘艘至全羅道鎮浦, 朝議崔公火藥, 今可試矣. 乃命爲副元帥, 與都元帥沈德符上元帥羅世, 乘船齎火具, 直至鎮浦”

之龍安)을 얻었고 나주의 경계에서는 목포의 영산(木浦之榮山)을 발견하였으며, 모두 물가에 언덕이 있는데 (가운데가) 솟아올랐고 (주위가) 활짝 트였다.⁴¹⁾

나-3) (제목) 용안에서 비바람에 막히어 벽상의 운을 써서 적다.

모악산 바람이 심히 노했으니

진포에 비가 막 개인 때로다

……(중략)……

맑은 새벽에 휘장 걷고 앉았노니

처마에 빗소리 깊기도 하여라

조수는 아득히 바닷가(浦)에서 나오고

새는 어두운 숲을 지나는가⁴²⁾

위의 사례 나-1)은 1395년 실록의 최무선 사망 기사에 첨부된 줄기의 일부분이다. ‘全羅道鎭浦’는 고려시대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나-1)이 조선시대 문헌에서 가장 시기가 앞선다. 여기에 기록된 진포 역시 금강 하류로 보아도 해석에 무리는 없을 듯한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전라도라는 행정 구획명이 앞에 붙었다는 것이다. 이는 나-2)의 得成倉 축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14세기 후반에 왜구의 침략으로 폐쇄된 금강 수계의 조창은 1390년에 용안의 득성창이 축조되면서 재개되었는데, 그 수세 구역은 전주를 비롯한 지금의 전북 일대에 해당한다. 금강 하류 이북인 서천, 한산, 임천 등의 조세는 沔州(당

41) 『양촌선생문집』 권11, 龍安城漕轉記, “都觀察使盧公嵩自分鉞以來, 民生利病, 悉究悉畧, 其於漕轉, 尤致意焉. 欲立長策以利于民, 遵海而觀, 相其地利. 於全之界則得鎭浦之龍安, 於羅之界則得木浦之榮山, 皆有濱水之丘, 穹窿而曠”

42) 『佔畢齋集』 권22, 龍安阻風雨用壁上韻記之, “母山風怒甚, 鎭浦雨晴初…… 褰帷坐清曉, 屋霑雨聲深, 漠漠潮生浦, 冥冥鳥度林 ……”

진시 면천면)의 犯斤川에 모였으므로 사실상 진포의 관리 책임은 전라도에 맡겨졌다. 따라서 ‘全羅道鎭浦’는 진포의 관리 책임 소재를 나타낸 말이지, 진포라는 특정 지점이 전라도에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충청도 부분에 진포가 언급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나-2)는 權近(1352~1409)이 지은 「龍安城漕轉記」의 일부로 1390년(恭讓王 2)에 전라도도관찰사 노승이 진포 용안과 목포 영산에서 조창의 입지를 찾았다는 내용이다. 이후 용안에 조창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1417년(太宗 17)부터 득성창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1428년(世宗 10)에 咸悅 皮浦의 德成倉으로 옮겨질 때까지 존속하였다. 여기 원문에 분명히 ‘鎭浦之龍安’이라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진포를 금강이 아닌 포구로 파악하여 ‘용안의 진포’라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포와 목포는 각각 금강과 영산강의 하류를 일컫는 말로 풀이된다.⁴³⁾

이어서 나-3)은 金宗直(1431~1492)이 용안에 왔을 때 지은 시이다. 여기에 등장한 진포는 용안현 내에 있는 나루로 볼 수도 있지만 시의 구조상 전주의 모악산과 대구를 이루며 자연지물로서 금강을 의미한다고 보는 쪽이 자연스럽다. 후미의 내용은 새벽에 금강으로 조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며 ‘浦’를 특정 지점, 즉 배로 강을 건너는 나루로 해석하면 여기에서 조수가 나올 리 없으므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43) 실록의 다른 기록, 예를 들면 ‘鎭浦之邊龍安沃溝’(『세종실록』 권36, 9년 5월 11일 무술)도 포구가 아닌 금강으로 이해되며 ‘진포(금강 하류) 거의 용안과 옥구’라고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의 문헌에서 진포가 주로 금강 하류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며, 만약 특정 포구라고 한다면 몇몇 사례의 해석에 무리가 따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 범위는 기록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임천 고다진, 또는 적어도 용안부터 서천포까지의 구간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3. 왜구의 금강 유역 침구 양상

왜구는 1350년부터 고려를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약 20여 년 동안 왜구의 침입은 경상, 전라, 양광 3도의 도서와 해안에 집중되었고 아직 내륙지역까지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는데, 진포를 경유한 금강 유역의 침공은 한 차례 정도 확인되고 있다. 1358년(恭愍王 7)에 왜구는 금강 하구의 남북 양안을 침입하여 韓州(서천군 한산면)와 임피 진성창을 약탈하였다. 그 여파로 全羅道鎭邊使 高用賢의 요청에 따라 연해에 위치한 창고를 내지로 옮기는 조치가 있었다.⁴⁴⁾ 이외에 왜구는 진포를 공격하거나 강을 거슬러 내륙으로의 진입을 시도한 일이 없다.

그런데 1370년대에 접어들면 왜구의 침입이 예전과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일본에서는 북조의 무로마치(室町) 막부가 규슈탄다이(九州探題)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을 보내어 1370년부터 규슈 내의 남조 세력을 타도하기 시작하였는데, 내란 평정 과정에서 탈락하여 근거지를 잃은 세력들은 일시적인 피난처를 찾아 고려로 쫓겨났고, 이들이 대거 가담하면서 왜구는 해안의 군

44) 『고려사』 권39, 세가39 공민왕 7년 4월 정유.

현과 조창을 공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점차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장기간에 걸쳐 약탈을 일삼게 되었다.⁴⁵⁾ 한편으로 1375년(우왕 1)에 全羅道元帥 金先致를 시켜 내투 왜인 후지 쓰네미쓰(藤經光)를 살해하게 하였다가 실패하는 등 고려 조정이 왜구를 크게 자극한 사건도 발단이 되었다. 이를 기폭제로 삼아 왜구는 종전보다 한층 더 잔인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사서에 의하면 “처음에 왜구가 주군을 노략질하면서 사람은 죽이지 않았는데 이로부터 격노하여 매번 들어와 노략질할 때마다 부녀자와 어린 아이까지 남김없이 도살하였으니, 전라와 양광의 연해 주군이 황량해지고 텅 비게 되었다.”⁴⁶⁾라고 한다. 위와 같은 국내외 요인들로 인해 1375년 이후 왜구의 도래는 더욱 빈번해졌고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금강 유역에 대한 침입도 점점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376년에 왜구는 6~7월 두 달 동안 林州, 扶餘, 公州, 石城, 連山, 朗山, 豐堤, 鴻山 등을 휩쓸고 다녔다(아래 <지도 2>⁴⁷⁾ 참조). 당시 왜구는 사람들을 배에 태우고 장차 돌아갈 듯이 행세하면서 몰래 정예 수백 명을 깊이 보내어 약탈을 자행했으며, 그들이 지나는 곳마다 바라보기만 할 뿐이고 감히 상대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한다.⁴⁸⁾ 사료상에는 임주를 시작으로 침입이 이어지는데 위의 군현이 대부분 금강에 인접해있고 사람들을 배에 태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왜구가 진포로 들어와서 금강의 수운을 활용해 각지를 침구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고려는 柳滌을 전라도원수, 柳實을 전라도병마사에 각각 임명

45) 정영현, 「고려 福王代 倭寇의 동향과 성격 변화」, 『역사와 세계』 33, 2008, 177~185쪽.

46)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원년 7월.

47) 이하 <지도2·3·4>는 李嶺,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99, 244쪽 図3과 245쪽 図4를 바탕으로 수정하였다.

48) 『고려사』 권113, 열전26 崔瑩.

하여 내려보냈다.⁴⁹⁾ 그들이 임주, 낭산, 풍제에서 적을 물리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부 거두었지만 공주목사 金斯革이 공주 鼎峴에서, 양광도원수 朴仁桂가 연산의 開泰寺로 향하는 적을 막다가 전사하는 피해를 보았다. 이에 최영은 왜구의 기세가 올라 전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직접 휘하를 거느리고 내려갔고 홍산에서 싸워 승리를 거둠으로써 금강 유역에서 왜구의 모습은 잠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석 달이 되지 않아 왜구는 10월부터 다시 진포로 들어와 한주를 약탈하였다. 이후 인근 지역을 침탈한 기사가 나오지 않으므로 더 이상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오지는 않은 듯하다.

〈지도 2〉 1376년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 상황



1377년 10월부터 왜구는 금강 유역에 대한 침구 활동을 재개하여 咸悅을 시작으로 扶餘, 定山, 鴻山을 차례로 노략질하였다. 이듬해 3월에 진포 지역인 韓州와 林州를 치더니 9월에는 公州, 尼山, 連山, 懷德, 珍同, 沃州, 靑山⁵⁰⁾ 등 점점 금강 상류의 내륙지역으로 밀려 들어왔다. 고려는 왜구와 싸운 경험이 풍부한 韓邦彦과 李琳을 각각 양광도와 전라도의 助戰元帥로 임명하였

49)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2년 6월.

50)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4년 9월.

다.⁵¹⁾ 10월에 다행히 한방언이 그들을 공격해 전과를 거둔⁵²⁾ 뒤로는 주변에 별다른 행적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일단 잠잠해진 것으로 보인다.

1379년의 경우 『고려사』 세가와 『고려사절요』 등 정사의 연대 자료에는 왜구가 진포와 금강 유역을 약탈한 기사가 나와 있지 않다. 『牧隱詩藁』를 보면 “楊二相이 회군하여 廣州에 이르렀다가 적이 진포에 있다는 말을 듣고 즉각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듣다.”⁵³⁾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목은시고』가 거의 날짜 순서대로 편집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대략적인 시기를 계산해보면 1379년 5월 19~25일⁵⁴⁾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楊二相, 즉 贊成事 楊伯淵은 이해 5월 旌州에서 왜구를 물리친 일⁵⁵⁾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목은시고』의 시제로 보아 그는 회군하던 중 왜구가 진포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토벌을 위해 도로 내려간 것이 된다. 이외에 별다른 기록이 없으므로 쌍방의 교전 여부는 알지 못하나 진포의 사태는 그대로 일단락되었다.⁵⁶⁾

위와 같이 왜구는 규슈의 혼란과 후지 쓰네미쓰 사건 등으로 더욱 흥포해진 이래 1376~1379년 동안 매년 진포를 침입하였다. 비록 문헌자료에 그해 왜구가 진포를 침입했다는 기사가 없더라도 진포 지역에 해당하는 군현이나 배후에 있는 금강 수계의 군현 중 여러 곳이 공격받았다고 한다면, 진포를 통해 금강 유역으로 들어오는 침입 방식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51)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4년 9월.

52)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4년 10월.

53) 『목은시고』 권16, 聞楊二相回軍至廣 聞賊在鎭浦 卽刻南下.

54) 이정란, 앞의 논문, 153쪽.

55)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5년 5월.

56) 선행 연구에서도 양자가 매우 짧은 기간 싸웠거나 아니면 아예 교전이 성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고려군이 도착할 때가 되면 왜구가 이미 바다로 나아가 싸워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전자보다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서술하였다(이정란, 앞의 논문, 154쪽).

대부분의 경우 일차적으로 진포를 침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고려는 왜구가 진포를 침입해 주변의 여러 군현을 유린하면 그때 가서야 양광도와 전라도에 장수를 파견하여 금강의 북안과 남안을 각각 방어하게 하였으며, 몇몇 지역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사태를 일시적이거나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진포에 수군을 주둔시켜 상시 틀어막지 않는 한 금강 유역으로 쇄도하는 왜구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려에서는 도해하는 왜구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책으로 공민왕대부터 이미 水戰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는데⁵⁷⁾, 이 무렵에 최무선의 건의로 火燭都監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고 군사들에게 화포 쏘는 법과 수전을 익히게 하는⁵⁸⁾ 등 海防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추진하고 있었다.⁵⁹⁾ 이러한 노력은 다음의 진포대첩에서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

1380년 7월에 왜구는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와서 西州를 시작으로 扶餘, 定山, 雲梯, 高山, 儒城, 靑陽, 新豐, 鴻山, 錦州, 沃州, 咸悅, 豐堤, 公州 등 금강 유역의 동서남북 각지를 대거 침입하였다(아래 <지도 3> 참조). 당시 왜구는 배 500척으로 鎭浦口에 들어와 큰 밧줄로 서로 잡아매고 병사를 나누어 지키다가 해안에 상륙하여 주군으로 흩어져 들어가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였으니, 시체가 산과 들을 덮고 배로 곡식을 운반하면서 땅에

57) 『고려사』 권83, 志37 兵3 船軍 공민왕 22년 5월 ; 권113, 열전26 鄭地 ; 권115, 열전28 李穡.

58)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3년 10월 · 4년 3월.

59) 고려의 화약 개발과 수군 육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 성과가 있으므로 간단히 언급하였다. 許善道,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上)」, 『歷史學報』 24, 1964 ; 鄭義然, 「고려말 정치와 최무선의 남해 관음포대첩」, 『慶南郷土史論叢』 VI, 慶南郷土史研究協議會, 1997 ; 金琪燮, 「高麗後期 崔茂宣의 생애와 화약제도」,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 이재범, 「고려후기 왜구와 해양방어대첩」, 『이순신연구논총』 13, 2010 ; 신성재, 「고려 말 鄭地의 海防論과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3, 2015.

버려진 쌀이 한 자나
쌓였다고 전한다.⁶⁰⁾

우선 진포를 침입한
왜구 선단의 규모에
대해서는 문헌별로
1천 척⁶¹⁾, 5백 척⁶²⁾,
3백여 척⁶³⁾, 1백 척⁶⁴⁾
등 다양하게 기록되
어 자못 혼란을 주
고 있다. 하지만 정
확한 수효가 어찌
되었든 간에 다른

지역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많은 수에 속하며, 그때까지 진포
에 들어왔던 왜구 규모 가운데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반영하듯 한 달 남짓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진포부터 유성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침구하였다.

당시 왜구 선단이 주둔한 진포구가 어디인지를 두고 기존에
는 서천 장항과 군산 옥구 가운데 어느 한쪽을 드는 경향이 많
았다. 이는 진포대첩의 전장이 어디였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수백 척을 한 번에 연결

〈지도 3〉 1380년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 상황



60)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倭賊五百艘入鎮浦口, 以巨絙相維, 分兵守之, 遂登岸散入州郡, 恣行焚掠, 屍蔽山野, 轉穀于其舶, 米棄地厚尺”

61) 『東文選』 권117, 特進輔國崇祿大夫青城伯沈公行狀.

62) 『고려사』 권114, 열전27 羅世 ; 권126, 열전39 姦臣2 邊安烈 ;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 『태조실록』 충서 신우 6년 8월.

63) 『태조실록』 권7, 4년 4월 19일 임오.

64) 『세종실록』 권48, 12년 4월 13일 계미. 1380년 5월에 진포대첩을 앞두고 왜선 1백여 척이 結城과 洪州를 침입한 적이 있다. 이들이 그대로 진포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종 12년의 기록이 시기상 가장 후대에 해당하나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든지, 수십 척으로 나누어 연결하든지 간에 어느 한 편만 왜구가 주둔했다고 보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애초에 양광과 전라의 경계 지대인 진포 수역이 전장이라면 북안과 남안 중 한쪽에서만 싸움이 벌어졌다고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심지어 왜구가 배를 연결해 마치 금강하굿둑처럼 강을 통째로 막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왜구가 어느 한 편에 주둔해서 그 방면만을 공략할 리가 없다. 이는 당시 기록에 왜구의 첫 번째 침입 지역은 서천으로 확인되지만 곧이어 양광과 전라를 가리지 않고 여러 군현을 공격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특히 ‘鎭浦口’라는 기록에 의존해서 금강 하구에 있는 서천 장항이나 군산 옥구가 전장이었다고 비정할 수 없다. 이색이 자기 집이 있는 한산을 ‘鎭江口’⁶⁵⁾라고 기술한 바 있으며, 진포와 진강이 동일한 의미로 쓰였음을 고려하면 당시 진포구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금강 하구 지역보다 더 넓을 수 있다. 따라서 진포대첩의 전장은 특정 지점을 지목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간단히 말해 금강 하구 일대, 다만 지금의 인식보다 좀 더 넓은 지역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해둔다.

고려는 금강 유역의 여러 군현이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왜구의 근거지가 되어 버린 진포를 평정하려고 하였다. 이에 羅世, 沈德符, 崔茂宣 등이 왕명을 받아 전함 1백 척을 이끌고 내려갔으며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하여 왜구를 대거 격파하고 승리를 거두었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승첩 직후에 나세 등이 그대로 귀환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다음의 기록은

65) 각주 31) 참고, 진포와 진강이 동일한 의미로 쓰였음은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다.

용안에서 또 다른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다) 경신년(1380)에 왜구가 戰艦 1천 척으로 우리나라 남쪽 변방을 침입하여 지나는 곳마다 남김없이 부수었으나 여러 장수가 모두 막지 못하였다. (왜구가) 싸우면서 龍安鎮浦에 이르니 그 세력을 매우 떨쳤다. 僞主(우왕)가 공(심덕부)에게 명하여 樓船 40척을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게 하였다. 적이 배를 네모나게 모아 진을 치고 칼날과 화살촉을 부딪치니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공은 조금도 두려운 기색 없이 일거에 다 섬멸하였다. 이로부터 왜구가 다시 날뛰지 못하였다.⁶⁶⁾

위의 사료 다)는 『東文選』에 실려 있는 심덕부(1328~1401)의 行狀인데 여타 문헌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진포대첩과 관련하여 다양한 추측을 낳게 한다. 만약 다)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龍安鎮浦, 즉 용안의 진포 수역에서 심덕부가 40척 규모의 선단을 이끌고 왜구의 전함 1천 척을 섬멸한 셈이 된다. 이는 진포대첩에 대한 여러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적선의 규모가 1천 척으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화포 사용이나 나세와 최무선을 언급하지 않고 오직 심덕부의 분투로 승패를 결정지은 듯이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사료 다)에 기재된 전투 규모나 경과 등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덕부의 전공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에서 사실을 다소 부풀렸다고 판단된다. 행장 말미를 보면 세종 초기에 실

66) 『동문선』 권117, 特進輔國崇祿大夫青城伯沈公行狀, “庚申, 倭寇以戰艦千艘, 侵我南鄙, 所過殘滅靡遺, 諸將皆不能禦. 轉鬪至龍安鎮浦, 其勢甚張. 僞主命公將樓船四十往討之. 賊方舟而陣, 鋒鏑磨戛, 聲振天地. 公略無懼色, 一舉盡殲. 自是倭寇不復跳梁”

록을 편수하는 과정에서 史官이 심덕부의 행장을 요구하였는데, 그 子姪이 모두 어렸으므로 孫壻 姜碩德이 평소 들은 바를 모아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대략적인 찬술 경위가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太宗實錄』에 실린 심덕부의 졸기를 보면 진포대첩에 대해서 “경신년(1380)에 왜구가 우리 남쪽 변방을 노략질하여 그 기세가 심히 컸는데, 심덕부가 누선 40척을 이끌고 가서 토벌하니 왜구가 다시는 날뛰지 못하였다.”⁶⁷⁾라고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 이는 사관이 행장의 내용 중에서 과장된 부분을 덜어내고 신빙성이 있는 내용을 요약해 남긴 결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사료 다)에서 ‘龍安鎮浦’를 전장으로 기록한 점이 주목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포와 용안이 함께 언급된 사례로는 ‘鎮浦之龍安’과 ‘鎮浦之邊龍安沃溝’ 등이 있으며 내용상 용안의 소재가 진포 안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사료 다)는 ‘진포’와 ‘용안’이 뒤바뀌어 있어서 ‘용안 관내의 진포 수역’이라는 의미 외에 달리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다.⁶⁸⁾ 지금으로서는 사료 다)와 교차 검토할 수 있는 사료가 거의 없어서 ‘龍安鎮浦’의 해석은 무엇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67) 『太宗實錄』 권1, 1년 1월 14일 갑술, “庚申, 倭寇我南鄙, 其勢甚張, 德符將樓船四十艘往討之, 寇不復跳梁”

68) 이 밖에 당시 전라도 북부 지역의 조세가 용안 득성창에 모여 진포를 통해 운반되었기에 착각했다든지, 또는 잘못 전해 들어서 진포와 용안의 순서를 실수로 뒤바꾸어 기술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심덕부가 선단을 이끌고 용안에서 왜구를 격파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포대첩이 용안까지 확대되었거나, 혹은 용안이 진포구에서 대략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별개의 전투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4. 진포대첩 이후 왜구의 동향

진포대첩에 대한 평가는 왜구의 침입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일부 있지만⁶⁹⁾, 그보다는 아무래도 『고려사절요』의 기록이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왜구가 진포의 패배 이후 군현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살육과 약탈을 마음대로 하니 적의 기세가 더욱 거세졌으므로 3도의 연해 지역이 황량하게 텅 비었다. 왜구의 환란이 있는 이후로 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⁷⁰⁾ 라고 서술하였다.

진포에서 살아남은 왜구는 패배에 앙심을 품고 사로잡은 자녀들을 거의 다 죽인 다음, 남은 병력을 수습하여 옥주에서 다른 지역에 있던 부대와 합세하였다.⁷¹⁾ 그리고 내륙을 가로질러 利山, 永同, 黃澗, 禦侮, 中牟, 化寧, 功城, 靑利, 尙州, 善州, 京山, 沙斤乃, 南原, 雲峯, 引月 등을 지나오며 맹위를 떨치다가 결국 荒山에서 크게 패하였으며 지리산에 숨어들었다가 뗏목을 타고 겨우 1백 명 남짓 정도가 살아서 돌아갔다.⁷²⁾ 이처럼 진포대첩 직후 고려가 최종적으로는 황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타고 돌아갈 배를 잃은 왜구가 금강 상류에 집결해 내륙을

69) 『태조실록』 권7, 4년 4월, “壬午自爾倭寇漸息, 乞降者相繼, 濱海之民, 復業如舊”는 최무선의 줄무늬에 황산대첩과 함께 그 전공을 기리고 있어서 진포대첩만 오로지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세종실록』 권48, 12년 4월 13일 계미, “自是以後, 莫與兵船抗拒, 往往雖或寇邊, 有同鼠竊, 不得安然留泊深入爲寇”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황산대첩과 관음포해전을 함께 고려한 평가이다.

70)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賊自鎮浦之敗, 攻陷郡縣, 奮肆殺奪, 賊勢益熾, 三道沿海之地蕭然一空. 自有倭患, 未有如此之比”

71)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

72)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6년 8월·9월 ; 『세종실록』 권48, 12년 4월 13일 계미.

중단함에 따라 여러 군현을 휩쓸면서 갖은 만행을 저지르는 부작용이 수반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왜구는 진포를 통해 금강 유역으로 진입하는 기존 전략을 수차례 시도하였다. 1382년(우왕 8) 2월에 왜구는 임주를 침입하여 진포 침입을 재개하였고, 다음 달인 윤2월에는 다시 임주, 부여, 석성을 차례로 침입하였다. 그해 10월에는 왜선 50척이 대거 진포로 들어오자 이전부터 해양 방어와 수군 육성을 주장해오던海道元帥 鄭地가 해전을 벌여 격퇴하고 群山島까지 추격하여 4척을 노획하는 전과를 거두었다.⁷³⁾ 특히 이듬해 5월에 정지는 觀音浦(南海郡) 해전에서 화포를 사용해 왜구를 크게 무찔렀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왜구의 전략에 한 가지 변화가 나타났다.

라) 왜적이 더욱 깊이 들어와 계해년(1383) 여름에는 원주, 춘천을 지나 철원의 경계를 범하였고 양주, 광주를 침입하였다가 공주의 수령을 살해하였다. 그 왜구들이 모두 여기 丑山島로부터 들어왔는데, 한 고을이 수비를 잃자 3도가 화를 입었으니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듯 이와 같이 참혹하였다.⁷⁴⁾

위의 내용은 왜구가 동해안의 寧海府 丑山島를 근거로 삼아 원주, 춘천, 철원, 양주, 광주, 공주 등지를 침입했다는 기록이다. 그와 조금 다르기는 하나 『고려사』를 보면 관음포해전이 벌어진 직후인 6~8월간 대략 吉安, 安康, 杞溪, 永州, 新寧, 義城, 大邱, 京山, 善州, 仁同, 知禮, 金山 등을 거쳐서 마침내 沃

73) 『고려사절요』 권31, 신우 8년 10월.

74) 『양촌선생문집』 권11, 寧海府西門樓記, “至癸亥之夏, 歷原春而犯鐵原之界, 侵楊廣而害公州之倅. 其寇皆自茲丑山島而入, 一邑失守, 三道被禍, 唇亡齒寒”

州와 報寧까지 육박했음이 확인된다(아래 <지도 4> 참조).⁷⁵⁾ 다시 말해 동해안에서 경상 내륙지역을 횡단하여 금강 상류지역을 침입하고 있는 것이다.⁷⁶⁾ 이는 금강 유역을 침입하는 새로운 전략이기는 하지만 내륙을 관통해야 하고 더욱이 진포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⁷⁷⁾ 1384년 2월에 왜구는 진포에 다시 출몰하기 시작하였다.⁷⁸⁾ 앞서 정지에게 패배한 뒤로는 침탈 행위를 자제하고 사태를 관망하며 틈을 노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지도 4) 1383년 왜구의 내륙 침입 상황



1387년 10월부터 왜구는 임주를 시작으로 한주, 서주, 홍산 등을 공격함⁷⁹⁾으로써 침입 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때 도순문사

75) 『고려사』 권135, 열전48 신우 9년 6월·7월·8월.

76) 관음포해전 이후 왜구의 축산도 침입은 다음의 논문이 참고된다.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田嶋氏」, 『한국민족문화』 67, 2018 ; 이영, 앞의 논문 2021.

77) 1383년 6~8월에 경상도를 침입한 왜구 일부는 무주와 임실을 거쳐 전주까지 침입하였다(허인옥, 앞의 논문, 106~108쪽). 이것이 당시 왜구가 진포에 가장 가까이 도달한 사례이다.

78) 이때 왜구는 주변 군현을 침입하지 않은 채 사로잡은 부녀 25명을 작은 배에 싣고 와서 돌려보냈다(『고려사』 권135, 열전48 신우 10년 2월). 현재로서는 기록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

79) 『고려사』 권136, 열전49 신우 13년 10월.

王承寶가 응전하였으나 당해내지 못하였다. 1388년 5월에 왜구는 고려의 요동 정벌을 기회 삼아 80척을 이끌고 진포에 정박한 뒤 인근 고을을 노략질하였다.⁸⁰⁾ 이는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반대하며 제시한 4불가론의 하나인 “온 나라의 군사들이 원정에 나서면 왜적이 허점을 노려 침구할 것입니다.”⁸¹⁾가 현실화된 것이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무진년에 우리나라가 요동을 치는 일이 있어서 전함이 비어 있음을 알고 진포에 와서 정박하고 경상도까지 들어와 노략질하고 돌아갔다.”⁸²⁾라고 하였는데, 『고려사』 등을 보면 실제로 왜구는 금강 유역의 연산, 청주, 유성, 진잠 등을 공격하고 이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경상도의 상주, 옥주, 황간, 영동 등을 침입하였다.⁸³⁾ 요동 정벌 때 왜구의 진포 침입 사건은 뒤이어 거행된 쓰시마 정벌의 발단이 되었다.⁸⁴⁾ 고려가 수전에서 누차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구의 상륙을 모두 막을 수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남아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금압 방법은 그들의 본거지를 타격하는 일이었다.

요컨대 1380년에 진포를 침입한 왜구는 진포대첩 이후 잔당을 모아 육지에서 맹위를 떨치다가 황산에서 궤멸되었으며, 2년 뒤 다시 진포 침입을 재개하다가 이번에는 정지의 수군에게 패배하였다. 곧이어 관음포해전 이후 왜구는 동해안의 축산도를 통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침입하는 전략을 취하였는데, 1387년부터는 다시 진포를 침입하고 있다. 즉, 왜구는 진포에서 고려 수군과 두 차례 싸워 모두 패배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진포에 대한

80) 『고려사절요』 권33, 신우 14년 5월.

81) 『고려사절요』 권33, 신우 14년 4월.

82) 『세종실록』 권48, 12년 4월 13일 계미, “歲戊辰, 賊知我國有攻遼之役, 而戰艦空疎, 乃來泊鎮浦, 歷至慶尙, 入寇以歸. 惟我太祖在潛邸, 握兵機, 赫然有怒, 翌年己巳, 謀遣邊將, 率兵船往泊對馬, 焚賊船數十而返”

83) 『고려사절요』 권33, 신우 14년 8월.

84) 각주 82) 참고.

침입 빈도가 줄어드는 등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회를 엿보다가 틈이 생기면 진포를 재차 공략하려고 하였다.

끝으로 왜구가 진포를 끈질기게 침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임피 진성창의 존재를 거론할 수 있다. 진성창의 수세 구역은 全州, 臨陂, 進禮, 金堤, 金溝 등으로 인근의 부안 安興倉에 비해 광범위하였고⁸⁵⁾ 대부분 금강이 아닌 만경강의 충적평야에 해당하였는데 이곳은 곡창지대로서 산출이 많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⁸⁶⁾ 또한 전라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개경으로의 항해 거리가 짧을 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육로 및 하천 수운의 이용 등 교통 조건이 양호하였다. 왜구가 침입 초기부터 곧장 진성창을 공격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조창을 내지로 옮기고 조운을 중지한 뒤에도 진포의 남안은 변함없이 곡창지대였으므로 계속해서 왜구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금강을 거슬러 올라갈 경우 내륙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376년에 고려가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뱃길이 막히자 조운을 중지한⁸⁷⁾ 시기를 전후하여, 왜구는 진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금강 수계를 따라 인근 지역을 약탈했으며 때에 따라서는 경상도 옥주까지 진입하였다. 진포대첩처럼 왜구의 대규모 선단이 침입한 것은 경상과 전라 등 타지에 비해 개경과 가까워 중앙에서 파견되는 토벌군을 의식한 면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역시 금강 유역이 넓고 중간에 논산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그만큼 약탈해서 실어 나를만한 물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85)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혜안, 2013, 191~193쪽.

86) 『세종실록』 권74, 18년 7월 21일 갑인.

87)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2년 윤9월.

5. 맺음말

지금까지 14세기 후반 왜구의 금강 유역 침입과 관련하여 진포의 해석 문제, 진포대첩의 전장 비정, 심덕부 행장의 용안진포 전투, 진포대첩 이전과 이후의 침략 양상, 왜구의 진포 침입 목적 등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였다. 몇 가지 요약해보면 첫 번째로 14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전반까지의 문헌 자료에서 진포는 특정 지점이 아닌 금강 하구 또는 하류 지역을 가리키는 일종의 범칭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그간 진포를 서천 장항과 군산 옥구로 보는 견해에서 각각 설명하기 어려웠던 ‘金羅道鎮浦’나 ‘鎮浦之龍安’ 등도 역시 진포가 금강 하류를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고 정리하였다.

두 번째로 진포대첩 직전에 왜구가 서천 장항과 군산 옥구 가운데 어느 한 편에만 주둔했다고 보는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왜구가 진포에 들어온 이후 양광과 전라를 구분하지 않고 침략한 점과 이색이 한산을 ‘진강구’라 서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지금의 인식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금강 하구 일대에서 진포대첩이 벌어졌다고 이해하였다.

세 번째로 심덕부 행장에 기재된 용안진포 전투는 찬자 강석덕이 처조부인 심덕부의 전공을 돋보이게 하고자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파악하였다. 심덕부 행장은 『태종실록』의 심덕부 졸기 및 진포대첩을 전하는 여타 기록과 비교해 볼 때, 적의 규모가 몇 배로 부풀려져 있을 뿐 아니라 화포 사용이나 다른 장수에

관한 내용 없이 오로지 심덕부의 분투가 승패를 결정지은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역설적으로 과장된 측면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

네 번째로 왜구의 진포 침입은 1376년부터 격화되었는데, 진포대첩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금강 유역의 침구 양상을 각각 정리하였다. 왜구는 주로 진포를 통해 금강 수계를 거슬러 올라오는 방식으로 주변 지역을 약탈하였고, 고려는 그때마다 장수를 파견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취하였으나 바다에서 오는 적을 막아내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고려 조정은 화포를 개발하고 수전을 익히게 하는 등 해양 방어책을 모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1380년 진포대첩과 1382년 관음포해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왜구는 두 차례 패전 이후에 다소 주춤해졌으나 얼마 뒤부터 다시 틈을 노려 진포 침입을 시도하였으며, 요동 정벌 시기에는 80척의 선단이 진포에 정박하고 금강 유역을 거쳐 경상도 지역까지 노략질하였다. 마침내 고려 조정은 왜구의 근절을 위해 1389년(昌王 1)에 쓰시마 정벌을 단행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로 왜구가 진포를 침입한 이유으로써 금강 하류 이남의 조세가 모이는 진성창과 그 수세 구역인 평야 지대의 경제적 이점, 금강 수계를 통한 내륙 진입의 용이성, 금강 유역에 인접한 군현이 갖는 물산의 풍부함 등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앞으로 왜구의 활동을 광역 단위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문헌 곳곳에 산견되는 여러 지역의 침입 사례를 일정한 개연성을 갖고 연결하는 일이 요구된다. 대부분의 사료는 군현 단위 명칭만 언급하거나 다수의 군현을 한 번에 열거하고 있으므로 왜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은 추후 논고를 통해 하나씩 보완해나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전쟁사와 지역사 분야의 연구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사료

『稼亭集』, 『高麗史』, 『高麗史節要』, 『權適墓誌銘』,
『大東輿地圖』, 『東文選』, 『東史綱目』, 『麟齋遺稿』,
『牧隱文藁』, 『牧隱詩藁』, 『世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陽村先生文集』, 『佔畢齋集』, 『太祖實錄』

2. 단행본

김민영·김중규, 『금강 하구의 나루터·포구와 군산·강경지역 근
대 상업의 변용—강(江)과 수운(水運)의 사회경제사(社
會經濟史)—』, 선인, 2006.

<http://uci.or.kr//G701:B-00091437142@N2M>

金庠基, 『(新編)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http://uci.or.kr//G701:B-00047809892@N2M>

김중수, 『군산의 역사와 인물』, 국학자료원, 2021.

朴龍雲,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7.

<http://uci.or.kr//G701:B-00047852709@N2M>

李頌,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99.

<http://uci.or.kr//G901:A-0006838866@N2M>

이익주,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

<http://uci.or.kr//G901:A-0006437684@N2M>

한정훈, 『고려시대 교통운수사 연구』, 혜안, 2013.

<http://uci.or.kr//G901:A-0006460241@N2M>

- 이성무 외, 『대은 변안열의 생애와 업적』, 지식산업사, 2013.
<http://uci.or.kr//G901:A-0006457116@N2M>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8)—고려 후기의 사회와 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81.
<http://uci.or.kr//G901:A-0006487717@N2M>
- _____, 『한국사(20)—고려 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1994.
<http://uci.or.kr//G901:A-0006487726@N2M>
- 이영, 『잊혀진 전쟁 왜구—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에피스테메, 2007.
<http://uci.or.kr//G701:B-00107281289@N2M>

3. 연구논문

- 구산우, 「일본 원정, 왜구 침략과 경상도 지역의 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2, 2007.
<http://uci.or.kr//G901:A-0003423078@N2M>
- 金琪燮, 「高麗後期 崔茂宣의 생애와 화약제도」, 『한국중세사연구』 26, 2009.
<http://uci.or.kr//I410-ECN-0101-2010-911-001641928@N2M>
- 金鍾洙, 「鎭浦大捷의 歷史的 意義」, 『全羅文化研究』 12, 2000.
<http://uci.or.kr//G701:B-00093223438@N2M>
- 박영철, 「鎭浦와 鎭城倉」, 『전북사학』 44, 2014.
<http://uci.or.kr//G901:A-0003507051@N2M>
- 손승철, 「고려시대 강원지역에 대한 왜구의 침탈과 대응」, 『江原史學』 24·25, 2010.
<http://uci.or.kr//G901:A-0008150918@N2M>

신성재, 「고려 말 鄭地의 海防論과 수군활동」, 『이순신연구논총』 23, 2015.

<http://uci.or.kr//G901:A-0003845297@N2M>

윤용혁, 「고려 말 보령지역의 왜구와 金成雨」, 『역사와 담론』 66, 2013.

<http://uci.or.kr//G901:A-0003485326@N2M>

_____, 「고려 말의 왜구와 서산 부석사」, 『역사와 담론』 69, 2014.

<http://uci.or.kr//G901:A-0003498199@N2M>

李頌, 「홍산·진포·황산 대첩의 역사지리학적 고찰」, 『日本歷史研究』 15, 2002.

<http://uci.or.kr//G901:A-0002641756@N2M>

_____, 「고려 말의 왜구와 마산」, 『한국중세사연구』 17, 2004.

<http://uci.or.kr//G901:A-0003390616@N2M>

_____, 「진포구(鎭浦口)·남해 관음포(觀音浦) 해전과 고려 말 왜구 침구 양상의 변화」, 『한국중세사연구』 64, 2021.

<http://uci.or.kr//I410-ECN-0102-2022-900-000319818@N2M>

李在範, 「고려말 조선전기의 왜구와 사천」, 『軍史』 58, 2006.

<http://uci.or.kr//G901:A-0002230994@N2M>

이재범, 「고려후기 왜구와 해양방어대책」, 『이순신연구논총』 13, 2010.

<http://uci.or.kr//G901:A-0002881224@N2M>

이정란, 「왜구의 충청 지역 침구의 시기별 추이와 고려의 대응」, 『史林』 52, 2015.

<http://uci.or.kr//G901:A-0003725370@N2M>

임형수, 「1376년 鴻山 전투의 意義와 戰場에 대한 재고찰」, 『軍史』 98, 2016.

<http://doi.org/10.29212/mh.2016..98.75>

정영현, 「고려 禡王代 倭寇의 동향과 성격 변화」, 『역사와 세계』 33, 2008.

<http://uci.or.kr//G901:A-0002554070@N2M>

정영현, 「동해안의 왜구와 쓰시마 早田氏」, 『한국민족문화』 67, 2018.

<http://doi.org/10.15299/jk.2018.05.67.199>

_____, 「여말선초의 濟州와 倭寇」, 『한국민족문화』 75, 2020.

<http://doi.org/10.15299/jk.2020.05.75.225>

_____, 「경남 지역의 왜구와 낙동강」, 『역사와 경계』 122, 2022.

<http://doi.org/10.52271/PKHS.2022.04.122.53>

鄭義然, 「고려말 정지와 최무선의 남해 관음포대첩」, 『慶南鄉土史論叢』 VI, 慶南鄉土史研究協議會, 1997.

<http://uci.or.kr//G901:A-0008474327@N2M>

韓永愚, 「稼亭 李穀의 生涯와 思想」, 『韓國史論』 4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8.

<http://uci.or.kr//G901:A-0001251737@N2M>

許善道, 「麗末鮮初 火器의 傳來와 發達(上)」, 『歷史學報』 24, 1964.

<http://uci.or.kr//G901:A-0000100379@N2M>

허인욱, 「고려 말 왜구의 전북지역 침입 연구—全州를 중심으로—」, 『전북사학』 46, 2015.

<http://uci.or.kr//G901:A-0003731695@N2M>

(Abstract)

Japanese Pirates' Intrusion into the Geum River Basin and the Battle of Jinpo in the Late 14th Century

Lim, Hyung-soo

The studies of the Japanese pirates' invasion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often examine one regional unit, such as provinces, counties, or prefectures, according to the recent flow in whic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ctively in the fields of local history and war histor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Japanese pirates at the time swept places regardless of the administrative division for plunder, such an analysis method is advantageous in that it is possible to examine the war situation in a specific area closely but it is not enough for understanding the general patterns of aggression. Thus,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route coming into the central inland region along the course of the Geum River and would summarize the aspects of the Japanese pirates' invasion into the wide area of the Geum River basin.

Japanese pirates invaded the Geum River basin in earnest in 1376, which aimed at plundering all over the inland, using the water transport connecting through the Mangyeong Plain, the tax collection district of Jinseongchang and the Nonsan Plain to the Gyeongsang Region. In addition, since the Battle of Jinpo in 1380, the invasion activity calmed down, but they would attack the Geum River basin again, seizing negligence in surveillance as in the Liaodong Conquest while watching for an opportunity. In particular, this study reexamined the issue of the battlefield that was previously identified as Seocheon or Gunsan, concerning the Battle of Jinpo and pointed out that the records of battles in Yongan-Jinpo shown by Shim Deok-Bu's conduct were partly exaggerated to honor the ancestor.

Keywords : Japanese pirates, Geum River basin, Geum River Estuary, Jinpo, Battle of Jinpo, Yongan-Jinpo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169-222
<https://doi.org/10.29212/mh.2022..125.16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동맹 결속의 공고함과 느슨함 사이

-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동맹의 역사가 갖는 함의 -

송민선 |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석영달 |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목 차

1. 서론
2. 파이브 아이즈 정보동맹의 태동:
제2차 세계대전 중 영미간 협력
3. 제2차 세계대전 후 영미 정보 관계의 변화
4. 영미 간의 갈등과 정보 동맹의 중심 이동
5. 결론

초 록 본 논문은 영미권의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와 관련하여 그간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파이브 아이즈의 역사’를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롭게 분석해보고자 했다. 첫째, 파이브 아이즈는 영국과 미국의 정보 체계가 결합하고 그것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평화적 세력전이의 과정 속에서 정보 동맹의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에 가까웠다. 즉, 파이프 아이즈 동맹 형성의 역사는 '결합의 역사'라기보다는 '갈등과 그 반작용의 역사'로서, 기존 영연방 중심의 정보 공유 체제가 미국 중심의 정보 동맹으로 옮겨가는 과정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둘째, 영연방 소속 국가들이 영국의 정보 통제 하에서 벗어나 미국과 단독으로 정보 협정을 맺게 되는 과정에는 “어떤 국가가 몇 년도에 추가적으로 합류했다” 정도의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담을 수 없는 복잡다단한 정치적 배경과 의도가 숨어있었다. 특히 그 전환점에 핵심이 되었던 캐나다는 파이프 아이즈의 형성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은 국가였다. 당시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었고, 미국도 영국을 통해 캐나다의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었는데 왜 두 국가는 굳이 별도의 단독 정보협정을 맺게 되었던 것일까? 본 논문은 이 질문을 근간으로 하여 당시 영미 간의 갈등과 캐나다는 중견 국가가 내린 판단 및 외교 전략을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파이프 아이즈의 참여, 혹은 협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 주리라 생각된다.

주제어 : 파이프 아이즈, 정보 동맹, 브루사 협정, 영국-미국 정보 협정, 롤스로이스 사건, 영연방 신호정보 기구, 캐나다-미국 정보 협정

(원고투고일 : 2022. 10. 7, 심사수정일 : 2022. 11. 9, 게재확정일 : 2022. 11. 25.)

1. 서 론

2021년 8월 2일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회에서는 매년 국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승인하는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이하 NDAA)¹⁾’에 흥미로운 조항을 하나 포함시켜 의결하였다. 그것은 바로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간의 정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 일본, 인도, 독일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²⁾ 하지만 그 이후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삭제되었고, 2021년 12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수정된 최종안에 서명하면서 해당 제안을 검토한 결과는 알 수 없게 되었다.³⁾ 다만 미 하원 청문회 등에서 한국, 일본 등을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시킬 것을 거론하는 목

1) 수권법안(Authorization bill)이란 행정부에서 예산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이때 수권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상임 위원회에서 작성 및 검토하고 양원에서 해당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서명하여 그 법안에 효력을 부여한다. 수권법안이 제정되고 나면 이어서 세출 법안(Appropriation bill) 제정 과정이 이어지는데, 세출 법안까지 제정이 완료되고 나면 본격적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진다. Walter J. Oleszek et al eds., *Congressional Procedures and the Policy Process* (Washington, D.C.: CQ Press, 2016), pp. 47-50.

2) 이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네 개의 새로운 국가를 기존 다섯 국가의 정보 동맹 체제에 추가했을 때 언제 될 이점과 그에 반해 나타날 문제점 등을 국가정보국장이 평가하고, 이에 대해 2022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3) 박수현, 「바이든, 912조 규모 국방수권법안 서명… ‘주한미군 하한선’ 결국 뺏다, 『조선일보』 2022. 12. 28.

소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⁴⁾ 그리고 미국의 언론에서도 파이프 아이즈의 확장 가능성에 꾸준히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언젠든 미국 내에서 다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라 볼 수 있다.⁵⁾

한편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상응하여 최근 국내에서 파이프 아이즈에 대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다. 2022년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파이프 아이즈와의 협력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⁶⁾ 최근 임명된 신임 국가정보원장 역시 그러한 기조에 발맞추어 청문회에서부터 파이프 아이즈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⁷⁾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의 파이프 아이즈에 대한 관심은 전례 없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전까지 국내 언론에서는 파이프 아이즈를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1983~)의 폭로사건이나,⁸⁾ 2018~2020년 화웨이(Huawei)의 제재 문제와⁹⁾ 같이 서방 국가들과 관련된 ‘국제 뉴스’ 정도로만 다뤄왔다. 하지만 미 하원 군사위원회의 제안 이후에는

4) 박동정,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서 ‘파이브 아이즈’ 한국·일본으로 확대 문제 거론」, 『V. O. A.』 (2022. 4. 28.).

5) Tara Copp, “‘Nine Eyes’? Bill Would Look at Adding Four Countries to Intel-Sharing Pact,” *Defense One* (2021. 11. 2.); Tom Rogan, “Five Eyes? Nine Eyes? Try Four Eyes,” *Washington Examiner* (2021. 11. 8.); Pete McKenzie, “New Zealand Deal May Put Japan Closer to ‘Five Eyes’ Intelligence Alliance,” *New York Times* (2022. 4. 22.).

6) 박준상, 「윤석열, “북한 비핵화 위해 국제 공조 주도…남북미 상사회담도 가능”」, 『이투데이』 (2021. 11. 12.).

7) 이희수, 「김규현, “파이브 아이즈 협력 추진”」, 『매일경제』 (2022. 5. 25.).

8) 최희진, 「아시아 내 호주대사관, 미국 도청기지 역할했다」, 『경향신문』 (2013. 10. 31.).

9) 안승섭, 「美, 화웨이 퇴출공조 균열?...英 이어 뉴질랜드도 이상기류(종합)」, 『연합뉴스』 (2019. 2. 19.).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향후 우리나라가 파이프 아이즈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대중의 이목을 한껏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가. 기존 논의 검토

아쉬운 점은 위에서 살펴본 정치적 기류 변화나 국내의 관심도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는 파이프 아이즈라는 정보 동맹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만한 학술 연구가 손에 꼽힐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소수의 연구들도 파이프 아이즈 자체에 대해 주목하기보다는 그와 관련된 최근의 국제 정치적 이슈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어 파이프 아이즈의 형성과정이나 소속 국가들의 태도 및 정체성 변화와 같은 역사적 차원의 고찰은 살펴보기가 어렵다.¹⁰⁾

이러한 상황은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파이프 아이즈 자체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파이프 아이즈가 언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드문 편이다. 이는 파이프 아이즈라는 정보 동맹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10) 국내의 파이프 아이즈 관련 연구로는 유인태, 오정현 등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화웨이 사태' 등과 같은 비교적 최근의 문제를 다루며 파이프 아이즈 국가들의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다만 이 논문들은 파이프 아이즈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치 차원의 분석에 주로 집중하고 있어 파이프 아이즈의 역사나 정체성 변화 등과 같은 내용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 유인태, 「캐나다 사이버 안보와 중견국 외교: 화웨이 사례에서 나타난 안보와 경제·통상의 딜레마 속에서」, 『문화와 정치』 제6권 2호 (2019), pp. 263-298; 유인태,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 연대 외교의 갈림길: 화웨이 사례에서 보는 파이프 아이즈의 연대와 이탈」, 『동서연구』 제33권 2호 (2021), pp. 5-31; 오정현, 「미국의 정보동맹과 유럽의 네트워크 전략」, 『국방연구』 제63권 1호 (2020), pp. 117-140.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관련 자료들이 기밀 상태로 유지되어 거의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2010년대 이후 파이프 아이즈 국가들에서 일부 자료들을 기밀 해제하면서 각국 정보기관의 역사를 살펴보려는 차원에서 파이프 아이즈와 관련된 역사적 차원의 분석들이 서서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파이프 아이즈의 역사를 살펴봄에 있어 가장 주목해볼 만한 연구라고 한다면 2019년 코리 플루크(Corey Pfluke)가 발표한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역사: 개혁과 추가의 가능성」(“A History of the Five Eyes Alliance: Possibility for Reform and Additions”)¹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제목 자체부터가 ‘파이브 아이즈의 역사’를 거론하고 있는 만큼 다른 연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의 역사적 고찰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전체 14페이지 중 4페이지 정도만을 할당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내용은 향후 어떤 국가들이 이 동맹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역사’ 그 자체에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여기서 언급되는 파이프 아이즈의 역사는 ‘영미 정보협정(UKUSA Agreement)’을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데에 그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어떤 배경과 의도로 해당 동맹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¹²⁾

이와 같은 시각은 영미 간의 정보 동맹을 다룬 저명한 저서, 『결속하는 유대』(*The Ties That Bind*, 1985)¹³⁾에 기본

11) Corey Pfluke, “A History of the Five Eyes Alliance: Possibility for Reform and Additions,” *Comparative Strategy*, Vol. 38, No. 4 (2019), pp. 302-315.

12) Pfluke, “A History of the Five Eyes Alliance,” pp. 302-305.

13) Jeffrey T. Richelson and Desmond Ball, *The Ties That Bind: Intelligence*

적으로 깔린, ‘서구 정보 동맹의 발전사’를 보는 시각과 매우 유사하다. 냉전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영국과 미국 중심의 정보 동맹이 서방 세계의 정보 활동을 좌우해 왔기에 파이프 아이즈와 같은 정보 동맹 역시도 자연스럽게 영미 정보협정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된 것이다.¹⁴⁾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파이프 아이즈를 단지 영국과 미국의 결합으로만 판단하고 그 이후 부속 국가들이 해당 동맹에 추가 합류했다는 식의 주장으로 역사를 정리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해당 정보동맹이 분명 ‘파이브 아이즈’라는 다국적 조직체로 평가받고 있고, 심지어 그 동맹의 중심국인 미국에서 동맹의 추가적인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와 같이 단순화된 설명만으로는 파이프 아이즈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중견국’¹⁵⁾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단지 두 강대국의 결합만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캐나다, 호주,

Cooperation between the UKUSA Countries -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London: Unwin Hyman Ltd., 1990[1985]).

- 14) 이러한 시각은 심지어 캐나다를 중심으로 다루며 캐나다와 파이프 아이즈와의 관계를 조명한 논문에서도 유사하게 살펴볼 수 있다. 제임스 콕스는 아래 논문에서 파이프 아이즈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미 간의 정보 협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James Cox, “Canada and the Five Eyes Intelligence Community,” *Canadian Defence and Foreign Affairs Institute Working Group Papers* (2012), p. 5.
- 15) 중견국이라는 개념은 국제정치 전문 저서나 전문 학술지에 소개되기 시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학자들 사이에 서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명확한 정의 또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여러 학자들이 중견국 개념을 심도 있게 정의하기보다는 사례 연구 형태로 중견국 역할을 수행한 국가들을 소개하고 그 사례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군’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주로 해왔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여러 연구들 가운데 김우상이 제시한 중견국의 정의인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여러 국가들과 함께 다자주의 외교를 통해 주요 지역적, 국제적 사안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고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국가”를 참고하고자 한다. 김우상,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정치정보연구』 제16권 1호 (2013), pp. 333-334.

뉴질랜드와 같은 중견국들이 어떤 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파이프 아이즈에 가입하게 되었고, 이후 동맹 내에서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견지해왔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나.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파이프 아이즈와 관련된 국제 조약들, 파이프 아이즈 관련 언론 기사, 그리고 관련 국가들의 정보기관에 대한 최신 연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며 파이프 아이즈의 역사를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새롭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파이프 아이즈의 역사는 영국과 미국의 정보 체계가 결합하고 그것이 확장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평화적 세력전이의 과정 속에서 정보 동맹의 ‘무계 중심’이 옮겨가는 과정에 가까웠다. 지금껏 여러 연구들이나 언론 매체에서는 파이프 아이즈의 역사를 언급할 때 영국과 미국이 정보 협정을 맺은 후 나머지 세 국가가 순차적으로 합류했다는 식의 설명만을 반복해왔다. 하지만 그 실상은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이미 ‘영연방(commonwealth)’¹⁶⁾에 소속되어

16) ‘커먼웰스(commonwealth)’는 원래 ‘공공의 부’라는 의미로서 공화국을 뜻하는 라틴어 ‘res publica’ 대신 사용된 용어이다. 이 말은 16세기 이후 한 나라를 구성하는 인민의 총체 또는 인민의 정치체, 구체적으로는 공화국과 동의어가 되었다. 크롬웰 당시 영국 헌정을 커먼웰스라고 불렀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용례에서 공동의 이해를 지닌 집단이나 단체 또는 조직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는데, 이를테면 이 시기에 신성한 ‘기독교 국가들의 연합(hole commonwealth of all christendom)’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커먼웰스’라는 표현은 국가연합이라는 의미에 좀 더 가깝다. 다만 본고에서는 국내에 영국의 ‘commonwealth’가 ‘영연방’이라는 용어로 굳어져 통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연방’으로 칭하고자 한다. 석영달, 「필립 머피(Philip Murphy)의 역사학적 여정: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영연방의 관계 속에서」, 『영국 연구』 제40호 (2018. 12.), p. 330; 이영석, 「제국의 유산- ‘영연

있던 국가들로서 영국과는 그 이전부터 긴밀한 정보 공유 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런 점에서 파이프 아이즈 동맹 형성의 역사는 ‘결합의 역사’라기보다는 ‘갈등과 그 반작용의 역사’로서, 평화적 세력전이의 과정에서 기존 영연방 중심의 정보 공유 체제가 미국 중심의 정보 동맹으로 옮겨 가는 과정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둘째, 영연방 소속 국가들이 영국의 정보 통제하에서 벗어나 미국과 단독으로 정보 협정을 맺게 되는 과정에는 “어떤 국가가 몇 년도에 추가적으로 합류했다” 정도의 단순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답을 수 없는 복잡다단한 정치적 배경과 의도가 숨어있었다. 특히 그 전환점에 핵심이 되었던 캐나다는 파이프 아이즈의 형성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은 국가였다. 당시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었고, 미국도 영국을 통해 캐나다의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두 국가는 왜 굳이 별도의 단독 정보협정을 맺게 되었던 것일까? 본 논문은 이 질문을 근간으로 하여 당시 영미 간의 갈등과 캐나다는 중견 국가가 내린 판단 및 외교 전략을 분석해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파이프 아이즈의 참여, 혹은 협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에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리라 생각된다.

방'의 과거와 현재, 1880-2000」, 『영국연구』 25호 (2011. 6.), p. 237; 원태준, 「‘트루도 딜레마’에 대한 영국의 외교적 대응 1968-1974」, 『서양사론』 123호 (2014), p. 281.

2. 파이프 아이즈 정보동맹의 태동 : 제2차 세계대전 중 영미간 협력

파이브 아이즈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려면 무엇보다 어느 시점부터의 정보 동맹, 혹은 정보 협력부터 논의의 대상으로 고려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지금껏 파이프 아이즈를 다루었던 여러 언론 및 학술 자료들이 그것의 기원을 제각기 다른 시점으로 설정하곤 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보 협력의 수준이나 참여국의 범위 등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그 기원을 조금씩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⁷⁾ 이 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통용되는 파이프 아이즈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영미 정보협정(UKUSA Agreement)’의 역사적 배경을 처음부터 짚어가면서 언제부터 그러한 정보 동맹의 개념이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보 교류의 관점에서 당시 영미 간의 관계와 영연방 국가들과의 연결성 등에 대해 분석해볼 것이다.

가.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전후 영미 간 군사 협력

보통 영국과 미국 간 정보 교류의 출발점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시점은 바로 ‘대서양 헌장(Atlantic Charter,

17) Jason Dittmer, “Everyday Diplomacy: UKUSA Intelligence Cooperation and Geopolitical Assemblag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105, No. 3 (2015), p. 609.

1941)’ 발표 전후의 시점과 미국의 암호 해독가들이 영국의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를 방문한 시점일 것이다. 이 두 시점은 각각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과 ‘실질적인 정보 교류가 이뤄지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모두 의미가 있다. 먼저 대서양 현장이 발표되기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유럽에서는 1940년 6월 프랑스가 독일에게 수도 파리를 점령당하고 정전협정을 맺게 되면서 영국 홀로 독일에 대항해야 했던 상황이었다.¹⁸⁾ 1940년 5월 영국의 수상으로 취임했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은 취임한 지 약 한 달 만에 국가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그는 미국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에 유일한 희망을 걸고 있었다. 당시 미국은 국내 경제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적으로는 엄격한 고립주의를 고수하던 상황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1882-1945)는 유럽과 일본의 파시즘이 전 세계에 위세를 떨치게 되면 그것이 장차 미국의 안보와 이익에도 큰 위협이 되리라 판단하였다. 1940년 9월 미국이 50척의 구축함을 영국으로 인도하는 협정을 맺고,¹⁹⁾ 국방 예

18) Hughues Canuel, “French Aspirations and Anglo-Saxon Suspicions: France, Signals Intelligence and the UKUSA Agreement at the Dawn of the Cold War,” *Journal of Intelligence History*, Vol. 12, No. 1 (2013), p. 80.

19) 이 협정은 ‘구축함 대 기지 협정(Destroyers-for-bases deal)’으로 서반구에 있는 영국의 영토에 미국 해군이 기지 사용을 허락받는 조건으로 50척의 구형 구축함을 영국 해군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Steven High, “The Racial Politics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ftermath of the Anglo-American ‘Destroyers-for-Bases’ Deal, 1940-50,” *The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Vol. 32, No. 3 (2004), p. 77; 볼프강 크리거 지음, 이미옥 옮김, 『비밀정보기관의 역사: 파라오부터 NSA까지』 (서울: 에코리브르, 2021), p. 298.

산도 대폭 늘리고자 했던 것은 루스벨트의 확고한 의지와 판단 아래 미국이 할 수 있는 나름의 대응을 고민한 결과였다.²⁰⁾

이후 루스벨트는 의회를 설득하여 1941년 3월 11일 무기 대여법(Lend-Lease Act)²¹⁾을 통과시켜 영국에 막대한 군수 물자를 지원했으며, 4월에는 그린란드(Greenland)에 병력을 배치하고 7월에는 아이슬란드에서 영국군의 주둔 임무를 인계받으며 좀 더 실질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1년 8월 9일부터 8월 12일까지 처칠과 루스벨트는 뉴펀들랜드 자치령(Dominion of Newfoundland, 현 캐나다 뉴펀들랜드 주) 아젠서 해군 기지(Naval Station Argentia)에서 영국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H.M.S. Prince of Wales)에 승선하여 역사적인 회담을 갖게 되었다.²²⁾

다만 여기서 이 회담 자체를 영미 간 정보 교류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이 회담의 결과로 발표된 대서양 헌장에 ‘정보 교류’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추축국(Axis powers)에 반대한다는 선언과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영토 확장을 위한 무력 사용의 포기, 영구적인 안전 보장과 같은 공동의 비전 정도가 담겨있었다. 이 선언은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유사한 뿌리에 기반을 둔 두 강대국이 전례 없는 협

20) Canuel, “French Aspirations and Anglo-Saxon Suspicions,” p. 80.

21) 2차 세계대전 중 1941년과 1945년 사이에 미국이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와 기타 연합국 측에 방대한 금액과 물량으로 군수품을 공급할 것을 정한 미국의 법규이며 미국은 그 대가로 군사 기지 사용권을 받았다. 이로써 1차 대전 이후 해외 불간섭 정책을 고수하던 미국은 간섭 정책으로 전환했다. 존 루이스 개디스 지음, 정철·강규형 옮김,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서울: 에코리브르, 2014), p. 20.

22) Canuel, “French Aspirations and Anglo-Saxon Suspicions,” p. 80.

력을 선포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을 처칠이 간절히 기대했던 미국의 공식적인 선전포고나 군사적 지원 약속으로 보기는 어려웠다.²³⁾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부근에서 파이프 아이즈의 기원을 찾고자 한다면 대서양 현장이라는 공식적인 결과물보다는 그것의 선포 전·후로 물밑에서 조율되었던 영미 간의 군사 협력에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에 만연하던 고립주의와는 별개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부터 군사 분야에서는 이미 영미 간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전간기의 군축 협약 이후부터 미국은 일본의 중국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전쟁 계획을 수립했고, 그 전쟁 계획과 관련된 협력을 위해 해군 연락장교를 영국으로 파견하였다. 그리고 1940년 8월에는 좀 더 대규모의 군사 대표단이 런던을 방문하여 ‘영미 군비 표준화 위원회(Anglo-American Standardization of Arms Committee)’를 열어 양국이 보유한 무기와 전략 등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 이러한 군사 분야에서의 접촉은 향후 영국과 미국 간에 좀 더 정례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 결과 1941년 1월 29일부터 3월 27일까지 각국의 군사 대표단이 워싱턴에서 비밀리에 만나 첫 ‘미-영 대화(American-British Conversations)’를 갖게 되었다.²⁴⁾

약 두 달에 걸친 이 회담은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미-영 대화’의 첫 알파벳 글자를 딴 ‘ABC-1 계획(ABC-1 Plan)’은 향후 양국이 독일 및 일본에 맞서는 데에 적극 협력할 것을 합의하

23) Canuel, “French Aspirations and Anglo-Saxon Suspicions,” p. 81.

24) Mark Skinner Watson, *Chief of Staff: Prewar Plans and Preparations* (Washington: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91), pp. 115-123, 370-373; Canuel, “French Aspirations and Anglo-Saxon Suspicions,” p. 81.

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²⁵⁾ 여기서 정보 동맹의 관점에서 주목해볼 부분은 해당 계획의 조항 중에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정보 연락을 위해 영국과 미국이 서로의 수도에 각각 사절단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서 필요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개별적으로 연락 장교를 교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점은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미국 측에서 정보 교류를 위해 영연방 국가들에게 먼저 손을 내민 최초의 사례라는 점과, 향후 미국이 영연방 국가들과 단독으로 정보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즉, 당시 ‘미-영 대화’는 향후 5개국 정보 동맹의 가능성을 담고 있었던 파이프 아이즈 역사의 태동과 같은 계기라고 볼 수 있었다.²⁶⁾

이 군사 회담에서 조율되었던 여러 사안들은 이후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으로 인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점차 현실화되었다. 루스벨트와 처칠은 1941년 12월 22일부터 1942년 1월 14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첫 전시 회의, ‘아카디아 컨퍼런스(Arcadia Conference)’에서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공식화했다.²⁷⁾ 다만 이 시점까지는 아직 양국이 군사적 협력의 ‘대전략’을 논의하던 단계였으

25) ABC-1 계획에서 영국과 미국은 대서양 및 유럽지역이 전쟁의 결정적인 전장(decisive theater)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했으며, 독일을 상대로 한 전쟁에 모든 전력을 집중시키고 만일 일본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태평양 지역에서 방어적인 태세를 갖출 것을 명시하였다. 조재원, 「다수의 위협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정 분석: 1933-1941년 미국의 ‘선 독일 후 일본’ 원칙의 사례」, 『미국학』 제36권 1호 (2013), p. 146.

26) Watson, *Chief of Staff*, p. 378; Canuel, “French Aspirations and Anglo-Saxon Suspicions,” p. 81.

27) Maurice Matloff and Edwin M. Snell, *Strategic Planning for Coalition Warfare 1941-1942* (Washington: Center for Military History, 1990), pp. 97-119.

므로 그 협력에 있어 양국의 정보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혹은 그 협력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정보 교류로 확대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²⁸⁾

나.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전후 영미 간 정보 협력

사실 처칠이 아카디아 컨퍼런스를 위해 워싱턴에 도착했을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정보 수집 능력의 측면에서 미국을 훨씬 앞서 있었다. 영국은 폴란드와 프랑스가 독일의 암호 체계 이니그마(ENIGMA)²⁹⁾를 깨뜨리기 위해 했던 노력과 경험을 거의 그대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³⁰⁾ 미국이 참전하기 전 약 2년간의 전쟁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암호를 분석하면서 막대한 인력 및 기술 자원을 결집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결정했을 무렵에는 영국 블레츨리 파크(Bletchley Park)의 정부 암호학교(the Government Code and Cypher School, 이하 GC&CS)³¹⁾가

28) Canuel, "French Aspirations and Anglo-Saxon Suspicions," p. 81.

29)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독일의 군용 이니그마 기계는 1차 세계대전 말인 1918년 4월 전기기술자 아르투르 셰르비우스가 개발하여 특허를 얻은 암호 기계였다. 독일에서는 1926년에 해군, 1928년에 육군, 1935년에 공군에서 각각 이를 암호 체계로 채택했으며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내내 개선을 거듭해가면서 점차 더 해독이 어려운 난공불락의 암호 체계로 발전시켜 갔다. 이니그마의 원리와 해독 과정에서 대해서는 제프리 T. 리첼슨 지음, 박중서 옮김, 『거의 모든 스파이의 역사: 20세기의 그림자』 (서울: 까치글방, 2008), pp. 221-224를 참고.

30) 1931년 프랑스의 귀스타브 베르트랑 대위는 독일 육군의 암호반에서 근무한 한 스-틸로 슈미트로부터 이니그마 문서에 대한 정보들을 얻었고 이를 폴란드의 암호 해독팀인 BS.4와 공유했다. BS.4는 1932년 12월 이니그마 해독의 중요한 돌파구를 발견했고 1933년 1월부터 꾸준히 독일의 무선통신을 해독했다. 이후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기 몇 주 전 BS.4는 영국과 프랑스에 그들이 독일의 이니그마를 모방해서 만들어낸 암호해독 장치뿐 아니라 소중한 암호 해독 문서도 건네주었다. 크리거, 『비밀정보기관의 역사』, p. 334.

암호 해독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립하고 있었다.³²⁾

하지만 독일의 이니그마가 시간이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진화하여 단지 영국만의 정보 역량으로는 더 이상 공략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자 영국은 정보 분야에서도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역시도 진주만 기습 이후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자 정보 분야에서 영국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절실히 필요했다. 하지만 아직 양국 간의 굳건한 신뢰 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의 모든 기밀이나 역량을 완전히 공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과연 영국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어떤 단계를 거쳐 긴밀한 정보 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일까?

사실 양국 간의 소소한 수준의 정보 교류는 정보기관 간의 공식적인 협정이 맺어지기 이전부터 물밑에서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1940년 9월 5일 영국 정부의 지시를 받은 육군 첩보부장 케네스 스트롱 소장(Major-General Sir Kenneth Strong)은 미국 측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암호 및 해독 관련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는지를 문의했다. 미 해군과 달리 미 육군 측은

31) 1919년 영국 해군의 암호 부대 Room 40와 육군의 암호기구 MI-8의 일부 인원이 정부 암호학교에 통합되었는데 학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기능은 전 정부 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호법과 암호에 대한 보안과 그 대책을 조언하고 지원하는 것이었다. 물론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의 기능에는 외국 정부의 통신을 도청하여 획득된 통신문을 해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Christopher Andrew, *Secret Service: The Making of the British Intelligence Community* (London: Heinemann, 1985), pp. 259-260; 박영일 엮음, 『강대국의 정보기구』 (서울: 현대문예사, 1994), pp. 19-20.

32) 워싱턴에서 브루사 협정(BRUSA Agreement)이 체결될 때 미국 육군의 선임 암호분석관 세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영국 블레츨리 파크의 신호정보 기관에서 6주의 실태조사 임무를 한창 수행 중이었다. 이때 대표단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유명한 암호 전문가 윌리엄 프리드먼(William Friedman)은 블레츨리에 체류하는 동안 영국의 정보 출처와 다양성이 미국 측보다 훨씬 더 나았다는 평가를 남겼다. Canuel, "French Aspirations and Anglo-Saxon Suspicions," p. 82; 크리스토퍼 앤드루, 『스파이 세계사』, p. 231.

호의적인 답변을 보내왔는데 이때까지는 양측 모두 도청 내용을 교환하는 정도로만 정보를 공유할 생각이었다.³³⁾

하지만 양국의 정보 담당 부서 간 긴 협상이 이뤄진 끝에 1941년 2월 미국의 육·해군 소속의 암호 전문가 4명이 10주 동안 영국의 블레츨리 파크에 방문하면서 두 국가 간의 정보 교류는 급진전을 보였다. 영국 측은 몇몇 도청 및 암호 해독소를 보여주며 그간 축적된 영국의 암호 해독 능력과 실제 전쟁 중 정보 활용 사례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상응하여 미국 대표단은 일본의 암호 기계 및 일본 해군 암호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는데,³⁴⁾ 미국 측의 첩보 능력을 확인한 영국 정보 담당자들은 수집된 정보를 번역, 해독할 인력이 부족했던 싱가포르 도청소에서 양국 간의 합작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1941년 6월 양국은 싱가포르와 필리핀 주재 미군 사령부 간, 그리고 싱가포르와 미국 태평양 함대 간 일본 관련 첩보의 공유를 합의했다.³⁵⁾ 이런 점에서 미국 측의 블레츨리 파크 방문은 양국의 정보 담당 부서 간 교류의 물꼬를 튼 계기이자, 향후 긴밀하게 이뤄질 정보 협력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었다.

이후 1941년 8월 10일부터는 영국 정부 암호학교(GC&CS)의 대표단이 약 한 달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여 각국의 암호 분석 책임자들과 좀 더 심도 있는 정보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1942년 3월 미국-영국-캐나다 간 특별 회담이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세 국가 간 도청 및 방향 탐

33) 리첼슨, 『거의 모든 스파이의 역사: 20세기의 그림자』, p. 82.

34) 여기서 미국 대표단은 일본의 암호 기계 퍼플(PURPLE)을 영국의 암호 해독가들에게 전달했다. Richelson and Ball, *The Ties That Bind*, p. 1.

35) Canuel, "French Aspirations and Anglo-Saxon Suspicions," p. 82; 리첼슨, 『거의 모든 스파이의 역사: 20세기의 그림자』, pp. 236-237.

지(Direction Finding)³⁶⁾ 작전의 통합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첩보 작전의 지휘를 어떤 거점들에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³⁷⁾

다만 이 시기까지 논의되었던 도청이나 방향 탐지 정도의 정보 공유는 암호 분석과 같은 높은 수준의 정보 협력이라 말하기는 어려웠다. 그러한 좀 더 긴밀한 협력은 1942년 9월 영국과 미국이 해군 협정을 통해 독일의 이니그마 암호 해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영국의 정보 관계자들은 점차 발전해가는 독일 해군의 이니그마 암호 체계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그 복잡성에 걸맞은 암호 해독 기제가 다수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당시에 그러한 암호 해독 기제를 충분히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는 미국뿐이었다. 이에 영국 정부 암호학교(GC&CS)의 총책임자 에드워드 트래비스(Edward Travis)는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해군 통신 첩보부(OP-20-G)와 향후 이니그마 해독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³⁸⁾

그 결과 1942년 10월 2일 최초의 영미 해군 간 통신정보 협정인 홀든 협정(Holden Agreement)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영국 해군이 미국 해군에 이니그마 해독을 위한 울트라(ULTRA) 정보를 제공하고, 미국은 암호 해독 기제의 제작 및 일본 통신문에서 나온 첩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³⁹⁾ 이 협정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연락 장교를 런던의 블레츨리 파

36) 도청 수신기(interceptor receiver)나 보조 장비에 고도의 지향성 안테나 전시기를 설치하여 적의 무선 주파수 방사 방향을 알아내는 행위를 뜻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향 탐지」,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URL: <http://dtims.dtaq.re.kr>).

8070/search/detail/term.do?tmnl_id=T0005228, 접속일자: 2020. 7. 10. 22:00).

37) 리첼슨, 『저의 모든 스파이의 역사: 20세기의 그림자』, p. 237.

38) 리첼슨, 『저의 모든 스파이의 역사: 20세기의 그림자』, p. 238.

39) 리첼슨, 『저의 모든 스파이의 역사: 20세기의 그림자』, p. 238.

크에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양국 간 정보 교류의 ‘공식화 및 상설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⁴⁰⁾

이러한 해군 간 통신정보 협정은 이후 영국 정부 암호학교(GC&CS)와 미국 육군 정보참모부(G-2) 간의 또 다른 협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영국 측에서는 미국 육군이 블레츨리 파크에 대표단을 상주시키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1943년 4월 미국 육군은 특별 고위 대표단을 영국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후 1943년 5월 17일 워싱턴에서 블레츨리 파크의 수장 에드워드 트래비스와 미 육군 정보참모부(G-2)의 수장 조지 스트롱(George Strong)이 극비 협정에 서명하였고 이 협정은 영미 양국의 육군 암호 분석관 간의 협업을 공식화하고 크게 확대했다. 이 트래비스-스트롱 협정(Travis-Strong Agreement)이 바로 향후 영미 정보협정의 근간이라고 알려진 ‘브루사 협정(BRUSA Agreement)’이었다.⁴¹⁾

40) Ralph Erskine, “The Holden Agreement on Naval SIGINT: The First BRUSA?,”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14, No. 2 (1999), pp. 187-197; Canuel, “French Aspirations and Anglo-Saxon Suspicions,” p. 82.

41) 브루사 협정이라는 명칭은 당시 25세였던 훗날의 영국 정보기관의 수장 해리 힌슬리(Harry Hinsley)가 만들었다. 힌슬리는 아직 케임브리지대 역사학과 학부생이었을 때 대전이 발발하자마자 블레츨리 파크에 채용된 직원이었다. 그는 미국인들이 약칭을 좋아한다고 믿으며 브루사 협정이라는 명칭을 만들었지만 ‘브루사(BRUSA)’에서 영국(Britain)을 미국(USA) 앞에 놓은 것이 반감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앤드루, 『스파이 세계사』, p. 231; 리첼슨, 『거의 모든 스파이의 역사: 20세기의 그림자』, p. 239.

* 출처 : National Security Agency, "UKUSA Agreement Release," p. 1.
(URL:https://media.defense.gov/2021/jul/15/2002763671/-1/-1/0/SPEC_INT_10JUN43.PDF. 접속 일시: 2022. 7. 11. 09:00)

이 협약을 통해 양국은 추축국의 육군, 공군, 그리고 첩보 기관의 통신 암호를 해독하여 생산한 모든 특수 정보(Special intelligence)를 교환 및 전파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직접 마주하고 있는 상대에 따라 일본의 육군 및 공군 암호 해독은 미국이 책임지고, 독일과 이탈리아의 육군 및 공군 암호 해독은

영국이 책임지기로 결정했다.⁴²⁾ 그리고 이 협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보다 중요했던 부분은 영국 블레츨리 파크의 정부 암호학교(GC&CS)와 미국 버지니아 주 알링턴 홀(Arlington Hall)에 있는 신호 정보부(U.S. Signal Intelligence Service) 간에 서로 파견단을 지속 교환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⁴³⁾

이처럼 양국의 해군 및 육군 간 정보 협정이 공식화되며 제2차 세계대전 중 두 국가의 정보 협력은 매우 긴밀하게 이뤄졌다. 먼저 독일의 잠수함을 상대했던 대서양 전투에서는 그 이전까지 해독이 어려웠던 이니그마 암호를 두 국가가 협력하여 해독해내기 시작했다. 또한 런던, 워싱턴, 오타와에 있는 U보트 추적 기관들이 직접적인 신호 연결을 통해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남은 전쟁 기간 동안 ‘사실상의 단일 조직’처럼 기능하였고 그 결과 U보트 추적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⁴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잘 알려진 오버로드 작전(Operation Overlord) 이전에 독일을 기만하기 위해 실시했던 민스미트(MINCMEAT) 공작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미 정보 당국의 협력 가운데 백미라고 볼 수 있었다.⁴⁵⁾ 민스미트 공작의 토대는 런던의 한 병원에서 시신을 구해 연합작전본부장 루이 마운트배튼(Louis Mountbatten) 중장의 부관 제복을 입힌

42) National Security Agency, “UKUSA Agreement Release,” p. 1.

43) 크리스토퍼 앤드루, 『스파이 세계사』, pp. 232-233.

44) 크리스토퍼 앤드루, 『스파이 세계사』, pp. 229-230.

45) 영국의 전신 정보 활동에 대한 공식 역사를 저술한 해리 힌슬리(Harry Hinsley)는 전쟁 중 울트라(ULTRA) 정보의 기여가 없었다면 1944년 6월의 상륙작전은 아마 1946년까지 미뤄졌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F. H. Hinsely and Alan Stripp eds., *Codebreaker: The Inside Story of Bletchley Pa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 12.

다음, 아이젠하워가 서문을 쓴 매뉴얼을 포함한 여러 가짜 극비문서를 서류가방에 담아 품게 하여 잠수함으로 스페인 해안에 버리고 오는 것이었다. 이 작전의 결과로 독일군 측은 가짜 문서를 입수하여 연합군이 허스키(HUSKEY) 작전이라는 암호명으로 그리스 상륙을 계획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영미 연합군은 울트라 해독물에 의해 그 기만이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블 크로스 시스템(Double cross system)이라 불렸던 그러한 정보 기만 작전은 오버로드 작전 직전에도 독일이 상륙 지점을 오인하도록 포티튜드(FORTITUDE)⁴⁶⁾라는 코드 네임으로 다시 한 번 시도되었고 그것 역시 큰 성공을 거뒀다.⁴⁷⁾

이 당시 미국 전략 정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이하 OSS)의 방첩 부서 'X-2'의 한 장교는 그러한 기만 작전 가운데 이뤄졌던 영미 정보 기관 간의 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아무리 동맹국일지라도 모든 비밀 파일과 그 출처에 접근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하고, 비밀을 다루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정보도 온전히 공개하며, 조직 및 작전의 체계와 인원까지 공개하는 일은 전례가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46) 연합군의 주된 상륙지점이 노르망디가 아닌 파 드 칼레라고 기만했던 작전을 의미한다. 이 작전 역시 울트라 정보에 많은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Christopher Andrew, "The Making of the Anglo-American SIGINT Alliance," in Hayden B. Peake and Samuel Halpern eds., *In the Name of Intelligence: Essays in Honor of Walter Pforzheimer* (Washington, D.C.: NIBC Press, 1994), p. 95.

47) 7월 연합군의 공격이 그리스가 아니라 시칠리아를 향했을 때도 독일 사람들은 '민스미트' 문서가 진짜임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연합군의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결론을 지었다. 크리스토퍼 앤드루, 『스파이 세계사』, pp. 245-246, 254.

경험이 많고 효율적이며, 가장 신중히 보호되는 보안 시스템의 내밀한 비밀을 공개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그 모든 것을 허용했다. 이 사실은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단지 이익의 교환이라는 관점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⁴⁸⁾

이처럼 전쟁 중 영미 간의 정보 협력은 거의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 기능하는 것처럼 긴밀하게 이뤄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쟁 중의 협력은 각국이 당장에 마주했던 여러 급박한 상황과 추축국을 상대하기 위한 절대적 필요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전쟁 이후 상황이 변화했을 때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전쟁 이후 아주 잠시 동안의 평화와 곧 이어진 냉전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서방 세계에서는 어떠한 정보 협력과 동맹 형성의 노력이 나타났던 것일까?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어떠한 복잡한 속사정과 의도들이 깔려있었을까?

3. 제2차 세계대전 후 영미 정보 관계의 변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로 영국과 미국은 서로 간의 관계와 향후 국제 질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두 국가는 큰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었는데 먼저 내부적으로는 전쟁 동안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주도했던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스벨트가 최고 정책 결정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더 이

48) Unpublished X-2 history, Box 2, RG 226, NAW, Christopher Andrew, *The Secret World: A History of Intelligence* (London: Penguin Books, 2019), p. 616에서 재인용.

상 이전과 같은 양국 정상 간의 끈끈한 관계는 기대하기가 어려웠다.⁴⁹⁾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193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Soviet Union, 이하 소련)이 고도로 무장한 군사 강국이 되어 전후의 국제 질서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모든 주요 국제기구와 국제 협상 과정에 개입하면서 서방측의 입장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강하게 요구하곤 했다. 예를 들어 종전 후 북부 이란에서의 병력 철수 지연이나 튀르키예 해협 장악을 위한 영토의 할양 요구, 지중해 동부의 해군기지 확보 시도 등은 소련이 더 이상 영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경쟁국이 되었음을 잘 보여주었다.⁵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와 같은 소련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서방 세계의 중심 국가라 할 수 있었던 영국과 미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보다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드는 ‘대립의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었다는 점이다.⁵¹⁾ 이 장에서는 두 국가가 종전 이후 어떠한 이해관계를

49) 1945년 4월 12일 루스벨트가 사망하자 그보다는 경험도 부족하고 정보에도 어두웠던 해리 트루먼 부통령이 자리를 이어 받았으며, 그로부터 3개월 뒤 처칠이 총선에서 뜻밖의 패배로 수상 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지도력이 그보다 훨씬 떨어지는 노동당의 당수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Attlee)가 뒤를 잇게 되었다. 개디스, 『냉전의 역사』, p. 25.

50) 영국과 미국은 소련의 여러 요구를 거절하고 소련군이 북부 이란을 계속 점령하고 있는 문제를 1946년 초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며 단호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스탈린에게 전시 협력의 전통에 호소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었던 이익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개디스, 『냉전의 역사』, pp. 47-49.

51) Martin Rudner, “Britain Betwixt and Between: UK SIGINT Alliance Strategy’s Transatlantic and European Connections,” *Intelligence & 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2004), p. 572.

놓고 정보 협력을 이어갔으며,⁵²⁾ 그 협력이 어떤 사건을 통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⁵³⁾

가. 1946년 영미 정보 협정의 시작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영국과 미국은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다른 계획과 야망을 갖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당연히 오랫동안 지켜온 패권국의 지위를 내려놓고 싶지 않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양자 대전을 겪으며 명실공히 패권국의 지위에 올라섰음을 느끼며 대외적으로도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다만 이런 동상이몽 속에서도 전쟁 중에 두 국가가 경험했던 정보 협력의 시너지는 결코 놓을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소련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가진 전 세계의 군사 거점과 미국의 풍부한 자원 간의 결합이 필수적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⁵⁴⁾

이와 같은 판단에서 영국의 정부 암호학교⁵⁵⁾와 해군 정보부의 대표단이 1945년 4월 말 워싱턴에 방문하여 미국의 정보 관계자들과 향후 정보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이 전쟁을 겪으며 서로의 장점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결합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충분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협력을

52) 크리거, 『비밀정보기관의 역사』, p. 372.

53) 크리거, 『비밀정보기관의 역사』, pp. 376-377.

54) Rudner, "Britain Betwixt and Between," pp. 572-573.

55) 이 무렵 정부 암호학교는 단순 암호 탐지 및 해독 업무뿐만 아니라 완전한 신호정보 기관으로 탈바꿈하여 향후 영국의 정보기관으로 기능할 준비를 갖추었으며, 1946년에는 기관의 이름도 정부 통신 본부(the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로 개칭하였다. Stephen Dorril, *MI6: Inside the Covert World of Her Majesty's Secret Intelligence Service* (New York: A Touchstone Book, 2002[2000]), p. 56; Rudner, "Britain Betwixt and Between," p. 572.

위한 논의는 물 흐르듯 이어졌다. 그 결과 1945년 9월 영국의 대표단이 워싱턴에 재방문하여 정식 협정 체결에 대해 논의하였다.⁵⁶⁾ 이 협정은 이전의 ‘군사’ 협정들과는 달리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식 협정이 될 것이었으며, 평화 시기에도 양국이 정보의 수집 및 처리, 그리고 그 결과물까지 모두 공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영국의 협상단은 캐나다 및 호주의 정보 당국에도 이 정보 협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때 해당 국가들의 지위는 ‘영국의 보호 하에서’ 협정에 참여하는 형식이었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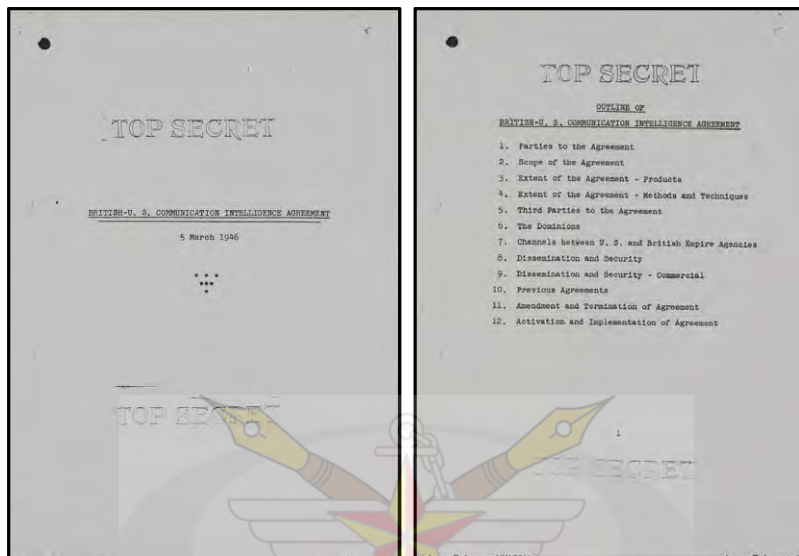
이와 같은 협상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1946년 3월의 영미 통신 정보 협정(British-U.S. Communication Intelligence Agreement)이다. 이 협정은 초기에는 앞서 1943년에 맺어진 양국 육군 정보부 간의 협정처럼 ‘브루사 협정(BRUSA Agreement)’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1952년에 그 명칭을 ‘UKUSA 협정(UKUSA Agreement)’으로 개칭하면서 과거의 협정과 구분하게 되었다. 이 1946년의 브루사 협정, 즉 훗날의 UKUSA 협정은 그간 영국과 미국의 정보 당국 간에 맺어진 그 어떤 정보 협정들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었다. 이런 점에서 UKUSA 협정은 향후 양국 간의 정보 협력 관계를 규정지은 문서라고 볼 수 있었다.⁵⁸⁾

56) 이 시기 미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이 전시의 전략 정보국(OSS)을 폐지하고 그 조직을 나누어 국무부와 국방부 산하에 두면서 평화 시기의 정보 업무에 있어 미 육군과 해군의 협력, 그리고 영국과의 협력에 대해 지시하였다. Christopher Andrew, “The Growth of the Australian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 Anglo-American Connection,”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4, No. 2 (1989), p. 223.

57) Rudner, “Britain Betwixt and Between,” p. 573.

58) National Archives, HW 80/4 “British-U.S. Communication Intelligence Agreement” (5 March 1946), p. 7.

〈그림 2〉 영미 통신 정보 협정(1946. 3. 5.)의 표지와 목차



* 출처 : National Archives, HW 80/4 “British-U.S. Communication Intelligence Agreement,” pp. i, 1

이 협정의 조항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협정의 주체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협정의 1번 조항은 이 협정이 미국의 모든 정보 기구를 대표하는 정부-육군-해군 통신 정보 위원회(the State-Army-Navy Communication Intelligence Board, 이하 STANCIB)와 영 제국의 모든 정보 기구 및 외교부, 해군부, 육군부, 공군부를 대표하는 런던 신호정보 위원회(the London Signal Intelligence Board) 간의 협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영 제국의 경계를 명확하게 ‘자치령을 제외한 모든 영국 영토’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만 보면 이 협정이 영국의 자치령 국가들, 즉 영연방에 소속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제외한 채 영국과 미국, 단 두 국가만의 협력

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⁵⁹⁾

하지만 협정의 세부 내용을 다루는 3번 조항부터는 협정의 주체가 다소 모호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먼저 3번 조항은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이 제각기 수집한 ‘외국의(foreign)’ 통신 정보를 제한 없이 교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여기서 ‘외국’은 단지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연방 국가들(the British Commonwealth Nations)’까지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의미한다. 즉, 이 조항은 영연방 국가들을 ‘외국’이 아닌 이 협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또 다른 주체 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다.⁶⁰⁾

이는 5번 조항에서 협정의 양 당사자가 통신 정보와 관련된 모든 주제에 대한 ‘제3자’와의 행위를 금한다고 명시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제3자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영국의 자치령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라고 정의되어 있다.⁶¹⁾ 6번 조항은 아예 ‘자치령들(The Dominions)’이라는 제목으로 앞서 언급한 자치령 국가들과 이 협정 간의 모호한 관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6번 조항은 당시 영국과 미국이 영연방 국가들과 어떠한 정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유추해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6. 자치령들

a) 자치령들은 이 협정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제3자로

59) National Archives, HW 80/4 “British-U.S. Communication Intelligence Agreement,” p. 2.

60) National Archives, HW 80/4 “British-U.S. Communication Intelligence Agreement,” p. 3.

61) National Archives, HW 80/4 “British-U.S. Communication Intelligence Agreement,” p. 3.

고려되지도 않는다.

- b) 런던 신호정보 위원회는 자치령의 정보 기관과 어떤 협정을 맺거나 제안된 협정이 있을 경우 미국에 그것을 계속 통보한다.
- c) 미국 정보 통신 위원회(STANCIB)는 런던 신호정보 위원회를 통하거나 그곳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캐나다 이외의 자치령 국가들과 어떠한 협정도 체결하지 않는다.
- d) 미국 정보 통신 위원회(STANCIB)는 캐나다와 관련해서도 런던 신호정보 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구하지 않고서는 그곳의 어떤 기관과도 협정을 맺지 않는다.⁶²⁾

6번 조항에서 먼저 a)항은 앞서 살펴본 다른 조항들에서도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것으로 이 협정에서 자치령들이 갖는 특별한 지위를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b), c), d)항인데 b)항의 경우 영국이 개별적으로 자치령의 정보 기관과 별도의 협정을 맺을 때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미국에 통보만 해주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c)항을 살펴보면 미국은 영국을 경유하거나 영국 측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서는 캐나다 이외의 어떤 자치령 국가들과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 수가 없다. 심지어 d)항은 그러한 캐나다조차도 영국의 의견을 먼저 구하지 않고서는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즉, 이 협정의 6번 조항은 자치령 국가들에 대한 영국의 확실한 통제권을 보장하면서 미국이 영국의 허락 없이는 자치령 국가들에게 함부로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62) National Archives, HW 80/4 “British-U.S. Communication Intelligence Agreement,” pp. 5-6.

이런 점에서 1946년의 영미 통신 정보 협정은 향후 파이프 아이즈를 예고하듯 그에 해당하는 다섯 개의 국가를 거론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의 독립적인 참여는 제약하며 오히려 그들에 대한 영국의 통제와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해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 특히 예외 조항처럼 별도로 언급되기까지 했던 캐나다의 독립적인 참여는 어떤 계기를 통해 이뤄진 것일까?

나. 변화의 계기 : 롤스로이스 사건

1946년 협정을 통해 캐나다를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등의 자치령들이 간접적으로나마 미국과 정보 협력 관계를 맺게 되자 영국에서는 이전까지 그들의 통제하에 두었던 자치령들이 미국의 영향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단속하는 데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다. 앞서 살펴본 협정에서 자치령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제한했던 여러 조항들은 바로 그러한 영국의 의도를 잘 반영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영국의 의도는 1946년 협정 체결 직전인 1946년 2월 22일부터 협정 체결 직후인 3월 8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영연방 신호정보 컨퍼런스(Commonwealth SIGINT Conference)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⁶³⁾ 당시 영국의 정보 기구들 중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정부 통신 본부(the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이하 GCHQ)⁶⁴⁾는 미국과의

63) Kurt F. Jensen, *Cautious Beginnings: Canadian Foreign Intelligence, 1939-51* (Vancouver: UBC Press, 2008), pp. 130-137.

64) 1946년 정부 암호학교가 정부 통신 본부(the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로 개칭되었다. 본고의 각주 61)을 함께 참조. Rudner, "Britain Betwixt and Between," p. 572.

협정 이전에 자치령들의 정보 기구를 불리모아 미국과의 협정 내용을 논의하며 자치령 정보 기구의 지위를 규정하고 향후 정보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특히 영국은 이 컨퍼런스를 통해 영연방의 정보 수집 역량을 결집시켜 정보의 연결성과 그것을 통한 시너지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는 영국이 주도하는 영연방 신호정보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여 향후 정보 동맹 내에서도 미국보다 한 발 앞선 위치를 유지하려는 포부가 담긴 것이었다. 물론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야망은 달성이 쉽지 않아 보였으나 해당 컨퍼런스가 영연방 정보 기구 간에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었다.⁶⁵⁾

그런데 이 지점에서 좀 더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당시 영국이 소위 ‘구 영연방(Old Commonwealth)’⁶⁶⁾이라 불리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 배경에 ‘정보 분야에서의 우위’ 외에도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깔려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전쟁 중 그렇게나 긴밀히 협력했던 미국과의 갈등 때문이었다.⁶⁷⁾ 여기서 말하는 영미 간의 갈등

65) Martin Rudner, “Canada’s 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 from Cold War to Globalization,” *Intelligence & National Security*, Vol. 16, No. 1 (2001), p. 108; Jensen, *Cautious Beginnings*, pp. 130-137.

66) 구 영연방(Old Commonwealth)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연방 국가가 되었고, 또 주로 백인으로 구성된 부유한 국가들을 지칭한다. 구 영연방에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칭되는 신 영연방(New Commonwealth)은 1960-70년대에 영연방에 편입된 나라들로서, 여기에 속한 국가 대부분은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 해 등지에 있는 비백인 위주로 구성된 약소국이자 영 제국의 옛 식민지였던 나라들을 주로 지칭한다. 석영달, 「필립 머피의 역사학적 여정」, p. 347; 박은재, 「영국 노동당 정부(1964-70)의 이민-인종정책」, 『영국 연구』 제26호 (2011. 12.), p. 264.

67) Rudner, “Canada’s 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 from Cold War to Globalization,” p. 108.

이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과 미국이 소련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롤스로이스 사건(Rolls-Royce Affair)’을 의미한다. 이 사건은 단지 국제 정치 구도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 정도만을 보여주었던 것이 아니라, 평화적 세력전이 과정에서 두 국가 간의 본격적인 정치·경제적 대립이 발생할 경우 이전까지 긴밀했던 협력 관계에까지 균열이 일어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⁶⁸⁾

이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당시로서는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사소한 결정 하나를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영국이 발전시켜 온 항공 분야의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며 대외 무역에서의 이익을 얻고자 했던 결정이었다.⁶⁹⁾ 영국의 항공 제작부(the Ministry of Aircraft Production)와 공군부(the Air Ministry)는 전쟁이 끝났기에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전시 장비와 설비 중 더 이상의 보안이 불필요한 것들을 보안 분류에서 해제하고자 했다. 이때 그 보안 해제 작업은 여러 유관 부서들이 협력하여 꾸리는 기술 분류 위원회(Technical Grading Committee)의 통제하에 진행되어야 했는데, 전쟁 후의 복잡한 조직 재구성 과정에서 해당 위원회의 구성은 몇 달씩이나 지연되었다.

68) 실제로 이 시기 미국은 영국과의 정보 협력 관계를 ‘검토(under review)’ 단계로 변경하며, ‘정보 출처’, ‘정보 획득 방법’, ‘암호화 및 암호 장치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추가 공개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 정보 공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제한을 걸며 대응에 나섰다. Stephen Dorril, *MI6: Inside the Covert World of Her Majesty's Secret Intelligence Service* (New York: Touchstone, 2002), p. 56.

69) 종전 후 영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고 특히 대외 수출을 통해 국제 수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전쟁을 통해 발전시켜 온,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수준의 제트 엔진 기술은 좋은 수출 대상으로 여겨졌다. Jeffrey A. Engel, “The Surly Bonds: American Cold War Constraints on British Aviation,” *Enterprise & Society*, Vol. 6, Iss. 1 (2005), pp. 7-8.

이에 그 지연 기간 동안 항공 기술 중 몇몇 항목들은 항공 제작부와 공군부만의 협의를 통해 먼저 보안 분류에서 해제되기도 했다.⁷⁰⁾

이 과정에서 1945년 12월 21일 바로 그 문제의 사건, 롤스로이스의 넨(the Nene) 엔진과 더워트(the Derwent) 엔진이 공개 리스트(Open list)에 등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공군부를 비롯하여 해당 결정 과정에 참여했던 부서들은 이것을 단지 ‘정보 공개’ 정도의 의미로만 이해했으나, 실제로 이 결정은 단지 엔진에 대한 정보를 언론 등에 제공하는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해당 엔진들을 공개 리스트에 등재했다는 것은 이제 완성된 엔진을 타국에 판매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상업 용도로 생산할 수 있는 허가권까지 판매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⁷¹⁾

그랬기 때문에 당시 항공 엔진 발전을 선도하던 영국의 기업 롤스로이스(Rolls-Royce)는 자연스럽게 여러 국가들과 엔진 판매 및 기술 이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⁷²⁾ 이에 엔진의 공개 리스트 등재 후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중국 정부에서 넨 엔진 및 더워트 엔진의 생산 허가를 놓고 롤스로이스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와 거의 동시에 동일한 조건의 허가권을 놓고 프랑스의 기업 이스파노수이자(Hispano Suiza)가 프랑스 정부를 대리하여 롤스로이스와 협상을 진행했다. 다만 이 두 협상까지는 이미 중국의 기술자들이 롤스로이스에서 터빈 엔진 개발을 위해 함께 일

70) Joan Beaumont, “Trade, Strategy, and Foreign Policy in Conflict: The Rolls-Royce Affair, 1946-1947,”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2, No. 4 (1980), pp. 603-604.

71) Beaumont, “Trade, Strategy, and Foreign Policy in Conflict,” p. 604.

72) 롤스로이스는 1946년 5월까지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중국 등의 국가와 엔진 수출 및 생산 허가권 판매 계약을 진행했다. Engel, “The Surly Bonds,” p. 12.

하고 있었다는 점과 당시 영국의 정책 자체가 프랑스의 군사력 재건을 돕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안보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⁷³⁾

하지만 1946년 3월 6일 소련 측에서 롤스로이스에 항공 엔진의 생산 허가권을 요청했을 때에는 그 사정이 좀 달랐다. 이 시기는 종전 후 소련이 조약을 어기면서까지 북부 이란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아 영국과 미국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던 시점이었다.⁷⁴⁾ 그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동독과 서독의 분리를 놓고 영미와 소련의 갈등이 첨예하였다. 이런 점에서 소련에 최신 항공 엔진을 판매하는 것은 향후 영국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도 있었기에 국가 안보의 측면에서 결코 적절한 선택이라 볼 수 없었다.⁷⁵⁾

그뿐만 아니라 소련에 민간 기업을 통해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영국 합동 참모 본부의 정보 통제 방침에도 맞지 않았다. 종전 무렵부터 영국 합참은 소련 측에서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상응하여 제공하지 않을 경우 영국 측에서도 먼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게다가 1945년 11월부터는 소련에 군사 장비 판매와 관련된 정보 공개에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의 보안 등급만을 부여해놓은 상태였다.⁷⁶⁾

73) Beaumont, "Trade, Strategy, and Foreign Policy in Conflict," p. 604.

74) 소련은 1942년 1월 영국-소련-이란 조약에서 규정한 '종전 후 6개월 후 철수'를 따르지 않고 북부 이란에서의 철군을 거부했다. 이 철수는 1946년 5월에서야 비로소 이뤄졌다. Beaumont, "Trade, Strategy, and Foreign Policy in Conflict," p. 605.

75) 당시 영국 공군부에서는 소련의 가스 터빈 엔진 기술이 영국보다 5년 정도 뒤쳐져 있으나, 만약 완성된 네 엔진과 터윌트 엔진이 소련에 공급된다면 그 격차가 3년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엔진 생산 허가권과 생산 노하우 등이 함께 전달된다면 그 격차는 1년으로까지 줄어든 것이라고 판단했다. Beaumont, "Trade, Strategy, and Foreign Policy in Conflict," p. 605.

그러나 문제는 해당 항공 엔진들이 그러한 낮은 보안 등급의 국가들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한 ‘공개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항공 엔진과 관련된 정보는 더 이상 기밀 정보도 아니었고, 소련과 같은 보안 등급에 놓여있던 중국에게도 이미 판매가 허가되었기에 소련에만 판매를 금지할 명분이 없었다. 게다가 영국에서 이 기술을 소련에 직접적으로 팔지 않더라도 프랑스나 중국을 경유하여 소련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매우 농후해 보였다.⁷⁷⁾ 결국 소련에 항공 엔진을 판매하지 않으려면 기존에 프랑스, 중국 등과 맺은 계약까지 모두 파기해야 했는데, 그렇게 되어 영국이 항공 산업 분야에서 손을 떼게 된다면 그 공백은 금세 미국이 차지하고 영국은 국제 수지에서 상당한 손해를 볼 것이 자명해 보였다.⁷⁸⁾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결국 영국은 1946년 9월 말 소련에 롤스로이스의 가스 터빈 엔진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의 수상 클레멘트 애틀리(Clement Richard Attlee, 1883-1967)는 영국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수출의 필요성, 그리고 소련 측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숙려한 끝에 생산 허가권은 판매하지 않되 완성된 엔진은 판매를 허가한다는 절충안을 선택했다.⁷⁹⁾ 이는 소련 측에서

76) 당시 소련은 C등급 분류(category C)에 놓여있었는데 C등급 국가는 어떤 기밀 정보도 제공 받을 수 없었다. Beaumont, “Trade, Strategy, and Foreign Policy in Conflict,” p. 606.

77) Beaumont, “Trade, Strategy, and Foreign Policy in Conflict,” p. 606.

78) 냉전 초기 영국과 미국의 항공 산업을 둘러싼 경쟁은 불과 얼마 전까지 모든 정보를 공유하던 동맹국 간의 경쟁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하였다. 특히 영국의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영국이 보유하고 있던 근소한 기술력의 우위가 곧 미국의 우월한 생산력과 자원으로 인해 뒤집히게 되어 미국에게 압도당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Engel, “The Surly Bonds,” pp. 2-3; Beaumont, “Trade, Strategy, and Foreign Policy in Conflict,” p. 607.

79)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 내에서도 이 제트 엔진 판매에 대해서는 찬반 대립이 심하였다. 군사 분야의 관계자들은 이 결정이 향후 영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

완성된 엔진을 분석하여 자체 설계에 이르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오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⁸⁰⁾ 그리고 이 결정은 이후 소련이 추가적인 제트 엔진 판매를 요구했을 때에도 영국이 거부할 수 없는 전례가 되었고, 결국 1947년 2월까지 영국은 소련에 수십 대의 제트 엔진 판매를 허가하게 되었다.⁸¹⁾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종전 직후부터 영국보다 훨씬 더 적대적인 시선으로 소련을 바라보았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이 결코 용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은 소련이 영국에 제트 엔진 구매를 요청했다는 사실과 영국이 이를 즉각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과 얼마 전에 맺은 영국과의 정보 협정이 갖는 의미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46년 협정’이 맺어진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4월 경에 미국 측에서 영국과의 향후 정보 협력에 대해 다시 ‘검토(under review)’해보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은 본격적인 갈등의 서막이라 할 수 있었다.⁸²⁾

라고 판단하여 판매 자체를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제 분야의 관계자들은 공개 리스트의 품목을 갑자기 판매 금지한다면 영국의 대외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가장 가치 있는 산업이 될 항공 산업의 이익을 포기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Engel, “The Surly Bonds,” pp. 14-15.

80) Engel, “The Surly Bonds,” pp. 14-15.

81) Beaumont, “Trade, Strategy, and Foreign Policy in Conflict,” p. 610.

82) Bradley F. Smith, *The ULTRA-MAGIC DEALS - And the Most Secret Special Relationship, 1940-1946* (Novato: Presidio Press, 1993), p. 220.

4. 영미 간의 갈등과 정보 동맹의 중심 이동

가. 영연방 신호정보 기구의 출범

1946년 9월 영국은 미국의 불편한 심기 표명에도 불구하고 소련에 제트 엔진 판매를 강행했다. 이는 향후 미국과의 정보 협력 관계, 혹은 더 나아가 넓은 차원의 주도권 다툼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볼 수 있었다. 특히 정보 협력의 측면에서는 영국이 제2차 세계대전부터 이 시점까지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능력에서 미국보다 항상 한발 앞서 있었다는 자신감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여러 상황을 방증해주는 사건이 바로 1947년 초 영연방 신호정보 기구(Commonwealth Sigint Organization, 이하 CSO)의 출범이었다.⁸³⁾

영국은 소련에 롤스로이스와의 계약을 허락한 후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한 번 영연방 정보 기구들을 소집하여 1946년 말부터 1947년 초 사이에 영연방 신호정보 기구(CSO)의 출범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1946년 2~3월 간 실시했던 영연방 신호정보 컨퍼런스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상설 조직’을 형성하려는 시도였다. 그 결과 영국의 주도 하에 1947년 영연방 신호정보 기구 협정이 체결되며 영연방 정보 기구들로만 구성된 공식적인 연합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⁸⁴⁾

83) Jensen, *Cautious Beginnings*, p. 169.

84) Rudner, “Britain Betwixt and Between,” p. 574; Jensen, *Cautious Beginnings*, p. 169.

이와 같은 영국의 영연방 신호정보 기구(CSO)의 창설은 미국에서 영국과의 정보 협력 관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불만어린 표현을 전달했을 때 그에 대항하듯 영연방 정보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었다. 영연방 소속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요 군사 거점은 종전 후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으로 기능했고, 영국이 이들 국가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한 그러한 우위는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946년 협정에서 미국이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캐나다의 존재였다. 과연 캐나다와 미국은 어떠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기존의 정보 동맹에 변화를 초래했던 것일까?

나. 미국-캐나다 간의 정보 협정

사실 냉전 시기 캐나다와 미국 간의 정보 협력 논의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이 오랫동안 비밀 상태로 유지되어 있었기에 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고 자연스레 학계에서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었다.⁸⁵⁾ 하지만 최근 웨슬리 와크(Wesley Wark)가 캐나다 정보 기구의 공식 역사 저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비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 해당 자

85) 본 논문에서 소개한 웨슬리 와크(Wesley Wark)의 연구 이전까지 캐나다와 파이프 아이즈를 함께 다룬 연구는 제임스 콕스(James Cox)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콕스의 논문은 캐나다가 어떻게 파이프 아이즈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다루기보다는 파이프 아이즈의 개설적인 소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James Cox, “Canada and the Five Eyes Intelligence Community,” *Canadian Defence and Foreign Affairs Institute Working Group Papers* (2012), pp. 1-13.

료들을 통해 「캐나다-미국 협정으로 가는 길(“The Road to CANUSA”)」⁸⁶⁾이라는 충실한 분석이 담긴 연구를 발표하며 이 주제에 대한 새로운 고찰을 전해주고 있다.⁸⁷⁾

먼저 와크는 캐나다와 미국 간의 정보 협력에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 있다고 보았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왜 미국에서 캐나다와 그렇게 관대한 신호정보 협정을 맺게 되었는가?”이며,⁸⁸⁾ 두 번째는 “왜 캐나다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와 신호정보 주권을 확보하는 데에 그렇게 결연한 의지를 보였는가?”이다.⁸⁹⁾ 와크의 논문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논문 내용이 전반적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와크는 캐나다-미국 협정을 캐나다 정보 당국의 생존 노력이 결실을 맺은 ‘캐나다 측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별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던 캐나다의 정보 기관이 존재의 의미를 증명하기 위해 미국과의 단독 정보협정을 추진했고 이것이 곧 협정의 체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나 ‘어차피 영국으로부터 이미 미국의 정보를 받고 있어 크게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캐나다의 호기로운 입장 표명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하는 전략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은 상당히 흥미롭

86) Wesley Wark, “The Road to CANUSA: how Canadian Signals intelligence won its independence and helped create the Five Eyes,”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20).

87) Wark, “The Road to CANUSA,” pp. 20-21.

88) 이 신호정보 협정은 캐나다에게 훨씬 유리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캐나다 측에서는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요구, 획득할 수 있었던 반면 미국 측은 국익에 결부된 사항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의 통고를 받는 정도에 그쳤다. Wark, “The Road to CANUSA,” p. 22.

89) Wark, “The Road to CANUSA,” p. 22.

다.⁹⁰⁾ 다만 이러한 분석은 와크가 개운하게 답하지 않았던 첫 번째 질문과 결부해볼 경우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앞서 살펴본 영미 간의 갈등과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 즉, 미국이 단지 ‘관대했기’ 때문에 이 협정의 체결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연방을 기반으로 한 영국의 정보 공동체에 균열을 내려고 했을 경우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캐나다와 미국 간의 협상에서 그 주도권은 분명 미국 측에 있었다.⁹¹⁾ 비록 캐나다가 이미 확보된 ‘영국으로부터의 정보 공유’를 내세우며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자 했지만,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으며 무엇보다 캐나다와 정보 협정을 맺었을 때 미국이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캐나다에서 1947년 초부터 미국에 단독 정보 협정을 제안했지만⁹²⁾ 미국에서는 영국과의 정치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 그것을 계속 미루다가 한참 후에야 구체적인 협정 논의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은 이를 방증해준다. 미국은 1947년 초반까지 기존의 정보 동맹 체제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그러한 미국의 태도 변화가 1947년 말에서 1948년 초에 이르렀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1947년 말 미국은 1946년 4월에 제기했던 단순한 유감 표명보다 훨씬 더 강한 불만과 항의를 영국에 제기했다. 이때 미국은 영국이 소련과의 엔진 판매를 지속할 경우 향후 모든 기술적인 협력을 보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영

90) Wark, “The Road to CANUSA,” pp. 23-29.

91) Wark, “The Road to CANUSA,” p. 26.

92) Wark, “The Road to CANUSA,” pp. 25-26.

국과 맺은 통신 정보 협정을 파기하지는 않지만 향후 미국 정보의 출처, 획득 방법, 암호 및 암호 장비와 관계된 모든 정보를 영국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⁹³⁾ 그리고 이러한 결정들을 내리고 난 직후인 1948년 초부터 캐나다-미국 협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1949년의 조약 체결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캐나다와의 협정을 과감하게 결정한 데에는 비단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인한 소련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1947년 영국이 미국을 배제한 채로 영연방 신호정보 기구를 출범시켜 서방의 정보 동맹 체제에서 다시금 통제력과 우위를 확인하고자 했던 부분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영국이 미국의 불만어린 항의에 대응하여 결집시키고자 했던 영연방 국가들 중 캐나다는 국력으로나 지정학적 위치로나 가장 핵심적인 국가라 볼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영국은 캐나다가 미국과의 단독 협정을 맺으며 미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에 크게 동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1946년 협정에 명시한 대로 미국이 캐나다와 단독 협정을 맺기 전에 영국에 먼저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을 때 과연 영국에서 당당히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영연방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많은 자원이나 노력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이후 영국은 영연방과의 관계에서 왕실이나 국가의 위신이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항상 방어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⁹⁴⁾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가 미국과의 정보 동맹에 대해 의견을 구했을 때 영국에서는

93) Smith, *The ULTRA-MAGIC DEALS*, p. 220.

94) 석영달, 「필립 머피(Philip Murphy)의 역사학적 여정: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영연방의 관계 변화 속에서」, 『영국연구』 제40호 (2018), pp. 336-337.

쉽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가 어려웠다. 만약 영연방 국가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캐나다가 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정보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면 영연방 내에서 영국의 위신과 존재감은 급격히 추락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반면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자치령이 아닌, 한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권의 확대를 추구해왔던 캐나다의 입장에서 영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던 이 시점이 더없이 좋은 기회로 여겨졌을 것이다. 이때를 틈타 영국과의 우호적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보 주권은 가져오고, 여기에 더해 미국과도 손잡게 된다면 캐나다로서는 더 바랄 것 없는 외교적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었다.

결국 캐나다는 영국에 미국과의 단독 정보 협정 의사를 전했고, 영국은 그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No comment)”라는 대답으로 나름의 불만을 표시했다.⁹⁵⁾ 하지만 그것은 명목상 반대 의견은 아니었으므로 캐나다와 미국 간 협정 체결에 아무런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이 시기 캐나다와 미국이 체결한 단독 정보 협정은 영국이 더 이상 영연방 국가들에 대해 과거와 같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제 미국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영연방 국가들과 단독으로 정보 협정을 맺어 영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95) Wark, “The Road to CANUSA,” p. 27.

5. 결 론

흔히 미국과 영국, 그리고 영연방 국가들 간의 견고한 정보 동맹이라고 알려진 파이프 아이즈는 단지 ‘우호적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진 동맹이라 보기에는 좀 더 복잡미묘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파이프 아이즈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기 영미 간의 정보 협력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필요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종전 이후의 협력 역시 소련이라는 공통된 적대 세력이 존재했기에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1940년대 후반에 연속적으로 나타난 롤스로이스 사건, 영연방 신호정보 기구의 출범, 캐나다-미국 간의 단독 정보 협정 등은 그러한 협력 관계가 언제나 각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나 국가 지도부의 판단 등에 따라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록 미국의 강한 반발에 못이겨 영국이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정보 협력의 단절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당시에 나타난 갈등과 반작용의 역사는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전해준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화웨이 사태와 관련하여 영국이 보여준 모호한 입장은 롤스로이스 사건을 다시금 떠오르게 한다. 2020년 영국이 5G 통신장비 업체로 화웨이를 선정하고, 미국 측에서는 영국과의 정보 공유 중지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했던 사건은 1940년대에 나타났던 양상과 별반 다르지 않

았다.⁹⁶⁾ 이번에도 미국의 강한 반발로 인해 영국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였으나 향후 미중 패권 경쟁의 흐름에 따라, 혹은 영국이 스스로 인식하는 자국의 지위와 잠재력에 따라 언젠가는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1940년대 후반 영미 간의 갈등 속 캐나다의 행보는 강대국 간의 갈등 혹은, 세력전이의 상황 속에서 중견국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다. 롤스로이스 사건과 영연방 신호정보 기구의 출범 등은 동맹 이론의 대가인 스티븐 월트(Stephen M. Walt)가 언급했던 ‘동맹이 해체될 수 있는 원인’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롤스로이스 사건은 “동맹국이 참여국의 의무 이행 의지나 능력에 의문을 갖게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영연방 신호정보 기구의 출범은 “동맹 참여국이 다른 수단으로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⁹⁷⁾ 만약 캐나다에서 이런 국제 정세의 변화를 꿰뚫어보고 영미 간의 정보 동맹이 느슨해진 상황을 틈타 미국과의 협정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면 그것은 원하는 바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순간을 잘 포착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고찰은 현재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파이프라인 가입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도도 되새겨볼만 하다. 미국과는 긴밀한 동맹을, 중국과는 경제적인 교류를 지속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은 과거의 캐나다보다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미국, 영국, 호주 간에 맺어진 오키우스(AUKUS) 동맹은 우

96) 이광영, 「60년간 지속한 서방 정보교류협정 균열? 英, 5G 통신장비 업체로 화웨이 선정」, 『IT Chosun』 (2020. 1. 29.).

97)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1997), p. 163.

리가 참고할 만한 좋은 기출 문제가 될 수 있다. 파이프 아이즈 소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중국과 다윈항(Port Darwin) 조차(租借) 협약을 맺고,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기술까지 얻어낸 호주의 광폭 외교 행보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National Archives, HW 80/4 “British-U.S. Communication Intelligence Agreement” (5 March 1946)

National Security Agency, “UKUSA Agreement Release” (URL: https://media.defense.gov/2021/Jul/15/2002763671/-1/-1/0/SPEC_INT_10JUN43.PDF, 접속 일시: 2022. 7. 11. 09:00)

2. 단행본

박영일 엮음, 『강대국의 정보기구』, 서울: 현대문예사, 1994
볼프강 크리거 지음, 이미옥 옮김, 『비밀정보기관의 역사: 파
라오부터 NSA까지』, 서울: 에코리브르, 2021

제프리 T. 리첼슨 지음, 박중서 옮김, 『거의 모든 스파이의
역사: 20세기의 그림자』, 서울: 까치글방, 2008

존 루이스 개디스 지음, 정철·강규형 옮김, 『냉전의 역사: 거
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서울: 에코리브르,
2014

크리스토퍼 앤드루 저, 박동철 옮김, 『스파이 세계사』, 서울:
한울, 2021

Bradley F. Smith, *The ULTRA-MAGIC DEALS - And the Most
Secret Special Relationship, 1940-1946*, Novato: Presidio
Press, 1993

- Christopher Andrew, *Secret Service: The Making of the British Intelligence Community*, London: Heinemann, 1985
- Christopher Andrew, *In the Name of Intelligence: Essays in Honor of Walter Pforzheimer*, Washington, D.C.: NIBC Press, 1994
- Christopher Andrew, *The Secret World: A History of Intelligence*, London: Penguin Books, 2019
- F. H. Hinsely and Alan Stripp eds., *Codebreaker: The Inside Story of Bletchley Pa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 Jeffrey T. Richelson and Desmond Ball, *The Ties That Bind: Intelligence Cooperation between the UKUSA Countries -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London: Unwin Hyman Ltd., 1990[1985]
- Kurt F. Jensen, *Cautious Beginnings: Canadian Foreign Intelligence, 1939-51*, Vancouver: UBC Press, 2008
- Maurice Matloff and Edwin M. Snell, *Strategic Planning for Coalition Warfare 1941-1942*, Washington: Center for Military History, 1990
- Mark Skinner Watson, *Chief of Staff: Prewar Plans and Preparations*, Washington: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91
- Stephen Dorril, *MI6: Inside the Covert World of Her Majesty's Secret Intelligence Service*, New York: A Touchstone Book, 2002[2000]

Walter J. Oleszek et al eds., *Congressional Procedures and the Policy Process*, Washington, D.C.: CQ Press, 2016

3. 논문

김우상, “대한민국의 중견국 공공외교,” 『정치정보연구』 제16권 1호 (2013):331-350,

<http://uci.or.kr/G704-001718.2013.16.1.007>

석영달, “필립 머피(Philip Murphy)의 역사학적 여정: 2차 대전 후 영국과 영연방의 관계 속에서,” 『영국 연구』 제40호 (2018. 12.):329-357,

<http://doi.org/10.22852/kjbs..40.201812.329>

박은재, “영국 노동당 정부(1964-70)의 이민-인종정책,” 『영국 연구』 제26호 (2011. 12.) :263-294,

<http://doi.org/10.22852/kjbs..26.201112.263>

유인태, “캐나다 사이버 안보와 중견국 외교: 화웨이 사례에서 나타난 안보와 경제·통상의 딜레마 속에서,” 『문화와 정치』 제6권 2호 (2019):263-298,

<http://doi.org/10.22539/culpol.2019.6.2.263>

_____,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중견국 연대 외교의 갈림길: 화웨이 사례에서 보는 파이프 아이즈의 연대와 이탈,” 『동서연구』 제33권 2호 (2021):5-31,

<http://doi.org/10.29274/ews.2021.33.2.5>

오정현, “미국의 정보동맹과 유럽의 네트워크 전략,” 『국방연구』 제63권 1호 (2020):117-140,

<http://doi.org/10.23011/jnds.2020.63.1.005>

- 이영석, “제국의 유산- ‘영연방’의 과거와 현재, 1880-2000,”
『영국연구』 25호 (2011. 6.):235-266,
<http://doi.org/10.22852/kjbs..25.201106.235>
- 원태준, “‘트루도 딜레마’에 대한 영국의 외교적 대응
1968-1974,” 『서양사론』 123호 (2014):281-310,
<http://uci.or.kr//G704-000100.2014..123.012>
- 조재원, “다수의 위협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과정 분석:
1933-1941년 미국의 ‘선 독일 후 일본’ 원칙의 사례,”
『미국학』 제36권 1호 (2013):115-152,
<http://uci.or.kr//G704-002053.2013.36.1.003>
- Corey Pfluke, “A History of the Five Eyes Alliance: Possibility
for Reform and Additions,” *Comparative Strategy*, Vol.
38, No. 4 (2019):302-315,
<https://doi.org/10.1080/01495933.2019.1633186>
- Hughues Canuel, “French Aspirations and Anglo-Saxon
Suspensions: France, Signals Intelligence and the UKUSA
Agreement at the Dawn of the Cold War,” *Journal of
Intelligence History*, Vol. 12, No. 1 (2013):76-92,
<http://dx.doi.org/10.1080/16161262.2013.755021>
- James Cox, “Canada and the Five Eyes Intelligence
Community,” *Canadian Defence and Foreign Affairs
Institute Working Group Papers*, 2012
- Jason Dittmer, “Everyday Diplomacy: UKUSA Intelligence
Cooperation and Geopolitical Assemblag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105,
No. 3 (2015):604-619,
<https://doi.org/10.1080/00045608.2015.1015098>

Jeffrey A. Engel, "The Surly Bonds: American Cold War Constraints on British Aviation", *Enterprise & Society*, Vol. 6, Iss. 1 (2005):1-44,
<https://doi.org/10.1093/es/khi001>

Joan Beaumont, "Trade, Strategy, and Foreign Policy in Conflict: The Rolls-Royce Affair, 1946-1947,"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Vol. 2, No. 4 (1980):602-618,
<https://doi.org/10.1080/07075332.1980.9640230>

Martin Rudner, "Britain Betwixt and Between: UK SIGINT Alliance Strategy's Transatlantic and European Connections," *Intelligence & National Security*, Vol. 19, No. 4 (2004):571-609,
<https://doi.org/10.1080/0268452042000327528>

_____, "Canada's 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 from Cold War to Globalization," *Intelligence & National Security*, Vol. 16, No. 1 (2001):97-128,
<https://doi.org/10.1080/714002836>

Ralph Erskine, "The Holden Agreement on Naval SIGINT: The First BRUSA?,"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14, No. 2 (1999):187-197,
<https://doi.org/10.1080/02684529908432545>

Steven High, "The Racial Politics of Criminal Jurisdiction in the Aftermath of the Anglo-American 'Destroyers-for-Bases' Deal, 1940 - 50," *The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Vol. 32, No. 3 (2004): 77-105,
<https://doi.org/10.1080/0308653042000279678>

Stephen M. Walt, “Why Alliances Endure or Collapse,” *Survival*, Vol. 39, No. 1 (1997): 156-179.

<https://doi.org/10.1080/00396339708442901>

Wesley Wark, “The Road to CANUSA: how Canadian Signals intelligence won its independence and helped create the Five Eyes,”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Vol. 35, No. 1 (2020):20-34,

<https://doi.org/10.1080/02684527.2019.1685285>

4. 기타 자료

박수현, “바이든, 912조 규모 국방수권법안 서명… ‘주한미군 하한선’ 결국 뺏다,” 『조선일보』 (2022년 12월 28일)

박동정,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서 ‘파이버 아이즈’ 한국·일본으로 확대 문제 거론,” 『V. O. A.』 (2022년 4월 28일)

박준상, “윤석열, ‘북한 비핵화 위해 국제 공조 주도… 남북미 상사회담도 가능,’” 『이투데이』 (2021년 11월 12일)

이광영, “60년간 지속한 서방 정보교류협정 균열? 英, 5G 통신장비 업체로 화웨이 선정,”

『IT Chosun』(2020년 1월 29일)

이희수, “김규현, ‘파이버 아이즈 협력 추진,’” 『매일경제』 (2022년 5월 25일)

최희진, “아시아 내 호주대사관, 미국 도청기지 역할했다,” 『경향신문』(2013년 10월 31일)

안승섭, “美, 화웨이 퇴출공조 균열?... 英 이어 뉴질랜드도 이상기류(종합),” 『연합뉴스』(2019년 2월 19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향 탐지」,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URL: [http://dtims.dtaq.re.kr:8070/search/detail/term.do?](http://dtims.dtaq.re.kr:8070/search/detail/term.do?tmnl_id=T0005228)

tmnl_id=T0005228, 접속일시: 2020년 7월 10시 22:00)

Tara Copp, “‘Nine Eyes’? Bill Would Look at Adding Four Countries to Intel-Sharing Pact,” *Defense One* (2021. 11. 2.)

Tom Rogan, “Five Eyes? Nine Eyes? Try Four Eyes,” *Washington Examiner*(2021. 11. 8.)

Pete McKenzie, “New Zealand Deal May Put Japan Closer to ‘Five Eyes’ Intelligence Alliance,” *New York Times* (2022. 4. 22.)



(Abstract)

Between Solidarity and Laxity in Alliance: The Implications of the History of the ‘Five Eyes’ Intelligence Alliance

Song, Min-seon,
Seok, Yeong-dal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the history of the Five Eyes, an intelligence alliance(Australia, Canada, New Zealand,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following two dimensions. First, the Five Eyes was more of a process of shifting the ‘center of gravity’ of the western intelligence alliance, rather than being formed in the process of combining and expanding the British and American intelligence systems. In other words, the history of forming the Five Eyes Alliance is not a ‘history of unity,’ but a ‘history of conflict and its reaction.’ It would be interpreted as a process of moving the existing Commonwealth-centered intelligence system to the U.S.-centered intelligence alliance.

Second, the process of Commonwealth countries breaking away from British intelligence control and signing an intelligenc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lone contained complex political backgrounds and intentions. It could not be sufficiently accounted by simple explanations such as ‘some additional countries joined the alliance in a few years.’ Particularly, Canada, which played a main role at the turning point, was the country that took the most important step in the formation of the Five Eyes. At that time, Canada was able to share the U.S. intelligence with Britain, and the U.S. was able to share Canadian intelligence with Britain. If so, why did two countries have to sign the independent intelligence agreement? Based on this question, this paper analyzed th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and the judgment and diplomatic strategy made by Canada. This analysis is expected to give various implications to Republic of Korea, which is agonizing over the participation or cooperation of the Five Eyes in the future.

Keywords : Five Eyes, Intelligence Alliance, BRUSA Agreement,
UKUSA Agreement, Rolls-Royce Affairs,
Commonwealth Sigint Organizaion, CANSUA Agreement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2, pp.223-282
<https://doi.org/10.29212/mh.2022..125.22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선승이후구전’을 통한 미드웨이 · 알류산 전역계획 재조명

- 『손자병법』 군형(軍形)편의 ‘전장의 선택’과
‘병법의 다섯 단계’를 중심으로 -

김동은 | 해군 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

- 목 차
1. 서 론
 2. 이론적 검토와 분석의 틀
 3. 전장의 선택(地):
왜 미드웨이섬과 알류산 열도였나?
 4. 병법의 다섯 단계(度量數稱勝):
선전이후구승과 선승이후구전
 5.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이후 우세한 기세와 압도적 전력을 앞세워 태평양전쟁의 주도권을 선점했던 일본제국해군이 불과 6개월 후인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왜 패배하였

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해군과 일본제국해군은 진주만 기습 이후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으로 이르는 6개월의 기간 동안 승리의 군형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인 군사전략의 고전인 『손자병법』 제4편 군형(軍形)에서 손자가 제시한 ‘선승이후구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국과 일본제국해군이 진주만 기습 이후부터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으로 이르는 과정을 바라볼 것이다. 특히, 선승이후구전의 승리의 군형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전장의 선택과 병법의 다섯 단계’를 그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미일 양측이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자의 군형을 만들어나갔는 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본 것이다.

분석 결과 일본제국해군은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수립 단계에서 상대적 유리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의 군형으로 가는 길로 접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에 미국해군은 1942년 5월까지 태평양 전 지역에서 불리한 전황(戰況)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일본제국해군이 가졌던 상대적 유리함을 상쇄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 1942년 6월 4일에는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군형을 만들 수 있었으며, 다양한 우연적 요소의 도움을 받으며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에서 승리하여 태평양전쟁의 전세(戰勢)를 급격히 되돌려 놓을 수 있었다.

주제어 : 손자병법, 군형(軍形), 선승이후구전(先勝以後求戰),
선전이후구승(先戰以後求勝), 전장의 선택(地)과 병법의
다섯 단계(度量數稱勝), 미드웨이·알류산 전역(戰役)

1. 서 론

미국해군(United States Navy)과 일본제국해군(Imperial Japanese Navy, 日本帝國海軍)이 태평양의 해양 패권을 두고 세계 해전의 역사상 처음으로 항공모함 주력 함대 간 결전을 펼쳤던 미드웨이(Midway Atoll) 해전이 발발했던 것도 벌써 80년이 지났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해군에게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불멸의 승리로 기억되고 있으며, 반면에 그 상대방이었던 일본제국해군과 이들을 계승한 현대 일본의 해상 자위대(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海上自衛隊)에게는 이날의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미국해군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의 극적인 대승이었던 미드웨이 해전은 학술 연구뿐만 아니라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매체의 훌륭한 소재가 되어왔으며,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에 의해 다시 한번 영화화되어 미드웨이 해전이 다소 생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 대중의 입에도 회자(膾炙)되었다.¹⁾

영화 속 묘사된 미드웨이 해전은 1942년 6월 당시의 극적인 미국해군의 영웅담이 중심이 되었다. 우연적인 요소들이 하나하나씩 연계되어 압도적인 전력 열세인 미국해군이 일본제국해군을 물리쳤다는 서사는 비단 2019년 개봉한 이 영화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대한 전투들이 그 전투 고유의 신화(myth, 神話)를 만들어내고 발전시켜나가듯이 미드웨이 해전

1) 이도연, “미국 본토 공격 막아낸 결정적 승리… 영화 ‘미드웨이’”, 『연합뉴스』 (2019년 12월 23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45700005>. (접속날짜 2022년 6월 6일).

도 마찬가지였다.²⁾ 미국 내 미드웨이 해전 전문가인 파셜(Jonathan Parshall)은 킬리(Anthony Tully), 루 유(Lu Yu), 이승훈과 같은 아시아 학자들과 함께 미드웨이 해전을 ‘신화’가 아닌 ‘역사’의 영역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파셜의 말을 빌리자면 미드웨이 해전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투(Timeless Battle)’이며, ‘진화하는 해석(Evolving Interpretations)’을 통해 영속적으로 해전 연구자들 곁에 남아 있다.³⁾

하지만 이러한 미드웨이 해전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과 연구성과는 미드웨이 해전의 직접적인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높은 관심과 방대한 연구자료에 비해서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는 미국에서 이미 연구된 미드웨이 해전에 대한 각종 저서와 논문을 토대로 미드웨이 해전의 국면을 하나 하나 세밀하게 관찰하려는 연구는 거의 전무했으며, 이미 도출된 전훈(戰訓)을 토대로 서구와 일본 학계에서 연구한 자료를 해전사 교재 제작 차원에서 번역 및 편집, 요약하는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뤘다.⁴⁾ 물론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부 해군 출신 연구자들이 미드웨이 해전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미

2) 영화 미드웨이가 한국에서 개봉하기 약 4개월 전 한국어로 번역된 조너선 파셜(Jonathan Parshall)과 앤서니 킬리(Anthony Tully)의 저서는 이러한 미드웨이 해전의 신화를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 신화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미드웨이 해전에 대한 대중의 통념적 신화는 다음 자료를 참고. 조너선 파셜, 앤서니 킬리, 이승훈 역, 『미드웨이 해전: 태평양전쟁을 결정지은 전투의 진실』(서울: 일조각, 2019), 16-21쪽.

3) Jonathan Parshall, "Timeless Battle, Evolving Interpretations," *Naval History Magazine*, Vol. 36, No. 3 (June, 2022). https://www.usni.org/magazines/naval-history-magazine/2022/june/timeless-battle-evolving-interpretations?utm_source=pocket_mylist (접속날짜 2022년 6월 7일)

4) 윌리엄 O. 스티븐스, 앨런 웨스트콧, 김일상 역, 『세계해전사(A History of Sea Power)』(서울: 연경문화사, 1979); 해군대학 편, 『세계해전사』(대전: 해군대학, 1998).

도출된 교훈 등을 재강조한 후속 연구들도 있었지만, 미드웨이 해전 그 자체에 대한 전쟁사(戰爭史)적인 심층적 분석이기보다는 연구자 자신이 주장의 논리성을 뒷받침하는 사례 중 하나로서 다뤘을 뿐이었다.⁵⁾

이러한 기존의 경향과는 다르게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학을 전공한 이준일은 2020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해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을 고대 중국의 병법가이자 군사사상가인 손자(孫子)가 저술한 병법서 『손자병법(孫子兵法)』 제5편 병세(兵勢)의 내용을 분석의 틀로 삼았다. 그는 이를 ‘손자의 세(勢) 사상’이라고 명명하여, 미국해군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요인을 ‘부대의 적절한 편성(分數), 효율적 지휘통제체제의 구비(刑名), 기병과 정병의 활용(奇正), 적의 허점에 병력을 집중(虛實)’ 등 네 가지 요소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⁶⁾

이준일의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본다. 첫 번째, 미드웨이 해전의 전투사, 전쟁사에 집중한 국내 연구자의 보기 드문 노력이라는 점이다. 그는 미드웨이 해전 자체를 손자의 ‘세’ 사상에 집중하여 바라봤으며, 이를 통해 미드웨이

5) 김영기, “해군 작전보안 활성화 방안,” 『해양전략』 제46호, (1987); 윤혁민, “마한(Alfred T. Mahan)의 해양 전략 적용을 통한 태평양 해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이용웅, 김정률, “군사기획이 해전승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쓰시마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을 중심으로,” 『해양전략』 제137호 (2007); 문두식, “미드웨이 해전: 통신첩보전의 승리,” 『군사논단』 제80호 (2014); 이종호, “태평양전쟁 시기(1941-1945) 美·日の 군사전략 변화 비교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82호 (2017).

6) 이준일, “손자의 군사사상으로 본 미드웨이 해전 시 미국의 승리요인 분석: 손자의 ‘세(勢)’ 사상을 중심으로,” 『KIMS E-Journal』 통권 1호 (2020), 22-25쪽. 김덕기 역시 영화 미드웨이(2019)의 개봉 이후 미드웨이 해전이 한국해군에 미치는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기는 했으나, 이는 특정 이슈에 대한 서평이나 교훈 도출 중심의 단문(短文)으로 학술논문이라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 김덕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시 본 영화 「미드웨이」가 한국군에 주는 전략적 함의,” 『KIMS Periscope』 제187호 (2020년 3월 11일).

해전 자체가 갖는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두 번째, 손자병법이라는 ‘병법서’를 그 본연의 ‘군사전략적’ 의미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국내 학계에서는 『손자병법』이 본질적으로 병법서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에 대한 인문학적, 경영학적, 어문학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⁷⁾, 이준일의 이러한 방식의 접근보다는 『손자병법』을 보다 그 본질에 부합하는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연구자들의 『손자병법』 해석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⁸⁾ 물론 이준일의 연구 이외에도 『손자병법』을 군사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역시 존재한다.⁹⁾ 하지만 이번 연구는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사례에 중점을 두고, 이를 『손자병법』이라는 군사전략적 고전의 내용을 토대로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므로¹⁰⁾ 그가 제시한 접근 방법에 더 주목할 것이다.

앞서도 간략히 언급했었지만, 이준일은 손자의 ‘세’ 사상이 담긴 『손자병법』 제5편 병세(兵勢)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해군의 승리요인을 분석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해군의 승리요인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일본제국해군

7) 전명용, “『손자병법』 이론체계 연구,” 『중국학연구』 제76집 (2016); 송용호, 전명용, “손자병법의 전략과 그 현대적 응용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73집 (2018).

8) 손자병법을 보다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려는 연구자와 그들이 주석(注釋)을 단 해설서는 다음과 같다. 손무,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손자, 김광수 해설, 『손자병법』 (서울: 책세상, 1999).

9) 김진찬, 김은영, “손자병법 주요 구절 선별과 군사적 활용,” 『군사연구』 제142집 (2016); 서영식, “동서양 인문고전에 등장하는 군사지도자상에 관한 연구: 플라톤의 『국가』와 손자의 『손자병법』을 중심으로,” 『군사』 112호 (2019); 이종호, 김연준, “북한의 WMD 위협 극복을 위한 인간정보 운용방안: 손자병법 ‘용간편’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제1호 (2019); 박동철, 정주호, “손자병법에 나타난 정보의 중요성에 근거한 이순신의 정보전 수행에 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2호 (2021).

10) 군사학연구회 편, 『군사학 연구방법론』 (성남: 북코리아, 2017), 191-192쪽.

은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이후 상대적으로 우세한 기세 속에서 왜 미드웨이 작전을 실패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드웨이 해전이 발발했던 1942년 6월 초순에 발생한 미드웨이 해전 자체만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이후부터 시작된 약 6개월의 일본제국해군의 행태를 『손자병법』 제4편 군형(軍形)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그들은 어떻게 ‘승리의 군형’을 갖추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으며, 실패로 이르고 말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¹¹⁾

이 글은 제1장 서론을 시작으로 제2장에서는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본 『손자병법』의 이론적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고, 미드웨이·알류산(Aleutian Islands) 전역(戰役, campaign)의 전반을 바라보는 분석의 틀로써 승리의 군형을 완성해나가는 ‘전장의 선택(地)’과 ‘병법의 다섯 단계(度量數稱勝)’를 제시할 것이다.¹²⁾ 제3장에서는 일본제국해군이 왜 미드웨이와 알류산 전역을 선택하였는지와 미국해군이 이러한 일본제국해군의 전략적 선택을 간파하고 대비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손자병법』 제4편 군형에서 제시한 ‘병법의 다섯 단

11) 박창희는 군형을 ‘군대의 대형’으로 ‘진영 혹은 전투대형을 갖추다’라는 의미로 해석했으며, 군형편의 핵심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군형을 편성함으로써 ‘선승이후구전(先勝以後求戰)’,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손무, 박창희 해설 (2017), 179쪽.

12) 이번 연구에서는 미드웨이 근해에서 펼쳐진 해전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기에 일본 제국해군이 함께 추진했던 알류산 전역(戰役, campaign)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일본제국해군의 알류산 작전이 미드웨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양동작전이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Mitsuo Fuchida, Masatake Okumiya, *Midway, The Battle that Doomed Japan: the Japanese Navy's Story*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1955), pp. 78; 83-84; Samuel E. Morrison,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ume 4: Coral Sea, Midway, and Submarine Actions, May 1942-August 1942*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2010), pp. 77-78.

계'의 입장에서 일본제국해군이 결국에는 '선승이후구전'을 달성하는 '승리의 균형'이 아니라 '선전이후구승'의 '패배의 균형'으로 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논할 것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 글의 주요 내용과 논지를 요약하고 이 연구의 한계점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2. 이론적 검토와 분석의 틀

가. 『손자병법』의 군사전략적 해석:

전쟁론, 전쟁술, 부대 기동, 결전 수행

‘손자(孫子)’란 손무(孫武)를 높이는 존칭으로, 그는 기원전 500년경 동양을 대표하는 불후의 고전 『손자병법』을 저술했다. 『손자병법』은 약 2,5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자타공인 동양 최고의 병법서(兵法書)의 지위를 누려왔으며, 동양의 대표적 병서로 손꼽히는 『무경칠서(武經七書)』 “손자(孫子), 오자병법(吳子), 사마법(司馬法), 위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삼략(三略), 육도(六韜)” 중에도 으뜸으로 꼽힌다. 후한말(後漢末) 대표적 전략가인 조조(曹操) 역시 『손자서(孫子序)』에 “내가 읽은 병서와 전책(戰策)이 많은데 손무가 저술한 병법이 가장 심오했다”라고 서술할 정도로¹³⁾, 『손자병법』은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최고의 ‘군사전략 이론서’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손자병법』의 그 본질이 ‘병법서, 군사전략 이론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중에 다수 존재하는 많은 번역서, 해설서들

13) 손무, 박창희 해설 (2017), 6쪽; 손자, 김광수 해설 (1999), 8쪽.

은 그 본질에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대중의 관심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는 기업 및 조직경영, 어문학적 해석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손자병법』을 보다 군사과학적,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한 것은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김광수의 해설서(1999년)와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박창희의 해설서(2017년)가 있다. 김광수와 박창희의 해설서는 해석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손자병법』의 근본이 군사문제를 다루는 병서, 군사전략 이론서에 있다고 보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¹⁴⁾ 다만 본 연구에서는 『손자병법』을 보다 사회과학적 틀에 가까운 군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박창희의 접근 방법과 해석을 기준으로, 손자가 이 병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13개 편 각각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 13개의 편이 어떠한 논리적 체계 속에서 상호 연계되고 있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박창희는 『손자병법』을 ‘전쟁론(전쟁 일반), 전쟁술(결전의 용병), 부대기동(우직지계 기동), 결전 수행’이라는 네 가지 축으로 바라보고 있다.¹⁵⁾ 첫 번째, 전쟁론을 다루는 ‘시계(始計), 작전(作戰), 모공(謨攻)’편의 핵심 내용은 각각 ‘전쟁을 결심하기 위한 준비와 비교를 통한 승산 판단’¹⁶⁾, ‘전쟁에 돌입한 이후 군수(軍需)의 문제를 고려한 속승(速勝)의 추구’¹⁷⁾, ‘공격을 도모함에 있

14) 손무, 박창희 해설 (2017), 10-14쪽; 손자, 김광수 해설 (1999), 9-12쪽.

15) 『손자병법』의 마지막 제13편 용간(用間)은 그 내용이 ‘전쟁론, 전쟁술, 부대기동, 결전 수행’이라는 네 가지의 기본 축에 속하지 않은 부록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손자가 전쟁수행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며, 그는 제1-12편 전반에서 전쟁과 용병법의 근간에 정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마지막 부분인 용간편에서 이를 앞에서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손무, 박창희 해설 (2017), 545-572쪽.

16) 위의 글, 19-73쪽.

17) 위의 글, 75-122쪽.

어 최소한의 피해에 의한 온전한 승리(全勝) 추구¹⁸⁾이다. 두 번째, 손자의 전쟁술, 결전의 용병 이론이 담긴 ‘군형(軍形), 병세(兵勢), 허실(虛實)’편의 핵심 내용은 각각 결전 수행 이전에 용병술 구상 차원에서 ‘먼저 이겨놓고 전투를 행하는(先勝以後求戰) 것이 가능한 군형(진영)을 편성하는 것’¹⁹⁾, ‘승리의 군형을 통해 결정적 전투에서 세(勢)와 절(節)을 발휘하는 것’²⁰⁾, ‘적의 강점에 대칭적으로 맞서기보다는 적의 허점을 조성하고 이를 공략하는 것’²¹⁾이다. 이와 같이 제1편 시제에서 제6편 허실까지 이어지는 『손자병법』의 구성은 손자가 원정작전(遠征作戰) 수행 간의 실제적 용병을 논하기에 앞서 전쟁과 결전의 용병과 관련된 이론적 기반을 서술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18) 위의 글, 123-175쪽.

19) 위의 글, 177-212쪽.

20) 위의 글, 213-254쪽.

21) 위의 글, 255-298쪽.

〈표 1〉 『손자병법』에 대한 군사전략적 해석

전쟁론			전쟁술 (결전의 용병)			부대 기동 (우직지계 기동)			결전 수행		
① 시계 (始計)	② 작전 (作戰)	③ 모공 (謨攻)	④ 군형 (軍形)	⑤ 병세 (兵勢)	⑥ 허실 (虛實)	⑦ 군쟁 (軍爭)	⑧ 구변 (九變)	⑨ 행군 (行軍)	⑩ 지형 (地形)	⑪ 구지 (九地)	⑫ 화공 (火攻)
전쟁 전 준비와 비교를 통한 승산 판단	전쟁 돌입 시 군수문제 고려 속승 추구	최소 피해에 의한 승리 추구	선승이후구전 가능한 진영 편성	결정적 전투에서 세와 절 발휘	적의 허점 조성 / 공략	우직지계 기동 간 용병	다양한 상황 변화 고려한 용병의 가변성	지형과 적정을 고려한 용병	결전장의 지형을 고려한 용병	적 중심 (수도) 공격하는 결전의 용병	화공으로 결전 수행 지원 / 보조
↑			↑			↑			↑		
⑬ 용간(用間) : 첩자 운용을 통한 정보획득 (각 편에 제시된 정보들과 유기적 상호작용)											

* 출처 : 손무, 박창희 해설 (2017), 15쪽.

이어서 손자는 본격적으로 원정작전 수행을 위해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부대의 기동과 결전 수행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세 번째, 우직지계(迂直之計)의 부대 기동을 다루는 ‘군쟁(軍爭), 구변(九變), 행군(行軍)’편의 핵심 내용은 각각 ‘적의 강력한 주력 부대를 피해 적 중심(수도)으로 곧바로 기동하는

우직지계 기동 간 용병의 중요성²²⁾, ‘원정작전 시작 이후 우직지계 기동 간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 변화와 이를 고려한 용병의 가변성²³⁾, ‘적 중심을 향한 우직지계 기동 시 지형(地形)과 적의 정세(敵情)를 고려한 용병법²⁴⁾이다. 마지막 네 번째, 원정작전 수행의 클라이막스인 실제 결전의 모습이 펼쳐지는 ‘결전 수행’은 ‘지형(地形), 구지(九地), 화공(火攻)’편의 핵심 내용은 ‘결전장(적의 수도)에 도착하여, 그 지형을 고려한 실제적 용병의 방법²⁵⁾, ‘적 중심(수도)를 공격하는 결전의 용병²⁶⁾, ‘효과적 공격 방법인 화공을 통해 결정적 전투 수행을 지원하는 것²⁷⁾이다. 이와 같이 제7편 군쟁에서 제12편 화공까지 이어지는 『손자병법』의 후반부는 손자가 앞서 전반부에서 논한 전쟁과 결전의 용병과 관련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실제 적 중심(수도)을 공격하는 원정작전을 위한 부대 기동의 시작에서 최종 결전 수행 과정까지의 실질적 용병법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군사전략적 관점의 『손자병법』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나. 군형(軍形):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군형 편성을 통한 선승이후구전 달성

앞서 살펴봤듯이 『손자병법』의 13개의 편(編)은 ‘전쟁론, 전쟁술(결전의 용병), 부대 기동(우직지계 기동), 결전수행’이라는 네 가지의 축으로 체계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손자

22) 위의 글, 299-344쪽.

23) 위의 글, 345-370쪽.

24) 위의 글, 371-410쪽.

25) 위의 글, 411-450쪽.

26) 위의 글, 451-514쪽.

27) 위의 글, 515-542쪽.

병법』은 13개의 편 중 그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혹자들은 다소 협의의 관점을 토대로 손자의 군사사상을 ‘싸우지 않고 이기는 부전승(不戰勝)’이 중심이라고 말하거나, 대중들이 쉽게 접해 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문구가 『손자병법』의 모두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이다. 서양과 동양의 군사사상 분야에서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전쟁론(On war)』과 더불어 군사전략적 정수(精髓)의 양대 산맥인 『손자병법』은 결코 그와 같이 피상적이고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심오(深奧)한 손자의 군사사상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 필자는 이번 연구에서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이후부터 1942년 6월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제국해군이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미드웨이 해전의 승리를 위한 ‘군형’ 편성을 위해 노력했는가를 중점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손자병법의 네 가지 축인 전쟁론, 전쟁술, 부대 기동, 결전 수행 중에서 ‘결전의 용병’을 구상하는 단계인 ‘전쟁술’의 측면에서, 결정적 전투가 발발하기 이전에 어떻게 선승이후구전을 달성하기 위한 진영, 군형을 편성해나갔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손자병법』 제4편 군형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형(軍形)’이란 ‘군대의 대형’을 말하며, ‘진영 혹은 전투대형을 갖추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쟁을 시작한 두 국가의 군대가 본격적으로 싸우기 위해 진영을 갖추고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것이다. 손자는 군형편을 통해 ‘방어와 공격의 본질(攻守論)을 관통하는 온전한 승리(全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군형을 편성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손자가 말하는 핵심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군대의 대형을 편성’함으로써 미리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 즉 ‘선승이후구전(先勝以後求戰)’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⁸⁾

그렇다면 과연 ‘선승이후구전’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손자는 균형편의 첫 구절에서 “아군이 빈틈없는 방어대형을 완비함으로써 적이 이기지 못할 태세를 갖추야 함(先爲不可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손자가 전쟁의 본질 측면에서 공격보다 방어가 우세하다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손자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도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적에게 달려 있다(不可勝在己, 可勝在敵)”라고 말하며, 전쟁의 승리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방어는 본질적으로 적의 승리를 거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공격은 그러한 상대방의 강력한 방어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자는 탄탄한 방어를 통해 아군 스스로를 온전히 보전하는 가운데 적의 허점을 찾아 공격함으로써 ‘온전한 승리(全勝)’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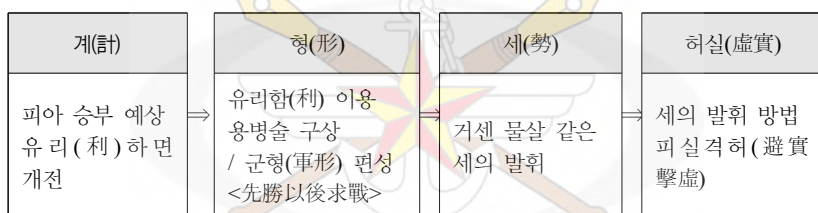
이어서 손자는 용병술의 수준을 구분해 논하고 있다. 그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병술을 구상하는 수준이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見勝不過衆人之所知, 非善之善者也)”라고 말하면서, 뻔한 용병술을 통한 값 비싼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는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를 이루어내는 사람(勝於易勝者)’이야말로 진정으로 뛰어난 용병술을 지닌 장수(善戰者)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손자는 ‘뛰어난 장수’는 반드시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

28) 위의 글, 179쪽.

29) 위의 글, 180-185쪽.

태세를 갖추고 적의 패배를 놓치지 않을 것(立於不敗之地, 而不失敵之敗也)”이라 확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손자는 군형의 편성은 곧 장수의 용병술과 직결된다고 보았고, 뛰어난 용병술을 가진 장수가 지휘하는 ‘승리의 군대(勝兵)’는 적이 감히 예상치 못하는 병력운용을 통한 장수의 뛰어난 용병술을 바탕으로 방어와 공격에 모두 유리한 군형을 편성함으로써,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先勝以後求戰)”한다고 본 것이다. 반대로 뛰어난 용병술을 갖추지 못한 장수가 지휘하는 ‘패배의 군대(敗兵)’는 “싸움을 시작하고 난 후에 승리를 구하는(先戰以後求勝)” 것이다.³⁰⁾

〈표 2〉 『손자병법』의 내용을 토대로 정형화한 병법의 4단계



* 출처 : 손무, 박창희 해설 (2017), 201쪽.

앞서 살펴본 『손자병법』 전체의 흐름과 군형편의 내용을 토대로 손자가 말하는 병법을 정형화해보면 가장 먼저 피아간의 승부를 ‘유리함(利)’이라는 기준을 통해 아측의 유리함이 상대적으로 우세할 경우 개전(開戰)을 결심하는 1단계 ‘계(計)’가 있을 것이며, 앞서 판단을 통해 도출된 유리함을 이용하여 구체적인 전장에서의 용병술을 구상하고 군형을 편성하는 2단계 ‘형(形)’이 이어질 것이다. 다음은 앞의 두 단계를 거치며 만들어진 선승이후구전의 태세를 실제 전장에서 거센 물살과 같이 발휘하는 3단계

30) 위의 글, 194-198쪽.

‘세(勢)’를 거치는데, 이때 반드시 적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취약한 부분에 압도적 기세를 집중하는 4단계 ‘허실(虛實) 또는 피실격허(避實擊虛)’가 거의 동시에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정형화된 4단계 손자의 용병술은 <표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³¹⁾ 각 단계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전쟁 개시 이후 실제 작전임무를 부여받은 전투지휘관이 가장 공을 들여야 하는 단계는 바로 2단계 ‘형(形)’일 것이다. 장수의 뛰어난 용병술로 ‘선승이후구전’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다면, 세의 발휘와 피실격허는 요원(遙遠)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분석의 틀:

전장의 선택(地)과 병법의 다섯 단계(度量數稱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손자는 장수의 용맹성을 기반으로 하는 ‘용감(勇敢)한 승리’보다는 장수가 결정적 전투를 이미 시작하기 전에 ‘전략적 묘수(妙手)’를 통해 이미 대국적인 차원에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계략으로 교묘(巧妙)하게 승리하는 것을 상수(上手)로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제4편 균형(軍形)은 ‘당연한’ 승리를 위해 장수의 교묘한 용병술을 전개하기 위한 구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제5편 병세(兵勢)는 앞서 장수가 구상했던 용병술을 실제로 발휘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³²⁾

그렇다면 과연 ‘선전자(善戰者)’는 어떻게 선승이후구전을 달성할 수 있는 승리의 균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손자는 균형

31) 위의 글, 200-201쪽.

32) 위의 글, 199-200쪽.

편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전투를 벌일 전장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용병술을 구상할 수 있고(地生度), 용병술이 구상되면 가용 병력의 총 규모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度生量). 이어서 가용 병력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전투 국면 요소요소에 투입할 병력의 구체적 숫자를 계산할 수 있고(量生數), 각 요소별 투입 병력의 수가 계산되면 피아간의 전투수행 과정을 비교할 수 있다(數生稱). 마지막으로 피아간 전투수행 과정 비교 결과 확신이 선다면, 이를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균형을 갖출 수 있다(稱生勝)…… 승리하는 장수의 싸움은 마치 더놓기 위해 천 길의 계곡(결정적 지점) 위에 가둬놓은 물(압도적 병력)과 같으니, 이를 형(形)이라 한다(勝者之戰, 若決積水於千仞之谿者, 形也).”³³⁾

승리의 균형을 만드는 단계는 ‘전장의 선택(地)’을 시작으로, 그 이후 순차적으로 ‘전장에 따른 용병술의 구상(度)’, ‘용병술에 따른 가용병력의 충분성 판단(量)’, ‘총 가용 병력에 기반한 각 요소별 세부 투입 병력의 결정(數)’, ‘구상한 용병술과 병력의 규모, 세부 배치에 따른 피아간의 세부적인 전투 수행 과정 사전 분석(稱)’, ‘피아간 전투 수행 과정 비교를 통해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균형 형성(勝)’의 과정을 거쳐 손자가 균형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선승이후구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승이후구전의 과정을 <표 3>과 같이 간략히 나타낼 수 있다.

33) 위의 글, 202쪽.

〈표 3〉 선승이후구전의 균형 편성을 위한 전장의 선택과 병법의 다섯 단계

구 분	핵 심	의 미
지(地)	전 장	피아 상황, 지형, 보급 등을 고려하여 전장 결정
도(度)	용병술	전장에 도착한 후 실지형 및 적정 고려 용병술 결정
양(量)	가용병력	용병에 필요한 병력의 충분성 판단
수(數)	투입병력	지역별, 방어 및 공격 태세별, 단계별 투입병력 결정
칭(稱)	피아 비교	다양한 상황별로 피아 전투수행 과정 분석
승(勝)	승리의 균형	승리할 수 있는 균형으로 ‘선승이후구전’ 달성

* 출처 : 손무, 박창희 해설 (2017), 206쪽.

본 연구에서는 〈표 3〉에서 제시된 ‘선승이후구전의 균형 편성을 위한 전장의 선택과 병법의 다섯 단계’를 분석의 틀로 1942년 6월 직접적인 미드웨이 해전 발발 이전의 미국해군과 일본제국해군의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구상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해군과 일본제국해군을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에서 승리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전개했는가?’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그 분석의 기준으로 앞서 설명한 『손자병법』 균형(軍形)편에서 제시된 선승이후구전의 기반인 ‘전장의 선택(地)’과 ‘병법의 다섯 단계(度量數稱勝)’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전장의 선택 측면에서 ‘1942년 당시의 미일 양국은 상대방은 어디에서 싸우고 싶을 것이며, 결국 양국은 어디에서 맞붙을 것인가?’라는 첫 번째 연구 질문과 병법의 다섯 단계 차원에서 미일 양국이 각각 ‘어떤 용병술로 가용병력, 병력배치, 피아간 전투수행 과정 예상 비교를 통해 선승이후구전(先勝以後求戰)을 달성해나갈 것인가’를 두 번째 연구 질문으로 선정했다. 그 결과 잠정 결론인 〈표 4〉의 하단에 명시한 바와 같으며,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순차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표 4〉 『손자병법』 군형(軍形)편을 통해 바라본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에 대한 분석의 틀

문제제기	분석의 기준	연구질문
미국해군과 일본제국해군은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에서 승리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	◎ 전장의 선택(地)	상대방은 어디에서 싸우고 싶을 것이며, 결국 피아는 어디에서 맞붙을 것인가?
	◎ 병법의 다섯 단계(度量數稱勝)	어떤 용병술로 가용병력, 병력배치, 피아간 전투 수행 과정 예상 비교를 통해 선승이후구전을 이뤄낼 것인가?



※ 전장의 선택(地) ※ ① 일본제국: 내부적 요소로 인한 전장의 집중 달성 실패(미드웨이, 알류산) ② 미국: 일본의 암호통신 해독, 역정보 작전을 통한 주전장 파악 성공(미드웨이)
※ 병법의 다섯 단계(度量數稱勝) ※ ① 일본제국: 전장선택의 실패 → 전역 구상(度)과 전역별 투입 전력 규모(數) 실패, 형식적인 피아간 전투수행 과정 비교(稱)로 ‘선전이후구승(先戰以後求勝)’으로 귀결 ② 미국: 주전장 파악 성공 → 집종의 용병술(度, 數)을 통한 투입 양적(量) 열세 상쇄, ‘선승이후구전(先勝以後求戰)’의 가능성 증대

3. 전장의 선택(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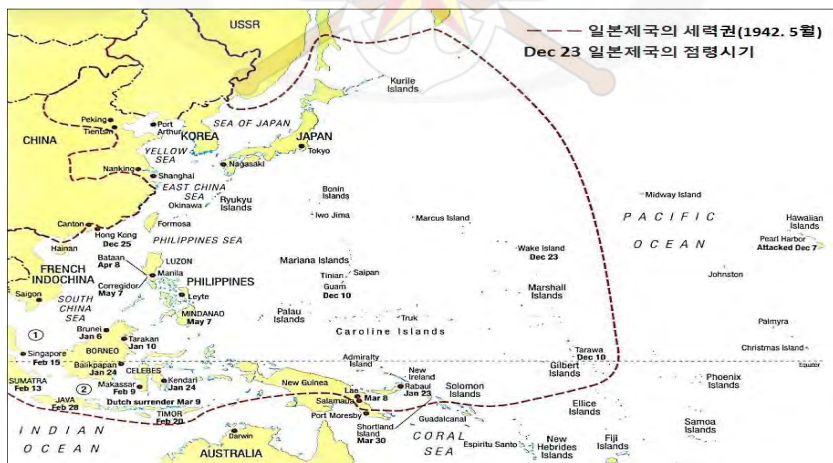
왜 미드웨이섬과 알류산 열도였나?

가. 일본제국해군의 전장 선택 과정

1941년 12월 7일 일본제국해군은 미국해군 태평양함대의 전진기지인 진주만(Pearl Harbor, 珍珠灣)을 기습하는 것을 시작으로 태평양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진주만 기습에서 예상치 못한 대성공을 거둔 일본제국해군은 이 기세를 몰아 불과 개전 5개월 만에 제국 육군과 함께 필리핀(Philippines), 말레이반도(Malay Peninsula),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Netherlands rule in East Indies, 현재의 인도네시아 일대)로의 원정작전을 거의 마무리하고, 프랑스령 인도 차이나(France rule in Indochina)와 버마(British rule in Burma, 현재의 미얀마)까지 진출하여 최초 목표한 제1단계 작전 목표를 달성했다. 또한, 일본제국해군은 더 나아가 현재 오세아니아(Oceania) 일대의 비스마르크 제도(Bismarck Archipelago), 솔로몬 제도(Solomon Islands), 뉴기니(New Guinea) 섬 북부 연안의 전략적 요충지도 점령했다. 이처럼 일본제국해군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기습 이후 광활한 서태평양과 동남아시아 각지에 산개(散開)되어 있는 연합국(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전력을 파죽지세(破竹之勢)의 기세로 각개격파(各個擊破)했다.³⁴⁾ 태평양전쟁 초기 일본제국의 세력권 팽창을 도시(圖示)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태평양전쟁 초기 일본제국의 세력 팽창(1941년 12월 ~ 1942년 5월)



* 출처 : Mark E. Stille, The Imperial Japanese Navy In the Pacific War (Oxford: Osprey Publishing, 2013), p. 30.

34) 해군대학 편, 『세계대전사』(대전: 해군대학, 1998), 298쪽; 존 키건, 류한수 역, 『2차세계대전사』(서울: 청어람미디어, 2007), 385-402쪽.

예상을 뛰어넘는 작전적 대성공으로 태평양전쟁의 압도적 주도권을 거머쥔 일본제국의 군부(軍部)는 이 주도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일본제국해군과 제국육군의 수뇌부들은 1942년 1월부터 제1단계 작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제2단계 작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 수준의 토의를 시작했다. 당시 일본제국해군과 제국육군의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반목(反目)으로 인해 양측의 견해 차이가 매우 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심지어 해군 내부에서조차 의견의 분열이 매우 심했다. 당시 일본제국해군의 지휘부는 크게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담당하는 두 기관의 장이 담당하고 있었다. 제국해군의 군정을 담당하는 것은 해군성(海軍省)이었고, 이 조직의 대표는 해군대신(海軍大臣) 시마다 시게타로(嶋田繁太郎) 제독(提督)이었다. 제국해군의 작전지휘 등 군령(軍令)을 담당하는 조직은 군령부(軍令部)였으며, 지휘관은 군령부총장(總長) 나가노 오사미(永野修身) 제독이었다.³⁵⁾ 상식적으로 해군 내에서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해군의 양대 조직인 해군성과 군령부 간의 조율을 통해 일원화 된 결론을 도출하는 게 바람직한 과정이었으나, 제국해군은 그러한 상식이 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진주만 기습의 대성공 이후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던 연합함대 사령장관(聯合艦隊 司令長官) 야마모토 이소로쿠(山本五十六) 제독의 존재 때문이었다.³⁶⁾

35) 대본영 해군부(Naval General Headquarters)는 1937년 설치되어 일본제국군 최고통수권자(日王)를 보좌하고 칙령을 받아 제국육군과 해군에 명령을 하달하는 대본영에서 해군 관련 업무를 맡은 조직이며, 군령부(Naval General Staff)는 상설 조직으로 해군의 전시작전권(군령권)을 담당하는 조직이었다. 형식상 대본영 해군부가 이 명령에 따라 작전을 입안하고 해상 지휘를 맡은 연합함대가 실제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였으나, 사실상 군령부는 대본영 해군부와 동일한 조직이었다. 파설(2019), 674-675쪽.

36) 파설(2019), 65쪽.

이러한 일본제국해군 내부의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진주만 기습 이전부터 만연했었다. 야마모토는 미국과의 전쟁은 ‘단기전(短期戰)’이 되어야 하며, 전쟁 초기 미국해군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속승(速勝)’을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해군과의 결전을 회피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군하여 자원을 획득해봤자,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중심인 강력한 해군력이 태평양에 버티고 있는 한 동남아에서의 승리는 무용지물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군령부총장 나가노를 비롯한 대본영 해군부의 지도부는 이러한 야마모토의 급진적 견해에 반대했다. 나가노와 군령부 참모진은 일본이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타국의 이익을 위해 곧바로 전쟁에 나서기란 매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가노는 미국의 정치지도부가 일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영국과 네덜란드 등의 서구열강이 가진 식민지를 공격한 것을 ‘개전 사유(casus belli)’로 삼아 고립주의(isolationism)적 성향이 강했던 당시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 것이다.³⁷⁾

〈표 5〉 일본제국해군 내 주요 의사결정자와 제2단계 구상에 대한 견해

구 분	수 장	제2단계 작전구상에 대한 견해
군령부	군령부총장 나가노 오사미	미국 함대에 대한 직접 공격 반대, 미-호 간 해상교통로 차단을 위한 남태평양 방면(피지-사모아)으로의 진격, 장기전 대비
연합함대	사령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미국 함대의 본거지인 진주만 일대로 진격 후 양국 항공모함 주력함대 간 함대결전으로 미국해군 격멸, 속승(速勝) 달성

37) 위의 글, 67쪽.

그러나 미국해군의 주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신속한 공격을 주장한 야마모토는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본인을 비롯한 연합함대 주요 직위자와 참모진이 모두 ‘사임(辭任)’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나가노를 비롯한 군령부 참모진을 압박했다.³⁸⁾ 심지어 야마모토는 일본제국군 최고통수권자(日王)의 면전에서 시마다 해군대신과 나가노 군령부총장에게 “너무 깊이 간섭하여 해군에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도를 넘어선 발언까지 이어갔다.³⁹⁾ 시마다와 나가노 모두 이러한 야마모토의 급진적이고 강경한 태도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났고, 진주만 기습은 모두의 예상을 넘어선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제국해군의 비상식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미드웨이와 알류산 전역 구상에서 그 한계점을 노정(露呈)하고 만다.

진주만 기습의 성공과 그와 함께 병행했던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전반에서의 원정작전 성공 이후 일본제국해군은 향후 전략적 선택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검토하고 있었다. 첫 번째, 공세적 작전 수행에서 함대 및 항공전력 재정비 위주의 수세적 작전으로의 전환이었다. 이는 작전적 정지를 통해 일본 제국이 차지한 수많은 지역의 방어선 외곽을 강화하여 미국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제국 군부는 계속되는 성공에 취해 이러한 소극적인 전략이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⁴⁰⁾ 두 번째, 오스트레일리아(濠州) 본토를 직접 침

38) Gordon W. Prange, Donald Goldstein, and Katherine Dillon, *Miracle at Midway* (New York: McGraw-Hill, 1982), p. 285; Matome Ugaki, translated by Masataka Chihaya, Donald Goldstein, and Katherine V. Dillon, *Fading Victory: The Diary of Admiral Matome Ugaki, 1941-45*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2008), p. 13; 파설 (2019), 67쪽.

39) Ugaki (2008), p. 36.

40) Prange, (1982), p. 29; Hedley P. Willmott, *Empires in the Balance*.

공하거나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간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는 남태평양 방향으로의 진격이었다. 이는 군령부 제1부 부장 후쿠도메 시게루(福留繁)를 필두로 주로 군령부의 참모들이 지지한 작전이었으나, 지상군 병력 지원에 제국육군이 난색(難色)을 표하면서, 대안으로 남서태평양 방면의 ‘피지(Fiji)–사모아(Samoa) 작전(FS)’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⁴¹⁾ 마지막 세 번째, 연합함대의 작전중점은 미국해군의 본거지인 중부 태평양 방면으로의 기습적으로 진격하는 것이었다. 이 방안은 연합함대 예하 제5함대 사령장관 호소가야 보시로(細萱戊子郎)가 처음 제시했으며, 야마모토 연합함대 사령장관과 주요 참모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야마모토는 미국 함대의 주력인 항공모함이 여전히 견재한 이상 그들의 모항(母港)이 있는 진주만 방면으로 진출하여, 하와이를 점령하거나, 주력 함대를 궤멸시키는 것이 전쟁 승리의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마모토는 미국해군의 주력인 항공모함을 모두 유인해내어 ‘항공모함 함대결전’을 펼쳐 일거에 격멸할 수 있는 진주만 인근으로 공세의 방향을 정했으며, 그가 선택한 목표는 바로 하와이에서 서쪽으로 약 1,300해리(약 2,400km)에 위치한 미드웨이였다.⁴²⁾

앞서 살펴봤듯이 당시 대본영 해군부(군령부)의 후쿠도메 제1부장과 제1부 제1과장 도미오카 사다토시(富岡定俊) 대좌(大佐)는 남태평양 방면의 피지–사모아 작전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실제

Japanese and Allied Pacific Strategies to April 1942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1982), p. 39.

41) 파셜 (2019), 71-72쪽; Willmott, *Empires in the Balance* (1982), p. 43; John Lundstrom, *The First South Pacific Campaign: Pacific Fleet Strategy/December 1941-June 1942*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1976), p. 41.

42) 파셜 (2019), 73쪽; 77-79쪽; Willmott (1982), p. 43; John Stephan, *Hawaii under the Rising Su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4), p. 82.

작전 현장에서 함대 전력을 지휘하는 연합함대의 야마모토와 그 참모진은 중부 태평양 방면의 전략적 선택지를 추구하고 이들의 의견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大本營 해군부와 연합함대 간 첩예한 대립 속에 양측은 1942년 4월 도쿄(東京) 해군 군령부 작전실에서 양측 참모 간 회의가 열렸다.大本營 해군부 측에서는 더 이상 연합함대에 전략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작정하고 중부 태평양 진출 방안, 즉 미드웨이 공격계획을 논리정연하게 강력히 비판(批判)했다.⁴³⁾大本營 해군부의 강경한 논조에 연합함대 대표 와타나베 야스지(渡邊安次) 중좌는 연합함대의 미드웨이 공격계획에 대한 당위성을 막무가내로 주장하였고, 양측은 더 이상의 논리적인 토론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결국 와타나베는 연합함대 기함(旗艦) 야마토(大和)에 연락을 해 야마모토 사령장관의 도움을 요청한다.⁴⁴⁾

야마모토는 군령부 참모진의 비판에 대해서 “미국과 호주의 해상교통로를 차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미국해군의 주력인 항공모함을 격멸하는 것이며, 만약 미국이 미드웨이 공격이라는 미끼를 물지 않아 항공모함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손쉬운 승리를 통해 미드웨이를 점령해 중부 태평양 방면의 방어선을 미국의 모항인 진주만 측으로 더 가까이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하며, 미드웨이 작전계획에 있어 군령부에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⁴⁵⁾ 또한 야마모토는

43) 군령부 참모진 중 미요 다쓰키치(三代長吉) 중좌(中佐)가 발언을 했으며, 그가 미드웨이 공격에 대한 연합함대의 계획을 반박한 사유는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 미드웨이의 위치는 육상 발진 항공전력의 엄호와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점, ② 만약 미드웨이를 점령하더라도 지속해서 점령부대에 대한 보급 유지가 불가능한 점, ③ 연합함대의 예상대로 미드웨이 공격이 미국해군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파셜 (2019), 80-82쪽.

44) Stephan (1984), p. 111.

45) Willmott *Empires in the Balance* (1982), p. 72.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과거 진주만 기습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과 연합함대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령장관 직위를 사임하겠다고 엄포성 발언을 쏟아냈다.⁴⁶⁾ 이러한 야마모토의 상습적인 행태는 분명히 항명(抗命)에 가까운 행위였다. 그러나 당시 나가노 군령부 총장과 후쿠도메 군령부 제1부장 모두 군령부 참모진의 논리적 반박을 옹호하기보다는 진주만 기습의 대성공과 연이은 연합함대의 승전으로 이미 전 국민적인 영웅이 되어버렸던 야마모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겁박(劫迫)에 굴복하고 말았다. 나가노는 1942년 4월 5일 연합함대에서 상신한 중부 태평양 방면으로의 차기 작전 구상을 승인했으며, 결국 일본제국해군의 제2단계 작전의 가장 첫 번째 전장은 미드웨이로 정해졌다.⁴⁷⁾

하지만 야마모토와 연합함대는 ‘국민적 영웅’이라는 명성과 권위에 기대어 미드웨이 작전을 승인은 받았지만, 반대급부로 군령부는 미드웨이 작전 승인을 조건부로 추가적인 작전 소요를 하달했다. 첫 번째는 6월 미드웨이 공격작전 시 알류산 열도 공격도 함께 포함하여 추진하라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는 6월 초 미드웨이 공략 이전에 미국과 호주의 해상교통로 차단과 연관된 남서태평양 방면의 공세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한 역사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졸렬한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얻어낸 야마모토로서는 이와 같은 대본영 해군부의 지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⁴⁸⁾ 이와 같이 비상식적인 의사결정

46) Fuchida (1955), p. 65; Hiroyuki Agawa, translated by John Bester, *The Reluctant Admiral: Yamamoto and the Imperial Navy*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2000), p. 297.

47) Stephan (1984), p. 112; Ugaki (2008), p. 109.

48) Robert E. Barde, “The Battle of Midway: A Study in Command,” (Ph.D. Thesis, University of Maryland, 1971), p. 34. 알류산 열도 공격은 일본 본토 북부의 홋카이도(北海道) 섬이나 혼슈(本州) 섬 북부 지방에 대해 미국이 알류산 열도를 기반으로 해·공군을 이용해 공격을 펼치는 것을 막으려는 대안으로 대본영 육군부나 해군부 일부 참모들이 주장했다. 미드웨이 섬과 알류산 열도를 동시

과정을 통해 도출된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은 그 작전적 범위가 매우 넓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전역의 작전구역은 그 면적이 거의 1,040만km²에 달했으며, 중국이나 캐나다 전체 국토 면적과 맞먹는 크기였다.⁴⁹⁾

〈그림 2〉 미드웨이섬과 알류산 열도 전역 수행을 위한 작전구역과
태평양전쟁의 전략적 상황



* 출처 : 파셜 (2019), 62-63쪽.

에 공격한다는 방안은 4월 16일 ‘대해지(大海指) 85호’를 통해 시달되었다. 이로 부터 이틀 후인 4월 18일 미국이 돌리틀 공습(Doolittle Raid)을 통해 일본 주요 도시를 직접 공격하면서, 알류산 열도 공격의 중요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 어려운 국내 정치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Japanese Monograph No. 88, “Aleutian Naval Operations, March 1942-February 1943,” (Washington, D.C.: Department of Army 1947), pp. 6-7. <https://pacificwararchive.wordpress.com/2019/01/27/japanese-monographs/> (접속날짜 2022년 6월 8일).

49) 파셜 (2019), 84쪽.

일본제국해군은 야마모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강력한 의지 아래 기습적인 중부 태평양 공격을 통해 미국해군의 주력 항공모함 함대를 유인해내어 격멸하기 위한 미드웨이를 선택했으며, 이와 더불어 일본 본토 북부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알류산 열도 공격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제1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서구의 학계에서는 이러한 결정을 두고 알류산 작전이 미드웨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양동(陽動) 작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종전 후 일본제국해군 출신의 장교들이 미국 극동군 사령부 주도로 작성한 ‘전사(戰史)연구’ 자료를 보면 미드웨이와 알류산 작전이 서로를 지원하는 목적의 작전이 아니라 각기 별개의 목적을 갖고 전개된 작전임을 알 수 있다. 미드웨이 작전이 미국해군의 주력 항공모함을 유인하여 궤멸하려는 궁극적 목적을 지닌 작전이라면, 알류산 작전은 미국해군의 전력 공백을 틈타 본토 방어의 외연을 좀 더 확장하려는 별개의 목적을 지닌 작전이었다.⁵⁰⁾ 이처럼 일본제국해군의 방대한 전장 선택은 결정적 시점과 장소에 전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는 일본제국해군에게 있어 미드웨이 해전이 ‘선전이후구승(先戰以後求勝)’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나. 미국해군의 전장 간파

1941년 12월 7일 일본제국해군 연합함대의 기습적인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해군은 많은 전력 손실과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50) 위의 글, 92-94쪽; Japanese Monograph No. 88 (1947), p. 7; Japanese Monograph No. 93, “Midway Operations, May-June 1942,” (Washington, D.C.: Department of Army 1947), p. 4, <https://pacificwararchive.wordpress.com/2019/01/27/japanese-monographs/>. (접속날짜 2022년 6월 8일).

진주만 기습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일본제국해군의 야마모토 연합함대 사령장관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해군은 전의(戰意)를 상실한 게 아니라 더욱 불태우고 있었다. 이러한 대다수 미국해군의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아줄 구심점이 필요했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그 책임자가 바로 니미츠(Chester W. Nimitz) 제독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해군참모총장(Chief of Naval Operations) 스타크(Harold S. Stark) 제독과 미국함대 총사령관(Commander in chief of the United States Fleet) 킹(Ernest J. King) 제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니미츠를 미국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Commander in chief of the United States Pacific Fleet)에 임명했다.⁵¹⁾

니미츠는 미국해군 장병들의 전의를 어떻게든 고취해야 했으므로 진주만 기습 직후 상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취임 직후부터 공세적 함대 작전을 구상한다. 그의 지휘 아래 미국해군 태평양함대는 항공모함 탑재 함재기를 이용하여 1942년 2월에는 길버트 제도(Gilbert Islands), 한 달 후인 3월에는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의 일본제국군 기지를 공습했으며 뉴기니섬 주변을 지나는 일본제국군 수송선단(輸送船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어서 1942년 4월 18일에는 미국육군 항공대 제임스 H. 돌리틀(James H. Doolittle) 대령이 이끄는 B-25 폭격기 16대를 항공모함 호넷함(USS Hornet, CV-8)에서 발진시켜 일본 본토의 주요 도시를 공습했다. 일명 ‘돌리틀 특공대’에 의한 미국육군과 해군의 합동 공격은 비록 일본에게 큰 물리적 피해를 안기지는 못했지만, 일본 수뇌부에게 본토 역시 절대

51) 브레이턴 해리스, 김홍래 역, 『니미츠: 별들을 이끈 최고의 리더』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2), 20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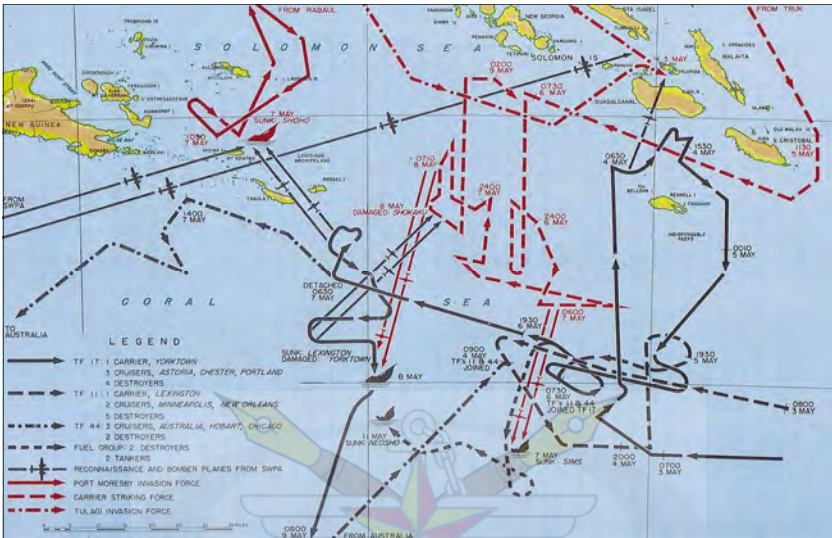
적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켜줬으며, 미국 국민과 군인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⁵²⁾

하지만 돌리틀 공습 이후 일본제국의 공세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니미츠는 취임 직후 가장 처음 태평양함대의 정보 기능 정상화에 힘썼다. 니미츠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태평양함대사령부 정보참모 레이튼(Edwin T. Layton)과 무선 감청(監聽) 중심의 미국해군 전투정보반(Station Hypo) 책임자 로슈포르(Joseph J. Rochefort)는 일본제국해군의 암호화된 통신 첩보를 하나하나씩 해독해냈다. 그러던 도중 로슈포르의 전투정보반은 일본제국해군의 정규함모 2척과 경함모 1척을 포함한 함대와 수송선단이 뉴기니섬 동쪽의 산호해(Coral Sea)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으며, 니미츠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규함모 요크타운함(USS Yorktown, CV-5)과 렉싱턴함(USS Lexington, CV-2)을 주축으로 하는 함대를 산호해로 파견했다. 결과적으로 미국해군은 정규함모 렉싱턴함이 침몰했고, 요크타운함 역시 큰 손상을 입었고, 반면에 일본제국해군은 경함모 1척(쇼호함, 祥鳳)만이 침몰했고, 정규함모 쇼카쿠함(翔鶴)이 중파(中破)되어 무력화되다. 일본제국해군의 또 다른 정규함모 즈이카쿠함(瑞鶴)은 선체 자체에는 경미한 손상만 입었으나 함재기(艦載機) 피해가 커서 당분간 작전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전술적으로는 미국해군의 패배였지만, 차후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보면 미국해군의 전략적 승리였던 것이다. 전투정보반의 적시적인 정보지원이 효과를 발휘한 순간이었다.⁵³⁾

52) 폴 콜리어, 알라스테어 핀란, 마크 J. 그로브, 필립 D. 그로브, 러셀 A. 하트, 스티븐 A. 하트, 로빈 허버스, 데이비드 호너, 제프리 주크스, 강민수 역, 『제2차 세계대전: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482-483쪽.

53) 해리스 (2012), 221-223쪽; 파셜 (2019), 121쪽.

〈그림 3〉 산호해 해전의 경과



* 출처 : USACMH (1994), p. 48.

산호해 해전을 거치면서 태평양함대의 정보 기능에 대한 니미츠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졌다. 그러므로 레이튼과 로슈포르, 그리고 전투정보반은 한층 더 높아진 니미츠의 믿음을 저버릴 수 없었다. 산호해 이후 일본제국해군 연합함대의 주 작전목표가 어딘지 간파해내야만 했다. 사실 전투정보반은 1942년 3월 이후 미드웨이와 관련된 일본제국해군의 통신 첩보가 증가한 것을 토대로 미드웨이가 다음 작전의 방향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황 증거만으로 니미츠를 넘어 워싱턴의 미국 해군 수뇌부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니미츠와 레이튼, 그리고 로슈פור트는 일본제국해군의 다음 작전 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가 필요했다.

이때, 로슈포르와 전투정보반은 기발한 ‘역정보(逆情報)’ 작전

을 구상한다. 1942년 5월 19일, 전투정보반은 미드웨이 주둔 통신대에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유선 통신을 통해 ‘미드웨이의 해수 담수화 시설이 고장났다’는 전문 내용을 평문 무선통신으로 진주만에 타전하라는 지시를 했다. 미드웨이 주둔 중인 통신대는 이 지시를 그대로 이행했고, 하루가 지난 5월 20일 전투정보반은 일본제국해군의 통신첩보를 감청한 결과 ‘미드웨이(AF) 공격대에 급수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을 해독(解得)해낸다.⁵⁴⁾ 니미츠와 미국해군 태평양함대는 이제 일본제국해군의 다음번 주 작전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명확히 확증할 수 있었다. 이로써 야마모토가 추구했던 중부 태평양으로의 기습적 공격은 무위로 돌아갔으며, ‘기습’이 빠진 순수한 미일(美日)해군 양측의 항공모함 주력 함대 간 결전으로 전투의 성격이 전환된 것이다.

4. 병법의 다섯 단계(度量數稱勝): 선전이후구승과 선승이후구전

가. 도(度)와 양(量):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구상과 미일 양측의 총 가용전력

1942년 4월 16일 나가노 군령부총장의 일왕 알현 및 미드웨이·알류산 공격작전 기본계획 보고 이후 일본제국해군 대본영 해군부는 이제 야마모토 연합함대 사령장관과 그 참모진에게 미

54) Edwin T. Layton, Roger Pineau, John Costello, *And I Was There* (New York: William Morrow, 1985), pp. 421-422.

드웨이·알류산 전역의 세부적인 구상을 일임했다. 야마모토와 참모진은 ‘N일(도쿄 기준 1942년 6월 7일, 미드웨이 기준 6월 6일)’을 목표로 바로 이날 미드웨이섬을 점령할 계획이었다. 연합함대의 실제적인 공격은 N-3일(도쿄 기준 6월 4일, 미드웨이 기준 6월 3일)에 개시될 예정이었으며, 동시에 알류산 열도의 미국해군 기지인 더치하버(Dutch Harbor)와 미드웨이에 대한 폭격을 진행할 예정이었다.⁵⁵⁾

이 전역의 두 작전 중 먼저 알류산 작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류산 작전의 목적은 미국 태평양함대의 전력 공백을 틈타 알류산 열도 서부의 전략적 중요거점을 점령 또는 무력화하여 이 일대에서 미국의 해상 및 공중 군사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일본제국해군은 더 나아가 점령한 알류산 열도의 거점을 통해 항공, 해상초계 활동을 전개하여 바렌츠해(Barents Sea)를 통한 해상교통로와 베링해협(Bering Strait)을 봉쇄하여 북태평양에서의 미국-소련 간 작전적 연대를 저지하려고 했다.⁵⁶⁾ 이러한 작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알류산 작전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었는데, 첫째, 당면한 상륙 목표 달성 시점까지 목표에 대한 초기 접근과 작전을 1942년 6월 8일까지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둘째, 해당 지역 점유를 공고화(안정화)하는 작전과 관련된 국면으로 적(미국군)의 반격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지속하여, 셋째, 점유 안정화 이후 1942년 6월 20일경 북방지역 방어를 위한 함대를 재배치하는 것이 각 단계별 목표였다.⁵⁷⁾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알류산 작전 1단계는 1942년 6월 4일(도쿄 기준) 개시되어, 곧 바로 더치하버를 공격

55)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戰史叢書 第43卷: ミッドウェー海戦』(東京: 朝雲新聞社, 1971), p. 117; 파셀 (2019), 93쪽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음.

56) Japanese Monograph No. 88 (1947), p. 3; 9.

57) *Ibid.*, p. 16; 32.

해 주둔 중인 미국육군과 해군전력을 무력화하고, 이후 6월 6일에는 전략적 거점인 키스카섬(Kiska)과 에이댁섬(Adak)에 상륙할 예정이었다. 이후 필요시 열도 최서단의 에투섬(Attu)에도 6월 12일 상륙할 예정이었다.⁵⁸⁾ 미국의 군사력이 와해된 2단계에 돌입하면 애투-에이댁, 키스카 공략부대를 해산하고 함정들은 북방부대(北方部隊) 본대(제5함대) 호소가야 예하로 재배비(再排比)할 예정이었다. 2단계 작전에서 어느정도 점령 거점의 안정화가 이뤄지면 알류산 작전은 점령한 거점을 장기방어하기 위한 3단계 작전으로 돌입하게 된다.⁵⁹⁾

다음은 미드웨이 작전에 대한 연합함대의 작전 구상이다. 미드웨이 작전은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에서 연합함대가 최초부터 추구했던 궁극적 목표와도 같은 것이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야마모토는 미국해군의 모항 인근에 있는 중부 태평양 방면의 미드웨이를 기습적으로 공격한다면 진주만 기습 이후 전력과 사기 모두 약화된 미국해군은 반드시 연합함대가 던진 미끼(미드웨이 공격)를 물어 진주만을 박차고 나오리라 예상했다.⁶⁰⁾ 이를 위해 야마모토와 연합함대 참모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이 예상치 못한 기습을 가하는 것이었다. 미국해군이 진주만 기습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매(愚昧)’한 미국해군 태평양함대는 ‘당연히’ 일본제국해군의 의도와 기습을 사전에 간파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假定)했고, 이를 변수(變數)가 아닌 상수(常數)로 보고 작전을 구상했다.

미드웨이 작전의 세부 작전계획은 크게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N-3일(미드웨이 기준 6월 3일)에 주력인 항공

58) 파셜 (2019), 95쪽.

59) 위의 글, 96-97쪽.

60)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1971), p. 186; 파셜 (2019), 100쪽에서 인용한 것을 재 인용하였음.

함대가 전투함대의 호위 아래 미드웨이 북서쪽으로 접근, 당일 아침에 미드웨이 지상공격을 위한 공격대가 발진하여, 미드웨이 섬에 배치된 미군 방어 세력과 비행장, 항공기를 기습공격으로 일격에 완파한다. 둘째, N-2일(미드웨이 기준 6월 4일)에는 미드웨이섬 상륙작전 지원을 위해 미군 해안방어시설 무력화에 초점을 둔 추가 공습을 실시한다. 셋째, N-1일(미드웨이 기준 6월 5일)에는 사이판에서 출항한 상륙군 부대가 미드웨이 서방 60해리(약 110km)에 있는 쿠레섬(Kure)에 상륙하고, 점령한 쿠레섬을 미드웨이 작전을 지원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넷째, N일(미드웨이 기준 6월 6일) 당일 제국육군과 해군 합동부대가 미드웨이를 공격하여 육군이 이스턴섬(Eastern)에 해군 육전대(陸戰隊)가 샌드섬(Sand)에 상륙하여 미드웨이를 완전히 점령한다. 다섯째, 미드웨이 공격이 완료된 이후 미국해군의 항공모함 주력 함대가 미드웨이 근해에 나타날 것이며, 연합함대의 주력인 항공함대와 본대는 미드웨이 서방에 재배치하여 이들을 맞아 궤멸한다. 이때, 야마모토와 참모진은 일본제국해군의 기습에 놀란 미국해군의 항공모함 주력 함대는 N-3일에서야 상황을 인지하고 진주만에서 출항하여 N일 미드웨이 상륙 및 점령이 끝날 때까지 미국해군의 항공모함이 미드웨이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⁶¹⁾

61) 파셜 (2019), 98-102쪽.

〈표 6〉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당시 일본제국해군의 총 가용전력(量)

미드웨이 작전	항모	경항모	공격/폭격기	정찰기	전함	순양함	구축함	지원함	잠수함
1항공함대	4	0	248	14	2	3	12	8	0
연합함대 본대	0	1	8	0	3	1	10	5	0
경계부대(1함대)	0	0	0	0	4	2	11	2	0
공략부대(2함대)	0	1	24	0	2	5	9	5	0
공략지원대(7전대)	0	0	0	0	0	4	2	1	0
선단부대/호위대	0	0	0	0	0	1	10	24	0
항공대((11항공전대)	0	0	0	12	0	0	1	3	0
선견부대(제6함대)	0	0	0	0	0	1	0	2	18
태평양 도서기지항공대	0	0	168	26	0	0	0	0	0
소 계	4	2	448	52	11	17	55	50	18
알류산 작전	항모	경항모	공격/폭격기	정찰기	전함	순양함	구축함	지원함	잠수함
제2기동부대(4항공전대)	1	1	63	0	0	2	3	1	0
북방부대 본대(제5함대)	0	0	0	0	0	1	2	5	0
애틀-에이덱 공략부대	0	0	0	0	0	1	3	2	0
키스카 공략부대	0	0	0	0	0	4	3	3	0
잠수부대(제1잠수전대)	0	0	0	0	0	0	0	0	5
수상기부대	0	0	0	8	0	0	1	1	0
초계부대(22전대)	0	0	0	0	0	1	0	0	0
소 계	1	1	63	8	0	9	12	12	5
총 계	5	3	511	60	11	26	67	62	23

* 출처 : 해군대학 편 (1998), 301쪽; 파셜 (2019), 656-672쪽의 내용을 필자가 표로 정리함.

야마모토는 최초로 미드웨이를 전장으로 선택했을 때 이 작전의 궁극적 목표는 미드웨이 공격이라는 ‘미끼’로 미국 항공모함을 유인해내어 일거에 궤멸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드웨이 작전은 마치 지난 6개월 간 일본제국해군이 수행해왔던 기습적

인 공격과 같이 최초 구상되었고, 결국에는 상륙 점령이 작전 수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버린 앞뒤가 맞지 않고, 경중(輕重)이 고려되지 않은 비논리적인 작전계획이 되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해군의 대응을 너무나도 단편적인 경험에 따라 단정(斷定)해버린 것은 결정적인 패배의 요인이 되고 말았다. 미드웨이와 알류산 양 작전이 포함된 전역을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일본제국해군은 ‘승리의 균형’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고 만 것이다.

〈표 6〉은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에 투입되었던 일본제국해군의 총 가용전력(量)이다.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에는 일본제국해군의 거의 모든 함정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전력은 야마모토 사령장관을 포함한 28명의 제독들의 지휘를 받고 있었다. 이는 연합함대, 더 나아가 일본제국해군의 명운(命運)을 건 전역(戰役)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해군은 광활한 전장에서 두 가지의 연관성 낮은 작전을 전개하고 말았다. 일본제국해군의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구상은 광활한 작전구역의 크기만큼 알류산과 미드웨이 작전 간의 연계성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서구의 학자들과 신빙성 높은 정보를 획득한 미국해군의 수뇌부는 알류산과 미드웨이 작전을 동시에 구상한 일본제국해군의 수뇌부의 저의(底意)를 ‘알류산 작전이 미드웨이 작전의 양동작전일 것이다’라고 추론했지만, 전후 일본 학계의 분석에 비춰볼 땐 이는 결국 합당치 않은 추론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연합함대의 지도부는 애초부터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전장 선택에서 출발하여, 상대방의 대응에 대한 가정을 상수(常數)로 여겨 결국 승리의 균형으로 이르는 전역 구상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전역 구상의 실패는 총 가용전력의 우세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용병술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았다. 일본제국해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장의 선택(地)’과 ‘전역 및 작전 구상(度)’의 실패로 인해 ‘총 가용전력(量)’에서의 상대적 우세를 조금씩 잠식(蠶食)당하고 있었다.

야마모토와 연합함대 참모진이 성공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구상을 이어나갈 때 미국해군 태평양함대 총사령관 니미츠는 일본제국해군의 다음 목표가 미드웨이인 것을 레이튼, 로슈포르 주도의 전투정보반을 통해 어느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다음 목표가 미드웨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미츠에게는 다른 고민이 있었다. 워싱턴의 해군지휘부가 이러한 태평양함대의 정보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일본제국이 남태평양 방면으로 진출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니미츠의 상관인 미국함대 총사령관 킹은 산호해 해전에서 정규함모 렉싱턴함이 침몰되고 요크타운함이 크게 손상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태평양함대의 나머지 정규함모 2척(엔터프라이즈함, 호넷함)을 남태평양 방면의 작전에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⁶²⁾ 그러나 니미츠는 킹 총사령관이나 워싱턴의 정보 기능보다 자신의 전투정보반을 더 신뢰했고, 태평양함대의 주력인 항공모함을 일단 진주만으로 복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니미츠는 남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16기동함대 사령관 홀시(William F. Halsey Jr.) 제독에게 친전(親展) 전보를 보내 의도적으로 함대전력, 특히 항공모함의 존재를 일본제국해군에게 노출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제국해군의 정찰기는 이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고, 미국 태평양함대의 주력 항공모함이 남태평양 일대에서 활동 중이라고 대본영과 연합함대에 보고했다. 니미츠의 무한한 신뢰를 받고 있던 미 태평양함대 전투정보반은

62) Lundstrom (1976), p. 150; 152; Layton (1985), p. 412.

이 타전을 어김없이 감청했고, 니미츠는 항공모함 함대의 위치 노출을 핑계로 16기동함대의 엔터프라이즈함과 호넷함을 진주만으로 소환할 수 있었다.⁶³⁾

이후 니미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드웨이 물 부족 전문’을 통해 일본제국해군의 다음 작전목표를 정확히 특정해낼 수 있었다. 로슈포르의 전투정보반은 더 나아가 일본제국해군의 연합함대가 항공모함 4~5척을 2개 항공전대로 구분하여 미드웨이를 공격할 것으로 매우 구체적인 정보 판단까지 내놓았다.⁶⁴⁾ 하지만 니미츠에게 가장 문제는 어디로, 무엇이 다가올지 알고 있음에도 이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다. 어렵사리 엔터프라이즈함과 호넷함은 미드웨이 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지만 이 두 척의 항공모함으로만 일본제국해군의 정규항모 4~5척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⁶⁵⁾

그때 니미츠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산호해 해전에서 큰 손상을 입었던 요크타운함이었다. 요크타운함은 다행스럽게도 선체와 연료탱크 부분에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항해가 가능했으며, 1942년 5월 27일 진주만에 복귀했다. 야마모토의

63) Lundstrom (1976), p. 154-155; 당시 서남태평양 방면 연합군 총사령관(Supreme Commander of Allied Forces in the Southwest Pacific Area)이었던 맥아더(Douglas MacArthur) 장군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계속해서 남태평양 산호해 인근에서 작전 중인 것처럼 일본군을 기만하기 위해 해군 항공모함과의 합동작전 시 사용하는 무선통신을 계속 송신했다. 일본의 통신감청 및 정보분석사들은 이러한 기만통신의 진의를 간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합함대 수뇌부에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이 남태평양에서 작전 중인 것으로 보고했다. 해리스 (2012), 235쪽.

64) Hedley P. Willmott, *The Barrier and Javelin: Japanese and Allied Pacific Strategies, February to June 1942*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1982), pp. 302-305; Prange, (1982), p. 104; Layton (1985), p. 409-425.

65) Commander in Chief, U.S. Pacific Fleet, “Operation Plan No. 29-42,” (May 27, 1942), pp. 3-4. <http://www.midway42.org/Features/op-plan29-42.pdf> (접속날짜 2022년 6월 9일).

의중을 어느정도 간파한 니미츠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일본의 강력한 항공함대와 맞설 수 있는 항공모함이었다. 니미츠는 갓은 고생 끝에 입항한 요크타운함이 최단시간 내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수리가 되기를 원했다. 당시 진주만의 해군 정비 인력 대다수(약 1,400명)가 요크타운함 정비에 투입되었고, 철야(徹夜) 작업도 불사했다. 그로부터 48시간 이후 비록 요크타운함은 산호해 해전 이전과 같은 완벽한 상태로 정비되지는 못했지만, 미드웨이로 항해하여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었다. 요크타운함은 니미츠가 원하는대로 5월 30일 오전 9시 17기동함대의 주력으로 복귀하여 미드웨이로 향했다.⁶⁶⁾ 이러한 니미츠와 미국 태평양함대의 전투 준비는 일본제국해군이 산호해 해전 이후 손상을 입은 정규항모 2척(즈이카쿠, 쇼카쿠)의 부재에 대한 그 어떤 후속대책 없이 작전에 돌입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⁶⁷⁾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드웨이를 선점하고 있는 작전적 이점을 최대화하기 위해 미드웨이에 육군, 해군, 해병대의 육상기지 전개 항공전력을 강화하고, 대공포와 방공호를 대폭 보강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준비했다.⁶⁸⁾

66) 파셜 (2019), 161쪽.

67) 당시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1/2항공전대 소속 항공모함에서는 “침의 자식(즈이카쿠와 쇼카쿠를 칭함)도 이겼는데 우리 본처(아카기, 카가, 히류, 소류를 칭함)의 손에 걸리면 문제도 아닐 것”이라는 말이 파다했다. 일본 항공함대 내에서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낮다고 여겨졌던 5항공전대도 미국의 정규항모 2척과의 해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1/2항공전대 전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오만함이 배어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다. Walter Lord, *Incredible Victory* (New York: Harper Collins, 1967), p. 32.

68) 파셜 (2019), 163-165쪽.

〈표 7〉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당시 미국해군의 총 가용전력(量)

미드웨이 작전	항모	경항모	공격/폭격기	정찰기	전함	순양함	구축함	지원함	잠수함
17기동함대(TF 17)	1	0	79	0	0	2	6	0	0
16기동함대(TF 16)	2	0	153	0	0	6	9	0	0
함대 급유대	0	0	0	0	0	0	2	2	0
미드웨이 급유대	0	0	0	0	0	0	2	1	0
잠수함대(TF 7)	0	0	0	0	0	0	0	0	20
미드웨이 해군/해병항공대	0	0	74	32	0	0	0	0	0
미드웨이 육군항공대	0	0	26	1	0	0	0	0	0
연안방어전력	0	0	0	12	0	0	1	18	0
소 계	3	0	332	45	0	8	20	21	20
알류산 작전	항모	경항모	공격/폭격기	정찰기	전함	순양함	구축함	지원함	잠수함
8기동함대(TF 8)	0	0	0	0	0	5	10	0	0
소 계	0	0	0	0	0	5	10	0	0
총 계	3	0	332	45	0	13	30	21	20

* 출처 : 마크 힐리, 김홍래 역, 『미드웨이 1942: 세계사의 균형추를 움직인 사상 최대의 해전』(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53-54쪽; 파셀 (2019), 646-655쪽의 내용을 필자가 표로 정리함.

〈표 7〉은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에 투입되었던 미국해군의 총 가용전력(量)이다.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에는 미국해군 태평양함대의 거의 모든 전력이 투입되었다. 〈표 6〉의 일본제국 해군 총 가용전력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다른 점은 거의 대다수 전력을 미드웨이 작전에 투입했다는 것이다. 실제 니미츠를 비롯한 미국의 수뇌부는 알류산 열도에 대한 공격징후 역시 사

전에 인지했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 미드웨이 작전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했다. 실제로 일본제국해군이 미드웨이 작전과 동시에 알류산 작전을 시행하며 애투 섬과 키스카 섬이 일본에 의해 함락되었음을 보고받은 미국 해군성 장관 녹스(W. Franklin Knox)는 “일본은 현대전을 이해할 능력이 없거나 치를 자격이 없다”라고 혹평(酷評)과 동시에 안도했다.⁶⁹⁾ 미국해군은 일본제국해군의 ‘주전장(地)’을 간파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작전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작전을 구상(度)했으며, 이를 위해 정규함모 요크타운함을 기적적으로 복구하여 미드웨이 작전에 투입하고, 미드웨이섬 선점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육상 전개 항공전력 보강과 대공포 및 방공호 견고화를 통해 총 가용전력(量)의 불리함을 극복해나갔다. 미국해군은 일본제국해군보다 선승이후구전을 위한 승리의 균형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이다.

나. 수(數)와 칭(稱):

각 작전별 투입 전력 규모와 피아간 전투수행 과정 예상

위험한 가정을 전제로 시작한 일본제국해군의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구상은 ‘지역별, 방어 및 공격 태세별, 단계별 투입 병력을 결정’하는 수(數)의 측면에서도 많은 부족함을 드러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알류산 전역에 정규함모 1척과 경함모 1척을 파견한 것이다. 그 결과 당시 항공모함 함대의 주 전투력인 함상공격기와 함상폭격기를 무력 63대나 알류산 작전에 투입하게 된다. 알류산 열도에 배치된 미국육군이나 해군 주둔부

69) Donald Goldstein, Katherine Dillon, *The Pearl Harbor Papers* (Dulles: Brassey's, 1993), p. 325.

대의 능력이나 미국해군 태평양함대 전력의 배비 상태를 고려해 봤을 때 이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물론 당시 일본제국해군이 미국 함대의 배치 상황을 속속들이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알류산 열도를 통한 미국의 공세적 위협 징후가 뚜렷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해군의 항공모함 함대와의 결전을 목적으로 한 미드웨이 작전에 가용한 모든 항공모함과 함상 공격/폭격기를 투입하지 않은 점은 일본제국해군이 작전별 투입해야 할 전력 규모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⁷⁰⁾

일본제국해군은 당시 함대결전의 주력이었던 항공모함의 집중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견(先見)부대 역할을 담당한 잠수함 부대(제6함대)의 운용에도 실패했다. 6함대 소속 제5잠수전대에 속한 구형 잠수함들은 작전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잠수함 부대의 작전 수행을 위한 전투준비태세는 미비했다. 결국 5잠수전대 소속의 잠수함 다수가 정비 완료 후 임무수행을 위한 전력화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어 최초 계획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잠수함들은 진주만과 미드웨이 사이에 있는 선견부대 작전구역에 계획상 목표일이었던 6월 1일까지 도착하지 못했고, 심지어 일부 잠수함들은 미드웨이 해전의 승패가 이미 결정된 6월 6일까지도 작전구역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본제국해군의 잠수함들은 미국해군 주력 함대에 대한 선견(先見) 임무와 정찰 및 감시를 적시적으로 수행

70) 이에 대해 파셜은 전력배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연합함대 내부에 팽배했던 지배적 의견의 영향의 중요성도 제시한다. 이 지배적 의견이란 미국해군은 진주만 기습 이후 계속 패했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어 이들을 결전장으로 유인해 내기만 한다면 반드시 전멸시킬 수 있다는 다소 오만한 착각이었다. 야마모토 사령장관은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겁먹은 미국 함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기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파셜 (2019), 10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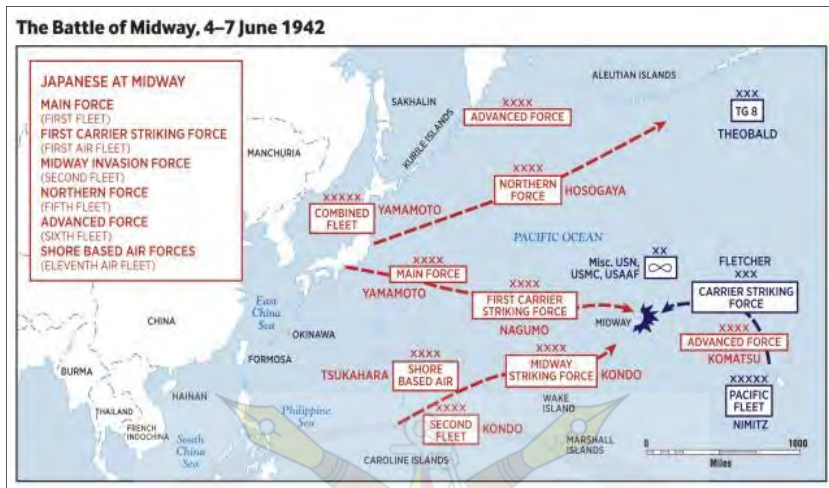
할 수 없었다.⁷¹⁾

항공모함 전력의 집중 실패, 잠수함의 선견부대 임무 실패보다 더 중요한 일본제국해군의 문제는 바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작전적 유연성이 없는 작전의 세부계획이었다. 어느 학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 ‘쓸데없이 교묘하고 복잡한 작전’은 2차대전 개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제국해군의 치밀함과 주도면밀함을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았다. 실제 미드웨이와 알류산 전역계획을 면면히 살펴보면 수많은 부대들이 광활한 해역에서 각기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지만, 실제 적국 함대의 주력을 파괴할 수 있는 핵심은 나구모가 지휘하는 1항공함대의 전력 20여 척이 전부였다. 앞서 <표 1>과 <표 2>를 살펴보고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일본제국해군의 수적 우위를 스스로 무력화하는 어리석은 ‘수(數)’의 배분이 된 것이다.⁷²⁾ 야마모토와 연합함대 참모진은 “승리하는 군대는 적보다 압도적인 병력으로 열세에 놓인 적을 상대하는 것(勝兵, 若以鎰稱銖)”이야 말로 선승이후구전으로 가는 첩경(捷徑)이라는 손자의 금언(金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적보다 열세인 병력으로 압도적인 적을 상대(敗兵, 若以銖稱鎰)”하는 자충수(自充手)를 두고 만 것이다.

71) 위의 글, 165-166쪽.

72) 위의 글, 104쪽.

〈그림 4〉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당시 일본제국해군과 미국해군의 작전 상황



* 출처 : Parshall (2022). <https://www.usni.org/magazines/naval-history-magazine/2022/june/timeless-battle-evolving-interpretations> (접속날짜 2022년 6월 7일).

수(數)의 단계에서조차 승리의 균형에서 한 발 더 물러난 일본제국해군은 피아간의 전투 양상을 미리 예상하는 ‘칭(稱)’의 단계에서도 일본제국해군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들의 도상연습(圖上練習, wargame)은 일반적으로 일본제국해군의 전매특허인 정교한 작전계획 아래 계획대로 치밀하게 기동하는 일본 함대가 비계획적이고 어설픈 미국 함대를 격파하는 전형적인 결말을 보여줬다.⁷³⁾ 특히 미드웨이 작전에 앞서 시행된 도상연습은 진주만 기습 직전의 철두철미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연합함대 참모진의 최선임 장교였던 우가키

73) David C. Evans, Mark R. Peattie,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2012), pp. 273-2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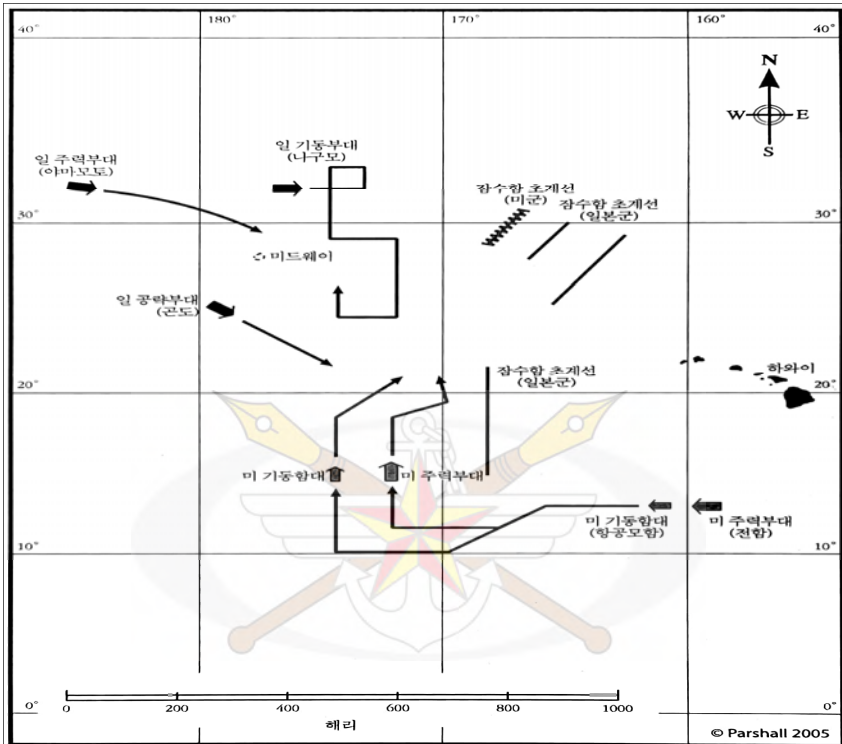
참모장이 도상연습의 심판 역할을 하는 심판장을 맡은 것부터가 문제였다. 설상가상으로 작전계획 자체가 졸속으로 작성되어 도상연습 며칠 전에야 참가자들에게 배포되었고, 참가자들이 계획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1차 도상연습은 시작되었으나, 그 진행 과정에서도 우가키 참모장의 대항군 운용 간섭 등의 공정하고 냉철한 도상연습을 방해하는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결국 이 도상연습의 결과는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구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⁷⁴⁾

미드웨이에서의 결전을 위한 출항 직전인 5월 25일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일본제국해군의 도상연습에서 역시 연합함대의 미드웨이 작전계획의 근본적 결함이 드러났다. <그림 5>와 같이 대항군이 미국의 항공모함이 진주만-미드웨이 축선 남쪽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일본제국해군의 항공모함은 1척이 침몰하고 2척이 큰 손상을 입은 것이다. 야마모토 연합함대 사령장관 역시 나구모를 비롯한 1항공함대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물어보았지만, “조종사들의 숙련도가 낮은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함대가 예상치 못한 곳에도 나타나더라도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 섞인 답변만 돌아왔다.⁷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함대의 미드웨이 작전계획은 그 어떤 수정·보완이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일본제국해군은 ‘칭(稱)’에서도 승리의 균형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계기도 마련하지 못했다.

74) 파설 (2019), 117-118쪽.

75)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1971), pp. 117-118; 파설 (2019), 126쪽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음.

〈그림 5〉 1942년 5월 25일 일본제국해군의 미드웨이 작전 마지막 도상연습도



* 출처: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1971), p. 117; 파셜 (2019), 127쪽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였음.

일본제국해군이 점차 ‘패배의 균형’으로 걸어들어가는 와중에도 미국해군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수한 정보 능력에 따라 미드웨이로 태평양함대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뿐만 아니라 니미츠 사령관의 미드웨이 작전 수행을 위한 함대 배치도 매우 훌륭했다. 플레처(Frank J. Fletcher) 제독과 스프루언스(Raymond A. Spruance) 제독이 지휘하는 제17기동함대와 제16기동함대를 미드웨이 북동쪽으로 360해리(약 670km) 떨어진

구역에서 상봉하여, 일본제국해군의 주력 항공함대의 측면 기습을 노리고 있었다. 또한, 미드웨이 근해로 접근하는 일본 연합함대의 동태를 감시하고, 고가치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잠수함 12척이 미드웨이 주변 해역에 전개되어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⁷⁶⁾

실제 초계 임무에 참가했던 미국해군의 잠수함 노틸러스함(USS Nautilus, SS-168)은 일본제국해군 연합함대 제1항공함대의 한복판에서 대잠수함 작전 수행을 강요했고, 항공함대의 기동을 방해했다. 당시 제1항공함대 호위대 소속 아라시함(嵐)은 노틸러스함을 함대 외곽으로 구축(驅逐)하기 위해 고속기동하 다량의 폭뢰공격을 실시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9시 40분, 노틸러스함을 1항공함대 외곽으로 구축하는 데 성공한 아라시함은 함대로 복귀를 시작했고, 15분 후인 9시 55분경 미국해군 제 16기동부대 엔터프라이즈함에서 출격한 매클러스키(C. Wade McClusky, Jr.) 비행대가 아라시함의 항적을 쫓아 10시 2분경 제1항공함대의 정규항모를 발견을 함대로 보고한다.⁷⁷⁾ 이는 일본제국해군 항공모함 3척이 거의 동시에 격침되는 ‘운명의 5분’으로 이어지는 도화선(導火線)이 된다. 이처럼 일본제국해군의 선견부대가 미드웨이 작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에 비해 노틸러스함을 비롯한 미국해군의 잠수함 부대는 적시 적소에 배치되어 미드웨이 작전의 전승(戰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비록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미국해군 역시 체계적인 도상연습(稱)을 시행하지는 못했지만, 상대방의 전장을 정확히 간파(地)한 이후, 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작전 구상(度)과 총가용병력(量) 보충을 위한 각고의 노력, 적시 적소에 전력을 집

76) 해군대학 편 (1998), 305-306쪽; 파셜 (2019), 164쪽.

77) 파셜 (2019), 312; 323쪽.

중적으로 배치(數)한 것들이 종합되어 결국 전력의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의 균형’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3장과 제4장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전장의 선택과 방법의 다섯 단계를 통해 바라본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구 분	일본제국해군	비교	미국해군
지 (地)	비상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따른 지나치게 광활한 전장 선택	<	정확한 정보 판단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핵심목표 전장 파악
도 (度)	최초 작전목표와 불일치하는 복잡하고 방대한 작전계획 구상	<	미드웨이 중심의 집중적 작전계획 구상
양 (量)	총 가용전력의 우세, But 절대적 양적우세 유지 노력 미흡	≥	총 가용전력의 열세, But 양적 열세 상쇄 노력 지속
수 (數)	복잡하고 방대한 작전계획에 따른 ‘약이수칭일(若以銖稱鎰)’ 직면	<	집중적 작전계획 구상을 토대로 ‘약이일칭수(若以鎰稱銖)’ 달성
칭 (稱)	형식적인 도상연습 실시로 작전계획의 근본적 문제 해결 불가	=	물리적,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도상연습 실시 불가
결 론	패병, 선전이후구승 (敗兵, 先戰以後求勝)	≤	승병, 선승이후구전 (勝兵, 先勝以後求戰)

5. 결 론

영국의 저명한 전쟁사학자 키건(John Keegan)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투에서 ‘전략적, 전술

적, 물질적, 기술적'인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 수행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유일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키건은 전쟁사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연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⁷⁸⁾

이러한 키건의 주장은 물질적, 기술적 요소가 지배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해전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해전의 역사를 다룰 때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은 '어떤 우수한 플랫폼(platform)'을 가지고 싸웠냐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상 최후의 전함 간 함대 결전을 떠올릴 때 우리는 영국과 독일의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웅장한 위용과 거대한 함포를 먼저 떠올리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전쟁의 해전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미국과 일본제국의 '항공모함, 함상전투기'가 그려지며, '통상과괴전(commerce raiding)' 중심의 대서양 전투는 그 무엇보다도 독일의 유보트(U-Boat, 잠수함)가 가장 먼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이다. 이는 해전이라는 전쟁 또는 전투의 양상 자체가 인간과 인간이 직접 맞붙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무기체계를 탑재한 플랫폼들이 맞붙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전의 주역인 그 플랫폼 역시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전략과 작전술, 전술을 통해 움직인다. 그러므로 해전사 연구도 다른 전쟁사 연구와 마찬가지로 플랫폼만을 논하기 보다는 '인간의 영역'인 전략, 작전술, 전술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⁷⁹⁾

이번 연구는 전쟁이론, 군사사상의 대표적 고전 『손자병법』 제4편 군형(軍形)에 제시된 선승이후구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역사상 극적 반전을 이뤄낸 해전으로 손꼽히는 일본제국해군과 미

78) 존 키건, 정병선 역, 『전쟁의 얼굴』 (고양: 도서출판 지호, 2005), pp. 358-359.

79) 파셜 (2019), 132쪽.

국해군의 미드웨이·알류산 전역을 바라봤다. 그중에서도 특히 균형편의 ‘지생도(地生度), 도생량(度生量), 양생수(量生數), 수생칭(數生稱), 칭생승(稱生勝)’ 구절에서 제시된 ‘전장의 선택(地)’과 ‘병법의 다섯 단계(度量數稱勝)’의 틀로 진주만 기습 이후 미국해군과 일본제국해군 양측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향후 전장을 선택 및 추론해냈고, 이에 따라 양측이 어떠한 전역(작전) 구상을 수립했으며, 총 가용병력과 전역의 각 요소별로 투입되는 병력을 어떻게 결정하고, 이를 통해 피아간 전투수행 과정을 예상해나가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 연구는 대다수의 전쟁사, 전투사 연구와는 다르게 전투의 국면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대로 추적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선승이후구전에 이르는 5가지의 개념적 틀을 가지고 바라본 것이다. 이를 통해 1941년 12월 진주만 기습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제국해군이 승리의 기세와 전력의 양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미국해군에게 패배하였는가를 선승이후구전의 관점에서 살펴봤고, 그 결과 일본제국해군은 미드웨이·알류산 전역 수립 단계에서 상대적 유리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이미 싸워보기도 전에 패배의 균형으로 가는 길로 접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반면에 미국해군은 1942년 5월까지 태평양 전 지역에서 불리한 전황(戰況)을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조금씩 일본제국해군이 가졌던 상대적 유리함을 상쇄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1942년 6월 4일에는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균형을 만들 수 있었으며, 다양한 우연적 요소의 도움을 받으며 태평양전쟁의 전세(戰勢)를 급격히 되돌려 놓을 수 있었다. 니미츠가 태평양함대의 지휘권을 잡은 이후 미국해군은 일본제국해군이 원하는 전장을 정확히 간파하고, 집중의 원칙에 따른 효율적 작전계획 구상, 양적 열세

만회를 위한 피나는 노력을 통해 진주만 기습 이후 처음으로 ‘먼저 싸워놓고 이기는 전투’를 수행할 수 있었다.

과거의 역사, 특히 전쟁사에 관한 연구는 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므로 그 유용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는 한다. 또한, 혹자들은 전쟁이론의 고전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On War)』과 손자의 『손자병법』에 관한 연구 역시 최첨단의 기술과 무기체계가 등장하는 현대전에는 더 이상 무용(無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결국 그 최첨단 기술과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주체는 바로 인간이며, 인간의 역사 속에는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 시대를 뛰어넘는 불변의 진리가 존재한다. 더 심한 혹자는 전쟁사에 대한 연구나 고전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가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를 마주치면 항상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본다. 우리의 지난 과거와 역사 속에 그리고 선현(先賢)들의 지혜 속에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첨단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우리는 전쟁의 역사와 고전의 진리를 탐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 시대를 초월하는 역사적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이번 연구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조금 더 다양한 1차 사료를 활용하지 못한 점은 추후 지속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다. 그리고 이 연구는 미드웨이 해전이 발발하기 이전의 시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미드웨이 해전 전투 국면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했다. 역사학적 방법인 전투사 연구나 또는 이 연구의 방법과 유사하게 불후의

군사사상 고전에 나오는 개념적 틀을 토대로 미드웨이 해전을 보다 세밀히 들여다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전쟁사 연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전쟁, 그리고 전략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미국군의 태평양전쟁 전략의 교훈을 가지고 현대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개념을 바라본 연구는 매우 흥미로웠다.⁸⁰⁾



80) Patrick Naughton, “The Pacific Strategy in World War II: Lessons for China’s Antiaccess/Area Denial Perimeter,” *Naval History Magazine*, Vol. 36, No. 3 (June, 2022). <https://www.usni.org/magazines/naval-history-magazine/2022/june/pacific-strategy-world-war-ii-lessons-chinas> (접속날짜 2022년 6월 9일).

〈참고문헌〉

1. 국내자료

군사학연구회 편, 『군사학 연구방법론』. 성남: 북코리아, 2017.

김덕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다시 본 영화 「미드웨이」가 한 국군에 주는 전략적 함의.” 『KIMS Periscope』 제187호. 2020년 3월 11일.

김영기, “해군 작전보안 활성화 방안.” 『해양전략』 제46호, 1987.

김진찬, 김은영, “손자병법 주요 구절 선별과 군사적 활용.” 『군사 연구』 제142집, 2016.

<https://doi.org/10.17934/jmhs..142.201612.241>

문두식, “미드웨이 해전: 통신첩보전의 승리.” 『군사논단』 제80호, 2014.

박동철, 정주호, “손자병법에 나타는 정보의 중요성에 근거한 이순신의 정보전 수행에 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 논집』 제18권 제2호, 2021.

서영식, “동서양 인문고전에 등장하는 군사지도자상에 관한 연구: 플라톤의 『국가』와 손자의 『손자병법』을 중심으로.” 『군사』 제112호, 2019.

<https://doi.org/10.17934/10.29212/mh.2019..112.207>

손무, 박창희 해설, 『손자병법: 군사전략 관점에서 본 손자의 군사사상』.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7.

손자, 김광수 해설, 『손자병법』. 서울: 책세상, 1999.

송용호, 전명용, “손자병법의 전략과 그 현대적 응용에 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73집, 2018.

<https://doi.org/10.16880/SEC.2018.73.09.249>

스티븐스, 윌리엄 O, 앨런 웨스트콧, 김일상 역, 『세계해전사 (A History of Sea Power)』. 서울: 연경문화사, 1979.

이도연, “미국 본토 공격 막아낸 결정적 승리… 영화 ‘미드웨이’” 『연합뉴스』. 2019년 12월 23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2045700005>.

(접속날짜 2022년 6월 6일).

이용응, 김경률, “군사기획이 해전승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쓰시마 해전과 미드웨이 해전을 중심으로.” 『해양전략』 제137호, 2007.

<http://uci.or.kr/G901:A-0002471802@N2M>

이종호, “태평양전쟁 시기(1941-1945) 美·日의 군사전략 변화 비교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82호, 2017.

_____, 김연준. “북한의 WMD 위협 극복을 위한 인간정보 운용방안: 손자병법 ‘용간편’ 현대적 적용을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19권 제1호.

이준일, “손자의 군사사상으로 본 미드웨이 해전 시 미국의 승리 요인 분석: 손자의 ‘세(勢)’ 사상을 중심으로.” 『KIMS E-Journal』 통권 1호, 2020.

윤혁민, “마한(Alfred T. Mahan)의 해양 전략 적용을 통한 태평양 해전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전명용, “『손자병법』 이론체계 연구.” 『중국학연구』 제76집, 2016.

<http://uci.or.kr/G704-000529.2016..76.006>

클리어, 폴. 알라스테어 핀란. 마크 J. 그로브. 필립 D. 그로브. 러셀 A. 하트. 스티븐 A. 하트. 로빈 하버스. 데이비드 호너. 제프리 주크스. 강민수 역. 2008. 『제2차 세계대전: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서울: 플래닛미디어.

- 키건, 존, 정병선 역, 『전쟁의 얼굴』. 고양: 도서출판 지호, 2005.
- 키건, 존, 류한수 역, 『2차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2007.
- 파설, 조너선, 앤서니 텔리, 이승훈 역, 『미드웨이 해전: 태평양 전쟁을 결정지은 전투의 진실』. 서울: 일조각, 2019.
- 힐리, 마크, 김홍래 역, 『미드웨이 1942: 세계사의 균형추를 움직인 사상 최대의 해전』. 서울: 플래닛미디어, 2008.
- 해군대학 편, 『세계해전사』. 대전: 해군대학, 1998.
- 해리스, 브레이턴, 김홍래 역, 『니미츠: 별들을 이끈 최고의 리더』.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2.

2. 국외자료

- Agawa, Hiroyuki. translated by John Bester, 2000. The Reluctant Admiral: Yamamoto and the Imperial Navy.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2000.
- Barde, Robert E. “The Battle of Midway: A Study in Command.” Ph.D. Thesis, University of Maryland, 1971.
- Commander in Chief, U.S. Pacific Fleet. “Operation Plan No. 29-42.” May 27, 1942. <http://www.midway42.org/Features/op-plan29-42.pdf>. (접속날짜 2022년 6월 9일)
- Evans, David C. Mark R. Peattie. Kaigun: Strategy, Tactics and Technology in the Imperial Japanese Navy, 1887-1941.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2012.
- Fuchida, Mitsuo. Masatake Okumiya. Midway, The Battle that Doomed Japan: the Japanese Navy’s Story.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1955.

- Goldstein, Donald. Katherine Dillon. The Pearl Harbor Papers. Dulles: Brassey's, 1993.
- Japanese Monograph No. 88. "Aleutian Naval Operations, March 1942-February 1943." Washington, D.C.: Department of Army 1947. <https://pacificwararchive.wordpress.com/2019/01/27/japanese-monographs/>. (접속날짜 2022년 6월 8일).
- Japanese Monograph No. 93. "Midway Operations, May-June 1942." Washington, D.C.: Department of Army 1947, <https://pacificwararchive.wordpress.com/2019/01/27/japanese-monographs/>. (접속날짜 2022년 6월 8일).
- Layton, Edwin T. Roger Pineau. John Costello. And I Was There. New York: William Morrow, 1985
- Lord, Walter. Incredible Victory. New York: Harper Collins, 1967.
- Lundstrom, John. The First South Pacific Campaign: Pacific Fleet Strategy/December 1941-June 1942.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1976.
- Morrison, Samuel 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ume 4: Coral Sea, Midway, and Submarine Operations, May 1942-August 1942.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2010.
- Naughton, Patrick. "The Pacific Strategy in World War II: Lessons for China's Antiaccess/Area Denial Perimeter." Naval History Magazine. Vol. 36. No. 3. June, 2022. <https://www.usni.org/magazines/naval-history-magazine/2022/june/pacific-strategy-world-war-ii-lessons-chinas>. (접속날짜 2022년 6월 9일).

Parshall, Jonathan. “Timeless Battle, Evolving Interpretations.” *Naval History Magazine*. Vol. 36. No. 3. June, 2022.

<https://www.usni.org/magazines/naval-history-magazine/2022/june/time-less-battle-evolving-interpretations>. (접속 날짜 2022년 6월 7일).

Prange, Gordon W. Donald Goldstein. Katherine Dillon. *Miracle at Midway*. New York: McGraw-Hill, 1982.

Stephan, John. *Hawaii under the Rising Su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4.

Stille, Mark E. *The Imperial Japanese Navy In the Pacific War*. Oxford: Osprey Publishing, 2013.

The Campaigns of MacArthur in the Pacific (Report). Reports of General MacArthur. Vol. I (Facsimile Reprint ed.). United State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USACMH), 1994 [1966]. <https://history.army.mil/books/wwii/MacArthur%20Reports/MacArthur%20V1/ch03.htm#b3> (접속날짜 2022년 6월 8일).

Ugaki, Matome, translated by Masataka Chihaya. Donald Goldstein. Katherine V. Dillon. *Fading Victory: The Diary of Admiral Matome Ugaki, 1941-45*.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2008.

Willmott, Hedley P. *Empires in the Balance: Japanese and Allied Pacific Strategies to April 1942*.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1982.

Willmott, Hedley P. *The Barrier and Javelin: Japanese and Allied Pacific Strategies, February to June 1942*. Annapolis: U.S. Naval Institute Press, 1982.

(Abstract)

Re-illumination of Midway and Aleutian campaign plan
through ‘A victorious army wins its victories before seeking
battle(先勝以後求戰)’

– Focusing on ‘Measurement of space(地)’ and ‘Five Stages of
Military Strategy(度量數稱勝)’ in Sun Tzu’s The Art of War –

Kim, Dong-eun

This paper started with the question of why the Imperial Japanese Navy, which had taken the lead in the Pacific War with superior momentum and overwhelming power after the attack on Pearl Harbor in December 1941, was defeated in the Battle of Midway in June 1942, just six months later.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this paper raised the question, "How did the U.S. Navy and Imperial Japanese Navy try to create a victorious military sentence during the six-month period from the attack on Pearl Harbor to the Midway and Aleutian campaigns?"

In order to analyze this research question, through the concept of ‘a victorious army wins its victories before seeking battle(先勝以後求戰)’ presented by Sun Tzu in ‘Disposition’ of The Art of War, a classic of military strategy,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erial Japanese naval forces established Midway and Aleutian after the attack on Pearl Harbor. We will look at the whole process. In particular, using the ‘measurement of space and five stages of military strategy’ as the basis of analysis to achieve the disposition of victory in that a victorious army wins its victories before seeking battle, it was closely examined how the U.S. and Imperial Japan went through the process of creating their respective military typ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ossible to observe that the Imperial Japanese Navy, although it had a relative advantage in the Midway and

Aleutian campaign establishment stages, failed to utilize it properly and entered the path of defeat before it even started fighting.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U.S. Navy continued its unfavorable war situation in the entire Pacific theater until May 1942, little by little, it offset the relative advantage of the Imperial Japanese Navy, ultimately leading to victory on June 4, 1942. U.S. Navy was able to create a disposition of victory with a high probability, and with the help of various contingent factors, they were able to win the Midway and Aleutian campaigns and sharply turn the tide of the Pacific War.

Keywords : Sun Tzu's The Art of War, Disposition(軍形),
A victorious army wins its victories before seeking
battle(先勝以後求戰),
An army destined to defeat fights in the hope of
winning(先戰以後求勝),
measurement of space(地) and five stages of military
strategy(度量數稱勝),
Midway and Aleutian campaigns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 283-294
<https://doi.org/10.29212/mh.2022..125.28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6분법에 의한 이순신의 군사사상 고찰

- 김유석 지음, 『군사사상 총론』 (황금알, 2022) -

배일수*

이 글은 전쟁기념관에 재직 중인 김유석 박사가 2022년 6월 황금알을 통해 출간한 『군사사상 총론』에 대한 서평이다. 필자는 『군사사상 총론』에서 새롭게 정립한 군사사상과 연계하여 이순신의 행적과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군사사상과 군사사상의 범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도하듯이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총력전을 요구하면서 세계질서와 경제 등 모든 분야가 이 전쟁에 영향을 받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몸살을 앓았고 지금도 진행

* 육군대학 전략학처 교수

중이다. 감염병, 사이버 테러, 기후변화 등 소리 없는 안보이슈가 국가안보와 세계안보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라마다 국가안보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있다. 김유석의 『군사사상 총론』은 이러한 차원에서 그간의 군사사상이 전통적 안보에 기반하여 전쟁 중심의 군사 분야에 한정되어 발전하였다면 이제는 비군사적 분야, 전쟁 이외의 분야까지 포괄하여 정립해야 한다는 신개념 발전에 주춧돌을 놓았다.

종래의 군사사상 정의는 군사 활동이나 군사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나 관점을 말하는 군사(軍事, Military)와 사상(思想, Thought)의 합성어로 여겼다. 여기서 군사는 군대·군비·전쟁 등 군무에 관한 일을 말하며, 사상은 사고작용의 결과로 얻어진 체계적인 의식 내용을 말한다. 군사라는 용어에는 기능적 요소와 목적적 요소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기능적 요소란 정치·외교·경제와 같이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국가 고유의 무력적(武力的) 활동을 말하며, 군대의 관리와 운용을 통해서 그 소임을 다하게 된다. 목적적 요소란 여타의 국가 기능과 달리 무력이라는 수단에 의해 최종적인 정치 목적을 달성하거나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국가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되므로, 국가가 예상하는 전쟁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요망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폭력이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은 ‘경험에 기초한 현상에 대한 사유와 분석이란 사고 과정을 통해 도출한 것으로서 인간 생활을 이끌어가는 사고의 내용’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결국 사상이란 신체적 활동이나 그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인간 현상과는 구분되는 ‘정신적 활동 내지 그 결과’에 해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이나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유리(遊離)된 추상적인 이론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이론과 실천을 이어주는 ‘매개체 또는 결합으로서, 말하자면 ‘이론적 실천’ 또는 ‘실천적 이론’의 성격을 지닌 인간 활동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성을 갖추지 않은 단순한 충동이나 우연적·조건반사적 주장이나 견해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고립되고 특정한 전문이론의 의미 영역 속에서 당대의 개인적·사회적 인간 생활과는 동떨어진 채 고도의 정합성을 이룬 추상적인 학설이 있다면 그런 것 또한 사상의 중심주체가 될 수 없다. 즉, 사상은 체계화된 이론이 행동으로 나타났거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체계적인 생각을 말한다. 육군본부의 군사사상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및 장차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어떠한 전쟁 의지와 신념으로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발발 시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군사력을 운용하는 개념적 사고체계’로 말하고 있다. 어떤 연구가는 ‘한 나라의 군사적 실체나 군사 조직의 행동, 혹은 군사이론·전략 등 군사전문가에 의한 군사이론이나 담론 등에 관류하는 무형적 가치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이론적 체계나 사상적 틀을 갖추지는 않더라도 모든 군사행동에는 나름대로 군사사상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사상’이라는 측면이 전쟁수행과 분리되어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결국 군사력 건설에 대한 이성적 근거와 군사력 운용에 대한 윤리적 정당성 및 군사력 사용 방법에 대한 통일된 판단체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군사사상 총론』에서는 광의의 군사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군사사상을 정의하였다. 정의 내용은 “군사사상이란 군사전문가나 여러 사람 또는 특정 조직이나 국가에 의해 전쟁과 전쟁 이외의 군사 문제 전반(全般)을 대상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고와 분석을 통해 미래에 군사 분야에 대한 방향을 일정한 원리와 통일성을 갖고 정립한 군사에 대한 사고작용의 내용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군사사상의 범주는 그 정의로부터 찾아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 김유석은 군사사상 정의를 바탕으로 군사사상 범주를 6가지로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였다. 첫째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해, 둘째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平時養兵], 셋째 군사력을 운용하여 전쟁수행[戰時用兵], 넷째 평시 국가안보 지원, 다섯째, 평시 국가정책 지원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운용, 여섯째 평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관리 및 군 운영으로 구분된다. 이전 연구가의 군사사상 범주 구분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전쟁관, 전쟁수행 의지 및 신념’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군사력 운용’과 ‘군사력 건설’로 3분법을 사용하였다면 김유석은 광의의 군사사상 정의를 바탕으로 6분법으로 군사사상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평(評)하고자 하는 책은 기존 군사사상의 정의를 새롭게 정립하면서 정의에 부합되게 확장된 6개 범주를 분석적으로 범주별로 함의를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손자의 군사사상 분석 예시’를 통해서 새롭게 제시한 『군사사상 총론』이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국가와 개인의 군사사상을 분석하여 도출하는데 유용함을 증명한 10여 년에 걸쳐 연구한 전문 서적이라 할 수 있겠다.

2. 책의 구성과 내용

저자는 이 책의 앞부분은 군사사상에 대한 순수 이론을 다루

고 있으며, 뒷부분은 이런 이론을 갖고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손자의 군사사상을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책의 전체 구성은 3부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부 ‘군사사상 기초이론’ 부분에서는 맨 먼저 제1장에 ‘군사사상을 접할 때 느끼는 몇몇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은 본격적인 군사사상 이론에 들어가기 이전 배경지식을 쌓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군사사상의 정의, 특성, 역할 등과 같은 기본 개념을 정립하였다. 군사사상의 정의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군사사상 정의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에 이를 어떻게 보완하였는지를 제시했다. 또한 군사사상의 특성을 일반적인 사상의 특성과 군사사상만이 갖는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군사사상의 역할을 분야별로 나누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제3장은 군사사상의 범주를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정립된 군사사상의 범주는 무엇이고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한 다음 기존에 있던 범주와 새롭게 선정한 것을 포함하여 분석적으로 총 6가지 범주별로 기본적인 접근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세부 내용을 설명한 다음 군사사상에서 각각의 범주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2부는 ‘군사사상 정립 및 분석이론’으로 군사사상 분석 방법론과 정립 방법론을 다루었다. 군사사상 분석 방법과 정립 방법에 대해 각각의 의미와 목적, 절차와 유의 사항 또는 영향요소를 제시하였다. 군사사상 이론은 군사사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지만, 군사사상을 정립하는 데 활용할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다. 군사사상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나 개인의 군사사상을 정립하여 실제 국가안보 전략과 군사전략에 활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제3부는 ‘손자의 군사사상 분석 예시’는 앞의 제1부와 제2부에서 제시한 이론을 토대로 군사사상 범주별 손자의 군사사상을 분석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예시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각각의 군사사상 기초이론과 분석 및 정립 방법론을 좀 더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기술하였다.

3. 군사사상 분석과 정립

군사사상 분석은 국가나 개인 등이 정립한 군사사상에 대해 군사사상 이론을 기초로 분석하는 것이다. 군사사상을 대표할 만한 내용이나 주장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것이다. 군사사상을 분석하는 목적은 첫째, 군사사상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응용하기 위한 밑바탕을 다지기 위함이다. 둘째, 전쟁이나 군사 분야에 대한 지혜나 혜안을 간접 경험하고 이를 기초로 군사 분야에 대한 지혜나 혜안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셋째, 정립한 군사사상이 적절한지 또는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식별하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군사사상 정립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넷째, 군사사상의 범주별로 연계된 군사 이외의 분야들이 적절하게 국가안보 분야의 일부로서 연계되거나 협조 또는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섯째, 군사사상을 정립하거나 군사 분야와 정책이나 전략 등을 수립할 때 다른 군사사상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참고하거나 활용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군사사상을 정립하거나 군사 분야와 관련하여 정책이나 군사전략 등을 기획 또는 계획하고자 할 경우에 손자의 군사사상, 미국의 군사사상,

북한의 군사사상, 이순신²⁾의 군사사상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거나 이를 참고하여 활용하면, 적절한 결과를 얻거나 창의적인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사상을 분석하는 절차는 우선 군사사상의 범주별로 분석하여 해당 군사사상의 범주별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도출하는 것이다. 다음은 범주별로 분석한 것을 종합하여 대표적인 군사사상 내용을 도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당 군사사상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사상을 분석할 시 몇 가지 오류와 제한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다분히 추상적인 군사사상을 분석하다 보니, 정량적 분석의 제한으로 객관화의 한계, 대관 없이 부분이나 세찰에 집착하는 오류, 의도에 따라 임의 또는 자의로 분석하는 오류, 범주화 또는 단순화를 위해 무리하게 끼워 맞추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군사사상의 정립은 국가의 군사사상을 정립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개인의 군사사상을 정립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국가의 경우를 보면 국가란 일정한 지역의 사람이 그들의 공동체적 필요를 위하여 창설한 것으로, 내외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 이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대표나 특정 집단 또는 관련자들이 주축이 되어 계획적으로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갖고 일정하게 체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다하는 군도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갖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그래서 군이 군사사상 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개인이 군사사상을 정립하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의 일생 동안 생각이나 누적되고 사고의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 내용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2) 이하 존칭과 계급, 직책을 모두 생략하고 ‘이순신’으로 약칭함.

과정에서 표출된다. 이러한 국가든 개인이든 군사사상을 정립하는 목적은 군사사상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국방정책으로부터 군사전략, 평시 국가안보 지원, 평시 군사력 관리 및 운영, 군사 이외의 정치·외교·경제·과학기술·문화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군사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군사 및 비군사적 안보 위협, 전쟁 및 전쟁 이외의 분야와 관련하여 군에 대한 국민과 정치요구, 전통 군사사상 및 역사, 외국의 군사사상, 지정학적 요인, 경제력과 산업기술·생산능력, 기타 시대적인 요구사항 등이다. 이러한 영향요소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개인별로 영향요소가 다를 수 있다.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분석에 있어서 주된 영향요소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 지정학적 요인, 조선의 국방정책과 경제 능력, 국민의 저항정신, 일본의 군사전략 등이 영향을 미쳤다.

4. 6분법에 의한 이순신의 군사사상 분석

김유석의 『군사사상 총론』 제3부에서 제시한 ‘손자의 군사사상’ 분석 결과를 표본으로 하여 이순신의 행적과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고찰하여 제시하였다. 필자도 군사사상 6대 범주를 바탕으로 『군사사상 총론』에서 제시한 군사사상 분석방법론을 토대로 이순신의 사상을 범주별로 분석하고 범주별 핵심사상을 압축하여 절차대로 도출해 보았다.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분석에 있어서 주된 영향요소는 일본의 군사적 위협, 지정학적 요인, 조선의 국방정책과 경제 능력, 국

민의 저항정신, 일본의 군사전략 등이 영향을 미쳤다. 첫 번째 범주인 전쟁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는 만전사상(萬全思想), 속승사상(速勝思想), 제승사상(制勝思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쟁에 대한 수행 신념은 이순신의 군사적 천재성에서 엿볼 수 있었다. 전쟁 성격과 수행 양상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총력전 사상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전쟁에 대비한 군사력 건설은 양적 확충 못지않게 질적 확충이 중요하고, 유형전력 못지않게 무형전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소신있게 전쟁 준비를 하였다. 군사훈련에도 창의적인 방법과 용병술을 이용하여 반복 훈련을 한 다음에 실전에 투입하였다. 특히, 이순신은 창의적 군사혁신 마인드를 가지고 거북선과 같은 신무기를 전력화하였다.

세 번째 범주인 전시 군사력으로 전쟁수 측면에서 보면, 이순신은 13척의 전함으로 일본 수군 130여 척의 전함을 수장시키는 리더십과 탁월한 군사력 운용으로 전쟁을 종결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육지와 해상에서 협공하는 일본군을 해상에서 결정적 전투를 하여 적의 해상수송로를 차단하고 일본군의 전략적 목표인 전라도 점령을 좌절시켰다. 전술적 차원에서는 학인진법 등을 형세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켜 어린진형에서 학익진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합분산의 조합을 가미한 팔진기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 범주인, 평시 국가안보 지원 차원에서 이순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전장에서 발휘하여 피란민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는 대민사상과 애민정신을 엿볼 수 있다.

다섯 번째 범주인 국가정책 지원 수단으로서 군사력 운용으로

이순신은 전사자가 발생 시 시신을 고향으로 보내고, 미망인과 가족에게 구휼조치를 시행한 것은 국가의 보훈정책을 군사지휘관이 전투현장에서 구현한 사례이다.

여섯 번째 범주인 평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사력 관리 및 운용으로 이순신은 평시에 형성된 대군 신뢰로 전시에 민간어선과 민간인을 활용하여 군사작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평시 군령집행은 엄격하게 하여 군사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엄격함도 엿볼 수 있었다.

6분법으로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분석하면서 얻은 결과는 이순신 개인의 군사사상이 국가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순신 개인의 군사사상인 만전사상, 속승사상, 제승사상, 총력전사상, 애민사상, 보훈정신과 더불어 창의적인 전법 구사와 독창적인 무기를 개발로 군사적 승리뿐만 아니라 조선의 국방정책과 나아가 국가안보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도출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상을 다시 압축해 보면 만전, 속승, 제승, 군사혁신, 무형전력은 전장우위로 전쟁 승리를 조성하기 위한 여건조성과 전쟁종결 태세로 ‘총력전으로 강력한 전쟁 여건 조성과 속전속결’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임무형 리더십, 애민사상, 보훈사상은 최고 사령관의 책임감과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존을 최고 덕목으로 생각하는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사상을 견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상 중에서 최종 압축된 핵심사상은 ‘총력전, 속승, 제승, 군사혁신, 임무형 리더십, 애민’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압축된 핵심사상을 중심으로 이순신의 군사사상은 ‘국가 총력전으로 군사혁신과 임무형 지휘를 통한 속전속결전’이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김유석의 『군사사상 총론』에서 제시한 군사사상 6대 범주별로 이순신의 군사사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였다.

5. 이순신의 군사사상과 국방혁신 추진

김유석은 『군사사상 총론』에서 그간 군사사상이 전쟁 분야에 지나치게 한정하여 접근했던 것을 전쟁 이외의 분야와 비군사 분야를 포함하여 군사사상 정의를 새롭게 하고, 군사사상 분석과 정립을 체계화하여 국가 또는 개인의 군사사상을 도출하여 국가전략으로부터 국방정책, 군사전략 및 군사 이외의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냉전 이후 안보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까지 증가하였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사이버, 재난, 테러 등 군사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는 다영역에서 감염병, 사이버, 기후변화 등 신형안보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국방혁신 4.0은 앞으로 국방은 첨단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강한 국방을 건설을 목표로 5대 중점과 16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위협까지 고려하여 다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군사력 건설과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안보전략 범위 내에서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사상 총론』에서 제시한 군사사상 정립과 분석방법을 기초하여 한국의 군사사상을 분석하고 정립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도 의미 있다고 하겠다.

전략문화가 일반적으로 전쟁 및 전략에 관해 한 국가가 갖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명확히 구별되는 신념, 태도, 행동 패턴으로 본다면 이순신의 군사사상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략문화 속에

서 형성된 군사사상이라 할 수 있다. AI 기반 첨단과학기술의 강군 육성 목표로 ‘군사혁신 4.0’ 추진단이 출범하였다.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안보위협, 기술경쟁과 인구절벽 등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최적화된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면면히 이어져 오는 전략문화 속에 우리의 군사사상이 무엇인지 짚어보고 군사전략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까 한다.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 295-310
<https://doi.org/10.29212/mh.2022..125.29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6·25전쟁기 군수 분야 연구의 전환점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상호 지음),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 -

박성진*

이 글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상호)에서 2022년 7월 발간한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에 대한 서평이다. 전쟁에서 군수 지원은 ‘전쟁의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핵심 영역임에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6·25전쟁기 유엔군의 군수지원체제를 정면에서 다룬 국내 최초의 종합적 연구 성과로서 군수분야 연구의 전환점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1. 성숙기에 접어든 6·25전쟁 연구와 3세대 연구자

6·25전쟁(1950~1953)은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우리는 ‘6·25전쟁’ 혹은 ‘한국전쟁’으로,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으로, 중국은 ‘조선전쟁’(朝鮮战争) 혹은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战争)

*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으로, 일본은 ‘조선전쟁’(朝鮮戰爭)으로, 미국은 한국전쟁(Korean War) 혹은 제한전쟁(Limited War)이나 잊힌 전쟁(Forgotten War)으로 부른다. 이러한 다양한 이름과 별칭의 존재는 6·25전쟁을 바라보는 주체에 따라 다양한 세계관과 전쟁관이 반영된 결과이며,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복잡한 국제정치 관계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한국전쟁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연구 성과는 현재까지 대략 1만 여 편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 1990년대에 들어 본격 시작된 6·25전쟁 연구는 그러나 200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는 총론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각론을 파고 들어 심화시키는 뛰어난 후속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¹⁾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논문 제목에 ‘한국전쟁’이 들어간 논문들의 출판 편수를 보여주는 <표 1>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s://www.kci.go.kr>)의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2년 10월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논문 중 제목에 ‘한국전쟁’이 들어간 논문 편수는 총 1,165편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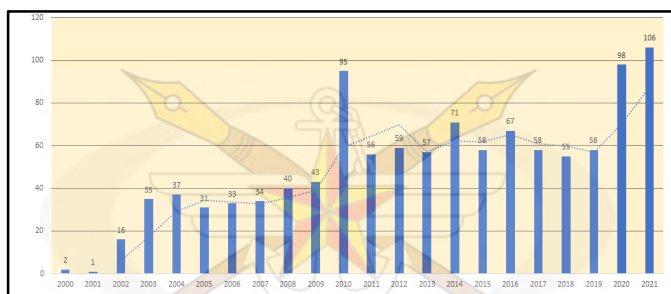
<표 1>에서 제목에 ‘한국전쟁’이 들어간 논문의 편수는 10년 주기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즉, 2010년과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논문 편수를 보여준 것이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7.2편의 논문이 출판된데 반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63.4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이는 2000년대에 비해 2010년대 들어 양적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는 2010년과 2020년이 각각 6·25전쟁

1) 이완범, 「21세기 6·25전쟁 연구동향과 과제」, 『한국현대사 연구의 쟁점』(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2), p. 125.

발발 60주년과 70주년이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회고 반추하는 대규모 학술대회들이 여럿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발표된 성과들이 학술논문으로 이어진 결과였다. 특히 이러한 특정 시기를 기점으로 개최된 대규모 학술대회들은 6·25전쟁에 대한 각종 새로운 연구주제들과 연구자들이 상호 소통하는 무대로 작동하고 이것이 관련 연구로 확대되는 선순환의 중요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표 1〉 ‘한국전쟁’ 관련 연구논문 수(2000-2022)



* 출처: 한국연구재단, www.kci.go.kr(검색일: 2022.10.17.)

특히 주제의 다변화 측면에서 6·25전쟁 연구를 주목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정치사, 군사사 중심으로 주목받았던 연구들에 더해 사회사, 경제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수행된 6·25전쟁 관련 연구 주제로는, 2000년대에는 사회사 및 인류사적 연구 방법을 통해 ‘6·25전쟁이 미친 영향’과 ‘보통사람들의 전쟁 경험’에 대해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고, 2010년대 들어서는 전쟁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최근 들어 6·25전쟁 관련 연구의 흐름은 분석 단위가 국가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친족·가족으로 이동했다가 개인으로까지 이어지며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

여주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적 접근에서 사회적·인류학적 접근으로, 거시적 접근에서 미시적 접근으로, 집단적 이념의 차원에서 개인적 생활의 차원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²⁾

이렇듯 10년 주기를 기점으로 한 논문의 양적 증가 흐름은 국내 학계에 새로운 6·25전쟁 연구자 세대의 등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국내의 6·25전쟁 연구자들을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우선 국내에서 6·25전쟁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김학준, 김철범, 라종일, 신복룡 등의 1세대 연구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6·25전쟁을 직접 체험한 세대로 6·25전쟁 연구가 거의 행해지지 않던 시대에 이를 학문적 대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이들이었다. 이어서 80년대 대학생활을 하며 커밍스(Bruce Cummings)의 『한국전쟁의 기원』(*The Origins of the Korean War*)에 지적 영향을 크게 받은 소위 “커밍스의 아이들”이라 불렸던 박명림, 이완범, 정용욱, 정병준 등의 2세대 연구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1세대 연구자들과의 직접적 연결보다는 일종의 “자율학습”을 통해 한국전쟁 연구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³⁾

〈표 1〉에서 보듯 2000년대 들어 6·25전쟁 관련 연구들의 상당 부분이 이들 2세대 연구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특히 이들 2세대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은 2010년을 기점으로 6·25전쟁에 대한 연구 주도권이 미국 학계에서 국내 학계로 넘어오게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연구들이 많았다.⁴⁾

2) 이완범, 위의 논문, p. 167.

3) 전상인, 『고개숙인 수정주의: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서울: 전통과 현대, 2001), pp. 417-421.

4) 김영미, 「한국전쟁과 마을 연구」, 『중앙사론』 33집(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1.6), p. 325.

그렇다면 2010년대 이후 연구를 주도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기존의 2세대 연구자들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새로운 세대도 함께 등장하는데, 바로 6·25전쟁 3세대 연구자들이다. 2세대 연구자들이 이전 1세대 연구자들과 느슨한 관계를 맺은데 반해 3세대 연구자들은 2세대 연구자들과 ‘사제지간’이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들 3세대 연구자들은 2세대 연구자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동원하여 6·25전쟁 연구의 새로운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3세대 연구자들 중 대표적인 연구자가 바로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를 집필한 이상호이다. 이상호는 2000년 이후 총 13편의 ‘한국전쟁’을 제목으로 한 논문을 출판했는데, 이 수치는 국내 연구자 중 가장 많은 논문 편수에 해당한다. 물론 이 외에도 이상호는 6·25전쟁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로 연구 성과를 발표했는데, 2000년대 초반 ‘맥아더’를 주제로 한 논문들은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이를 현장에서 집행했던 실전부대들, 그리고 소년병에 이르는 주제들로 변화했다. 이는 앞서 거론했듯 6·25전쟁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과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한국전쟁’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한 학술지가 다른 아닌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軍史』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軍史』는 총 52편의 ‘한국전쟁’ 관련 논문을 게재했는데, 그 다음으로 29편을 게재한 학술지가 『사회와 역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학계에서 6·25전쟁 관련 연구의 중심에 『軍史』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전쟁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는 군수

인류가 벌인 수많은 전쟁들에서 군수 문제는 전쟁의 양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 문제로 전쟁에서 패배한 역사적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전세를 뒤바꾼 북아프리카의 엘 알라메인(El Alamein) 전투에서 몽고메리(Sir B. L. Montgomery)의 영국군에 참패한 롬멜(Erwin J. E. Rommel) 장군이 패인의 첫 번째 요인으로 든 것도 보급의 문제였다. 그는 “군대가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첫째 요건으로서는 무기와 연료 그리고 탄약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사격이 개시되기 전에 보급에 의해 결정이 된다.”⁵⁾고 언급하며 당시 독일군이 보급에서 이미 영국군에 패했음을 시인한 바 있었다.

특히 군수는 군인들의 사기 및 전투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이의 극명한 사례들을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볼 수 있다. 2022년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는 군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의 개전 당시 3일치 보급품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장병들에게 보급된 전투식량의 경우, 그 유효기간이 2002년까지로, 20년이 지난 보급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을 정도로 군수품 보급에 심각한 난맥상을 드러냈다.⁶⁾ 그 결과 10월 현재 러시아군은 전

5) 리델 하아트(編), 황규만(譯), 『롬멜戰少錄』(서울: 一潮閣, 1979) p. 438.

세계 군사전문가들 대부분의 당초 예상과는 정반대의 전투력을 보여주며 패배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6·25전쟁기의 군수는 어땠을까? 바로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가 당시 군수 조직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6·25전쟁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우선 총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제1부에서 6·25전쟁의 발발과 유엔군사령부 및 전쟁기 군수지원을 담당했던 실제기구인 부산군수사령부, 일본군수사령부, 제2군수사령부, 제3군수사령부, 한국병참지대의 창설과 운영을 정리했다. 제2부에서는 유엔군 군수지원 실태와 현황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각종 주요 물자별로 정리했으며, 특수물자지원은 각각의 기술병과 부대별로 정리했다.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가 가진 장점은 군수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6·25전쟁기 유엔군의 군수지원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연구들이 한국군 중심으로 혹은 분야별 군수지원 내용만으로 파편적으로 언급되거나 부분적으로 기술되었지만, 이 책은 군수지원체제라는 한 가지 주제에 맞춰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종합 정리하고 있다.

이렇듯 6·25전쟁기 군수에 대해 조직 체제를 중심으로 접근할 경우, 전쟁 국면별·시기별 체제의 변화를 일괄할 수 있기 때문에 군수 지원 전반의 활동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즉 6·25전쟁기에 설립되었던 일본군수사령부, 부산군수사령부, 제3군수사령부, 제2군수사령부, 한국병참지대의 조직 및 운영과 그 특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의 구성 중 특기할만한 부분은 분야별 군수지원 마지막에 웨스트오버(John G. Westover)의 『한국에서의 전투지

6) 정철환, 「20년 지난 전투식량 배급… 제트기엔 구식 무기 장착」, 『조선일보』 2022년 3월 10일자; 박주경, 「우크라이나 전쟁: 군수지원 차원에서 본 시사점과 정책 제언」, 『전략연구』 87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2).

원』(*Combat Support in Korea*)에 실린 구체적 사례들을 실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군수 지원 체제의 실제 사례들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론과 현실을 동시에 제공하여 군수분야에서 6·25전쟁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대로 들려주어 6·25전쟁기 군수지원의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6·25전쟁기 유엔군의 군수지원체제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

	부산군수사령부	일본군수사령부	제2군수사령부	제3군수사령부	한국병참지대
영문명	Pusan Logistical Command	Japan Logical Command	2d Logistical Command	3d Logistical Command	Korean Communications Zone
편제시기	1950.7.11	1950.8.25	1950.9.19	1950.9.19	1952.7.10
해체시기	1950.9.19	1952.10.1	1952.10.16	1953.3.19	1955.6
임무	주한 전투부대에 대한 보급품의 수령·보관·지급	일본에서 미 제8군·공군·해군에 대한 군수지원, 일본 내 항구 등 시설 운용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는 제10군단 지원	북위 37도 이남의 후방 지역에 대한 책임 및 주한 유엔군에 대한 군수지원
소속	제8군 예하 B형 군수부대	극동군사령부 예하	제8군 예하 C형 군수부대	제8군 예하 B형 군수부대	극동군사령부 예하
기타			부산군수사령부 개편	1950.12 제2군수사령부에 흡수 통합	1952.11 제2군수사령부 흡수

3. 6·25전쟁기 군수 지원의 특징

6·25전쟁기 군수 지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국의 군수지원이 굉장히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당시 한국군이 처한 현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모순적인 일이었다. 왜냐하면 6·25전쟁 개전 당시 한국군은 물론 주한미군사고문단도 전쟁에 대비한 군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전쟁을 대비한 군수 지원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음에도 미군의 군수지원이 개전 직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주일미군의 존재 때문이었다. 더불어 당시 북한군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기 위해 보급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쟁의 침략자인 러시아와 북한 모두 수도 키이우와 서울을 3일 내외의 최단 기간에 점령해 전쟁을 끝낸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러시아는 침공 시작 12시간 안에 키이우를 점령하고 72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항복을 예상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개전 직후 9시간 만에 키이우 북부를 점령하기도 했다.⁷⁾ 6·25전쟁에서 북한도 6월 27일 밤 11시 북한군 3사단 9연대가 서울에 입성하여, 개전 3일 만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했고, 곧이어 남한의 항복을 받아낼 계획이었다.⁸⁾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양상은

7) 정윤영, 「우크라 국방 "러軍, 침공 12시간 안에 우크라 점령할 줄 착각"」 (2022.6.16.), <https://www.news1.kr/articles/?4714441>(2022년 10월 20일 검색)

우크라이나와 남한이 수도 사수를 위한 결사항전에 임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었고, 두 전쟁 모두 서방과 미국의 신속한 군수 지원으로 전황이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었다.

군수지원의 측면에서 보자면 6·25전쟁 당시 한국군이 맞닥트린 상황은 오늘날의 우크라이나군보다도 더 열악했다. 당시 한국군은 식량과 피복류 일부를 제외하고는 물자 및 장비, 탄약, 유류 등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전 초기에 군수 지원을 확보하고 그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미국은 6·25전쟁 발발 직후 신속하게 참전했고 군수분야에서도 그 대응이 놀랄 정도로 빨랐다. 개전 10일 간 이루어졌던 미국의 군수지원은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 6·25전쟁 발발 직후 10일 간 미국의 군수분야 대응(6.25-7.4)

시기	내용
6.25	주한미군사고문단, 맥아더사령부에 곡사포, 박격포, 소총, 탄약 등 요청
6.25-6.26	요코하마(横浜) 이케고(池子) 병기창 보관 탄약 1천 6백 톤 및 각종 포를 수송선 키슬리에 적재 작업 진행
6.27	주한미군사고문단장-미8군사령관, 탄약, 로켓포, 철갑탄, 포탄 요청
6.28	미공군 119톤의 각종 탄약과 포 등을 부산으로 수송
7.1	수송선 키슬리, 부산항 도착
7.4	주한미군사령부 예하 부산기지사령부 설치

개전 후 2일째와 3일째에 대규모 탄약과 곡사포 등이 미 공군과 해군에 의해 부산으로 수송되었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미군 10만 명과 군수품 2백만 톤이 한국으로 수송되었다. 군수품 조달을 위해 일본 병기창에 보관되어 있던 각종 탄약과 무기를 한

8)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pp. 639-641.

국으로 수송하는 것 이외에도 수많은 군수품의 긴급 구입이 이루어졌다. 미군이 6·25전쟁 발발 직후 미군 보급을 위해 최초로 구매한 품목은 제8군 통신반에서 요구했던 칼이었다.

당시 미국의 해외 지역에 대한 이러한 신속한 군수 지원은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이는 당시 미 육군 제2사단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50년 7월 8일 본토에 주둔하고 있던 2사단은 한국 파병 명령을 받자, 병력 충원과 장비 보급 및 선적을 거쳐 8월 8일 2사단 제9연대가 북한군과 한국에서 최초로 조우했다. 2사단이 해외 파병 명령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개월 만이었다. 이 사례는 1953년까지의 미육군사에서 완편된 보병 1개 사단이 미 본토 주둔지에서 해외 전선까지 가장 빨리 파병된 사례에 해당했다.⁹⁾

둘째, 6·25전쟁에는 그 이전의 군수 지원이나 보급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혁신적 제도들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적용되었다. 6·25전쟁은 국가총력전으로 전개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변화된 미국의 군사전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는데, 특히 군수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2차 세계대전기 처음 등장한 연합군의 병참지대(Communications Zone) 개념이 처음 적용되었던 곳이 바로 6·25전쟁이었으며, 그 결과가 1952년 7월 창설된 한국병참지대(Korean Communications Zone)였다.

한국병참지대는 한반도에서 북위 37도 이남의 후방지역에 대한 책임과 유엔군에 대한 군수지원 책임을 맡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병참지대가 담당하는 ‘후방’이 가진 의미였다. 여기에는 후방의 치안유지, 전쟁 포로 및 피난민 보호, 한국 정부와의 정치·경제 문제 논의, 주한미대사관과의 연락, 유엔

9) James A. Huston, *The Sinews of War: Army Logistics 1775-1953*(Office of the Chie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1988), pp. 618-620.

한국재건단 및 유엔한국민사지원단의 활동 지원 등의 대단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문제들이 해당하는데, 이들 사안들은 북위 37도 이남 지역에서 전투 이외의 모든 사안을 한국병참지대가 담당했음을 의미한다.

수송 분야에서에서도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모든 군수품들을 규격화된 컨테이너에 통합 수송하는 ‘코넥스’(CONEX, Container Express) 제도가 대표적 사례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군수품 수송에 일정 규격화된 팔레트(pallet)가 사용되었지만 한국전쟁에서 도입된 컨테이너는 이전보다 더 많은 효율성과 수송량을, 더 빠른 시각에 하역할 수 있는 군수품 수송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당시 극동군사령부는 대규모 군수품을 신속하게 운송하기 위해서 동일 규격의 코넥스 박스에 군수품을 싣고 수송선과 육군 표준형 트럭에 수송하는 개념을 1951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험했고 이를 1952년 11월 미국 본토에서 극동지역까지 실제로 수송하는 체제에 적용했다.

셋째, 6·25전쟁기 한국인 노무자들의 활약을 들 수 있다. 우선 미국 본토나 일본에서 부산항까지 수송은 미국이 전담하며 미국의 해상운송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에 하역해서도 열악하기는 했지만 도로나 철도가 개설된 지역까지는 어느 정도 보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산악지역이나 보급선이 끊기거나 차단된 곳까지 군수품을 운반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6·25전쟁기 보급품 수송의 최전선에 있던 이들이 바로 한국인 노무자들이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인 노무자들의 활동에 대해 많지는 않지만 곳곳에서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군수품 수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던 한국인 노무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전방부대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식사는 대대 단위로 준비되며, 지프로 갈 수 있는 곳까지 전방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는 한국인 노무자들이 소총병들이 있는 진지까지 등짐으로 운반한다.”(141쪽)

“한국인 노무자들로 구성된 긴급 선로 복구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선로 상태를 점검케 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밤낮으로 일을 했다. 특수 장비를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능수능란하게 선로를 복구했다. 나는 지금도 그들이 어떻게 선로를 복구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국인 노무자들은 선로 복구에 있어서는 천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국전쟁 내내 철도 운행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216쪽)

공식·비공식 인원을 포함해서 한국인 노무자들은 최대 30만 명 정도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들이 군수지원체제의 최말단에서 활동하며 전쟁을 지원했다. 이들의 활약에 대해 8군 사령관 밴 플리트(J. Van Pleet)도 한국인 노무자들이 “칭송받지 못한 6·25전쟁 영웅들”(unsung heroes of the war)로 전쟁의 궂은일을 도맡아 놀랄만한 힘과 끈기를 보여주었다고 회고한 바 있었다.¹⁰⁾

10) 신복룡, 『한국사에서의 전쟁과 평화』(서울: 도서출판선인, 2021), pp. 642-650.

4. 향후 과제

6·25전쟁 연구는 최근 들어 그 방법과 주제 면에서 다양해지고 연구자 수도 늘어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장해왔다. 이는 무엇보다 6·25전쟁 2세대 연구자들의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의 상당한 노력에 힘입은 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련 학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6·25전쟁 연구를 이끌어온 상당수의 2세대 연구자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고 향후 한국현대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감소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이상호를 비롯한 3세대 연구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시점에서 나온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는 군수 분야에서 6·25전쟁 연구의 전환점으로 삼을만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간 6·25전쟁기 군수분야 연구가 파편적·개별적으로 이어졌다면 『6·25전쟁기 유엔군 군수지원체제』는 기존의 연구를 종합하는 한편 앞으로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6·25전쟁기 군수분야 연구는 당시의 물류시스템 및 이후 냉전체제 하에서의 한국의 군수산업 혹은 군수체제가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과 방법들에 대한 연구로도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서만일은 6·25전쟁기 미군해상수송지원단(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 MSTs)에 대한 연구를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미국의 해운업에게 ‘한국전쟁의 발발은 행운이었다’고 언급하며 냉전 체제에서 MSTs가 한국에 군사·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

이었다고 보았다.¹¹⁾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미국 주도의 군사네트워크에 한국의 군수산업 혹은 체제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도 향후의 주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연구에는 비교사적 연구 및 해외학계에의 긴밀한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다.

둘째, 지역별 혹은 전투별 군수 보급 문제도 앞으로 천착해야 할 주제 중 하나이다. 6·25전쟁기 벌어진 여러 전투나 항구에서 이루어진 군수 지원에 대한 연구는 전쟁사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김윤미가 다룬 6·25전쟁기 부산항 물류시스템 구축 과정에 대한 연구와 다부동 전투에 대한 군수지원 연구를 다룬 조봉휘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윤미는 전쟁 초기 군수품 하역항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부산항이 점차 시설을 갖추어가면서 미군의 해상물류시스템에 편입되었다고 보았다.¹²⁾ 또한 조봉휘는 당시 1만 여 명의 민간인 노무자들이 식량 및 탄약 보급에 동원되어 다부동 전투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¹³⁾ 또한 최근 6·25전쟁 연구의 흐름 중 하나는 지역 차원의 6·25전쟁 연구이다. 순천대학교 인문학술원이 2020년 6월 19일에 개최한 「한국전쟁기 전라도지역과 지역민」 학술대회¹⁴⁾나 『6·25전쟁과 철원』¹⁵⁾ 등도 지역 차원에

11) 서만일, 「한국전쟁시기 미국의 해상운송체계와 상선: 미군해상수송지원단(Military Sea Transportation Service)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3권 1호(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2), p. 50.

12) 김윤미, 「한국전쟁기 유엔군 군수사령부 편성과 부산항: 1950년 해상물류시스템 구축 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70집(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2).

13) 조봉휘, 「6·25전쟁시기 다부동지역에서 한국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5).

14) 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한국전쟁기 조선인민군의 호남지역 점령과정과 여수순천학도병」(임송자), 「한국전쟁과 전남지역 기독교 연구」(윤정란), 「한국전쟁기 전라도 지역의 빨치산 토벌」(노영기), 「한국전쟁기 전라도 지역 민간인학살」(정찬대) 등 4편이었다.

15) 태봉학회·한국군사사학회·철원군, 『6·25전쟁과 철원』(서울: 주류성출판사, 2020).

서 6·25전쟁을 조망하는 연구들이다. 군수와 관련해서는 6·25전쟁기 핵심 항구였던 부산이나 인천의 역할이나 이 지역에서 군수 보급이 미친 영향 등도 주목할 만한 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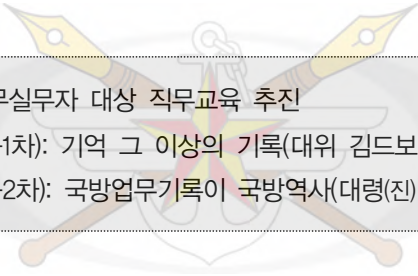
셋째, 앞서 한국인 노무자가 6·25전쟁에서 활약한 것처럼, 직접 전투에 종사하지 않은 개인들의 시각을 통한 6·25전쟁 경험들도 군수분야 연구에 앞으로의 주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군수분야에서 일했던 수많은 노무자들이나 여성 그리고 소년들의 목소리는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전해줄 것이다. 최근 권현익이 출간한 『전쟁과 가족: 가족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도 그간 학계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가족 공동체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전쟁을 조망하는데, 이 연구도 ‘보통사람들의 6·25전쟁 바라보기’라는 연구 흐름의 대표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¹⁶⁾ 현재까지 국내의 6·25전쟁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전보다 발전해왔고, 그 연구주제들도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다. 그러나 점차 국내의 인문사회연구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6·25전쟁 연구는 이상호를 비롯한 3세대 연구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연구주제와 시각을 통해 6·25전쟁의 다양한 모습들이 입체적으로 그려지기를 기대한다.

16) 권현익(저), 정소영(역), 『전쟁과 가족: 가족의 눈으로 본 한국전쟁』(서울: 창비, 2020).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5, pp. 311-318
<https://doi.org/10.29212/mh.2022..125.31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교육소개] 군사(軍史)업무 실무자 대상 직무교육

이미숙*, 김드보라, 홍석조

- 
1. 군사(軍史)업무실무자 대상 직무교육 추진
 2. 소감문(2022-1차): 기억 그 이상의 기록(대위 김드보라)
 3. 소감문(2022-2차): 국방업무기록이 국방역사(대령(진) 홍석조)

1. 군사(軍史)업무실무자 대상 직무교육 추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장 이성춘)는 2021년 ‘군사(軍史)업무 실무자과정’을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으로 신규 편성해 모든 기관(부대)의 부대사 및 정기역사서 작성 담당자 25명 내외를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 정기역사 작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에서 실시

* 군사편찬연구소 국방사부 선임연구원

되는 이 교육에는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해 국직기관(부대), 각 군의 군사(軍史)업무 담당자이자 국방 정기역사 작성 실무자인 군인, 군무원,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국방역사 특히 국방부사(國防部史)와 부대사(部隊史) 작성 관련 실무자과정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21년에 소요를 제기해 신설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에는 전반기 교육만 개최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2년 차인 금년에는 2021년 군사업무실무자 직무교육 경험과 교육생 설문결과를 토대로 교육과목, 교육방법, 강사진 등을 대폭 개선하여 전·후반기 2개 기수를 모두 추진하였다.

2022-1차(전반기)에는 교육과목을 각 기관 역사, 부대사 실무, 부대 상보 및 계보 작성 등으로 세분화하고, 국방부 및 각 군 군사 연구편찬기관에서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강사로 초청하여 교육내용을 실무자들의 요구와 눈높이 맞도록 보완하였다. 교육방법도 통합 강의에서 국방부·합참(국직),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분임별 강의 및 토의식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학습효과를 제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현장견학을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육군군사연구소, 해·공군역사 기록관리단 등 군사업무 실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실습해보는 실무형으로 구성하였다. 총 24명이 수료하였다.

1일 차에는 이성춘 군사편찬연구소장이 [국방역사의 변천과정] 강의를 통해 국방역사를 소개하면서 기초사료 수집과 공정한 역사서 집필이 군사업무 담당자들의 필수임무임을 강조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소명의식을 갖도록 독려했다. 2일 차 오전에는 국방부·합참(국직),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5개 조 분임별로 전문강사들이 [각 기관 역사 및 연구편찬 현황], [부대사 실무], [부대상보/계보 작성]을 강의한 후 토의 및 실습

을 병행했다. 2일 차 오후에는 군 역사편찬 및 기록 기관을 견학했다. 3일 차에는 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 박사와 최정준 박사가 [기록관리와 효율적인 자료수집] 및 [국방 정기역사서 작성 및 절차] 강의를 통해 자료의 생산부터 작성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용한 실무 지식과 경험을 소개했다.

2022-2차(후반기)에는 실무자들의 업무 적합도 및 활용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32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지난 기수에 비해 국방부, 국직기관(부대)의 군사업무실무자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이번부터는 국방 정기역사의 주요 대상기관인 국방부와 국직기관(부대) 군사업무실무자들에 집중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선하였다.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고, 대통령 기록관을 심층 견학하는 등 실무자들의 요구와 눈높이를 정부 차원으로 높였다.

1일 차에는 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 박사가 [국방 정기역사서 작성 절차] 강의를 통해 자료의 생산부터 작성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유용한 작성절차 관련 지식과 요령을 소개했다. 2일 차 오전에는 국가기록원 조이현 기록협력과장이 [현대사와 군대, 군과 기록]을 강의한 후 국방 정기역사서의 작성 실태에 대한 분석토의를 병행했다. 2일 차 오후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여 정부 차원에서 관리되는 대통령의 기록과 역사를 심층 견학했다. 교육 마지막 날인 3일 차 1교시에는 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 박사가 [기록관리와 효율적인 자료수집] 강의를 통해 다년간의 국방역사 집필경험에서 얻은 자료수집 노하우(know-how)를 소개했다. 2~3교시에는 이성춘 군사편찬연구소장이 [국방역사 연구편찬의 중요성] 강의를 통해 기초사료 수집과 공정한 역사서 집필이 군사업무 담당자들의 필수임무임을 강조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

하고 소명의식을 갖도록 독려했다.

군사업무 실무자과정 직무교육은 군사업무 담당자 및 관리자들에게 국방 정기역사 및 부대사 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킴은 물론 창의적인 실무자세를 견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사 연구편찬의 기반체계를 강화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1차 사료 작성의 실무자인 군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문적인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 추진할 예정이다.

〈군사(軍史)업무 실무자 과정〉



2. 소감문(2022-1차) : 기억 그 이상의 기록 (대위 김드보라)

〈국군재정관리단 대위 김드보라〉



나는 지난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주관한 ‘군사(軍史)업무 실무자과정 직무교육’을 다녀왔다.

부대에서 부대사 작성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단순히 문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부대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기에 교육계획을 접하자마자 바로 교육을 신청하여 참여하게 되었다. 교육 1일 차엔 국방역사의 변천 과정 전반에 대한 교육이 진행

되었고, 2일 차엔 군별로 조를 편성하여 전문강사분들이 해당 군의 역사 및 연구편찬 현황과 부대사 실무, 부대 상보 및 계보 작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주셨다. 특별히 2일 차 오후엔 각 군 역사편찬 및 기록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각 군의 역사와 기록관리 방법 등에 대해 살아있는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마지막 날인 3일 차엔 기록관리와 효율적인 자료수집, 국방정기역사서 작성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자료수집에 관한 교육에선 우리가 각종 임무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

는 실질적인 자료수집 노하우와 참고 사이트에 대해서도 알게됨으로써 자료수집의 시각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강사와 전문적인 내용으로 2박 3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이 증진된 것은 물론이지만, 교육을 통해 새로이 마주한 것이 있다면 ‘기록에 대한 자아 성찰’이었다. 이론 및 실무를 통해서 머리엔 ‘기록의 중요성’을 입력하고, 각 군의 기록관리 기관 견학을 통해 눈에는 ‘기록의 실체’를 담아오며 자아 성찰은 극대화되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 얻은 ‘기록의 중요성과 실체’는 내가 어떤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지시켜주는 느낌이었다. 어떤 한 사건을 ‘기억’만 한다면 그 사건은 사적인 일이 되지만, ‘기록’을 한다면 공적인 일이 된다는 것 즉, 기록을 통해 한 사건이 나의 역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됨을 알면서도 망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나름대로 부대사에 대한 책임감과 중요성을 인지하며 부대사를 작성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단지 행정적인 책임감과 중요성이 아니었나 싶다.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역사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부대사를 작성해갔다면 한 해 부대사를 완성했다는 수고보단 기쁨이 더욱 가득했을 것 같다.

그리고 교육은 지식 전달과 역량 증진이 주된 목적이지만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교육은 성찰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을 오랜만에 깨달았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부대사 담당자들이 이 교육에 참석하여 기록의 중요성과 실체를 직접 마주함으로써 부대사가 우리 모두의 역사임을 인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3. 소감문(2022-2차) : 국방업무기록이 국방역사 (대령(진) 홍석조)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대령(진) 홍석조〉



나는 군사업무담당자로서 국방 정기역사 작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2022년 11월 16일부터 18일 까지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에서 군사업무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다녀왔다.

이번 직무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1일 차에는 ‘국방 정기역사서 작성절차’에 대해 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 선임연구원으로부터 군사 역사의 개념과 국방역사서 편찬의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소개받았다. 2일 차에는 ‘현대사와 군대,

軍과 기록’에 대해 국가기록원 조이현 기록협력과장으로부터 軍의 역사 및 기록 등을 소개받았다. 오후에는 ‘대통령기록관 견학’을 통해 역대 대통령들의 모든 기록들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 차에는 ‘기록관리와 효율적인 자료수집’, ‘국방역사의 변천과정’에 대해 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 선임연구원과 이성춘 연구소장님의 강의를 끝으로 직무교육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직무교육을 통해 느낀 점은 첫째, 국방 정기역사서에 대

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기록한 만큼 역사가 된다’는 의미가 평소 나의 업무자세를 되돌아보게 하였다. 내가 수행한 업무 또한 기록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기록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둘째, 국방역사서 편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부대사 작성시 6하 원칙을 준수하는지, 불필요한 형용사나 부사를 과다하게 사용하는지, 가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장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해야겠다. 마지막으로 나에 대한 기록도 소중히 해야겠다. 수 개월간 일기와 5감사도 작성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지금은 수년째 사진으로 남긴 기록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곤 한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나의 역사도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해야겠다.

E.H Carr의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것은 누구에게든 널리 회자 되어온 말이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연필자국이 낫다”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군사업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으며, 이를 통해 자료수집 또한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는 군사업무 실무자뿐만 아니라 초·고급간부 교육과정에도 ‘국방 정기역사 작성 절차’ 과목이 확대되어 개인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

연구소 동정

1. 대외교류 및 주요 활동

- 한미동맹 70년사 1차 워크숍
 - 일자/장소: 2022. 9. 7.(화)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연구소 및 대외전문가 등 10여 명
 - * 박용옥(前 국방부차관), 정경영(한양대), 김영호(국방대), 박태균(서울대), 장삼열 박사, 성다운(국방부 미국정책과)
 - 내용 : 『한미동맹 70년사(가제)의 제목, 집필 방향, 장·절 편성, 분야별 기술내용 토의



〈 한미동맹 70년사 1차 워크숍 〉

○ 2022년 한일 전사 워크숍

- 일자/장소: 2022. 9. 21.(수) / 군사편찬연구소
- 참석: 연구소 및 日本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등 30여 명

시 간	내 용
13:30~14:00	환영 /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개회식
14:00~15:40 (100분)	〈제1부〉 *사회 : 전쟁사부장 김기섭 #1 미일동맹과 NATO의 전략적 연계를 위하여 • 발표 : 고바시 후미유키(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 토론 :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 #2 러시아의 팽창에 대한 나토의 대응 • 발표 :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조사연구부) • 토론 : 고바시 후미유키(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16:00~17:40 (30분)	〈제2부〉 *사회 : 전쟁사부장 김기섭 #3 지휘막료대학의 교육과 밀리터리 프로페셔널리즘 • 발표 : 기노시타 유키히로(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 토론 : 김상규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4 1920~30년대 조선 주둔 일본군의 군사훈련 • 발표 : 김상규 (전쟁사부 선임연구원) • 토론 : 기노시타 유키히로(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
17:50	폐회식



〈 2022년 한일 전사 워크숍 〉

○ 제 58주년 군사편찬연구소 창설기념 행사

- 일자/장소: 2022. 9. 1.(목) / 연구소 회의실
- 참석: 연구소 전원



< 제58주년 군사편찬연구소 창설기념 행사 >

2. 인 사

○ 파 견

- 군사사부 김태현 : '22. 12. 1.부(전직지원교육 입교)

○ 전 출

- 지휘부 장상민 : '22. 12. 1.부(국군의무사령부)

○ 임 용

- 국방사부 강승모 : '22. 9. 1.부

○ 전 입

- 기획운영실 이재훈 : '22. 9. 30.부



신간 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정한위략 • 군사사부 • 신국판(반양장) • 2022. 9. 28.	이 책은 일본 에도막부 말기인 1831년 미토번(水戸藩)의 역사편찬소인 창고관(彰古館)의 편수총재였던 가와구치 조주(川口長儒)가 편찬한 임진왜란 통사서인 『정한위략(征韓偉略)』의 번역서이다. 『정한위략』의 편차는 모두 5권5책으로 시간적으로는 1586년~1598년의 13년간,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전쟁을 구상한 시점에서부터, 전쟁이 종결되는 노량해전에 이르기까지 임진왜란 전체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책은 당시까지 한·중·일 3국에서 발행된 임진왜란 관련 대표적인 저술인 『징비록(懲毖錄)』·『양조평양록(兩朝平壤錄)』·『조선정벌기(朝鮮征伐記)』 등을 비롯하여 약 60종에 달하는 문헌자료를 동원하여 철저한 고증이 돋보이는 저술에 해당한다. 최근 임진왜란은 조·일전쟁의 측면보다는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세계전쟁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임진왜란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이 번역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자료 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자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48-0946, 0947
(군) 900-0946, 0947

〈자료이용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 / 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 인터넷 군사사료관

- 주 소 : Archives.imhc.mil.kr
- 주요내용 : 미 기록물관리청(NARA)의 6·25 전쟁관련 기록,
1970년 이후 연구소 발간물의 원문 제공 서비스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 / 전략 · 군사제도 · 전쟁 / 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 · 외교사 · 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 · 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자료소개, 서평(102호부터 신설, 별도 이메일 접수), 연구동향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게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 82, (2012, 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명시.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음.

바. 참고문헌은 인문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시카고 스타일을 적용

사. 참고문헌 중 전자출판된 학술지 논문은 저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및 발행호수(발행연도) : 페이지수, DOI 또는 UCI 표기

예1 : UC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uci.or.kr /G704-001528.2017..103.010

예2 : DOI 홍길동, “대한민국의 역사”, 『군사』 103호(2017):330-359,
http:// doi.org/10.12345 / mh.2017.105..103.

※ DOI 정보는 해당논문에서 식별할 수 있으나 UCI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연구자식별정보(KCI)에서 식별할 수 있음.

아.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지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하여야 함.

※ 최초 투고시 저자 이름 삭제(파일명 포함), 이후 수정논문 탑재시 저자이름을 포함

나. 군사지투고시스템은 인터넷에서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바로가기로 접속할 수 있으며, 논문과 투고계획서(국문 및 영문초록), 저작물이용동의서,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탑재하여야 함.

1) 투고계획서와 저작물이용동의서의 양식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2)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는 한국연구재단의 KCI의 논문유사도 기능을 활용하여 결과서를 다운받아 제출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 라. 심사가 끝난 후 수정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유사도를 검사결과서,
수정문 요약본과 함께 군사지투고시스템에 탑재
마. 세부사항은 군사지투고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4. 원고 심사 및 고료

-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소정의 격려품
(기념품)을 지급함.

-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연락처

-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0435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85(김태헌)
- FAX : 02-748-1638
- E-mail : imhc2@mnd.go.kr

-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신간안내, 회원모집,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 DB검색 등)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 1.
 부분개정 2009. 11. 1.
 부분개정 2017. 8. 1.
 일부개정 2022. 2.18.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331
제2조(적용대상)	331
제3조(적용범위)	331
제4조(용어의 정의)	331
제5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332

제2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333
제7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334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335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335

제7조의 4 (중복게재)	336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336
제7조의 6 (공동연구)	337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337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337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337
제9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338
제10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338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339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339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339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340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341
제16조(판정)	341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341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42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342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342
부 칙	34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연구 원자료”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2.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3.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4.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지식 재산을 말한다.

제 5 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자 윤리

제 6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대우를 한다.
- ②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한다.
- ③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 ④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한다.
- ⑥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⑦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한다.
- ⑧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한다.

⑨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한다.

제 7 조(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예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연구소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연 1회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⑥ 연구소는 교육부장관 또는 상급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의 2 (연구의 진실성)

-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
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
- ③ 모든 연구자는 모든 연구행위가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 3 (인용방법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
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번안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호수, 페이
지, 출간연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
할 수 있다.
- ③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
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
야 한다.
- ④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고, 공개되
지 아니한 학술 자료의 논문심사나 연구제안서 심사 또는 사적

접촉을 통하여 획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한다.

제7조의 4 (중복게재)

-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가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에 해당한다.
- ② 이미 출간된 논문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들을 위하여 중복게재를 하는 경우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복게재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저자는 학술지의 독자들에게 동일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동일 논문을 서로 다른 학회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되며, 하나의 학술지에 게재여부가 결정된 후에 다른 학술지에 기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조의 5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침해 유의)

- ①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 통상적으로 저작권은 학술지 발행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원저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번역출판은 저작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 6 (공동연구)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연구 착수에 앞서 연구과제의 목표와 기대결과,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수집·저장·공유의 방법, 저자결정과 순위기준, 연구책임자 선정,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조의 7 (저자결정 기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의를 표하는 각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7조의 8 (연구 결과의 사회적 기여) 연구자는 연구를 통해 사회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공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8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10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5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소장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 조사는 소장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위원장)은 연구편찬분야 연구원으로 구성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군사사(軍事史)분야 외부전문가 1인 이상 포함하여 위촉한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 피조사자 ·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본 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 4 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8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출)

- ① 최종보고서는 소장 승인을 득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 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9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질의/응답〉

Q) 학위논문이 심사는 완료되었으나, 아직 출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이때 게재가 될 경우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해당되지는 않는가?

A) 국내·외를 막론하고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학위논문이 최종 인쇄되기 전에 학위논문의 내용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에 투고하면서 출처를 밝혔고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승인하였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이전 저작물에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한 출처를 표시하고 이를 이후 저작물을 출판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최종적으로 게재여부 판단을 받는 것이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8. 7. 17. 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항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청렴이 세상

유능한 안보
본토한 국방

부정청탁의 손길 나라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정형아(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가나다순)

강창부(공군사관학교)	기세찬(국방대학교)
김강식(한국해양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박걸순(충북대학교)	박상철(전남대학교)
박태균(서울대학교)	신명호(부경대학교)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김주용(원광대학교)
윤경진(경상대학교)	이한우(서강대학교)
홍석률(성신여자대학교)	
박종상(군사편찬연구소)	이미숙(군사편찬연구소)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최정준(군사편찬연구소)

📖 편집간사

김태현(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22/12(第125號)

2022년 12월 8일 印刷

2022년 12월 15일 發行

發行處 _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 0435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02-748-1685 FAX : 02-748-1638

印刷處 _ 국방출판지원단 (M22110801)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Military History

Vol. 125. 2022. 12.

- Kang, Ji-hyeon A Study on the Counterattack Operation of Task Force Kean, which defended the Nakdong River during the Korean War
- Lee, Ji-won A Critical Review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National Constabulary's Aviation Unit
- Kim, Min-ho Activities and Roles of Those Who from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in the Korean Armed Forces
- Lim, Hyung-soo Japanese Pirates' Intrusion into the Geum River Basin and the Battle of Jinpo in the Late 14th Century
- Song, Min-seon,
Seok, Yeong-dal Between Solidarity and Laxity in Alliance: The Implications of the History of the 'Five Eyes' Intelligence Alliance
- Kim, Dong-eun Re-illumination of Midway and Aleutian campaign plan through 'A victorious army wins its victories before seeking battle (先勝以後求戰)'
- Focusing on 'Measurement of space(地)' and 'Five Stages of Military Strategy(度量數稱勝)' in Sun Tzu's The Art of War -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MND

